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

≪계승본≫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22장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자

23장 국제반제연량과 연합하여

24장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제22장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자

소할바령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1940년 가을
위증민에 대한 회상

■ 시기 : 1940. 4 ~ 1940. 12

1.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김일성동지

소할바령회의는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며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나갈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채택한 중요한 역사적 회합이었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혁명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조선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안고 있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치신 피타는 노고와 열정의 소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회의의 준비와 그 진행과정을 두고 하신 여러 차례의 교시를 새롭게 되새겨 본다.

홍기하에서 마에다토벌대를 소멸한 다음 우리는 화라즈의 수림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걸어온 노정에 대한 총화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20만리장정총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노정이 20만리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장정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혁명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면 일도 더 많이 하고 험한 길도 더 많이 걸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장정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기본요인은 정치사상적 우월성과 유격전술에 있다, 이것이 20만리 장정의 주되는 총화이다,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하다, 조성된 정황과 지대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격 전술과 전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자,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며 대중정치사업도 강화하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수십만 리를 더 걸을 각오를 가져야 한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나가자, 앞으로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호되게 답새기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소할바령회의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곳

1940년 봄이면 노조에토벌사령부가 인민혁명군에 대한 공세를 종전보다 더 요란스럽게 할 때였습니다. 병력도 더 많이 들이밀고 혁명군을 소멸하기 위한 토벌계획도 이모저모로 더 빈틈없이 세웠습니다.

형세가 이런 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도권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동에 서서 계속 적들을 압도해 왔는데 시국이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주도권만은 앞으로도 계속 틀어쥐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주도권을 쥐자고 했는가. 정신력과 전술을 믿었습니다. 우리 혁명군이 인적 후비나 무장장비에서는 적들보다 열세했지만 정신력이나 전술에서는 그들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문제는 어느쪽이 더 우월한 용병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 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라즈골안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노조에토벌대들은 다 산간지대들에 있었습니다. 혁명군이 드나들만한 길목들에 떡 버티고 서서는 좀처럼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주도권문제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은 정황은 몹시 불리했습니다. 노조에는 동만의 병력으로는 성차지 않아 통화쪽에서도 응원대의 명목으로 병력을 끌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오백룡의 말에 의하면 그 병력이 벌써 연길, 돈화 현경의 양병대쪽에 도착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장백쪽에서도 무슨 공작대라는 명칭을 가진 병력이 새로 증강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역량을 증강하면서 토벌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형편에서 장차 어떤 방법으로 그에 대처해야 하는가.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미명하에 감행된 적의 첫 단계 대토벌은 대부대선회작전의 방법으로 격파했는데 그보다 더 악랄하고 집요한 공세는 무엇으로 파탄시키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이 은을 냈다고 하여 지금에 와서도 그런 방법을 되풀이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전술로 나가겠는가, 동서방의 정세를 보면 독일과 일본이 강행하고 있는 전쟁의 불길이 조만간에 온 세계를 휩쓸게 되고 모든 열강들과 군소국가들이 다 그 불길에 말려들어가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장래를 예견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앞에는 당면한 적의 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책과 함께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확립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였습니다.

나는 우선 홍기하전투 후에 조성된 난국을 이겨내기 위한 전술적 방안을 세워나가면서 새로운 전략적 구상을 무르익히기로 하였습니다.

적들은 그 당시 산간지대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면 분산활동으로 넘어가 야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적들이 성시나 집단부락들은 경찰과 자위단에 맡기고 기본역량을 산간지대에 집중하고 있는 조건에서 배후를 교란시켜 토벌역량을 분산시키는 것만이 승산이 확고한 전술이였습니다.

이런 타산에 기초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1940년 4월 중순 화라즈밀영에서 은밀히 빠져나와 적들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최종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한 싸움의 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먼저 소사하유역에 있는 큰 집단부락들인 동남차와 양초구를 동시에 치고 뒤따르는 적들을 수개봉골짜기에서 소멸한 다음 적의 병력을 떼버리고 처창즈쪽으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연길과 왕청 일대에서 활동하던 안길, 최현의 부대들과 주력부대의 움직임에 호응하여 현의 중심지대들에서 적배후교란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몇 개 부락에서 총소리를 냈지만 적들은 별로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들을 분산시키자면 좀 더 큼직한 미끼를 던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도현성 동쪽에 있는 3개 부락을 동시에 치기로 하고 어느날 밤 남2도구, 북2도구, 신성툰에 대한 동시타격전을 벼락같이 해제꼈습니다.

이번에는 적들이 미끼를 덥석 받아물었습니다. 안도와 화룡현 남부접경지대에서 완강히 버티고 있던 관동군부대들이 안도현성이 당장 떨어지는 줄 알고 와하고 몰려왔습니다. 조만국경을 지키던 국경수비대도 거기에 합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품을 들여 적들을 안도현 중심부로 끌어들인 것은 적의 역량을 분산시켜 타격하는 것과 함께 두만강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군이 움직이는 틈을 타서 또다시 국내에 무장투쟁의 불길을 확대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진출임무를 맡고 있던 부대는 김일이네 8연대였습니다. 나는 8연대에 국경일대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분산활동을 하라는 과업을 주고 7연대와 경위중대는 안도현 북부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적을 쳤습니다.

그 후 김일은 소부대 하나를 데리고 살금살금 국내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부대는 5월중순경에 무산군 삼장면일대에 진출하여 국경수비대에 대한 기습작전을 벌이면서 이틀동안이나 인민들과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두만강하류
전투장소

미나미총독이 국경으로는 단 한 명의 유격대원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고 호통치던 때에 조선인민혁명군의 1개 소부대가 국내에 뻐젓이 나타나 총소리도 내고 여유작작하게 정치사업도 한 것은 1940년대 전반기의 항일혁명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진출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두만강연안과 안도현의 중부, 북부에서 타격전을 더 맹렬하게 벌려 적들을 녹여

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조에토벌사령부의 새로운 토벌작전은 그 첫걸음부터 된타격을 받게 되였습니다. ≪토벌사령부≫와 ≪지구토벌대≫, ≪소지구토벌대≫사이에서는 매일같이 우가 아래에 책임을 추궁하고 한 인접이 다른 인접에 책임을 전가하는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조에토벌사령부≫는 새로운 ≪토벌≫지침을 하달한다 어쩐다 하면서 복닥판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새 작전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남만에서 한인화가 50-60명 가량 되는 1로군의 잔존부대를 데리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위증민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우리 부대에 합류해서 활동할 의향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인화는 1로군 참모 겸 경위여단 정치위원이였습니다.

우리는 남만부대와의 공동투쟁을 통해 그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접어들며 동경평과 상대동을 치었습니다. 치고보니 동경평은 거의 무방비상태였습니다. 10여일전에 친 부락을 또 치겠는가 하고 모두가 방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도 몇 개의 부락을 동시에 들이쳤습니다.

고동하목재소를 습격한 다음날에는 남만에서 온 동무들과 함께 전투에서 노획한 후방물자로 단오명절을 푸짐히 쇠였습니다.

한인화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내 손을 잡고 위증민이 왜 나를 **김**사령한테 보냈는지 이제야 알겠다, 지금 정세를 보면 간도쪽이 남만쪽보다 훨씬 더 험악한데 적≪토벌대≫들이 노조에나 우메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김**사령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작전에서 얼마나 큰 인상을 받았던지 그는 2방면군이 제일이다, 김사령부대야말로 백전백승하는 부대이다, 이제는 우리도 자신이 있다, 액목이나 돈화쪽에 가서 진한장을 만나고 영안쪽에 가서 주보중을 만난 다음 한 바탕 본때있게 싸워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대담무쌍한 활동앞에서 일본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였습니다.

적들이 내리막길로만 굴러가는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형세를 조금이라도 역전시켜보려고 간도전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있을 때 우리 대오에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대마록구부근 밀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방면군 정치주임 여백기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부대의 비밀을 속속들이 다 불었습니다.

우리는 여백기의 체포와 투항으로 하여 조성된 난국을 적들에 대한 부단한 공격과 다양한 전술상 변화로 타개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우선 부대를 소부대화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방면군의 역량을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도처에서 과감하고 영활한 소모전을 벌이자는 것이였습니다. 부대를 소부대화하면 활동에서도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적의 조밀한 경계망도 용이하게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며 적들을 다시금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부대를 소부대화해야 덩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적들에게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날쌔게 자취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타산이 서게 되자 우리는 지체없이 방면군 역량을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부대에 의한 전면적인 소모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사람들의 공세앞에서 주춤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맞받아나갔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적들의 대공세에 위축되어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해다니기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은 것은 주동에 서서 적들이 정신을 차리기 못하게 연거펴 답새겨 댔기 때문입니다.

주체29(1940)년 봄, 여름 작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승리했다는 것은 적들 자신도 인정하였다.

≪추기, 춘기 토벌의 예봉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비단은 번무기를 타서 여러 곳에서 맹활동을 하며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제2, 제2선의 후방부락까지 적극적 습격을 하여오는데 그 상태는 참으로 방약무인이며 피해도 또한 적지않게 보고 있은 것은 여러 분과 함께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일만군대, 헌병, 경찰, 철도경호대, 협화회 등 모두 수만 명이다. 아무리 계절의 영향과 지형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력을 떨칠 수 있게 하는 그 원인은 첫째로 토벌사령관인 나를 비롯하여 모두의 책임에 있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정황을 관찰하여보면 특히 토벌대 및 각 기관의 융화단결과 그의 동태에 내포된 수많은 약점과 결함이 현저하여 숙정제공작의 추진을 저애하며 나아가서 비단의 활동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를 통감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치안숙정관계서류≫노조에토벌사령부, 소화 15년(1940)≫

1940년 봄과 여름의 작전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소부대활동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종전까지 우리는 경우에 따라 소부대활동도 했지만 주로는 대부대활동을 벌려왔습니다.

그러나 1940년 여름에는 소부대들을 단위로 하여 도처에서 연속타격, 반복타격, 동시타격과 같은 영활한 전법들을 많이 적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적들이 ≪토벌≫역량을 증강하고 포위망과 경비망을 물샐틈없이 칠 때일수록 전투단위를 작게 하여 소부대활동방식으로 유격전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중요한 경험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단계의 전략적 과업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방도를 수립하는데서 큰 밑천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밑천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해 8월에 열린 소할바령회의에서 대부대활동대신 소부대활동을 하자고 주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축적한 경험도 있고 자신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부대활동을 1940년대 전반기의 주되는 투쟁형식으로 삼고 계속 주도권을 틀어쥐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소할바령회의 이전에는 대부대 활동만 하고 소부대활동은 그 이후에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유격전의 특성은 조성된 군사, 정치 정세와 환경에 따라 임기응변하는데 있습니다. 소부대활동은 대부대활동이 위주였던 1930년대 후반기에도 중시되어 왔으며 필요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1940년 상반년에 활발히 진행된 소부대분산활동의 시험적인 단계를 거쳐 소할바령회의 이후부터는 모든 빨치산 부대들이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대부대선회작전의 후일담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 연구에서 공백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공을 들여 말해주었습니다.

소할바령회의를 기준으로 하여 문제를 본다면 1940년 봄과 여름에 우리가 벌인 활동은 그 회의의 준비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세의 흐름에 맞게 전

략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구라파에서 일어난 전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던 때부터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결속하지 못한 채 동남아세아지역에로 전쟁의 불길을 확대하려고 미쳐날뛰면서 ≪후방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최후발악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적들의 우리에 대한 대대적이고 끈질긴 ≪토벌≫공세와 우리 인민에 대한 파쑈적 폭압과 약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침략정책의 강화에서 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국제국내적으로 더욱더 고립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깊숙이 빠져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정세는 일제의 멸망이 확정적이고 시간문제이며 우리 인민이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지난 10년간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역량보존축적을 잘할 데 대한 새로운 노선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은 당시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단계에로 넘어가자면 객관적인 정세변화 일면만 보고 거기에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언제나 주동에 서서 투쟁을 끌고 나가며 최후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주체적 역량에 대한 타산과 지난 시기의 투쟁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선 선행단계에서 규정한 전략적 과제가 해결되었는가를 따져보았습니다. 남호두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적 임무를 꼼꼼히 따져보았지만 미해결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기초축성,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결성과 확대발전, 국경지대에로의 진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는 문제… 어느 것이나 해결되었다고 총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투쟁의 전략적 단계를 규정하는데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적아의 력량관계의 변화입니다.

수자상으로 볼 때 적아의 력량은 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그때 우리를 ≪창해일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속의 좁쌀알만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보통상식으로써는 력량대비라는 말이 성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력량대비방법은 그런 산술적 비교법이 아니였습니다. 우리군대한 명이 백명의 적, 천명의 적을 당해낸다는 것이 우리 식의 비교법이였습니다.

남호두회의가 있은 후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급속히 자라났습니다. 우리 군대는 수적으로는 비록 적들보다 적었으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되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승리하는 싸움만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혁명군은 그 어떤 정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법과 전술을 소유한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군사적 사명과 함께 정치적 사명과 동시에 수행하는 새 형의 특수한 혁명군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 뿐 아니라 전반적 조선혁명수행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영도적 지위와 증대되는 핵심적 역할은 우리가 혁명무력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원칙을 견지

한 것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권전취를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정치적 영도기관으로서의 당을 먼저 꾸리고 그 다음에 무력건설에 착수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혁명투쟁, 특히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무력, 폭력적 진출이 가지는 결정적 역할과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먼저 무력을 건설하고 다음에 당을 건설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김일

우리는 1932년 4월에 첫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그것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확대발전시켰으며 바로 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의거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불길을 높여나가면서 전반적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영도와 무력적 담보밑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도, 조국광복회조직과 통일전선운동의 확대발전도, 전민항쟁 준비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갔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일혁명시기 우리 혁명의 중추적 핵심역량이며 정치적 향도자이며 민족적 이익의 무력적 담보자였던 조선인민혁명군은 그대로 우리의 군대이자 당이고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전략적 단계의 과업을 능히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 핵심역량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다그쳐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때 조국광복회산하 회원이 20여 만이나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또한 노동자돌격대나 생산유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모체가 되어 도처에서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부대들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비조직군중들의 동향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무렵에 김일이네가 국내에 나와 적을 치고 두만강쪽으로 행군해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오의 뒤로 어떤 절름발이 농사군이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격대 어른들이 이곳으로 두만강을 건느자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저녁에는 다른 길로 가야 하우다. 이 근방에는 놈들이 쭉 깔렸수다.≫하고 말했습니다.

김일이네는 그가 제공해준 정보를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그 농민은 품에서 신문쪼박지를 꺼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런 사람이나 믿어도 되우다.≫라고 하였습니다. 손바닥만한 신문쪼박지를 내놓고 자기를 믿어달라 하니 우리 동무들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훑어보니 거기에 실린 글이 1939년 5월의 무산지구전투를 소개한 보도기사였습니다. 오랜 유격투쟁의 감각으로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더러 어느 쪽으로 가야 두만강을 무탈하게 건너갈 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농민은 자기가 안내하는데로 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도 경비는 서지만 다 혁명군편을 드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밤 우리 동무들은 그 농민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경비에 끌려나왔던 마을의 주민들은 유격대가 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체하고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얕수다.≫, ≪거기는 깊수다.≫하면서 길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준비의 강화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는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여전히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무장투쟁의 전략적 단계를 규정하는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적의 전략전술적 기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임철

1940년 여름에 우리는 황구영도로공사장에서 일본공병장교를 포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교를 심문하는 과정에 우리 동무들은 적들이 간도일대와 남만쪽에서 방대한 군용도로망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을 중심으로 하여 화룡, 연길, 돈화, 화전, 무송은 물론, 국내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백두산동북부의 험한 골짜기들에까지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군용도로들의 건설정형은 노조에토벌사령부를 거쳐 관동군사령부에까지 매일같이 보고되었습니다. 포로된 공병장교의 말에 의하면 노조에사령관이 오래지 않아 공사중에 있는 도로들을 시찰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도로는 인민혁명군을 토벌할 때 써먹자는 기동로였습니다. 영만 떨어지면 이 도로들로 조선과 동북땅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숱한 병력들이 쓸어들 판이었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주변에 비행장들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야전비행장들은 노조에의 극비지령에 따라 동남부 3성에다 건설된다고 하였습니다. 공병장교는 자기가 아는 야전비행장의 위치와 비행기들이 지구토벌대는 물론, 소지구토벌대에도 전속된다는 것까지 실토하였습니다.

그 장교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적의 야전비행장들로 포위되어있는 셈이었습니다.

적들은 이 무렵에 노조에토벌사령부를 길림으로부터 연길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연길에 있던 동지구토벌대사령부도 도문으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활동지역들에 적의 병력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있다는 정보자료들과 정찰자료들이 사령부로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징후들을 보면 적들이 오래지 않아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판을 내려고 잡도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정의 급격한 변화는 종전의 전략적 방책만으로써는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전략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무모한 전투로 인한 손실을 피하면서 주동적인 행동으로 혁명역량을 보존축적하는 것을 우리 혁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은 1940년 8월에 소집된 소할바령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안도-돈화현경에 이르렀을 때 15연대장 이용운과 임철중대장이 4-5명의 호위성원들을 데리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주재일에게 소할바령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취지를 말해주고 그 회의를 위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이상의 군정간부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였

습니다. 도착날자는 8월 9일, 음력으로 7월 7석전까지 다 모이게 하되 왕청, 동녕쪽에 가 있는 안길, 최현에게는 훗날 회의결과를 통보하게 하고 13연대와 14연대들에서는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중대들에만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15연대에서는 이미 이용운과 임철이 왔기 때문에 더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소할바령회의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하였습니다. 회의과정에 크게 논의된 문제는앞으로의 전략적 단계를 혁명적 대사변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달리말하여 다음단계에 들어가서 조국해방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안길

나는 한마디로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들에게 물론 지금도 일본군대는 강하다, 그러나 망해가는 군대다, 일본군이 망해가는 군대라는 것은 관동군의 정예라고 하는 공군부대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실만 보고서도 알 수 있다, 도주자와 의거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중일전쟁마당에서도 그 단속을 하느라고 쩔쩔맨다고 한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본이 패망할 날도 오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얼마전부터 특별지원병령인가 뭣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청년들을 대포밥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대만과 만주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이 자기네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식민지나라의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끌어갈 지경이 되었으니 병력의 부족이 얼마나 심했으며 그러겠는가.

9.18사변 후 7.7사변 전까지 일본군은 만주에서만도 근 20만에 달하는 병력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중일전선에서는 한 해에 그보다 더 큰 손실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물자의 예비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소할바령회의 직전에는 적들이 탄알도 1939년 이후에 생산한 것을 썼습니다. 간삼봉전투시기에 사용한 탄알들은 1920년대에 생산한 것들이였습니다. 탄약의 예비도 바닥이 났다는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계도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사흘이 멀다하게 내각이 교체되고 입씨름질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군부도 모순투성이였습니다. 군장성들과 장교들이 여러 파로 가라져 옥신각신하게 되니 작전에서 통일성과 협동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자간의 모순, 군민간의 모순, 종주국과 식민지간의 모순이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본토의 주민부락들에도 정보원들을 박아넣어 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판이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의에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데서 일본의 국책이 구라파에서 일어난 전쟁을 이용하여 동남아를 치자는 속심을 공공연히 내비친 것으로서 만일 일본이 동남아세아로 진출하는 경우 그것은 그들 자신이 제 무덤을 파는 길로 되리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에서는 대사변의 시기에 실행해야할 전략적 과업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조선혁명의 중추역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역량을 보존축적하면서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키우는 것을 새로운 전략적 과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사변은 적아쌍방의 정치군사적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동원되는 최후결전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결전에서 승리자가 되자면 매개 대원들이 종전보다 몇 등급 높은 직무를 수행해야 하였습니다. 조국이 광복되면 바로 그 대원들이 핵심이 되어 새 조국건설도 해야 하였습니다.

최후결전과 새 조국건설, 이 두 가지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략적 과제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대신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해야하고 조선인민이 해내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장기간의 항일혁명과정을 통해 마련한 주체적 역량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최후결전을 벌일 때 남들이 스스로 우리를 도와주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동무들, 수준을 두세 등급씩 높일 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다들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민을 무장시켜 항쟁에 동원시킬 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것도 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전략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이 안을 두고서도 논의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이 도처에서 대무력으로 달려들 때 우리가 대부대로 맞서지 않고 소부대로 대결하게 되면 각개격파 당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동무들에게 대부대전성기는 지나갔다, 대부대로 와와 밀려다닐 때가 아니다, 적들이 대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단꺼번에 그물에 잡아넣어 일망타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대부대작전을 계속한다면 것은 적들의 계책에 빠져 자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호박을 쓰고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격으로 된다, 소부대단위로 움직이면서 싸움도 하고 대중정치사업도 하면 식량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동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식량을 해결하려다가 적들에게 희생되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목숨과 바꾼 식량도 대부대가 나누어 먹다나니 얼마 못가고 인차 바닥이 나군하지 않았는가, 소부대로 활동하게 되면 적의 역량도 최대한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봄과 여름에 진행한 소부대타격전의 전과정이 증명해준다, 과녁을 작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과 만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소부대군사활동을 영활하게 전개하면서 대중정치사업을 강력히 벌이며 매개전사들과 지휘관들의 정치군사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빨리 조직하며 세계의 모든 반제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합의한 다음 회의를 끝냈습니다.

소할바령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중요한 전략적 노선들을 제시한 1931년 12월의 명월구회의, 1936년 2월의 남호두회의와 더불어 우리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전략적 노선을 바꾸기로 결정한 역사적인 회의입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대세의 흐름을 제때에 보지 못하고 목전의 성과에만 급급하여 대부대활동을 계속했더라면 역량도 보존하지 못하고 자기존재를 끝마쳤을 것이며 역사에 순국한 열사들로만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할바령은 돈화현과 안도현의 경계를 타고 뻗어내린 할바령의 꼬리부분입니다. 회의는 그 령의 북쪽 비탈면에서 하였습니다. 앞에는 새초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할바령회의라하면 그 새초밭이 생각납니다.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그런지 새초를 베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새초밭을 굽어보며 김책이랑, 허형식이랑, 박길송이랑 말을 타고 다닌다는데 북만동무들이 이런 새초밭을 보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할바령의 새초밭에서 그려보았던 북만의 전우들을 나는 원동에 들어가서야 만나보았습니다.

2. 미래에 대한 낙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향가를 들으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한 조선인민혁명군

1940년 봄에 있는 일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안도와 화룡을 비롯한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해 봄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적은 역량으로 주동을 쥐자니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힘에 부치는 시련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겨냥하고 달려드는 적의 파도식 토벌이였습니다.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무리를 지어 사면팔방에서 악, 악하고 달려드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였습니다.

노조에도 그때는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정마를 백두로 몰아 비화를 근절한다고 장담하고 나섰다가 오히려 한 해 겨울 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앞에서 골탕만 먹어온 그로서는 사실 우리 때문에 분통이 터질만도 하였습니다. 관동군사령관은 물론, 일본군부의 추궁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싸움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쩔쩔매던 노조에는 약이 오를대로 올라 봉천, 통화 지구로부터 증원대도 끌어들이고 지어는 쏘만국경의 국경경비대까지 불러다가 토벌에 내몰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수산과 같은 투항분자들이 적들을 끌고다니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찾아내려고 날치는 바람에 우리는 더 심한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산간오지에 있는 사냥군막, 버섯막, 아편밀재배자들의 막 같은 데까지 수많은 밀정들이 들이배겨 유격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공작대라는 주구집단들도 우리의 활동구역에 나타나 정세는 일본제국의 편에 유리하다, 전도가 없는 혁명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리지 말고 귀순하라고 공개적으로 접

어들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련은 식량난이였습니다. 적들은 우리에게 한되박의 식량이라도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다 썼습니다. 우리가 산에다가 식량을 매몰해 놓으면 어떻게나 빨리 냄새를 맡는지 그것을 다 찾아내여 없애버리군 하였습니다.

적들은 집단부락들에서 주민식량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밭으로 갈 때면 성문보초들이 달려들어 밥그릇까지 뒤져보는 판이였습니다. 적지 않은 집단부락들에서는 군경들이 소모하는 식량과 피복, 탄약을 토성 밖에 비밀창고를 따로 짓고 보관해 두었는데 그 위치는 취급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취급자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한 때에 창고문을 열고 비밀리에 물자들을 졸금졸금 집단부락에 실어들이였습니다. 우리가 성시를 자주 들이쳐서 후방물자들을 보는 족족 다 실어갔기 때문에 적들도 그런 대응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광산과 탄광, 목재채벌장들의 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서도 식량은 하루나 이틀, 고작해서 사나흘분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창즈부근에 있을 때는 식량도 다 떨어지고 소금도 없었습니다. 7연대와 8연대가 안도지구를 부단히 유동하면서 식량공작을 하느라고 했지만 별로 큰 소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온 부대가 끼니를 번지며 배를 곯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해 5.1절을 개구리요리로 쇠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개구리요리가 고급요정의 식탁에도 오르는 인기있는 식품으로 되고 있다지만 우리 나라 식당들에서는 개구리요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논두렁이나 개천에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꼬챙이에 꿰여 불에 구워먹는 풍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은 장난이나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지 맛에 혹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빨치산생활이 아무리 간고하다 하지만 우리는 5.1절 날만은 끼니를 번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소덕수등판에서 맞은 1939년 5.1절에는 대원들에게 술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5.1절에는 술은 고사하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도랑의 개구리를 잡아 끼니를 굼때였습니다. 명절날을 그렇게 보냈으니 명절도 아닌 보통날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창즈부근에 있을 때에도 식량고생을 몹시 했지만 양초구치기에서 활동할 때에도 배고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온 부대가 풀을 우려먹으면서 구차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해갔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다나니 양초구란 지명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날 나는 기관총소대 동무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찾아갔다가 그들을 나무람한 일이 있습니다. 해토가 된지도 오랜데 산채를 뜯어다 나물국이라도 끓여먹으면 맛도 있고 식량보탬도 되지 않는가고 했더니 강위룡소대장은 보초 설 인원이 모자라서 나물 뜯으러 보내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노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물 같은 것이야 보초를 서러 나갈 때에도 뜯을 수 있고 보초를 서고 돌아올 때에도 뜯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조직사업만 잘하면 하루 국거리 같은 것은 잠간 사이에 장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강위룡소대장에게 지휘관이란 언제나 자기 대원들의 생활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따끔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자라면 전령병들까지 데리고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다음날 강위룡은 전령병인 전문섭과 이을설 그리고 한창봉을 데리고 산나물을 뜯으러 갔습니다. 네 사람은 저녁녘에야 돌아왔는데 나물은 한 바구니도 채 못되었습니다. 사연을 알아본 즉 풀밭에서 장시간 씨름을 하느라고 나물을 많이 뜯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뜯으라는 나물은 뜯지 않고 씨름판을 펼쳐놓게 됐는가

고 물으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꽃향기가 진동하는데다가 폭신폭신한 잔디밭을 보니 고향생각이 절로 나고 봄동산에서 즐겁게 뛰놀던 어릴적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씨름으로 한나절을 보내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전문섭과 한창봉은 나이도 힘도 어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다나니 승부도 쉽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통이 엄청나게 큰 강위룡은 심판이 되어 시합이 한번씩 끝날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해봐라. 또 해봐라…≫하고 손벽을 치면서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소대장이란 사람이 손벽까지 쳐가며 자꾸 부추기는 통에 두 대원도 신바람이 나서 씨름에 열을 올리였습니다.


강위룡

사연을 듣고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령병들까지 달아서 산나물 뜯으러 보냈는데 넷이서 한 바구니도 채우지 못하고 오다니, 그것도 부대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때에 씨름으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는 네 사람을 엄하게 비판한 다음 그들에게 각각 주의처분을 주었습니다.

과오의 엄중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그보다 엄한 처벌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오에는 사령관이 준 임무를 그렇게 허술히 집행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네 사람이 다 책임성이 강하고 임무수행에 남달리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거리든지 맡기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척척 해제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일본새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그들은 우리 부대에서 모범적인 유격대원의 전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그들이 들고왔던 골막한 나물바구니가 그냥 눈앞에 얼른거리였습니다. 그 바구니를 보고 주의처분도 주었지만 어째서인지 씨름에 옴해 돌아갔다는 네 대원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느라니 이 험한 판국에서도 우리 대원들이 비관을 모르고 배포유하게 씨름까지 해가며 낙천적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흐뭇한 웃음이 저절로 피여오르는 것이였습니다.

사람이 정신적 여유가 없거나 생활에 대한 낙관이 없으면 그때의 어려운 정황속에서 씨름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빨치산 대원들과 같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만이 적의 포위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노래도 부르고 씨름놀이도 해가며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섭

조선인민혁명군은 동서고금에 없는 낙천가들의 집단이였습니다. 세계에 이름난 군대도 빨치산도 많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만큼 혁명적 낭만과 열정으로 약동하는 생기발랄하고 전도가 양양한 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역경을 웃음으로 다스리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 이 세상이 통채로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는 낙천가들의 집단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였습니다.

전문섭이도 외형을 보면 조용하고 얌전해보이지만 실상은 낙천가입니다. 그는 혁명군에 입대할 때 자기 부모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나를 기다려주십시오, 무산혁명이 승리하고 조국이 독립되는 날 이 아들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제를 쳐부신 다음 자동차를 타고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전문섭의 결의야말로 얼마나 엉뚱하고 낭만적인 것인가.

안길이도 낙천가였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총애한 것은 혁명에 대한 충실성도 충실성이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낙천적 성격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길은 비관을 모르는 낭만적인 혁명가였습니다.

우리 항일빨치산들속에는 이들 뿐 아니라 수많은 낙천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총을 잡고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 나선 투사들 모두가 다 언제나 비관을 모르며 혁명적 낙관으로 사는 낙천가들이었습니다.

내가 강위룡, 이을설, 전문섭, 한창봉 네 대원이 저지른 잘못을 엄중하다고 보면서도 그들에게 주의 이상의 처벌을 주지 않은 것은 그 소행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구김살 없는 낙천성과 배짱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그마한 사건을 겪고 나서 설사 우리가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열백 번한다고 해도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안길

나의 체험에 의하면 신념을 가지고 혁명하는 낙천가들은 옆에서 무슨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교수대에 오른다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신념도 없이 모두가 혁명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혁명에 뛰어든 사람들은 아무 때든지 아늑한 곳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동무들도 아마 행군도상에서 있는 가재잡이에 대하여 쓴 회상기를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재잡이는 혁명가들의 일상생활과 투쟁에서 낙천성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실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39년 가을의 돈화원정을 대부대선회작전의 1단계 작전이라고 하는데 행군도상에서 있은 가재잡이란 바로 그 원정과정에 있은 일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식량의 부족으로 심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적들을 떼던져야 식량공작을 할 길도 열리겠는데 토벌대들이 그냥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움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그런지 그 때에는 메토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내처 행군해가다나니 어데가서 식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데도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진대나무를 타고넘을 힘도 없어서 매번 그것을 에돌아가군 했습니다. 어쩌다가 휴식구령이 내리면 땅바닥에 노그라지든가 아무데나 드러누워 피곤을 풀군 했습니다. 출발구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두도백하니, 이도백하니, 삼도백하니, 사도백하니하는 송화강 상류일대는 원래 진펄과 원시림이 많아서 포수들도 잘 다니지 않는 지대였습니다. 그러다나니 행군속도가 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동무들, 용기를 내오. 이런 때일수록 기력을 잃지 말아야 하오. 양강구에 가면 휴식도 하고 식사도 푸짐하게 합시다!≫

나는 주저앉은 동무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고무해주군 했습니다. 나라고 왜 배고프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배고프고 피곤해도 그것을 내색할 수 없는 것이 사령관입니다.

어느날 점심참에 나는 약간 경사가 진 펑퍼짐한 능선에서 휴식을 선포한 다음 경위대원들을 시켜 그 능선 아래쪽에 가서 정황을 살피고 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경위대원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골짜기에서 개울물이 흐르고 있을 뿐 별다른 정황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대원 몇 사람을 데리고 개울가에 내려간 나는 군복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만가만 돌을 들추면서 그 밑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큼직한 가재 한 마리가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내가 그 가재를 물가에 내던지자 경위대원들이 ≪가재다!≫하고 일제히 환성을 울렸습니다.

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개울물에 들어섰습니다. 며칠씩 굶은 사람들 같지 않게 다들 신바람이 나서 가재잡이를 하였습니다. 발이 정 시리면 잠간씩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 첨벙대며 돌아갔습니다. 온 대오가 가재잡이로 흥성거리였습

니다. 발을 질질 끌면서 힘들게 대열을 따르던 동무들까지 승벽내기로 개울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휴식하던 자리에 돌아와 불을 피우고 가재를 구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새빨갛게 익은 가재를 놓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농지거리소리가 터져올랐습니다. 잠간동안의 가재잡이가 대오의 분위기를 일신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몇 마리의 가재를 먹었다고 단번에 배가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재를 잡느라고 첨벙거리는 사이에 대원들은 시장기도 피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재잡이가 있은 다음부터 행군속도는 곱절이나 빨라졌습니다.

그날 나는 대원들의 명랑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대나무를 타고 넘을 맥도 없어 그것을 에돌아가군 하던 사람들, 휴식구령이 떨어지면 피곤에 못이겨 아무데나 퍽퍽 쓰러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처럼 명랑해질 수 있을가.

나는 가재잡이가 대원들의 낙천성을 계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가재를 잡느라고 벅작 떠들어대며 돌아가는 사이에 피곤도 풀리고 기분도 전환되고… 그래서 힘도 나고 며칠 굶은 사람들 같지 않게 명랑해진 것입니다. 가재잡이가 대오에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은 것은 대원들의 낭만적인 정서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1939년 오월단오날 옥돌골이라는 마을에서 군민합동 오락회와 운동회를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군민이 한데 어울려서 축구경기도 했는데 볼만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볼을 차다나니 헛다리질을 어떻게나 많이 하는지 우스워서 배꼽이 빠질 지경이였습니다.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구경군들은 그것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수가 사람들한테서 더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무산지구전투가 끝난 다음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소멸해보겠다고 사방에서 새까맣게 달려들고 있을 때 토벌대들이 끊임없이 나돌아치는 화룡땅 한복판에서 배포유하고 단오명절놀이를 벌려놓고 축구경기까지 한다는게 말은 쉽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기응변의 전법과 혁명적 낭만으로 끓는 담대한 심장을 지닌 조선인민혁명군의 병사, 지휘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혁명가는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혁명 그 자체가 원래 미래에 대한 꿈이나 새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에 대한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꾸준하게 투쟁해 나가는 사람이 혁명가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나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애당초 투쟁의 길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설사 혁명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도저히 이겨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혁명가의 인생관이나 인간적 품격, 그들의 생활 신조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은 신념이나 의지, 불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상과 포부가 웅대하고 어떤 환경에서나 그 이상과 포부가 꽃피게 될 미래를 확고하게 낙관한다는데 있습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와 낙관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3대특질,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품격을 이루고 있는 3대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외국기자들이 나에게 주석께서 80에 50대의 건강을 지니시였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질문을 받고 내 장수의 비결은 낙천적으로 사는데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는 것이였습니다. 한 인간의 생리적 연령이 생활을 얼마나 낙천적으로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한 나라 혁명의 성패나 생명력은 혁명적 낙관주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밀림속의 명절

사람은 낙천적으로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기가 없이 우울하게 생활하는 군대는 단결도 안되며 싸움도 잘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는 미래에 대한 낙관에 기초할 때 더욱 더 강한 것으로 되고 혁명의 최후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확고히 견지되는 것입니다.

혁명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감옥과 교수대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의 길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미래에 대한 드팀없는 낙관을 가지고 일편단심 혁명승리를 위해 한 몸 다 바칠 결의와 각오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위업에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혁명적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혁명가들처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도 서슴지 않고 걷는 것이 혁명가들이며 설사 그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높은 각오를 가지고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혁명가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혁명가들의 인생이 값있고 보람있는 것으로 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오에서 도주한 자들을 보면 예외없이 미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 비관주의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이 상승할 때 그 기류를 타고 우연히 혁명대오에 뛰어들었다가 고난이 중첩되고 정세가 불리해지자 옛다, 모르겠다, 혁명이고 뭐고 나만이라도 살고보자 하고 달아나버린 의지박약자들이였습니다.

1940년대는 우리 대오에서 혁명적 낭만과 낙관주의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였습니다. 그것은 매개대원들의 진가와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믿은 사람은 나와 함께 끝까지 혁명의 길을 걸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혁명을 중도반단하고 대오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혁명적 낙관주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교양, 부단한 사상단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혁명적 낙관주의입니다. 적이 아직은 강하고 혁명이 언제 승리한다고 기약하기 어려운 때에 미래를 낙관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상교양, 사상단련을 부단히 해야 하


혁명가요

는 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그 어떤 폭풍속에서도 휘여들지 않는 강한 군대로 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초기부터 사상교양에 큰 힘을 넣어온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유격대원들을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로, 우리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교양하였습니다.

나는 짬만 있으면 대원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대원들에게 ≪독립이 되면 평양에 가서 숭어국도 먹고 냉면도 한 그릇씩 먹고 모란봉에 올라가 대동강 구경을 하자!≫고 하면 그들이 다 ≪야, 빨리 그 날을 앞당겨와야지!≫하면서 주먹을 부르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백배해서 싸움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개구리요리로 명절음식을 대신한 1940년 5.1절 날도 나는 대원들을 혁명적 낙관주의와 필승의 신념으로 교양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우등불두리에 모여 앉아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혁명에 대한 이야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 고향의 부모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승리할 내일에 대한 이야기로 흥겹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전우들에게 동무들, 오늘은 우리 비록 개구리요리로 5.1절을 쇠었지만 일제를 타도한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대동강의 숭어요리로 조국광복을 경축하자, 적들이 지금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발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모두가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자부심, 조선공산주의자의 자부심도 드높이 일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더 굳세게 싸워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등불에 비쳐진 대원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같이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모습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첩되는 곤란을 낙관과 용기로 이겨내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고야 말겠다는 결의와 신심에 넘쳐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곤란앞에서 팔짱을 지르고 먼산만 쳐다보았거나 대원들에게 개구리요리를 먹인 다음 그들에게 자, 이제는 시장기도 덜었으니 모두 천막으로 헤쳐가라고 말했더라면 대오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명랑하고 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대원들은 오늘은 겨우 개구리를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또 뭘 먹고 끼니를 굼때겠는가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아 명절음식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전우들이 모두 환성을 지르며 두 팔을 걷고 떨쳐나선 것이라든가 내가 우등불앞에서 밤새도록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에 심취되어 내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자기 사령관의 모습에서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그 어떤 고난앞에서도 드놀지 않는 배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진드기처럼 따라다니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나의 배짱이였습니다.

지휘관의 정신상태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배짱군이면 전사들도 배짱꾸러기가 되고 지휘관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전사들의 신념과 의지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전사들의 낭만이 지휘관의 신념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인민대중의 낙관주의는 지도자의 신념과 배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려운 때 대중이 지휘성원들의 얼굴부터 쳐다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 빨치산들은 내가 이긴다면 이긴다고 믿었고 내가 웃음을 지으면 혁명의 전도가 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낚시질을 하거나 코노래로 조금 흥얼거리기만 해도 그들은 다음 작전은 다 이긴 작전이라고 판단하군 하였습니다.

나 뿐 아니라 모든 지휘관들이 대원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최경화와 강돈은 행군을 하면서도 대원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주는 담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신념교양, 낙관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 것은 문예활동이였습니다. 혁명적인 문화오락을 떠나서는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논할 수가 없고 혁명적인 노래와 춤을 떠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걸어온 승리의 노정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동무가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였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 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조선혁명처럼 노래와 밀착된 혁명, 노래로 엮어진 혁명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혁명 그 자체가 하나의 장중한 교향곡이고 노래를 낳는 터전입니다. 노래를 떠난 혁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떠나서 국제노동운동의 발전역사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만원정 때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던 군중을 쟁취한 것도 노래였고 우리를 피해 달아났던 중국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사랑하는 ≪소무가≫였습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행로에서도 많은 작용을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이 ≪자장가≫로 시작되였다면 나의 혁명투쟁은 ≪압록강의 노래≫로 시작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평나루터를 떠나 압록강을 건널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을 찾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압록강가에서 다진 그 맹세를 생각하며 싸움의 길을 다그치군했습니다.

중학시절부터는 자체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조선의 노래≫가 나오고 ≪반일전가≫가 나오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가 나왔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군 했습니다. 식량이 없어 맹물로 끼니를 이어갈 때에도 노래를 부르며 힘든 고비를 넘기군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성장하고 혁명도 발전하였습니다.

배고플 때 노래소리를 들으면 배고프지 않았고 힘이 진했을 때 노래를 불러주면 기운이 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경위대원들이 눈속에 파묻혀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써도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데다가 지칠대로 지쳐서 힘이 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도 몸을 가눌 수

적 기 가

행진조로 힘차게 　　혁명가요

mf G D G A7 D D7 G

1. 민 중의기 붉 은 기는 전 사의시 체 를 싼 ― 다

G D G A7 D D7 G

시체가식어 굳 기 전에 혈 조 는기 발 을 물 들인다

(후렴)

f G C D7 G G7 C D7 G

높 이들 어라 붉 은기 발을 그 밑에서 굳 게맹 세해

G D G A7 D D7 G

비 겁한자야 갈 라면가라 우리 들 은붉 은기 를 지 키리라

2.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후렴)

3.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후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는 눈속에 미이라처럼 누워있는 대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적기가≫를 불렀습니다. 대원들은 그 노래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행군을 계속하였습니다.

적들이 한때 수천 명의 병력으로 처창즈유격구를 봉쇄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고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혹심한 식량난과 적의 거듭되는 토벌로 사경에 이른 처창즈인민들을 결사전에도 불러일으킨 것이 아동단원들이 부른 혁명가요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에는 우리에게 전문예술단체로 없었고 직업적인 창작가나 배우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일유격대원들은 스스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이면서 ≪유격대행진곡≫과 같은 훌륭한 혁명가요들과 혁명적인 연극, 가극, 춤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청년학생운동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격구시절에도 연예공연을 자주 조직

유격대행진곡

행진조로 씩씩하게 　　　　혁명가요

1.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후렴)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때에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하였으며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서 대부대류동전을 하던 시절에도 문화정서생활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연예공연은 산에서도 하고 주민부락에서도 했습니다.

연예공연을 할 때에는 주변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엄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적들이 달려들어도 마음놓고 공연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은 명절날에도 하였고 큰 전투를 치른 다음에도 하였으며 부대에 신입대원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에도 하였습니다.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한 종국적인 목적은 군대와 인민을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강의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들 모두를 불굴의 혁명투사로 만들자는데 있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우리는 공연소개도 낙천적인 맛이 나게 하였습니다.

7연대 2중대 동무들은 도천리에 가서 군민연환오락회 형식으로 연예공연을 조직했는데 ≪깔깔웃음대회≫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깔깔웃음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식으로 광고를 써붙였더니 농촌집마당과

그 주변에 사람사태가 날 지경으로 많은 구경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깔깔웃음대회≫, 얼마나 기지있고 익살스런 표현인가. 이 광고만 보고서도 사람들은 입가에 웃음을 그리였습니다.

빨치산의 연예공연은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문화오락과 공연활동으로 기분전환을 하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중흡과 강흥석이 희생된 다음에도 연거퍼 두 번이나 큰 규모의 연예공연을 조직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의 병사, 지휘관들이 그들이 전사한 때만큼 그렇게 슬퍼하고 분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중흡의 장례를 한 그날밤 숙영지에서는 흰밥에 절인 고등어를 구워 저녁식사를 마련했으나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김정숙**은 고등어만 보면 오중흡의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짓군 했는데 그를 잃고난 다음 우리 대원들의 기분상태가 얼마나 침통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군도중 우정 시간을 내여 오락회를 열었는데 대오를 지배하고 있던 비감을 춤과 노래와 요술로써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쟈신즈를 친 다음에도 송화강가 수림속에서 큰 규모의 연예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투사들과 역사가들이 그 공연을 신입대원들을 위한 환영공연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을 말한다면 공연을 조직한 목적이 거기에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오중흡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비애와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대오에 낙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중흡

그 공연이 굉장한 공연이였습니다.

황철나무를 베여다 가설무대를 만들고 천막을 여러 개 모아 풍도 쳤습니다. 언 나무여서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모포를 깔았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공연종목을 써붙였는데 합창이 없겠는가, 독창이 없겠는가, 무용이 없겠는가, 요술도 있고 하모니카 합주도 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은 호각을 불어 여닫게 하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신대원들과 구대원들, 짐을 지고온 노동자들이 다 모여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그날밤 **김정숙**이 ≪여성해방가≫를 부르고 나서 춤을 추던 생각도 납니다. 춤을 출 때에는 면막뒤에서 무용곡을 불러주었습니다.

막간희극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양개에서 입대한 키다리대원과 연길에서 입대한 동무가 활동사진변사처럼 영화해설을 해서 관중들을 울리었습니다.

배뱅이굿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을 누가 했던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 중국인 대원은 오늘날의 막간교예배우들처럼 긴 나무다리를 타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매우 이채로운 종목이었습니다. 그 대원은 행군 때마다 나무다리를 타고 다니며 대오가 지나간 다음 발자국을 메우군 했습니다. 공연종목가운데는 조도언의 요술도 있었고 호궁도 들고나와 이채를 띤 신입대원들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격대생활을 보여주는 단막극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군도중에 짬짬이 구상하여 대본을 만든 것이였습니다.

그날밤의 공연은 네댓 시간이나 걸리었습니다. 그래도 관중들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공연 뒤끝에 추가로 참군을 탄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이 얼마나 큰 은을 내는가 하는 것

은 항일혁명시절의 연예공연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혁명이란 사상의지나 규율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의지, 도덕의리와 함께 낭만적인 감정정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나서자란 고향산천과 부모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감정을 떠나서 애국주의가 싹터날 수 없습니다. 자기 집단에 대한 애착과 헌신의 감정도 없이 공산주의사상과 같은 심원한 사상을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박길송

항일혁명의 전 노정은 풍부한 감정정서를 가진 낙천적인 유격대원들이야말로 자기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사상에 끝까지 충실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한 몸을 바쳐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위훈의 창조자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박길송이 최후의 순간에 뭐라고 했는가. 조국이여! 나는 그대를 자랑합니다, …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이다, …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내는 요람이다, …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원쑤의 고문에 두 눈을 잃은 최희숙이 최후를 앞두고 무엇이라고 절규했는가.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본교형리들은 철쇄에 묶인 이계순에게 반성연설을 한마디만 하면 목숨도 살려주고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계순은 이 원쑤놈들아, 내 귀가 더러워진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아직도 몰랐느냐고 하면서 적들을 호되게 꾸짖은 다음 단두대에 올라 조국광복의 날은 멀지않아 온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항일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모든 투사들은 다 혁명승리에 대한 불변의 신념과 풍부한 감정정서를 지닌 낙관주의자들이였습니다.

혁명가는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내일을 위해서는 꽃나이에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피끓는 투사들입니다.


최희숙

내가 오늘 여기서 동무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내외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소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금 여러 모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문화도 모두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팽팽한 대결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국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것은 어느 때든지 꼭 극복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낙관주의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김정일**동무와 같은 혁명의 새 세대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배심입니다. **김정일**동무가 혁명을 영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에게 **김정일**동무만 믿으라, 그러면 만사가 다 잘돼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정일**동무의 기상속에 조선의 미래도 있고 21세기의 미래도 있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이것을 증명해줄 것입니다.

3.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스탈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나날에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이끄시는 한편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에 국제당이나 쏘련과의 연계가 심화되어 조선혁명의 국제적 판도가 더욱 넓어지고 조중공동항일이 조선, 중국, 쏘련을 포괄하는 보다 높은 형태의 새로운 투쟁단계에로 발전하던 역사적 시기를 두고 아래와 같은 회상교시들을 남기시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두절되었던 국제당과의 연계를 다시 회복한 것은 1939년이였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모두가 새 솜옷들을 갈아입었을 때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그때 안도현 화라즈밀영에서 군정학습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김일이 시꺼먼 다산부자를 입은 사람 셋을 묶어가지고 사령부로 데려왔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림새와 행동거지가 하도 수상해서 체포했는데 산골농사군들 같지는 않고 일본놈들의 특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권총과 쟁개비가 나오고 닦은 콩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세 사람과 담화를 하였습니다.

우리 부대가 제2방면군 부대이고 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국제당연락원들이라고 자기네 신분을 밝히면서 성냥갑을 내놓았습니다. 성냥가치가 유달리 큰 것으로 보아 만주나 조선에서 만든 성냥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그것이 쏘련성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신분을 더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 다른 증빙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칼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 작은칼은 위증민이 국제당에 갈 때 접선암호용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수년 세월이 흐르고 그 동안 모진 풍상도 겪었지만 우리는 그 낯익은 손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위증민에게 그 손칼을 주면서 모스크바에 가면 접선암호용으로 국제당에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당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파견할 때는 꼭 그 손칼을 주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김일소부대가 일본특무로 잘못 볼 번했던 세 사람이 국제당연락원들이라는 것은 그 손칼만 보고서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용무는 어떻든 국제당이 우리를 잊지 않고 연락원까지 보내준 것은 반가운 일이였습니다.

남호두회의 후 두절되였던 국제당과의 연계는 이렇게 되어 다시금 이어지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20여 만 대적과의 결전을 앞두고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국제당이 연락원들을 보내준 것은 우리에 대한 고무로 되였습니다.

연락원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 국제당이 우리에게 파견한 사람은 6명이였다고 합니다. 6명중 3명은 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병이 나서 되돌아가고 자기들만 남았는데 돌아간 3명중에는 조선사람도 한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제당이 정확한 소재를 대주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연길쪽에 나가서 **김일성**부대를 찾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림짐작으로 여기저기를 헤매다보니 날도 많이 가고 고생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쏘련에서 나올 때 약도도 가지고 왔지만 우리 부대가 늘 유동하면서 활동을 하다나니 좀처럼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인민들까지 곁을 주지 않아서 우리와의 접선을 포기하고 쏘련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안도현 3도구 마을에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이 화라즈쪽으로 가보라고 귀띔해줘서 이렇게 오게 되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산전막에서 자다가 화재까지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화재바람에 옷들을 태우고 식량까지 거덜나서 닦은 콩으로 겨우 끼니를 에웠는데 화라즈에서도 우리를 만나지 못하면 임무를 포기하고 철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자기네는 만주땅에 들어선 첫날부터 날바다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의 심정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행로가 복잡하고 고립무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 연락원에게 새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필요한 일용품도 일식으로 공급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요기를 한 그들은 사령부천막에서 오래간만에 마음을 푹 놓고 휴식하였습니다.

주체 28(1939)년 말에 국제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연락원들을 보낸 사실을 두고 일제의 관헌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강덕5년(1939년) 10월 11일 **김일성**비가 화룡현 삼도구 서북쪽 침봉밀림속에 있을 때 공비와 같은 복장을 하고 권총을 휴대한 러시아인 8명이 조선인통역 두 사람과 함께 **김일성**을 찾아와서 중요담화를 했다. 그때 중요간부이외에는 누구도 곁에 접근시키지 않고 약 10일간 머물러 있은 다음 **김일성**비단 가운데서 허약자 12명을 데리고 떠나간 사실이 있다. 그 러시아인은 쏘련에서 연락원으로 온 사람들이라 하며…상세한 것은 명확치 않으나 직접 쏘련에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연락을 온 것이 아닌가고 보아진다.≫≪훈춘영사 기우찌의 보고, 소화15년(1940년) 7월 26일≫

≪다음으로 당의 지도에 대한 영도노선문제인바 이것은 작년(1939) 12월 쏘련에서 직접 제1로군에 4명의 연락원을 보내왔는데 그 연락내용과 목적은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러한 사실은 금년(1940) 1월 22일 무송에서 압수한 위증민이 양정우앞으로 보낸 서신속에서 그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쓰고 있으며 경로는 돈화에서 대포시하에로 들어오고 다시 양강구를 거쳐…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동향≫, ≪사상월보≫제177호, 사법성 형사국, 소화15년(1940) 11월≫

그때 국제당에서 우리에게 보낸 연락내용은 짤막한 것이였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국제당이 소집하는 만주빨치산지휘관들의 회의에 조선인민혁명군과 1로군에서 대표를 파견해달라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동북의 항일유격부대들이 당분간 대부대활동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당과 쏘련은 동북항일유격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고찰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말의 항일연군운동 자체실정을 보면 그 내부가 좀 순편치 않았습니다. 북만과 길동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2로군과 제3로군 사이에서는 지도와 연합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면에서 일정한 의견상이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상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당사람들은 제2로군과 제3로군의 대표들과 함께 쏘련에서 필요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그들은 북만과 길동지구의 항일연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김에 조선인민혁명군과 남만의 1로군대표들까지 데려다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협의를 마련함으로써 전동북적판도에서 항일혁명의 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뿐 아니라 만주빨치산운동을 쏘련의 극동정책에 조화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당에서 파견되어온 연락원들이 우리에게 이런 내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동에 조성된 군사정치정세라든가 그 당시 쏘련과 국제당이 실시하고 있던 일련의 정책으로 보아 그런 판단은 십분 가능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나 양정우나 위증민은 유격전구를 떠날 수 없는 몸이였습니다. 적의 대토벌이 눈앞에 박두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부대를 두고 쏘련으로 들어가버리면 새 작전수행에 막대한 후과를 미칠 수도 있고 대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대부대활동을 고려해달라는 국제당의 건의도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대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것이 결국 소극적인 분산도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심중하게 따져보아야할 문제였습니다.

나는 국제당연락원들에게 국제당의 두 가지 요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해준 다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인 자를 위증민에게로 보냈습니다. ≪만강≫이라는 대호를 가진 사령부통신원이 그를 안내하였습니다.

국제당연락원들이 화라즈밀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내용을 수록한 문건들과 사진자료들을 보냈습니다. 문건들과 사진자료들을 쏘련에 보관해두면 안전할 수 있었고 우리의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낸 문건들과 사진자료들은 한배낭 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안경을 끼고 임강현 5도구밀영에서 찍은 사진도 그때 보낸 것입니다.

쏘련으로 돌아가던 국제당연락원들은 불행하게도 화룡현 어느지방에서 철길을 건너다가 자위단놈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나니 문건들과 사진자료들이 국제당에 가닿지 못하고 고스란히 적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자료들이 일제의 관헌기록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국제당연락원들이 쏘련으로 들어가다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국제공산당제7차대회회의장

우리한테 왔던 국제당연락원들 중에 닌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닌이 적들과 교전하다가 부상당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국제당의 두 가지 요구와 관련된 위증민의 견해는 우리의 견해와 일치하였습니다.

우리가 국제당과 연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부터입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는 우리와 국제당과의 연계가 비교적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녕구회의에서 락착을 보지 못한 반민생단투쟁과 관련된 의견상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증민이 모스크바에 다녀온 1936년 초부터 1939년 가을까지는 우리와 국제당사이에 내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도 국제당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고 국제당도 우리에게 따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당시 국제당에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노선상 문제가 공명정대하게 해결된 이상 남호두회의에서 채택된 방침대로 혁명을 계속해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노선을 가지고 혁명을 추진시켰으며 백두산을 타고앉아 국내에로 무장투쟁을 확대해나갔습니다. 모든 노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고 투쟁기풍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곤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 모든 것을 자체로 극복해나갔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쓸데없이 손을 내밀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항일혁명시기부터 혁명의 자주적 노선을 확고히 견지해온 역사적 전통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자주성이 강한 당, 자주성이 강한 민족, 자주성이 강한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유격전을 벌인 나라도 많고 정규무력에 의한 현대전을 벌인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무력항쟁을 벌인 실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15성상 싸웠다고 하는 말은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조선혁명의 간고성을 말해주는 사실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고슬라비아빨치산이 잘 싸웠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가 독일군에 의해 강점된 것이 1941년 4월이니 그 나라 빨치산 역사도 몇 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티토가 빨치산투쟁을 시작하던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에는 정규군의 그루터기가 적지않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고슬라비아 빨치산은 쏘련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쥬꼬브의 회상록을 보면 쏘련은 이 나라에 보총이나 기관총과 같은 경무기만 해도 수십만 정 보내주었다고 서술되어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빨치산은 쏘련사람들한테서 대포나 탱크와 같은 중무기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인민이 벌인 항일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개석의 수하에 수백만의 대군이 있었는데 그 대군이 순수 반공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소극적이고 어정쩡하기는 하지만 반일의 기발을 든 것도 사실이고 일본군과 교전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장개석군대가 조금이라도 일본군을 견제했다면 그것은 중국인민이 벌인 유격전쟁에 대한 정규군의 지원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공합작이라는 말자체가 공동항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규군이 그 존재를 끝마친 것은 1907년입니다. 우리는 그때로부터 20년이상이나 지난 때에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시작할 때에는 정규군은 고사하고 그 그루터기조차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국가적 후방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었습니다.

의병이나 독립군들이 쓰던 총이 몇 자루 있었다고 하지만 다 낡아버린 구식이고 그것마저 녹이 쓸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총 한 자루 한 자루를 목숨과 바꾸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벌이면서 당한 어려움, 우리 유격대원들이 10년 가까이 산에서 겪은 고초를 다 말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국제당은 중국이나 인도같은 큰 나라 혁명에는 관심을 많이 돌리면서도 조선혁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주의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국제당에 앉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조선혁명을 중국혁명이나 일본혁명의 부속물처럼 보았습니다.

같은 중국혁명인 경우에도 관내의 혁명투쟁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돌렸지만 동북혁명에 대해서는 윈눈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당이 국민당을 위해서 보로진이나 브룩헬 같은 사람들을 고문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산당을 위해서는 보이친스키, 마린, 오토 브라운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북혁명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고문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동북혁명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면 제2로군이나 제3로군에 치중했을 뿐입니다. 쏘만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이나 남만의 제1로군에는 거의 낯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제당이 동북혁명을 경시한 사실은 그들이 쏘련에 데려다가 공부시킨 만주출신 지휘관들을 대부분 동북에 돌려보내지 않고 관내로 보낸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격구시절에 간도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투쟁을 했던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참모장 유한흥이나 제5군의 이형박은 다 쏘련에서 학교를 마친 후 출신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연안에 배치되어갔다가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야 동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담긴 기록들을 보면 동북혁명이 마치도 쏘련이나 국제당의 지원밑에서 전개된 것처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때 일본사람들은 내가 모스크바의 공산대학에서 훈련을 받은 후 1938년 여름에 쏘련으로부터 정예부대를 이끌고 만주에 들어왔다고 선전하였습니다. 일본의 어떤 관헌기록들을 보면 내가 상당히 오랜기간 쏘련에 들어가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지원을 받은 다음 만주로 돌아왔다고도 하였고 장고봉사건 이후 만주에 돌아와 동변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연길폭탄

이런 선전의 목적은 우리를 쏘련이나 그 어떤 외부세력의 사촉과 조종밑에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내인민들에게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말살시키려는데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 쏘련이나 국제당의 신세를 별반 지지 않았습니다. 왕청에 있을 때 수류탄공장을 하나 지어달라는 편지를 쏘련에 보

낸 적이 있었는데 상대측에서는 회답조차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길폭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탄을 자체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동북혁명이나 조선혁명에 어딘가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국제당이 어떻게 되어 1939년에 이르러서는 연락원을 보내어 우리를 쏘련에 초청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변화는 일본의 대쏘침략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던 쏘련의 군사정치정세의 요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을 통하여 일제의 영토팽창야욕과 강도적 본성을 다시한번 충분히 엿보게 된 쏘련은 그들이 어느 때든지 북공을 단행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국제당과 함께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를 각방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국제당이 특별히 중시한 것은 쏘련을 익측과 배후에서 무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맹자들을 찾아내고 그 동맹자들과의 군사정치적 연합을 실현하는 문제였습니다. 동방에서 쏘련을 무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존재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밖에 없었습니다. 국제당은 동북에서의 항일무장역량을 쏘련원동군의 일익으로, 그의 외선세력으로 보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쏘련원동군무력의 별동대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쏘련도 물론 같은 입장이였습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동북항일운동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던 쏘련사람들은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 때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자기네 나라를 옹호해서 강력한 배후공격작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서야 만주빨치산이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와의 유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였습니다.

국제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쏘련옹호의 선에서 추진시키는 것은 국제당의 기본사명인 동시에 시종일관한 정책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동북항일역량에 대한 국제당과 쏘련원동군사당국의 견해가 처음부터 완전히 일치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주빨치산에 대한 국제당의 입장은 전시가 도래할 때까지 역량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였고 원동군사당국의 입장은 중국전체가 이미 전시상태에 들어갔고 희생은 불가피한 것만큼 일본병력이 중국본토에로 이동하지 못하게 강한 군사적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어쨌든 국제당이 종전보다 동북항일운동에 더 낯을 돌리고 중요한 전략전술의 협의를 위해 우리를 쏘련에 초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의 배후에서 쏘련을 무장으로 지원할 수 있으리만큼 강력한 역량으로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국제당의 요구를 보유하고 대부대활동을 중지하지도 않았으며 쏘련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주에 그대로 틀고앉아 우리가 이미 설정한 시간표대로 대부대선회작전을 결단성있게 내밀어 적의 공세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렸습니다.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우리는 피동이 아니라 주동에 서서 새로운 투쟁방침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국제당의 요구대로 하바로프스크에 들어갔거나 소부대활동에로 인차 넘어갔더라면 대부대선회작전과 같은 큰 작전은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체 29(1940)년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국제당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해달라는 통지를 받으시었다. 국제당이 파견한 사절들이 사선을 헤치고 그이

를 찾아왔다. 그때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내가 국제당의 연락을 다시 받은 것은 1940년 10월 중순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소할바령회의 방침에 따라 도처에서 소부대활동을 벌일 때입니다. 국제당에서 파견한 연락원 2명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연락원들의 말이 자기네를 파견한 사람은 원동군사령부에 있는 류쉔꼬장령인데 그가 국제당의 명의로 전달하라고 한 사항은 12월에 하바로프스크에서 국제당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만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항일무장부대들이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며 원동에 기지를 정하고 역량을 수습재편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들어오라는 국제당의 지영도 동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류쉔꼬는 원동군사령부에 있으면서 국제당이 주관하는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그 후 하바로프스크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자 이거 **김일성**동지의 손을 잡아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와의 연계를 짓기 위해 소부대와 소조들을 파견하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첫 대면부터 상대의 마음을 잡아끄는 열정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류쉔꼬는 흔히 왕신림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였는데 주로 국제당이나 쏘련과 우리 사이에 연계를 지어주는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연락원들의 말에 의하면 1940년 초에 국제당이 하바로프스크에서 소집하려고 했던 만주빨치산지휘관들의 회의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제1로군 대표들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만과 길동지구 빨치산대표들만 참가한 회의로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당은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동북의 모든 항일무장부대 지휘관들의 회의를 기어이 소집하여 동북항일운동의 발전방향도 토의하고 쏘련이 당하고 있는 국난도 타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연락원들이 우리에게 와닿은 것은 10월이지만 국제당이 회의소집과 관련한 통지를 보낸 것은 1940년 9월이였습니다. 그 통지가 제2로군과 제3로군에는 전신으로 전달되었지만 무선통신체계가 없던 우리에게는 연락원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국제당이 하바로프스크회의에 참가하라고 지정한 대상은 각 로군의 총지휘, 정치위원, 당서기를 비롯한 주요군정간부들이였습니다.

나는 위증민에게 국제당에서 연락원이 왔다는 것을 통보해주고 그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증민은 국제당에서 주관하는 회의인 것만큼 가기는 가야겠으나 건강이 허락치 않아 자리를 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국제당에 가면 조선인민혁명군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과 남만성위도 대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소부대활동과 관련된 국제당의 요구는 우리가 이미 소할바령회의에서 채택한 소부대활동방침과도 일치하였습니다.

이 시기 군사정치정세는 우리가 1939년 말-1940년 초에 대부대활동을 벌이던 시기보다 훨씬 더 엄혹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대로 와와 밀려다니기가 곤란한 때였습니다.

우선 적들이 집단부락화를 완성한 때여서 대부대의 식량을 보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줌의 쌀, 한 개의 강냉떡을 위해 피를 흘리는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우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매번 식량을 해결하군 하였습니다.

적들은 그 당시 치본공작과 사상공작에 특별한 힘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집단부락정책은 종전에 우리가 서간도에서 보던 집단부락정책보다 훨씬 더 악랄할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산재가옥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무장부락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비민분리를 강행하면서 식량, 물자, 탄약 등에 대한 통제와 통비분자들에 대한 색출, 검거, 도하장 경비를 강화하였습니다. 밀작아편에 대한 단속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난민구제요, 민생공작이요 하고 떠들면서 혁명군중과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가면 대부대활동을 할 때보다 식량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데서 식량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량이 1차이고 그 다음이 전술이였습니다. 먹지 않고서야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의식주라는 말대신에 식의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빨치산시절에 식량고생을 많이 한 체험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동에 드나들면서 소부대로 움직이면 인민들속에서 정치공작을 하기도 편리했고 부대의 간부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사업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군사활동을 벌이고 겨울철에는 쏘련이 알선해주는 곳에 가서 군정훈련을 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량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의미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에 우리는 적의 대토벌로 하여 많은 간부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국제당연락원들에게 우리가 이미 항일무장투쟁발전자체의 요구로부터 소할바령에서 회의를 열고 역량보존과 소부대활동에로 이행할 데 대한 방침을 채택한데 대해서 통보해주고 쏘련으로 들어오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이를 악물고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대오를 수습하고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지대를 확보하는 것은 무장투쟁의 현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될 수 있었습니다. 역량을 보존하고 육성하자면 그런 안정된 기지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와서 역량보존문제에 대해 주의를 많이 돌리게 된 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이 바야흐로 가까워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 하반년에 와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전 구라파를 휩쓸었습니다. 쏘련과 독일사이에 전쟁이 촉발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결속짓지 못한 상태에서 남방을 겨냥한 또 하나의 다른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 영을 상대로 새로운 전쟁을 또 도발한다면 그런 모험이 어떤 결과로 끝나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였습니다.

이런 정세하에서는 정면충돌을 피하고 역량을 보존확대강화하는 것이 상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견해는 쏘련이나 국제당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습니다.

쏘련이 자기 경내에 우리가 역량을 수습하고 재편성하며 대오를 보존확대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군사적, 물질적 지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쏘련으로 들어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만큼 심사숙고해야 했습니다. 우선 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 얼마동안

체류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나오는가, 아니면 오래 머무르게 되는가, 원동에 기지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머물러있는 경우 무장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겠는가, 국내운동에 대한 지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부터 나는 원동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몇 가지 경우로 갈라서 고찰하고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경우는 주력은 현재의 위치에 남겨두고 지휘관들만 들어가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 본래의 위치에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지휘관들만 먼저 들어가서 회의에 참가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그곳 실정을 보아가며 부대를 쏘련경내에로 불러들이는 것이며 세 번째의 경우는 회의에 참가하는 문제와 쏘련경내에로 들어가는 문제를 시간적으로 일치시켜 우선 잠정적으로 그곳에 머무르면서 차후대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임철

나는 장차 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백두산지구에 꾸려 놓은 비밀근거지들을 더 잘 보강하는 전제우에서 쏘련경내에 새로운 기지를 창설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니 시간이 요구되었고 보다 상세한 정황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할바령회의방침에 따라 우리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무대로 하여 소부대활동을 하면서 한 해 겨울을 나기로 하고 그 준비를 다그쳐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그것을 집어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분석과 판단으로부터 나는 국제당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뒤로 미루고 쏘련에 먼저 들여보낸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여 우리에게 연락하게 하는 한편 본래부터 추진시키던 겨울나이준비를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용운에게 과업을 주어 쏘련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게 하는 한편 그전부터 이용해온 통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이용운은 제3방면군에서 싸움군으로 소문난 연대장이였습니다. 그는 1939년 8월에 있은 안도현 대사하, 대장강 전투에서 전동규가 전사한 후 그 후임으로 연대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용운은 원래 국제당에 보내는 위증민의 편지를 가지고 쏘련으로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용운은 허우대가 커서 나이보다 퍽 숙성해보였습니다. 그는 입이 무겁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했지만 일단 전투장에만 나서면 용맹스럽고 날파람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가 돈화현에 있는 어떤 집단부락을 습격할 때였다고 합니다. 행군중에 있던 부대는 식량이 떨어져서 집단부락을 하나 치기로 하고 먼저 정찰병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정찰병들은 마을에 3명의 적밖에 없다는 적정자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관총분대가 마을에 들어가서 적들을 소멸하기로 하였으나 이용운은 그까짓 세 놈 때문에 기관총분대까지 데리고가겠는가고 하면서 자기가 전령병을 데리고 먼저 적을 제압할 테니 신호를 하면 마을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전령병은 태병열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용운은 전령병 한 사람만 데리고 집단부락에 내려가 곧장 병영으로 찾아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안에서는 30여명이나 되는 장교들이 둘러앉아 작전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용지도를 짚어가며 훈시를 하던 우두머리장교가 방안에 들어서는 이용운을 보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이용운을 따라 방안에 들어갔던 태병열은 훗날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살아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운은 태연히 싸창을 꺼내며 너희들은 포위되였으니 손을 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우두머리장교는 악 소리를 지르면서 이용운의 싸창을 거머잡았습니다. 이용운은 방아쇠를 잡아당기였으나 불발이였습니다. 그는 싸창을 왈칵 나꿔챘습니다.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 왜놈장교는 손바닥이 째어지면서 잡았던 총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용운은 싸창에 다시 장탄하여 그 장교를 쏴 제끼고 저항하는 장교들을 발길로 차서 쓰러뜨리며 단신으로 적들을 제압해버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장교들이 그가 쏜 총탄에 맞아 즉사하였습니다.

태병열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문가에 서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병열이, 벽을 지키라!≫하는 이용운의 고함소리를 듣고서야 자기가 등지고 있는 벽에 주런이 걸려있는 수십 자루의 권총을 보았습니다.

이용운은 태병열을 시켜 그 권총들을 모두 거두게 하고 살아남은 장교들을 생포하였습니다. 그날밤 그는 태병열과 함께 유격대토벌에 나갔다가 돌아온 수많은 적사병들까지도 모조리 생포하였습니다.

이용운은 액목현성습격전투와 대사하, 대장강 전투, 요차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용감무쌍하고 과단성있고 재능있는 지휘관으로 이름을 날리였습니다.

내가 이용운연대장에게 임무를 준 곳이 소할바령어귀일 것입니다. 이용운을 만날 때 임철도 같이 만났습니다. 이용운에게 쏘련으로 드나드는 연락통로를 잘 개척해 놓으라고 했더니 그는 염려말라고 하였습니다.

임춘추와 한익수가 부상자와 허약자들을 이끌고 쏘련 쪽으로 떠나간 것은 이용운과 임철이 쏘만국경쪽에 가서 통로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렇게도 걱정했던 부상자와 허약자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닿았는데 특사로 떠나갔던 이용운만은 일본군과의 싸움 끝에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그는 통로개척과 관련된 임무도 정확히 수행하였고 그 통로를 타고 부상자들을 쏘련으로 들여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수행해야 할 나머지 과업은 쏘련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곳 형편을 전해주는 것이였습니다. 이용운은 그 과업을 위해 국경 쪽으로 가다가 대원들의 옷차림이 남루한 것을 보고 사령부의 위임을 받고 쏘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줄해서야 체면이 서겠는가고 하면서 이전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던 숯구이막주인을 통해 옷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숯구이막주인이 나쁜 놈이였습니다. 그는 혁명을 하다가 변절하여 적의 밀정으로 된 자였습니다. 그가 옷을 사온다고 이용운을 속여넘기고 100여명이나 되는 적을 끌고왔습니다. 이용운은 혼자서 수십 명의 적을 쓸어눕히고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몇 해를 두고 단절되었던 국제당과의 연계는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국제당과의 연계를 밀접히 가지였고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1940년 가을

최근에 나는 항일혁명역사를 소재선전하는 글들을 읽어보는 과정에 역사가들의 연구사업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더 개척하고 심화시켜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할바령회의를 전후한 시기의 자료들이 많지 못합니다.

1940년 가을이 보통가을이 아닙니다. 그 해 가을에 우리가 겪은 하많은 곡절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아마 몇 편의 장편소설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한 때여서 그 당시 우리는 무송현성전투나 간삼봉전투와 같은 큰 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일혁명역사에서 고난의 행군만큼 간고한 행군이 없고 고난의 행군시기만큼 간고한 시기가 없었다고 다들 말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1940년 가을에 우리가 겪은 시련은 그에 못지 않은 시련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육체적 고통이 극한점을 넘어섰던 시련이라면 1940년 가을에 우리가 처한 역경은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던 또 한 차례의 시련이였습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다같이 그것을 이겨내자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자기자신과의 부단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1940년 가을에 얻은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였습니다.

소할바령회의이후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간 다음에 우리는 변화된 투쟁전략에 맞게 부대도 새롭게 편성하여 방면군산하에 여러 개의 소부대들을 내왔습니다.

그 소부대들의 활동지역과 임무를 분담한 다음 나는 소부대를 데리고 연길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김일이네 소부대에는 왕청, 동녕 일대에서 활동할 과업을 주고 오백룡이네 소부대에는 연길, 안도 일대에서 겨울나이식량을 해결할 임무를 주어 떠나보냈습니다.

우리는 연길현 발재툰막바지에서 오백룡소부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강냉이 이삭 한 개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을 한 되박이라도 얻자면 집단부락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목숨을 내대지 않고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강위룡

우리는 그 해 여름 내내 거의나 무수해만 삶아먹고 지냈습니다. 산에 무수해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속이 빈데다가 그것만 먹고 지내자니 아무리 먹어도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식량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 정찰을 나갔던 우리 동무들이 골아래에서 농막을 하나 발견했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조선농민 셋이 거처하는 농막인데 막주변에는 보습으로 이랑을 지은 꽤 넉질한 밭도 있더라고 하면서 그 농민들을 잘 발동시키면 식량을 얼마간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위룡을 농막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농막사람들과 사업하되 우리가 유격대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툭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강위룡이 방조를 호소하자 농막사람들은 난색을 지어보였다고 합니다. 식량을 구하려면 명월구에 갔다와야 하는데 경계가 너무 심해서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유격대의 요구인데 물러설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명월구로 떠나갔다는 것이였습니다.

강위룡이한테서 이런 내용의 보고를 들은 다음 나는 대원들에게 경각성을 높일 것과 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날 취사장에서는 더덕죽을 끓이였습니다. 더덕을 두드려서 푹 끓이면 죽처럼 되는데 여기에 낟알을 조금만 섞으면 별맛이였습니다. 풀음식치고는 상음식이였습니다.

더덕죽이 한창 끓고 있을 때 보초를 서던 손장춘이 달려와서 적들이 누렇게 달려든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보초소에 나가본 동무들은 적들이 어디로 달려드는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손장춘은 산아래켠을 가리키며 거기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나무그루터기들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열병을 앓고 나면 그렇게 나무그루터기를 사람으로 빗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난 지 얼마 안되는 몸이였습니다.

내가 손장춘을 보초소로 내보낸 지휘관을 추궁하고 있는 사이에 취사장에서 일하던 대원들은 적들이 달려든다는 말을 듣고 공들여 쒀놓은 더덕죽을 다 쏟아버리었습니다.

며칠후 식량을 사러 갔던 농막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명월구에 갔던 사람은 둘인데 양복을 입은 신사 한 사람이 따라와서 나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양복쟁이는 전에 왕청유격대에서 중대장을 하던 최용빈이였습니다. 최용빈은 한다하는 싸움군이였는데 원래 힘이 장사였습니다.

언제인가 그는 나를 찾아와 몸이 쇠약해졌는데 얼마동안 중대를 떠나 휴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얼마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소왕청치기에 가서 짐승사냥을 하면서 몸보신도 하고 그 고장 당조직의 사업도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그는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자 안해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적통치구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편지의 사연인즉 아이를 데리고 잘 있으라, 나는 혁명을 하다가 민생단으로 몰려 개죽음을 당하기가 싫어서 내려가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 그러나 내려가서도 혁명사업은 계속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해산한지 얼마 안되는 그의 안해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울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산후탈을 만났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습니다. 갓난애는 금시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사경에 처한 처자를 버리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적구로 달아나버린 최용빈이,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내 가슴속에서는 이런 분노가 솟구쳐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최용빈을 무정한 인간이라고 욕하면서도 그가 편지에서 쓴 대로 변치말고 혁명사업을 계속했으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최용빈을 대신해서 그의 처자를 돌봐주었습니다. 후에는 그들 모녀를 부상병들과 함께 쏘련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쩍 떠나갔던 최용빈이 5년이 지나서 우리를 찾아왔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민생단 바람이 불던 그때보다 더 어려운 때에 말입니다.

최용빈은 쟁개비가 데룽데룽 매달린 배낭을 메고 껑충껑충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는지 신수도 멀쩡했습니다. 그는 사령부천막에 들어서자 ≪이게 얼마만입니까!≫하면서 나에게로 곤두박질해왔습니다.

나도 반갑게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과거사야 어떻든 왕청시절의 내 수하지휘관이 아닙니까.

최용빈은 나를 만나기 바쁘게 유격대에 다시 들어오려고 산중을 헤매던 사연을 장황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식사를 했는가고 물었더니 요아래에서 밥을 끓여먹고 오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배낭속에서 쌀자루랑, 말린 가재미랑, 술이랑 꺼내놓았습니다.

배낭에 매달린 쟁개비를 보니 그을음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유격대를 찾느라고 산중을 오래 헤맸다는 사람, 그것도 방금 밥을 해먹고 온다는 사람의 쟁개비가 그을음 하나 묻지 않고 새것대로 있으니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나는 그가 이종락과 같은 인간추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때 우리 부대에서는 최용빈이 귀순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댔습니다.

최용빈은 내가 자기를 어떻게 본다는 것도 모르고 컵에 술을 가득 붓고나서 다시 만난 기념으로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청을 거절하자 그는 갑자기 술컵을 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노기에 차있었으니까 아마 자기정체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는 최용빈이, 사실대로 말하라, 농막사람들은 어떻게 만났고 여기로 찾아온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고 따지였습니다.

최용빈은 더 오그랑수를 써야 소용없다는 것을 인차 깨달았습니다. 그는 농막에 있던 세사람은 밀정인데 자기가 그자들의 보고를 받고 토벌대 3개부대를 데리고와서 이 골안을 포위해놓고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신호만 보내면 토벌대가 곧 쳐들어올 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빠지기 어려운 포위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사생결단을 해야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보다도 최용빈이 일제의 개가 되어 뻐젓이 내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였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그가 나를 귀순시켜보려고 있는 말주변을 다 짜내여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내 눈치를 보면서 나는 **김**장군이 얼마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잘 안다, 만주천지에 일본군대가 쫙 깔렸다,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김**장군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당장 귀순한다 해도 허물할 사람이 없다, 귀순한 사람들은 다 잘되었다, 장군도 내려만 오면 길림성 성장자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주어섬겼습니다.

나는 최용빈이 하는 말을 듣다못해 용빈이, 네가 어쩌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래 옛날 왕청에서 중대장까지 하던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래도 우리는 네가 처자를 버리고 달아났을 때 아까운 지휘관을 잃었다고 섭섭해했다, 네가 이런 몰골을 해가지고 감히 우리앞에 나타나다니, 처자까지 다 버리고 적들의 품에 들어간 너에게 인간의 양심이 있는가, 변해도 너절하게 변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최용빈의 변절은 몸이 허약해졌다는 핑계를 대고 중대를 떠나 소왕청치기에 가서 생활할 때부터 벌써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는 혁명보다도 제 한 몸의 보신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자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 싫어서 적구로 도망쳤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해진데서 온 결과입니다.

최용빈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혁명의 길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그 종착점은 변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대원들에게 혁명가가 갈길은 죽으나사나 혁명의 한길밖에 없다, 이 길을 떠나면 반동이 되고 배신자가 되고 인간추물이 된다, 눈비가 두렵고 총알이 두렵고 식량난이 두렵고 산악행군이 두렵고 감옥이 두렵고 교수대

가 두려워서 혁명을 중도반단하는 사람들은 형틀앞에 두세 번 끌고가서 고추물만 먹여도 인차 기발을 바꾼다고 말해주군 했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용빈의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였습니다.

간도에서 민생단 문제로 숱한 사람들이 처형되던 그 무렵에는 최용빈이처럼 유격구를 버리고 적구로 내려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민생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유격구를 떠나지 않고 혁명대오에 그냥 서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죽으면 죽었지 양심을 팔 수 없었고 혁명을 등지면 반혁명의 길밖에 갈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혁명가들은 이처럼 양심을 버리고 혁명의 붉은기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못할 짓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성철

신선동유격구시절에 박성철이네 중대에는 인숙이라는 여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원이 하루는 보초근무를 서고 있은 박성철에게 편지 한 장을 가만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중대에서 중대장을 하는 그 여대원의 남편이 자기 안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연인즉 ≪붉은 포승에 묶였다.≫는 것이였습니다. 민생단에 걸렸다는 은어였습니다.

그 당시 박성철은 중대청년간사였습니다. 여대원이 간사에게 그런 편지를 보이고 자기의 운명문제를 의논하려고 한 것은 조직관념의 견지에서 볼 때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 여대원은 박성철에게 남편이 민생단으로 낙인되었으니 이제는 자기도 무사치 못할 것 같은데 억울한 죽음을 당할 바에는 적구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박성철은 그게 무슨 소린가, 적구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혁명투쟁을 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투항하는 것이나 같은 짓이니 어떻게 그렇게야 하겠는가고 말해주었습니다.

인숙이라는 여대원은 아니다, 민생단을 피하자는 것이지 혁명투쟁을 그만두자는게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성철은 혁명대오를 떠나게 되면 반혁명의 길밖에 없지 않는가 하고 차근차근 말해주었습니다.

여대원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혁명가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번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철이 그때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고 죽지 않겠거든 뛰라고 부추겼더라면 어쩔 번했습니까.

인숙이라는 여대원은 유격구를 떠나지 않고 혁명대오에서 그냥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혁명이냐, 도주냐 하는 두 갈래의 길중에서 도주의 길을 택하지 않고 혁명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일신상에 생긴 문제를 혼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청년간사에게 노출시켜 조직의 방조를 받은 데 있고 일단 조직에서 주는 조언을 받은 다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이성으로 돌아와 혁명가답게 동요를 극복한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대장부인 최용빈은 혁명동지들의 방조를 받을 궁리도 하지 않고 안해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내고는 비굴하게 적구로 달아나버렸습니다. 그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귀중하게 여겼더라면 방금 해산한 안해를 버리고 그처럼 비겁하게 적구로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감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최용빈의 운명은 벌써 여기서 결정되었습니다. 사람이 개인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만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혁명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나 자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라는 것에서는 배반이 생기지도 않거니와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은 언제나 자기를 억제하고 우리라는 것에 습관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의 깨끗한 양심이며 매일, 매 시각 자기를 완성해가는 수양과정입니다.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혁명가가 될 수 없으며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남패자에서는 이종락이 일본군속의 옷을 입고 나타나 귀순을 권고했지, 고난의 행군 때에는 이호림이 달아나버렸지, 임수산도 변절했지, 오늘은 또 최용빈이라는 게 찾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종락이도 최용빈이도 내가 아끼고 신임하던 사람들이라는데 있습니다. 덜 아끼고 덜 신임하고 덜 사랑했더라도 그래도 가슴이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혁명군시절의 대장이라는게 간단치 않습니다. 항일유격대의 중대장도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변절이나 해 가지고 집에 가만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혁명을 배반한 것이 얼마나 양심이 없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옛 상관앞에 뻐젓이 나타나 귀순을 설교하니 내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수치도 모르고 내앞에 뻐젓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혁명이 다 망했기 때문에 옛 사령관한테 찾아와 귀순을 설교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세에 암둔했고 인간자체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최용빈은 이종락과 같은 운명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적들은 우리가 있는 산을 이중삼중으로 포위했습니다. 사방에 우등불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물을 친데도 온 산판을 다 뒤덮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적들은 대체로 산능선이나 골짜기에 보초를 세우고 포위진을 치군 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적들끼리 부딪치게 하고는 산허리를 타고 그 곳을 떠났습니다.

명월구에서 안도로 가는 큰길을 넘은 다음 수림속에 들어가 한숨 돌리면서 보니 적의 토벌대가 시누렇게 우리가 있던 발재툰막바지에 올라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수림속으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정황이 조성되게 되자 우리와 오백룡소부대와의 접선에는 난관이 생기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발재툰막바지에서 오백룡이네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오백룡이네 부대의 통신원들을 만나려면 누구인가 거기에 가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로 되는 것은 오백룡이네 통신원들이 발재툰막바지가 적들의 수중에 넘어간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봉손과 김홍수를 연락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김홍수는 장백에서 갓 입대했을 때 꼬마신랑이란 별명으로 불리우던 대원인데 책임성이 강했습니다.

지봉손과 김홍수는 다음날 저녁때 연락지점에서 통신원들을 만나 오백룡이 보낸 편지를 받아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통신원을 만나려고 연락지점으로 뚫고들어가던 경위를 들어보았는데 참

으로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무를 한대한대 안고 돌면서 뚫고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오백룡이네는 그 동안 집단부락들을 치고 얼마간의 식량을 해결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그 식량의 대부분을 사령부에 보내왔습니다.

발재툰을 떠난 우리가 다음으로 거처를 잡은 곳은 안도현 황구령기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940년 겨울을 나면서 소부대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소부대활동을 벌이면서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고 군중지반도 튼튼히 꾸려놓자면 겨울나이준비를 잘 해야 했습니다.

나는 오백룡소부대외에도 여러 소부대들에 식량과 소금, 천을 비롯하여 겨울나이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들을 구입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봉손

겨울나이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사상적 준비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적 신념을 고수할 수 있도록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특별히 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규율을 강하게 세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강위룡이네 소부대에서는 사상적으로 해이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밀영을 앉힐만한 곳을 탐색하고 오던 그들은 개울에서 물고기가 와글거리는 것을 보자 거기에 총을 마구 갈기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근방의 고개마루에서 적들이 포대를 쌓느라고 왁작거리고 있었다는데 그런데서 총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겠습니까. 밀영에 틀고앉아 한 해 겨울 많은 일을 하려 했던 우리의 계획이 몇 방의 총소리 때문에 다 나무아미타불이 될 번했습니다.

그당시의 일가운데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소사건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장흥룡이였습니다. 그는 기관총 소대에서 분대장을 하는 사람이였는데 소부대 하나를 책임지고 쟈피거우일대에 식량공작을 나갔습니다.

장흥룡은 목재소 소도 아니고 뿔에 임금 왕자 도장을 새긴 민회소도 아닌 농민의 소를 끌고 왔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대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다가 산중에서 그 소를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종시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장흥룡은 대원들을 시켜 소를 밀영으로 끌고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를 매두었던 장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인이 오면 사연을 말하고 돈을 물어주자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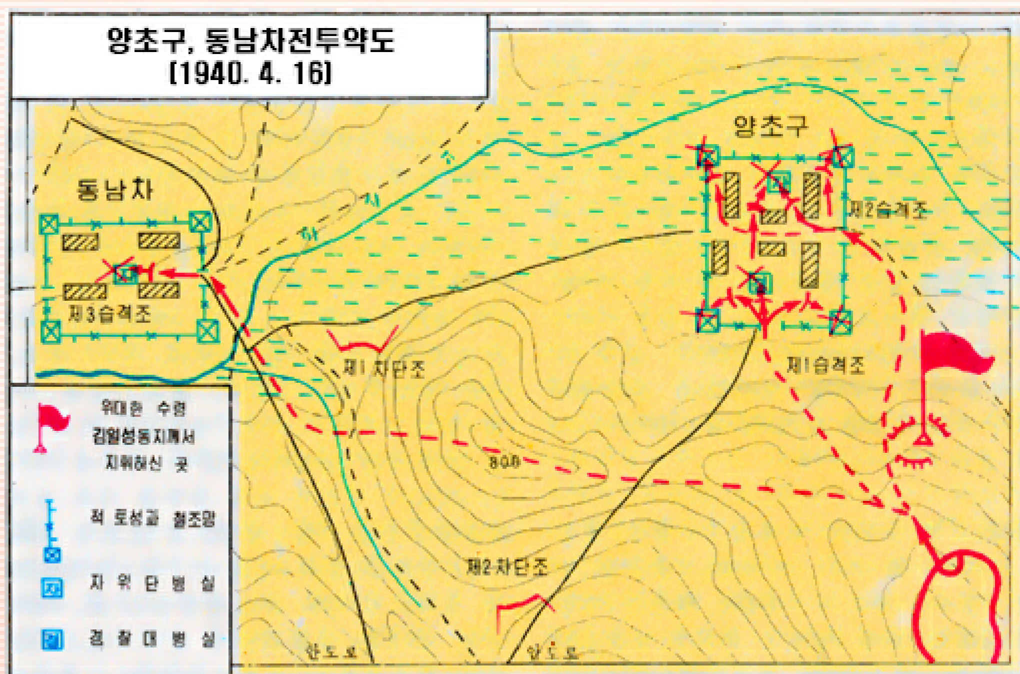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소값을 치르지 못한 채 밀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소를 내다맨 주인이 소를 풀어가려고 오다가 총멘 사람이 그 곁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는 질겁해서 달아났다는 것이였습니다. 장흥룡이네 소부대가 값도 치르지 않고 농민의 소를 끌어왔다는 말을 듣고 나는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혁명군의 복무조례를 잘 모르는 신대원이 그랬다면 몰라도 혁명을 오래했다는 장흥룡이 그런 엄청난 탈선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흥룡은 1932년에 자위단놈들과 싸우던 중 적탄에 손가락 하나를 잃고 포로되었다가 도망쳐서 귀대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그가 혹시 적들한테서 무슨 임무를 받고 오지 않았나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장흥룡은 동지들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처창즈유



격구에서의 모진 기아도 이겨내고 고난의 행군도 견디어 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도 모르게 소를 망탕 끌어오는 것과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민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장투쟁 초기부터 강조해 온 것이고 인민혁명군의 복무조례에도 명문화한 문제입니다. 1940년이면 군민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잘 유지되던 때였습니다. 어느정도로 군민관계가 순결했는가, 인민이 후방물자를 지원하면 오히려 그것을 되돌려주는 수준이였습니다.

1940년 봄에 우리는 양초구에서 전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마리의 닭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에게 닭값의 몇십 배에 달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마을농민들은 그 돈을 보자 펄쩍 뛰였습니다. 혁명군을 인민의 아들딸로 조직된 군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 자식들에게 돈을 받고 팔라는 것인가, 성의를 몰라도 너무나 몰라준다고 막 성을 냈습니다. 그렇게 들이대니 우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민이 표시한 지성에 유격대가 돈을 치루어 주는 것으로 대답했으니 성의를 표시한 마을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처사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을사람들이 돈을 안받으면 닭을 받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돈과 닭이 한참동안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닭을 받고 마을 사람들도 돈을 받는 것으로 실갱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대가 양초구를 철수할 때 값을 치르고 가져가던 그 닭들마저 놓아주고 갔습니다.

자, 보시오. 이것이 오래전 일도 아니고 몇 달 전에 있은 일인데 장흥룡이 이런 전례를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런 행위를 했으니 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장흥룡에 대한 대원들의 비판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장흥룡이 죽음으로써도 이 과오를 씻을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장흥룡이도 자기비판을 잘했습니다. 그가 자기비판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책벌만 주고 소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장흥룡은 1941년에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만주로 다시 나왔을 때 김일이네 소부대에 망라되어 활동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우리가 황구령기지에 있을 때는 도주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도주자는 쑈채라고 부르던 중국인 대원이였습니다.

쑈채는 평소에 집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추석날에는 월병을 먹으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조직이 그에 대한 개별교양을 많이 하였습니다. 쑈채가 전염병을 앓게 되자 우리는 그를 후방병원에 보냈습니다. 그 후 그가 작식대에서 일하는 여대원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충동질했다는 사실이 사령부에 보고되였습니다. 그는 군인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일을 세우면 졸기만 하고 보초를 서라면 배가 아프다고 죽는시늉을 했습니다. 억지로는 혁명을 못합니다.

쑈채는 끝내 우리의 성의를 저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주한 다음의 그의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대오를 떠나자마자 토벌대를 데리고 우리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원들은 소부대공작을 나가고 밀영에는 나와 전령병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사령부의 위치를 맹산촌오지로 옮겼습니다.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족족 여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백룡이네 소부대에서는 수백 석의 식량을 장만하여 비밀장소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강냉이밭을 통채로 사서는 이삭을 따서 마대에 넣어 푸르허에서 50리 가량 떨어진 깊은 수림속에 뒤주를 만들고 은밀하게 저장했습니다.

국제당이 쏘련에서 소집하는 조, 중, 쏘 군사지휘관들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보내온 것이 바로 이 무렵이였습니다. 그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때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먼저 선발대를 파견하여 그쪽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는 한편 종전에 세운 방침 그대로 겨울을 동북땅에서 날 준비를 마저 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량이 적들의 손에 몽땅 들어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비탄장이 변절하는 바람에 식량을 저장했던 장소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탄장이란 김명화가 돈화의 수림속에서 온갖 지성을 다해 살려낸 그 비로까데입니다. 연대장까지 한 사람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변절하였습니다.

식량저장고의 위치를 알아낸 적들은 산에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몰고와 뒤주를 헤쳐서는 몽땅 펴갔습니다. 몇 달 동안의 수고가 하루아침사이에 물거품이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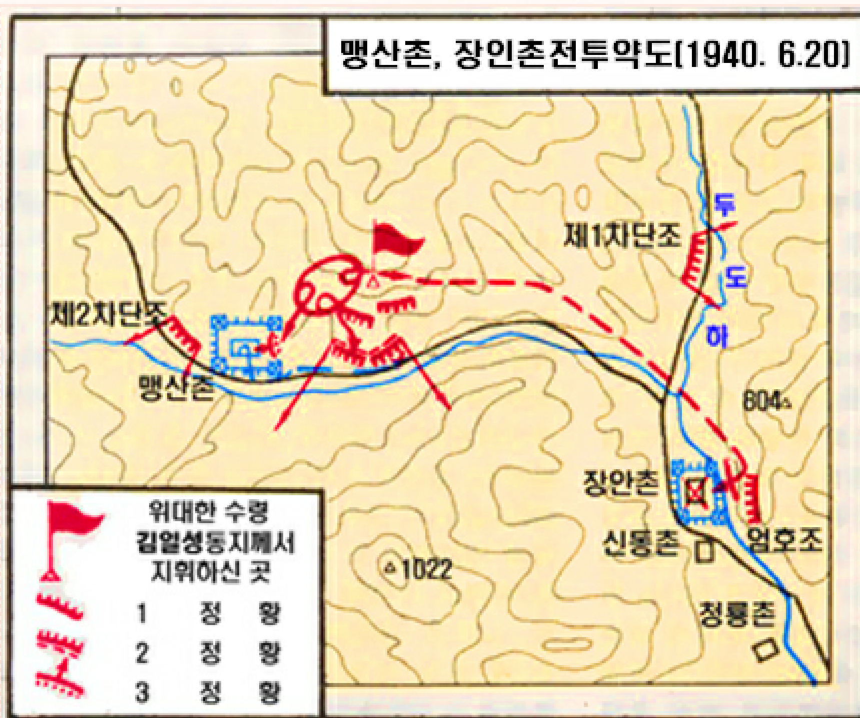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곤란앞에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의 난관은 큰 것이였지만 우리가 그런 난관을 어디 한두 번만 겪었습니까.

나자구등판에서 겪은 고생, 두 차례에 걸치는 북만원정과 무송원정은 얼마나 간고한 원정이고 고난의 행군은 또 얼마나 곡절많은 행군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혹한도 이겨냈고 주림도 이겨냈고 그믐밤처럼 캄캄한 절망도 이겨냈습니다. 동지들의 희생으로부터 생기는 슬픔과 심장의 동통도 다 디디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우리모두가 어떤 정황에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 혁명가의 양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이 고비를 이겨내고 혁명을 다시한번 상승시키자. 좋다. 누가 승리자가 되는가 두고보자!

나는 그때 맹산촌에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혁명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할가, 배짱이라고 할가, 시련이 겹칠수록 담력은 커지고 혁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더욱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출로는 무엇인가.

이런 때일수록 강행군을 하는데 있었습니다. 강행군을 하자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사상동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소집한 회의가 바로 맹산촌회의입니다.

나는 대원들에게 툭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정세는 엄혹하고 더 간고해진다. 우리 혁명위업이 열매를 맺어 나라가 독립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일치하게 믿고 있은 바이지만 그런 날이 언제쯤 오겠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10년이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 싸웠지만 그런 고생을 이제 5년 더하게 될지 10년 더하게 될지 그것은 찍어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길에는 허다한 난관이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겪은 난관보다 몇 배, 몇십배 더 큰 난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 혁명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비도 주고 길양식도 주겠다. 그리고 투쟁을 중도반단한데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겠다. 힘이 약하고 신심이 모자라서 대오를 떠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는가. 갈 사람은 가라. 그러되 인사는 하고 가라.

대원들은 그 말을 듣자 와 하고 내 팔에 매달려 장군님, 혁명이 성공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일없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우리는 장군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동지들을 배반하고 산에서 내려가 적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살 바엔 여기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장군님과 생사를 같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뿌렸습니다.

대원들이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났습니다. 그때의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연설도 그날 대원들이 한 말보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진 맹세는 항일혁명의 장도에 바친 우리들 자신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결의였습니다.

맹산촌오지에서 열린 회의, 그것은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되는 사령관과 전사들의 혼연일체, 지도자와 대중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다시한번 확증한 회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 회의를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위기에서 구출 할 수 있는 기본명맥이 혁명적 양심을 귀중히 간직하며 사령관과 전사들이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데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산촌회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굴함없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전에 원동에 보냈던 동무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당이 장차 하바로프스크에서 소집하게 되는 조, 중, 쏘 세 나라 군사지휘관들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나와 위증민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1로군 대표들이 빠른 시일안에 쏘련으로 들어올 것을 거듭 요구한다는 것과 그 기회에 동북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격부대들이 쏘련경내에 들어오는 경우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두익

국제당은 우리가 일단 원동에 들어가서 한 해 겨울을 난 다음 차후 활동대책을 실정에 맞게 상론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국제당이 소집하려고 하는 회의취지가 명백하고 또 동북항일연군의 다른 지휘관들도 이미 도착했다고 하는 실정에서 나는 쏘련경내에 들어가 회의에 참가할 것을 결심하면서 주력부대 일부성원들을 데리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라, 제 땅과 더 멀어지고 이미 싸우던 고장을 또다시 잠시나마 떠나게 된다니 섭섭하다는 것이 대원들의 일반적인 심리였습니다.

내가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쏘련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자 일부 대원들은 국제당이 중대한 회의를 소집해놓고 사령관을 찾으니 장군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들어가고 자기네는 남아서 싸우면 어떻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도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대를 데리고 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로서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설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혁명을 버리고 주저앉자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그곳에 가서 살자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은 국제당에서 소집한 지난해의 회의에도 못참가하였는데 이번 회의에는 참가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제당이나 쏘련당국과 좀더 폭넓게 조선혁명이 장래문제를 논의해보자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당에서 소집하는 회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것은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회의에 갈 적에 동무들을 데리고 가자는 것이다, 겨울나이준비도 잘 안된 조건에서 동무들만을 떨궈놓고 갈 수 없다, 그러니 함께 쏘련경내에 갔다가 겨울이나 나고 봄에 다시 이 전장으로 돌아오자고 말해주었습니다.

후에 나는 이 엄혹했던 1940년 가을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지휘관으로서 제때에 결심을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갈 준비를 끝내고 처창즈치기를 떠난 것은 10월말 경이었습니다.

출발에 앞서 나는 위증민과 오백룡에게 연락원을 보냈습니다. 위증민도 오백룡도 병상에 매인 몸들이어서 원동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연락원을 만나지 못한 오백룡은 그 후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안도땅을 다 뒤졌다고 합니다. 오백룡이 처창즈치기에 당도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묻어두고간 식량과 동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백룡이네를 생각해서 쌀 두가마니와 솜옷 몇십 벌을 파묻어두고 갔는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준 셈입니다.

그 후 오백룡소부대도 뒤따라 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동으로 들어가는 노정에서도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낮에는 주로 숲속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만 행군했는데 적들을 피해가며 행군하자니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였습니다. 그래도 노두구까지는 단숨에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백초구쪽으로 갈 때 토벌대와 맞다들었습니다. 우리가 외줄로 서서 산고개를 넘어서는데 골아래쪽에서부터 적들이 마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산능선으로 다시 올리뛰었습니다.

그때 짐을 많이 지고 행군하던 **김정숙**이 미처 따라서지 못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산능선을 넘은 다음 대열을 살펴보니 **김정숙**이가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는 다시 능선을 넘어와 적들이 마주오는 언덕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는 큰 배낭에 눌리워서 발을 재게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사로잡으라고 고함치고 그를 뒤좇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싸창으로 그놈들을 쏴갈기였습니다. 경위대원들도 뛰어와서 기관총으로 **김정숙**을 엄호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적들을 요행 따돌리고 하마탕근방에서 숙영하였습니다. 그날은 적들의 기동이 너무도 심해서 어슬어슬해질 때까지 마을 가까이에 있는 조밭고랑에 누워있었습니다.

밭고랑에 마침 배추와 무를 심은 것이 있어 그것으로 요기는 하였으나 추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불을 켜놓고 가드라드는 손을 조금씩 녹이었습니다.

훈춘에서부터는 조선농민 두 사람이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들은 쏘만국경가까이까지 우리를 데려다주고는 저 앞산을 넘으면 쏘련땅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서니 아무런 표식도 없는 허허벌판이였습니다. 어디까지 만주땅이고 어디서부터 쏘련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두익을 시켜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강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인가가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나무를 잘 탔습니다. 이두익은 나무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강도 안보이고 인가도 안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얼마쯤 더 가다가 수림속에서 전화선을 발견하였습니다. 뚱딴지를 보니 중국이나 조선것과는 달랐습니다. 쏘련땅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더 확인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밤 우리일행이 정찰을 다시 파견하고 한참 휴식하는데 동쪽에서 기관총 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습니다. 얼마 후 정찰나갔던 동무들이 돌아와 어떤 자그마한 경비막에 들어가 컵이랑, 주전자를 만져보다가 보초에게 들키는 바람에 큰 변이 날번했다고 하였습니다. 찻잔이며 주전자가 유달리 크고 투박한 것으로 보아 쏘련의 국경초소가 틀림없는 것 같더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경비막이 얼마쯤 되는 곳에 있는가고 물으니 10리쯤 된다고 하였습니다.

쏘련국경경비대원들은 온밤 기관총으로 위협사격을 하였습니다. 정찰나갔던 우리사람들이 그들을 몹시 놀래웠던게 분명하였습니다.

다음날 나는 이을설과 강위룡을 국경초소에 보내여 쏘련경비대원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정작 쏘련사람들과 마주앉고보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나는 그

들에게 우리는 조선빨치산이고 내가 그 대장인 **김일성**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빨치산이라는 말과 **김일성**이라는 말만은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원동으로 들어가는 경위자체도 이처럼 수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제당의 연락을 받고 입쏘하는 것이였지만 그 구체적인 통로와 시간이 국경초소에까지 와닿지 않다보니 고생을 하였습니다.

쏘련경내에 들어간 다음 여러 날 방역사업을 하느라고 지체하였습니다.

방안에서 하루종일 하는 일없이 지내다보니 대원들은 다들 클클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원들은 하루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혁명가요란 혁명가요는 다 부르고 그것마저 밑천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어느 고망년에 풍월로 얻어들은 노래까지 다 불러댔는데 굉장했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원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원들이 있는 방에 가서 너무 답답해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동무들이 국경에서 며칠간 지체하니 섭섭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쏘련동무들이 우리를 푸대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매개나라에는 국경통과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국경출입질서에 따라 필요한 신원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생검열을 하는 것은 전염병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최근에 만주에 있는 관동군의 세균전연구집단이 쏘련원동에 전염병을 퍼뜨려 놓았다, 그래서 쏘련정부가 입국검사를 철저히 할 데 대한 결정까지 채택하였다고 한다, 우리앞에는 할 일도 많고 넘어야 할 시련의 고비도 많다, 우리 혁명은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해방의 날도 멀지 않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면서 조국해방의 그날까지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쏘련사람들은 우리 동무들을 뽀비예뜨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국경초소에 있을 때 거기서 홍범도부대의 통변이었던 김승빈을 만났습니다. 그가 우리와 쏘련사람들 사이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처창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대원들은 그때 쏘련여성들이 몸에 화려한 옷을 걸치고 길거리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여자들도 언제면 저런 옷을 입고 활개를 치며 다니겠는가 하면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1940년 가을은 이처럼 그 하루하루가 다 고난과 시련으로 엮어진 준엄한 가을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중압속에서도 질식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은 것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간데 있으며 혁명적 신념을 소중히 간직한데 있습니다.

우리는 앞길이 험난하다고 해서 절대로 에돌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조국해방을 향해서 지름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조국해방을 앞당기는 길이라면 그 어떤 시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혁명가와 시련은 언제나 숙명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가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940년 가을, 지금도 그 해 늦가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늦가을에 우리가 가랑잎을 깔고 자던 간도의 산천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옵니다.

총성도 없고 주검도 없는 원동에 가니 별세상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시련의 고개들이 많았습니다. 조국해방의 그날까지도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5. 위증민에 대한 회상


위증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동북항일연군의 주요 정치군사지휘관이었던 위증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회상하시였다.

그 회상교시들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증민의 남다른 우정, 혁명가로서의 위증민의 인간상과 그의 비장한 최후, 위증민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두고 고민했고 무엇을 원하였는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위증민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그가 만주성당 파견원의 자격으로 간도에 와서 다홍왜 회의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와 위증민은 줄창 항일의 길에서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위증민은 어릴 때부터 줄곧 항일 애국의 길을 걸어온 직업적인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안양에서 군사학교에도 다녔고 베이징에서 공부할 때에는 항일시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혁명가로서의 위증민의 활동은 9.18사변 후 만주로 투쟁무대를 옮기면서부터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주에 와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 하얼빈도시입니다. 위증민은 거기서 당서기로 활동하였습니다.

용모로 보면 위증민은 대학교수를 방불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관형이 아니라 문관형이었습니다. 혁명만 아니면 과학탐구나 저술활동에 한 생을 바칠 수도 있는 사색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위증민은 인간으로서는 소박하면서도 붙임성이 좋았고 진지하고 원만하고 겸손하고 허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국제당문고에 보관되어있던 ≪만주에 있는 유격부대지휘성원들에 대한 평정서≫에는 위증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위증민

남부그룹 부지휘관, 중국공산당원, 남만당위원회 서기…

정치적으로 잘 준비된 지휘관이다.

유격대원들의 반영에 의하면 권위가 높은 사람이다. 경력자료는 없다.

정찰국과 내무성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는 없다.≫

위증민은 중국의 혁명가였지만 조선혁명가들을 지지해주고 조선혁명을 위해 왼심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다홍왜회의가 얼마나 심각한 회의였습니까. 그때 당파견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위증민이 처신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참으로 불리한 처지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내 주장을 귀담아듣고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참작할 것은 참작하였습니다. 요영구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제소한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에 있는 국제당본부에까지 갔다왔습니다.

그가 국제당에 갔다온 것이 조선혁명을 위해서는 좋은 방조로 되었습니다. 사선을 헤치고 남호두에 찾아온 위증민을 얼싸안고 서로 볼을 비비던 그날을 지금도 잊

을 수 없습니다.

위증민이 조선혁명가들은 조선혁명의 기치를 들고 싸워야 한다는 나의 주장이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으며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 나의 발언도 정당하다는 국제당의 견해와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민족군대를 가지고 국내와 압록강연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국제당의 결론을 전달하면서 내 어깨를 부둥켜안았을 때 나는 조선혁명을 위해 바친 그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생각하였습니다.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나와 위증민의 우정은 몇 곱절 더 깊어졌습니다. 거기서 한 보름쯤 그와 함께 지냈는데 뜻이 잘 통했습니다. 그때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위증민은 미혼진회의에서 부대개편과 관련된 우리의 의사를 지지해주었고 그 후 조국광복회의 창립도 열렬히 환영해주었습니다.

위증민은 그 무렵부터 조선동지들과의 공동투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말을 익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조선인대원들을 몹시 사랑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다 조선혁명에 대한 국제주의적인 지지와 성원의 표시었습니다.

우리도 위증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은 정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민은 미혼진회의 직후 우리와 함께 백두산쪽으로 나오다가 푸르허근방에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수중에는 적을 치고 노획해온 군마가 몇 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군마들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골라 위증민에게 주었습니다. 위증민은 그 말을 타고 우리와 함께 마안산까지 갔습니다.

나는 박영순을 시켜 대첨창에 병원을 꾸리게 하고 위증민이 거기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 위증민은 열하원정과 관련된 국제당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양정우한테 갔다가 우리가 서간도에 진출해서 백두산밀영 건설을 마감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왔습니다.

남만에 다녀온 위증민을 보니 건강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고질병이 있었는가 하면 심장병과 위병이었습니다. 원래 체질이 허약한 사람인데다가 무슨 일에서나 몸을 아끼지 않는 성미이다 보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인가 그는 대원들의 앞장에서 산을 톺아오르고 영을 넘다가 심장병이 발작하여 혼수상태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말하면 육체가 병든건 무섭지 않지만 사상이 병들면 무섭지요 하고 웃어넘기군 하였습니다.

위증민은 횡산밀영에서 얼마간 요양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는 강위룡과 김운신을 장백에 보내며 인조자라혈을 비롯하여 위증민의 몸보신에 필요한 약과 영양제를 구해오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때 200여원의 모연금으로 인조자라혈은 물론, 흰쌀, 밀가루, 통졸임, 우유, 전병까지도 사 가지고 돌아와 위증민에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위증민은 가루음식을 특별히 좋아하였습니다.

그 해 음력설을 나는 횡산밀영에 가서 위증민과 같이 쇠었습니다. 박영순이 통졸임통에 구멍을 내서 국수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해 설에는 위증민과 함께 농마국수도 먹고 술도 몇 잔 나누었습니다.

그날 8연대장 전영림도 우리하고 같이 설을 쇘습니다. 그 사람의 요리솜씨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고기를 썰 때 쓰는 칼과 채소를 썰 때 쓰는 칼까지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찬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실오래기처럼 썰어서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놓

고 벼락같이 양념을 치군했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였습니다.

우리는 위증민이 사람을 달라면 사람도 주었습니다. 황정해와 백학림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였지만 그가 이름을 찍어서 달라고 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황정해는 중대장이나 연대장 같은 직무도 감당할 수 있는 총명한 대원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빠지는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중국말까지 잘하였습니다. 군중과의 사업에도 아주 적합한 인물이였습니다.

백학림도 내곁에서 여러 해 동안이나 전령병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백학림이 성실하고 소박하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나는 그 어데로 가든지 늘쌍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보천보를 칠 때에도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가림천기슭의 황철나무밑에서 전투를 지휘할 때 백학림은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면서 내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간삼봉에서 최현이네 4사동무들이 포위에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7연대와 경위중대에 돌격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전달한 사람도 백학림입니다.

그가 얼마동안 전투부대에 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하기에 한 연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투부대에 가 있으니 어떤가고 백학림에게 물었더니 그는 성수는 나는데 장군님 곁을 떠나서는 못살겠다고 하면서 다시 전령병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사령부로 데려왔습니다.

백학림은 우리와 함께 고난의 행군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한 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먹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백학림입니다.

상하간의 관계가 그런 정도로 밀접해지면 상하가 다 상대를 친혈육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을 남에게 주자니 나도 사실은 속이 좀 알찌근했습니다.

그러나 중병으로 시달리는 위증민이 욕심내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고 보내주었습니다.

양정우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슬퍼한 사람이 위증민이였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던지 식사도 전폐했다고 합니다. 양정우가 희생된 후 1로군의 지휘를 맡은 위증민은 싸움도 잘하였습니다.

그 해 가을 위증민은 전투에서 두 번째로 되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폐병까지 겹치다나니 그는 부대를 더 이끌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양정우를 살해한 다음 거리에 그의 머리를 내걸고 마치도 남만에서 활동하던 항일연군부대들을 다 소멸한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동북지방 항일무장투쟁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동북항일연군은 안팎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토벌은 날이 갈수록 횡포해지고 대오안에서는 배신자들과 동요분자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한때 여단장을 한 방진성이도 양정우의 죽음을 전후하여 적들에게 체포되어 변절하였습니다. 게다가 남만 1로군의 군중적 토대도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1로군 정치위원이며 남만성위 서기인 위증민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사업에 빈구석이 있으며 그대로 묵여두어서는 안될 심중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자기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장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아는 군사정치일군이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조선동지들이 유격구가 해산된 다음에도 동만과 국내, 서간도의 광활한 지역에서 당조직건설과 대중단체건설에 많은 품을 들였는데 그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유격구시절에는 간도의 모든 현들에서 혁명조직들이 천하를 움직였습니다. 예닐

곱살나는 어린이들도 곤봉을 차고 다니면서 아동단이다 뭐다 하고 왁작 떠들어댔습니다. 조직이 군중을 동원시키고 군중이 궐기하여 군대와 함께 뚱땅뚱땅 하면서 싸움도 하고 농사고 짓고 인민혁명정부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만부대들은 유격구를 떠난 다음 군사활동일면에만 치중하면서 대중공작을 차요시하였습니다. 유격구역에서 와글와글하던 인민들을 적통치구역에 내려보내고는 그들을 별로 돌아보지도 않고 또 새로운 군중토대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민과의 연계가 저절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들에서 군사제일주의 경향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 것은 열하원정 때였습니다. 군사제일주의란 군사활동과 군사적 대결로써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무장투쟁이라고 하여 군사만 군사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군대를 지지하고 도와주며 그 인적후비를 충당시켜주는 대중이 없고 대중적 지반이 없으면 유격투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일유격대를 조직하던 초기에는 총도 몇 자루밖에 없었고 역량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주저없이 항일대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항일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있던 일본의 군사력과 우리 유격대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사실 대비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항일대전을 시작했겠습니까. 우리는 혁명적 민중관에 바탕을 둔 정치사상적, 도덕적, 전술적 위력으로 일제를 타승하려고 하였습니다.

열하원정의 무모성은 인민과의 연계에 대한 고리나 전술적 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주관주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그 전날의 전장을 떠나 일본군대와 정면으로 대결하려 한데 있습니다.

우리가 유격구를 해산한 후 남호두회의와 동강회의에서 당건설도 해야겠다, 통일전선조직체도 내와야겠다, 공청을 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해야겠다, 압록강연안과 국내에까지 나가서 무장투쟁을 확대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백두산지구에 떡 틀고앉아 조국광복회조직들을 내오고 그것을 국내의 넓은 지역에로 급속히 확대해나간 것은 다 군사를 뒤받침해줄 수 있는 민중공작을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그 조직들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들이 집단부락이다 뭐다 하면서 유격대와 인민을 토성으로 분리시키고 한 되박의 쌀, 한 오리의 실도 토성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발악하고 있을 때 그런 조직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승천입지하는 재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군과 민은 서로가 바늘과 실처럼 따라 다니는 존재로서 어떤 환경에서나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증민은 남만성위가 소집한 회의에서 준비된 유격대간부들을 만주각지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종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그가 때늦게나마 실책을 깨닫고 군사일변도경향을 퇴치하려고 결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였습니다.

밀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던 위증민이 제일 고심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한 1로군의 병력을 수습하고 재정비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본 남만혁명을 다시금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위증민은 도래와 대사변을 앞두고 신축성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게 전술상 변화를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성된 정황에 맞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 몹시 안타까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해결방도로 관내에 있는 8로군과의 군사적 연합을 실현해 볼 수 없을가 하는 궁리도 하면서 그 해 4월 국제당에 보낸 편지의 회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편지에는 당시 그의 고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1935년 가을 … 이후 … 중앙과의 연계가 일체 단절되어 중앙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중앙에서 발행하는 문건, 통신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서 교활한 적들의 사면공격을 받고 있다.

… 우리들은 실로 망망대해에서 사공을 잃은 쪽배와도 같고 또한 어린아이가 두 눈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도 같다. 위대한 혁명의 물결이 세차게 사품치는데 우리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박힌 신세이고 공기라고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큰 북속에 갇혀있는 꼴과도 같아서 … 상급기관과의 연계가 끊어진 다음부터 활동상에서 예견치 못하던 엄중한 손실을 당하고 있다.≫

위증민이 편지를 쓴 목적은 국제당과 중공중앙으로 하여금 1로군의 어려운 형편을 더 잘 알게 하자는데 있고 1로군을 추켜세우는데서 국제당과 중국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는데 있었습니다.

그가 국제당이나 중공중앙에 이처럼 기대를 건 것은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국제당이나 쏘련은 그 당시 자기의 안전으로부터 만주에서 일제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는 유화정책으로 나갔으며 중공중앙은 수천 리 밖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느라고 동북혁명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위증민이 국제당이나 중공중앙의 지원을 바라고 있은 것은 얼마동안 군사정치활동에서 떨어져 있었고 정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때에 입수하지 못한데다가 병으로 심신이 매우 허약해진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위증민이 국제당의 답신을 그렇게도 안타깝게 기다린 것은 1로군의 부족되는 간부들과 군사물자에 대한 보충을 강력하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위증민은 국제당의 지원이야말로 1로군을 추켜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당이 연락원 한 명을 파견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때에 간부는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며 군수물자는 무슨 통로로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현될 수도 없는 국제당의 지원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파괴된 지하조직들을 다시 꾸리고 군중지반을 더 합당한 방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견해였습니다.

나는 소할바령회의를 마친 다음 한총구밀영에서 병치료를 하고 있는 위증민을 찾아갔습니다. 병고로 얼굴이 창백해진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위증민의 총상자리는 그럭저럭 아물어가나 본래의 고질병이 도져서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였습니다. 밀영의 악조건에서는 현상유지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증민은 나에게 가슴에서 돌덩이 같은 것이 자꾸 치민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나니 가슴이 섬찍해졌습니다. 우리어머니가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런 하소연을 종종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위증민은 화제를 유격운동의 당면과제와 전략전술과 관련한 문제에로 자꾸만 끌어갔습니다. 우리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역량을 보존축적하며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방침을 채택하고 그에 따르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위증민은 조선동지들이 정세도

옳게 판단하고 전략도 옳게 세웠다고 하면서 우리의 방침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앞으로의 활동문제를 놓고 많은 담화를 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부상자들과 병약자들을 쏘련으로 들여보내는 문제와 그리고 소부대활동에 필요한 겨울철 양식을 미리 확보할 데 대한 문제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위증민에게 쏘련에 들어가서 병치료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로군의 실태를 두고 병상에서 몹시 고민하고 있던 위증민은 아직 바로 잡아야 할 일들도 많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에게 쏘련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제당에 1로군의 실태를 자세히 보고해주며 국제당에 보낸 자기의 편지가 정확히 가닿았는가를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자신의 병보다 1로군의 운명을 두고 더 고민하는 위증민을 보니 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정우가 희생된 후부터 1로군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서는 아직 당장은 쏘련으로 들어갈 형편이 못되였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통신원들을 통해 앞으로도 서로 필요한 연계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김**사령,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밀영을 떠날 때 그가 나에게 한 마지막말이였습니다. 그 후 위증민을 다시 만나보지 못한 나한테는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이였습니다.

사실이야 얼마나 단순하고 평범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날 위증민이 나를 전송하면서 한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나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가 온 생애를 바쳐 가꾸고 사랑해온 혁명을 끝까지 성공시켜 달라는 뜻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로군사업을 부탁한다는 뜻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증민이 그 말을 하고나서 나를 쳐다보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매우 서글픈 눈길이였습니다.

밀영을 떠날 때 위증민을 위해 식량도 남겨놓고 후방물자들도 떨궈두었지만 내 마음은 가볍지 못했습니다. 쌀이나 솜동복 같은 것을 두고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무슨 큰 활력을 주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육체였습니다.

나는 황정해와 곽지산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살려내야 한다고 재삼 당부하였습니다. 정해와 곽지산은 위증민을 잘 돌볼 테니 염려말고 어서 떠나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나를 따라왔습니다. 이름도 없는 심산중에 그들을 두고가자니 나도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당부를 두세 번 곱씹느라고 시간을 수태 지체하였습니다.

훗날 하바로프스크에 간 나는 위증민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국제당일군들은 위증민이 보낸 편지가 정확히 와닿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비밀서한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주체29(1940)년 12월 일제의 관헌자료집 ≪사상휘보≫제25호에 그 전문이 실린 다음이였다.

그 서한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제3방면군의 이용운연대장이 그 해 가을 왕청에서 전사한 후 적들이 그의 소지품을 회수해 갔는데 그속에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하여 위증민이 국제당에 보낸 편지는 국제당에 가닿지 못한 채 중간에서 적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국제당이 정확히 인수하였다는 위증민의 편지는 누가 전달한 것인가. 국제당문서고에 있는 다음의 자료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는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있다.

≪극비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앞

항일연군 제1로군 부사령이며 중국공산당 남만성위 서기인 위동지의 1940년 4

월 10일부 보고와 2통의 편지번역문을 보낸다.

쉘리가노브

1940년 8월 10일≫

문건에는 1941년 1월 23일 날자와 디미트로프의 수표가 있다.

편지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의 통보는 4개의 부분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다 말하지 못한 것도 놓친 것도 많다. 그러므로 이번에 동지들이 거기로 가는 왕윤성과의 담화를 통하여 관심사로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명하기 바란다.


주도일

그가 글로 쓸 수 없는 비밀문제들에 대해서도 동지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동지들에게 파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보증한다.≫

이 인용문을 보면 위증민이 이용운만이 아니라 왕윤성에게도 국제당에 보내는 편지를 맡긴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개소들에서 약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으나 편지의 기본내용은 두통이 다 같다. 다만 이용운에게서 나온 편지내용에는 왕윤성과 관련된 언급이 없을 뿐이다.

왕윤성은 일찍이 동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왕다노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4연대 정위를 하였고 후에는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2사정위로 있었다.

주체30(1941)년 봄 소부대를 이끌고 사선을 헤치며 만주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증민과의 마지막 상봉이 이루어졌던 한총구를 찾으시었다. 그러나 위증민 일행은 거기에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증민과 그 호위성원들의 상세한 소식을 입수하신 것은 그때로부터 지난 주체30(1941)년 말이었다.

우리가 다시 만주와 국내에 소부대를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후 쏘련동지들이 나를 급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다는 쏘련군대좌가 사복차림으로 내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항일연군의 한 소부대로 짐작되는 사람들이 쏘만국경을 넘어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동지 뿐이라고 하면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완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쏘련군대좌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면서 나는 오만가지 생각을 다했습니다. 그 일행중에 혹시 위증민이 껴있지 않을가, 그가 병사했다는 말이 혹시 헛소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품어 보았습니다.

승용차가 여드레 팔십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쏘련군 대좌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마자 내앞에 곽지산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해 사이에 환갑노인처럼 늙어버린 곽부관의 모습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위증민 일행이 겪어온 참담한 고충을 다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곽지산은 원래 연길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유격대에 들어와 정치일군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연길유격대에서 중대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세련된 혁명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곽지산은 식견이 높고 품성이 좋아 어데가서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는가 하면 그가 동지들을 위해 물불을 가리

지 않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성미도 대범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곽지산을 가리켜 열두폭치마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타발하지 않고 다 품에 감싸안는 너그러운 일군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대가정의 크고 작은 잡사를 다 맡아안고 속을 태우는 어머니같다는 의미를 담아 열두폭치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로군에 경위연대가 조직될 때 우리는 그를 위증민의 후방부관으로 추천해주었습니다. 대원들이 그때부터 그를 곽부관, 곽부관하고 따랐습니다.

곽지산은 위증민을 위해 있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사선을 헤치고 적구에 직접 뚫고 들어가서 식량과 약품들을 지고 왔습니다. 위증민은 늘 자기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곽부관덕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김득수

곽지산은 마음이 좀 진정되자 쏘련군 대좌에게 자기가 맡긴 싸창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좌가 싸창을 가져오자 그는 목갈린 소리로 ≪위증민동지의 싸창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곽지산에게서 싸창을 받아들었으나 ≪그가 어떻게 됐소?≫하는 말은 종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증민은 보이지 않고 싸창만 온 것을 보니 그가 희생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비로소 곽지산을 통하여 위증민의 운명과 관련된 상보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총구에 가서 위증민을 만나고 돌아온 후 그들은 화전현 쟈피거우밀영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쟈피거우란 고장은 왕청현에도 있고 동녕현에도 있습니다. 만주에 쟈피거우란 지명을 가진 고장이 많습니다.

화전현 쟈피거우에 자리를 옮긴 위증민일행은 밀영을 두 군데 두었습니다. 하나는 쟈피거우에서 북쪽으로 수십 리가량 되는 곳에 정했고 다른 하나는 서남쪽으로 그보다 더 먼 곳에 정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첫 번째 밀영에 있었습니다. 그 밀영에 황정해도 있고 김봉남이도 있고 의사 김회선이도 있었습니다. 7-8명쯤 되는 기관총반성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곽지산과 김철호, 주도일, 이학선, 전문욱, 김득수네는 두 번째 밀영에 있었습니다.

두 밀영의 위치를 다 아는 사람은 곽지산뿐이였습니다. 그가 두 밀영을 힘들게 오가면서 필요한 연락도 하고 식량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는 쟈잘리를 맺고 있던 위만군장교들의 도움을 받아 식량을 해결하군 했습니다. 장교들은 곽지산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헌병대의 특무대장도 그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쟈잘리에 속한 위만군장교들이나 특무대장이나 다 양다리치기를 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식량이나 소금 같은 것을 지고 산에 들어와 유격대에 넘겨주고는 유격대원들이 입던 헌옷이나 꿰진 신발, 구멍난 양재기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빨치산을 몇 명 살상했다고 거짓보고를 하고는 상금까지 타먹군 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운명직전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붓을 들고 보고서도 집필하고 유격투쟁을 총화하는 글도 썼습니다. 어떤 날은 노군의 사업과 관련된 문건기안도 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손에서 일을 떨구지 말자는 것이 혁명가로서 그가 품고 있던 지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이 박두하자 위증민은 싸창과 문서보따리를 전우들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무들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 혁명은 동무들을 믿고 있다. 혁명이란 간고하고 피도 흘리고 희생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생을 두려워하

지 말라. 우리가 흘린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동무들은 꼭 **김일성**동지를 찾아가라.

위증민이 사망한 때가 1941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아까운 나이었습니다. 조총도 쏘지 못하고 추도식도 없는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전우들은 있는 정성을 다해 그의 시신을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중국인대원이 산에서 내려가 적들을 끌고오는 바람에 묘소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위증민이 평소에 몹시 사랑하던 대원이라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증민을 전투에서 사살했다고 한 적측의 자료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사살인 것이 아니라 병사입니다. 일본사람들이 그런 가짜선전을 잘했습니다. 적들은 현상금을 타먹자고 위증민의 묘를 파헤치였습니다. 야만인들이나 할 짓이였습니다.

위증민의 싸창이 내 손에까지 와닿게 된 경위를 들어보니 그를 호위하던 사람들의 그 후 행로에도 곡절이 많았습니다. 위증민은 처음에 그 싸창을 황정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황정해를 몹시 사랑하고 신임했습니다.

황정해는 처음에 통신을 맡아보았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위증민의 통역도 하였습니다. 그 후 경위소대장이 되어 전적으로 위증민을 호위하고 그의 사업을 보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증민의 요구에 따라 문건과 자료 번역도 하고 그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에는 집필도 대신하였습니다.

황정해도 곽지산과 함께 위증민의 신변을 끝까지 호위한 동무입니다. 그가 위증민을 정말 성실하게 호위하였습니다.

한번은 밀영에서 위증민의 백마가 없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황정해는 기관총수에게 위증민을 부탁하고 백마를 찾아 떠났습니다. 백마를 찾자면 발자국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얼마쯤 가다가 밀영으로 살금살금 기여드는 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적들도 말발자국을 더듬어가면서 밀영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정황이였습니다. 경위소대원들이 식량공작을 떠난 뒤여서 위증민의 곁에는 황정해와 기관총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정해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 비밀문건을 건사한 후 위증민을 들쳐업고 수림속으로 달렸습니다. 적탄이 인차 우박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위증민을 안고 달리였습니다.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위증민만은 살려내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날 황정해는 어깨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더는 위증민을 안고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위증민을 기관총수에게 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기관총을 잡고 엄호사격을 하면서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황정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위증민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위증민이 그에게 싸창을 넘겨 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황정해는 소부대를 데리고 곽지산이 있던 밀영에 옮겨앉았습니다. 소부대는 메돼지나 곰과 같은 산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길양식으로 저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황정해는 곰사냥을 하다가 잘못되었습니다. 한방 얻어맞고 달아나는 곰을 뒤쫓아갔는데 그놈의 곰이 돌아서서 사납게 달려드는 바람에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아까운 사람을 맹랑하게 잃었습니다.

황정해가 간수했던 싸창은 백학림의 동향친구인 이학선이 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번씩 꼭꼭 그 싸창을 소제하면서 위증민을 추억하군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뜻하지 않은 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학선이 희생된 후 위증민의 싸창은 곽지산이 간수하였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소조활동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아편농사를 하면서 쏘련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유경수네 조가 쟈피거우근방에 가서 곽지산이네와 연계를 맺고 있던 노인을 만난 때가 그때일 것입니다. 그 노인이 비밀을 철석같이 지키는 바람에 유경수네가 곽지산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곽지산일행은 아편농사를 지은 것으로 군복도 해입고 식량과 소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착실히 해 가지고 떠났는데 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쏘만국경을 넘을 때는 바지를 벗어 이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한 자루의 권총이 몇 사람의 손을 거쳐 나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곽지산은 그 후 김일이네 소부대에 망라되어 만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는 쟈잘리라는 공간을 통하여 이전부터 연계를 가지고 있는 위만군장교들을 포섭하여 지하조직도 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도 하였습니다.


황정해

곽지산을 비롯하여 위증민의 곁에서 그를 호위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생전에 위증민이 그렇게도 번민하던 군사일변도 경향을 없애고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곽부관이 전사한 것은 1943년 일 것입니다. 새로운 정찰임무를 받고 만주로 나갔는데 임무를 다 수행하고 돌아오다가 적탄에 맞아 희생되었습니다. 위증민은 조선혁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진심으로 지지해준 사람입니다. 내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하군합니다.

위증민은 실천상에서 결심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꼭꼭 우리의 견해를 들어보군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신뢰했는가 하는 것은 양정우가 전사한 후 1로군과 남만성위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와 협의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로군간부들이 자기한테 무슨 결론을 받으려고 찾아오면 위증민은 그들을 모두 나한테로 보냈습니다. 위증민이 전사한 다음부터 국제당은 동북항일연군 1로군 사업과 남만성위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하였습니다.

위증민은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혁명가로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인간이고 훌륭한 혁명가였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성의를 다하여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위증민이 보살펴주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습니다. 위증민을 목숨으로 보호해준 국제주의전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우애에 있어서 위증민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위증민 곁에 가서 오래 일한 바 있는 우리 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위증민은 언제나 조선혁명의 운명을 우리와 연결시켰고 그래서 말끝마다 **김일성**동지를 잘 받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증민의 생애가 아름다운 일생으로 되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은데 있습니다. 인생의 첫 자욱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뗀 사람은 인생의 마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생의 사람들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항일혁명시절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깨끗하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면서부터는 국제주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별반 없습니다. 입만 벌이면 국제주의를 부르짖던 사람들도 지금은 제 주머니를 채우느라고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못먹고 못입어도 혁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국적을 따지지 않고 먹어라, 써라 하던 때가 좋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국제주의적 의무와 의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23장



국제반제역량과 련합하여

하바로프스크회의
혁명가 김책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소부대활동의 나날
신념과 배신
국제련합군을 편성하여
동북항일련군의 전우들과 함께
북만에서 온 투사들
혁명의 뿌리를 가꾸며

■ 시기 : 1941. 1 ~ 1942. 7

1. 하바로프스크회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3(1984)년 여름 쏘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역사적인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신던 도중 하바로프스크에 들려 하루동안 머무르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원동의 훈련기지에서의 생활과 하바로프스크회의를 두고 감회 깊은 회상의 말씀을 하시였다.

하바로프스크는 내가 한번 와보고싶었던 곳입니다. 요전에는 만주리로 해서 쏘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바로프스크에 들릴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하싼으로 해서 두만강역을 거쳐 귀국하는 것으로 노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 고장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여기에 와보고 싶었는데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야 그 소망을 풀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쏘련원동군부대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이던 나날에 하바로프스크는 국제당일군들과 조, 쏘, 중 세 나라 공산주의자들, 군대의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서 의사소통도 하고 공동투쟁의 방향과 방도도 모색한 중요한 회합장소로 되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는 그 당시 원동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국제당 동양선전부도 한때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국제당이 소집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쏘만국경을 넘어 쏘련경내에 들어선 것은 1940년 11월이었습니다.

나는 필요한 수속이 끝난 다음 우리 동무들과 헤어져 쏘련군관의 안내를 받으며

곧추 하바로프스크로 떠났습니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눈에 덮인 원동의 대지가 내다보였습니다. 나의 눈앞에는 이 땅에서 애국의 피를 부리던 수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지사들의 군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사들과 우국지사들이 이 땅에서 망국을 통탄하고 국권수복을 부르짖으며 속절없는 와신상담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총기를 얻으려고 간 사람, 단체를 무으려고 간 사람, 약소민족의 설움을 하소하려고 피눈물을 뿌리며 간 사람 …

산천유람이나 하려고 이 땅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은 여전히 민족의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고혼이 되어 잠들고 있는 선열들의 영령앞에 자력독립을 성취하여 그들의 유한을 풀어주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로 가는 걸음은 처음부터 내 마음을 펴그나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제당의 회합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제당이 우리를 회의에 초청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국제당지도부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존재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표시로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당사람들이 자기네가 소집하는 회합에 조선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조선공산당 관계자들이 감자도장을 가지고 저마끔씩 국제당으로 찾아다니었지만 그것은 영도권쟁탈을 위한 파벌행각이었지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참다운 의미에서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행각 끝에 차례진 것이 바로 조선공산당해산이라는 수치스러운 결과였고 1국1당제에 의한 다른 나라 당에로의 의무적인 전당이었습니다.

국제당지도부가 조선혁명문제를 하나의 독자적인 의제로 삼고 그것을 회의에서 토의한 적은 별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후부터 조선혁명은 거의나 국제당의 시야밖에 놓여있었습니다. 국제당이 안중에 두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큰 나라들의 혁명이었습니다. 국제당지도부에 앉아있던 일부 사람들은 동북땅에서 싸우는 조선사람들이 조선혁명의 구호를 직접 드는 것조차 막았으며 실정에 맞지도 않는 지령들을 연방 내려뜨림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제당이 조선혁명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은 국제당 제7차 대회가 있은 때부터입니다.

국제당이 비록 조선혁명에 낮을 적게 돌렸지만 우리는 그와는 무관하게 시종일관 국제당을 지지하였으며 그 업적과 존재가치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국제당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정세에 맞게 공산주의운동대열을 결속하고 그 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적 전위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온 국제당의 공헌에 대하여 우리는 응당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의 주인된 긍지와 함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당당한 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한편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국제당의 지시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에 대한 나의 기대는 자못 컸습니다. 새 나라 무장력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는 것만큼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회의의 전망에 대해 나는 낙관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하니 눈이 무릎을 치게 쌓여있었고 날씨는 대단히 추웠습니다.

밀림속에서만 싸워온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총성과 약탈도 없고 주림도 없는 평화로운 대통로들, 자유롭게 말을 주고받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상으로 그려오던 생활이였습니다.

일부 지도책에는 하바로프스크가 합부 또는 백력이라는 지명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과거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삼위라고 불렀습니다. 쌍성자, 연추, 수청, 소성이라는 식으로 불리운 고장들이 원동지방에 적지 않았습니다.

하바로프스크라는 도시 이름은 원동개척자의 한 사람인 하바로프의 이름을 딴것이라고 합니다. 도시 한복판의 역전광장에는 하바로프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이 아주 인상적이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그때만 해도 20여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서 서철을 만났고 다음날에 안길을 만났습니다. 서철은 남만성위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왔고 안길은 제3방면군 참모장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만과 남만, 북만에서 전장을 누비며 다닐 때는 싸움을 하느라고 자주 상종하지 못했던 전우들을 만나고보니 그 감격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1로군 군장인 양정우가 희생된데다가 위증민이 병중에 있고 또 방면군군장들인 조아범, 진한장 등이 모두 전사한 조건에서 우리 셋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대표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남만성위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로 동시에 대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남만에서 활동하는 당조직과 모든 유격 부대들의 대표였습니다.

나는 서철과 안길을 통하여 제2로군 총지휘 주보중이 11월 초에 이미 하바로프스크에 왔고 뒤이어 제3로군 총지휘 장수전과 정치위원 풍중운 제5군 정치부주임 계청 등도 와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길과 서철은 김책과 최용건도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하여 나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보면 동북항일연군의 3개의 노군과 길동, 북만, 남만 성위를 대표하는 일군들이 다 모인 셈이였습니다.


하바로프의 동상

하바로프스크회의가 열리기 전에 나는 국제당 대표인 쏘련원동군 장령 류쉔꼬를 만났습니다.

류쉔꼬는 국제당이 하바로프스크에서 만주빨치산과 쏘련군 대표들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주고나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는 대응책을 함께 잘 세워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남만서위와 제1로군의 구성,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묶어줄 수 없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청탁에 동의하고 안길, 서철과 함께 남만성위와 제1로군의 활동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신림앞으로 보낸 1941년 1월 1일 자료입니다.

왕신림은 쏘련원동군 정보부장 류쉔꼬의 가명이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부대들이 쏘련경내에 들어가 활동하던 시기 국제당과 쏘련당, 쏘련원동군을 대표한 인물은 자기를 왕신림으로 행명하였다.

하바로프스크회의가 마감고비에 이르렀을 때 쏘련 원동군의 쏘르낀장령이 류쉔꼬가 맡아하던 임무를 넘겨받았는데 그도 역시 왕신림이라는 이름으로 행명하였다.

국제당문헌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0(1941)년 1월 남나성위(제1로군)대표들의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원문이 있

다. 그 원문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왕신림동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1940년 봄과 여름 기간의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기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만 대답하려고 한다. 때문에 이 보고는 항일연군 1로군의 모든 형편을 다 포괄하지 못한다.

…

볼셰비키적 인사를 보낸다.

김일성
안길
서철
1941년 1월 1일≫


서철

나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김책, 최용건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오래간만에 주보중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안길과 서철은 회의를 마치고 하바로프스크를 떠날 때까지 나와 한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침식을 잊고 회포를 나누던 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던 일들이 어제 같습니다.

이미 1940년 1월말에 하바로프스크에서는 국제당이 소집한 만주빨치산지휘관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제1로군의 대표들은 참가하지 않고 주보중, 장수전, 풍중운을 비롯한 제2로군과 제3로군의 대표들만 모여서 진행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동북유격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정세의 분석에 기초한 차후투쟁방침을 확정한 다음 쏘련원동군과의 연계를 이룩하고 호상협조할 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일적 보조를 맞출 데 대한 문제들에서 필요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1940년 3월 중순경에 호상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동북항일연군측과 쏘련군사당국이 참가하는 협의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동북항일연군 제2, 3로군 대표들과 원동군사령관대리, 하바로프스크와 워로쉴로브 주둔군의 책임자들 그리고 류쉔꼬 등이 참가하였습니다.


안길

이 협의회에서 항일연군측은 국제당과 쏘련군이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쏘련측은 동북항일연군부대들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을 상대측에 요구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주둔군 사령관은 동북항일연군 무장부대들을 중국공산당조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되면 동북의 유격부대들에 대한 쏘련의 지원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쏘련측의 이런 태도로 하여 협의회에서는 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으며 동북항일연군과 쏘련원동군사당국과의 호상지지와 협조의 형식과 내용 문제는 초보적인 합의를 보는데 그치고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 후에 열린 하바로프스크회의에서 다시 논의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가한 흔히 말하는 1941년의 하바로프스크회의는 1940년 12월에 소집되어 1941년 3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는데 비밀사업을 하는 군대병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병영 주변에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어느 공작원이 이용하던 아지트였습니다.

회의 첫 단계에서는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 각 성위의 책임일군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조건에서 각 노군과 성위 간의 연계와 국제당 및 쏘련과의 관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놓고 여러 날 진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1941년 1월 초부터 국제당 및 쏘련의 당국자들과 함께 만주에서의 항일유격운동의 장래문제와 쏘련원동군사당국과의 호상 지지와 협조의 내용과 방식 문제를 기본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국제당과 쏘련측을 대표해서는 류쉔꼬장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는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권문제를 둘러싼 쏘련군측과 항일연군측의 상반되는 입장으로 하여 처음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는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권 문제를 둘러싼 쏘련군측과 항일연군측의 상반되는 입장으로 하여 처음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든 다른 이유의 하나는 중국공산당 대표가 참석 못한 것과 관련된 항일연군측 지휘관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원래 쏘련측은 국제당의 명의로 하바로프스크회의를 소집하면서 길동과 북만 성위에 중국공산당 중앙에서도 대표가 참가하게 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중공중앙대표는 하바로프스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중앙과의 연계회복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간부들은 적지 않게 실망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바로프스크회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된데는 중공중앙대표와의 상봉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중공중앙대표가 하바로프스크에 왜 오지 않았는지 그것은 우리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쏘련당국이 중공중앙에 회의소집과 관련된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통지는 했는데 연락이 채닿지 못했는지, 사유는 어떻든지간에 중공중앙대표가 오지 않은 것은 항일연군 일부 대표들의 의혹을 샀고 그들로 하여금 쏘련이 국제당의 명의로 소집한 회의의 취지자체를 미타하게 생각하게 하였으며 초기 회의사업에 일부 그늘을 던지었습니다.

회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보고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각 노군대표들이 자기 사업정형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상정된 문제의 협의에 필요한 인식과 이해를 서로 촉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제1로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정형에 대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형편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군사정치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고를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에 대해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상지나 주보중과 같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형식으로 당중앙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또 독자적인 동북당조직도 구상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고 서로 병립된 북만성위나 길동성위, 남만성위가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북항일연군도 노군별로 제각기 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동북혁명을 통채로 장악하고 지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의 일본군이 만주를 강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중국당이 관내에 앉아 동북사람들의 당, 군사 활동을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에서 논의된 중심의제는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장래활동방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조선과 동북에서의 유격투쟁과 쏘련군대와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그것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적응시키고 강화발전시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쏘련측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파쑈세력이 방공연합을 형성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연합한 파쑈들

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동북항일연군이 독자성을 포기하고 쏘련군과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도 부합되고 동북혁명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이 그 전해 회의에서 제일 완강하게 반대하던 문제였습니다.

한 해 사이에 세계정치정세와 원동의 군사정세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쏘련의 제의는 이런 정세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쏘련은 서부국경쪽으로 질풍같이 육박해오는 독일과의 충돌을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독일이 서쪽에서 쳐들어올 때 일본군이 동쪽에서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야단이었습니다.

쏘련사람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서나 동서협격을 피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쏘련이 제출한 협동안을 보면 정세의 긴박성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초조한 심리상태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큰 땅덩어리의 한쪽은 구라파에 속해있고 다른 한쪽은 아세아의 넓은 판도를 차지하고 있는 쏘련으로서는 그 넓은 국경선의 한쪽만을 지킨다거나 어느 한쪽의 적을 막을 수 있는 능력만 갖추는 것으로 국가방위의 완벽을 기할 수 없었습니다.

쏘련은 국가건립의 초기부터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적을 다같이 격파할 수 있게 준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방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이와같은 국방원리와 대일, 대중 관계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원동을 독립적인 군사단위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5개년계획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쏘련의 구라파지역을 추켜세우는데 모를 박은 것으로서 그 덕이 원동의 군력을 강화하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쏘련사람들로 하여금 원동의 군사력을 급격히 확대보충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로 된 것은 1931년의 9.18사변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만주침공에서 큰 충격을 받고 늘 일본이 자기무력을 원동에까지 진출시키지 않겠는가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9.18사변이전의 원동무력은 5만의 보병과 100대의 비행기, 30대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쏘련은 일제가 9.18사변을 도발한 후부터 원동무력을 2배, 3배, 4배로 늘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쏘련의 불가침조약체결제의를 거부한 후부터는 중폭격기, 신형탱크, 잠수함 등을 원동에 배비하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위협에 대처하였습니다. 1936년에 몽골과 체결한 쏘몽협정도 그 목적은 일본을 견제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쏘련이 원동에서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하싼호사건과 할힌골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동쪽 국경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을 쏘련원동군 직속부대로 만들데 대한 쏘련측의 제안은 한 해 전에 들고 나왔던 주장의 재판으로 해석되고 지어는 쏘련이 자기의 정치군사적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동북항일운동을 거기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비난까지 야기시키었습니다.

그 당시 원동에 조성된 정세를 참작해볼 때 쏘련의 제안에는 이해할만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의한 동서협격의 위험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쏘련은 자기 나라의 동쪽에서 포성이 울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만주에 있는 항일무장부대들이 마치 쏘련의 사촉과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쏘련으로 침공하기 위한 구실을 어떻게 하나 마련해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쏘련은 원동의 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외교적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일본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당시 쏘련에는 독일과 일본의 침공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동맹자가 없었습니다. 쏘련은 구라파에서 증대되는 전쟁의 위험을 막아보려고 집단안전체계창설을 추구하였으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방에도 쏘련을 무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은 없었습니다.


스탈린

중국이 일본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것은 쏘련의 지원을 받는 존재였지 쏘련을 지원할 수 있는 동맹자는 못되었습니다. 나라의 동쪽만이라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쏘련으로서는 동쪽에서 일본에 무력침공의 구실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쏘련이 원동군과 동북항일연군을 하나로 합치는 군사체계의 창설을 제안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에 쏘련침공의 구실을 주지 말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일작전이 벌어지게 될 경우 원동군과 협동할 수 있는 동맹자를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동북항일연군과 쏘련원동군의 통합문제를 두고 회의장안팎에서는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은 쏘련원동군의 우산밑에 들어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여년동안 풍찬로숙하면서 혈전을 벌려왔는데 통합은 무슨 통합인가, 절대로 동북혁명을 포기할 수 없다, 쏘련측은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네 생각만 한다, 그들의 입장은 매개 나라 혁명의 독자성을 존중할 데 대한 혁명적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스탈린이나 지미트로프에게까지 제기하여 풀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스탈린과 지미트로프도 동북항일연군측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하여 류쉔꼬는 쏘르낀과 교체되었습니다.


지미트로프

그때 쏘련측은 통합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를 몹시 알고싶어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쏘련측의 제안이 민족이기주의로부터 출발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그들의 말에서는 쏘련이 건재하고 쏘련혁명이 잘되어야 중국혁명이나 조선혁명도 잘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제출한 제안은 일리있는 제안이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내놓게 된 당신들의 형편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 요구는 아직은 일방적이고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일본군이 쏘련침공의 기회를 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전쟁이 당장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승리한 나라의 혁명을 보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하지 못한 나라의 혁명을 추진시키는 것도 그만 못지 않게 중요하다, 당신들은 동북항일유격운동을 경시하는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쏘련측은 나더러 어떤 형태의 통합도 다 반대하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쌍방에 다 이로운 연합과 협동방식이야 왜 반대하겠는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어느 일방이 타방을 무시하는거나 타방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한 통합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중국동지들과 함께 항일연군을 뭇고 공동투쟁을 하면서도 자기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공동투쟁을 해도 말썽이

없다, 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항일연군에 용해시키는 것도 반대하지만 쏘련군대에 배속시키자는 것도 반대한다, 그것은 형식과 내용에서 우리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쏘련원동군과의 공동투쟁을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하겠는가하는 구체적인 방법문제는 앞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공동투쟁의 형식과 방법이 쏘련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지만 조선혁명이나 중국혁명의 이익에도 다같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쏘련측은 내 말을 주의깊게 듣고나서 당신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회의를 결속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의 말에서 아주 좋은 시사를 받았다, 독자성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보중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좋다, 일방적인 주장은 그만두고 회의를 시급히 결속짓자, 빨리 전장에 달려가서 소부대활동도 하고 조직건설사업도 하고 인민들과의 사업도 해야겠는데 시간이 아깝다, 공산주의자들이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질질 끌면서 입씨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각자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에 기초하여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주보중과 장수전도 나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왔습니다.

나는 각자의 독자성만 인정해준다면 여러 무장력의 국제적인 연합을 반대하지 않겠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연합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해보아야 한다, 쏘련측의 제안이 일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씨앗은 있다, 그러니 무턱대고 배척하지 말자, 우리가 다같이 동지적이고 사심없는 태도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공동의 이익에 맞게 문제토의를 빨리 끝내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회의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회의과정에 발현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은 조선, 쏘련, 중국 세 나라 혁명무장역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실현하는데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에서는 혁명역량을 보존축적하며 대규모적인 유격투쟁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이행할 데 대한 우리의 전략적 방침이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확한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부대들이 역량보존에 중점을 두고 소부대활동을 벌일 데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틀쯤 회의를 하였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협의에서도 반론이 전혀 없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규모유격투쟁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혁명에서의 후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대부대활동도 성차지 않은데 소부대활동이나 해가지고서야 어느 세월에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겠는가, 관내동지들이 대부대로 움직이면서 판을 큼직큼직하게 벌이고 있을 때 항일을 먼저 시작한 동북사람들이 소부대로 활동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대활동을 해야 체면이 서고 소부대활동을 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였습니다.

나는 소부대활동방침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도 회의장안팎에서 쏘련, 중국의

전우들과 함께 많은 논의를 벌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역량을 보존축적하기 위하여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방침을 채택했고 소부대분산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온 경험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쏘, 중 두 나라 사람들은 나의 주장에 상당한 관심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의 손실도 적지 않다, 혁명의 오늘 뿐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도 역량보존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일제를 쉽게 패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을 해방하자면 조선인민혁명군도, 동북항일연군도 역량을 보존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 소부대활동을 하게 되면 전민항쟁을 위한 조직건설도 활발히 벌일 수 있고 식량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을 하기에도 편리하다, 우리가 지난해 여름부터 소부대활동을 해보았는데 결과가 대단히 좋았다, 해볼만한 일이다, 대부대활동은 필요한 때 벌려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부대활동을 퇴보로 보는 사람들에게 소부대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어지간히 말해서는 잘 먹어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세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과 만주의 정세, 쏘련정세를 가지고 소부대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정세토론을 하는 과정에 의견상이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정세토론을 진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였지만 하바로프스크회의 때만큼 정세토론을 장시간 진지하게 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대부대활동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국제당의 요구도 대부대활동을 삼가해달라는 것이다, 그 요구속에는 쏘련을 옹호하고 쏘련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하려는 각국 공산주의자들의 지향과 결의도 담겨있다, 대규모유격전이 쏘련의 안전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응당 그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쏘련측대표한테는 당신들이 우리를 무턱대고 여기에 비끄러매두려고 해서는 안된다, 역량을 보존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혁명을 전진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소부대를 무어가지고 국내와 동북지방에서 정치군사활동을 계속 활발히 벌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주장에 모두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쏘련사람들은 우리가 원동에 틀고앉아 훈련이나 하고 소소한 군사정찰활동이나 하면서 무난하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일본에 쏘련을 침공할 수 있는 언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정도의 활동으로 시간을 어물어물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위도식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논의 끝에 앞으로의 활동에서 기본은 소부대활동, 군중공작, 조직건설, 실력배양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할바령회의에서 토의결정한 방침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쏘련측은 회의에서 자기 나라 경내에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기지를 마련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련해주는 장소를 또 하나의 임시기지로 삼고 조선과 만주의 넓은 판도에서 소부대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가 있은 다음 쏘련은 원동지역에 2개의 기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하나는 워로쉴로브근처에 있는 남야영이였고 다른 하나는 하바로프스크부근에 설치된 북야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남야영을 차지하였습니다. 동북항일연군 제2로군 5군의 일

부 역량도 남야영에 함께 있었습니다. 북야영은 제2로군과 제3로군이 쓰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서 남야영을 책임지고 활동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조선인민혁명군과 1로군에서 온 일부 역량을 하나로 묶어 제1지대를 조직하고 그 지대장으로 있으면서 소부대활동을 적극화할 대책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원동에 새로운 임시기지를 꾸린 다음 국내와 만주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소부대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된 것은 항일무장투쟁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은 잠정적인 조치였지만 앞으로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조성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시기적절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혁명을 하느라면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에는 퇴조기도 없었고 소강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앞에서 동요한 적도 없었고 슬픔앞에서 주저앉은적도 없었으며 적의 공격앞에서 피동에 빠진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가 역경앞에서 주저앉았거나 피동에 빠졌더라면 적들은 우리 혁명을 무자비하게 깔아뭉개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의지와 배짱을 가지고 언제나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군 하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는 소할바령회의와 함께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화기를 열어놓은 하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소할바령회의와 하바로프스크회의는 1940년대 전반기 항일무장투쟁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해주고 조선혁명가들이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가올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회합이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원동의 임시기지에서 군정훈련도 하면서 백두산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곳에 튼튼히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삼고 무장투쟁과 혁명운동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조국해방의 새날을 앞당기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노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이고계실 때 일만군경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아래의 자료들은 적들의 당황상을 잘 보여준다.

≪현재 쏘련의 영도하에 만주에 대한 책모를 행하고 있는 조선공산당의 요소는 구 제1, 제2, 제3로군의 나머지 세력으로서 그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쏘련 붉은군대의 직속산하에 있는 오께안스까야야 영소계통 군사책임자의 지위에 있다.≫≪≪재만조선인불령단체의 책동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각 도 경찰부장에게 보낸 서류, 소화19년(1944년)≫

≪**김일성**, 최현, 안상길, 채세영 등 유력비단은 본년초두까지 전부 쏘련에 들어가 워로쉘로브에서 각종 훈련을 받고 4월이래 새로운 편성과 새로운 방침밑에 차례로 만주로 들어오고 있다.≫≪목단강 영사대리 후루야의 보고, (소화16년(1941년)6월 17일≫

2. 혁명가 김책


김책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여러 달이 지난 어느날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었다.

≪금수산의사당에는 수령님께서 애용하시던 금고가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 그 금고안에 무엇을 보관하시었는가 하는 것은 부관들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다음 그 금고를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열쇠를 찾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 수령님께서…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진이 있었습니다….

원래 수령님께서는 사진들을 다 당역사연구소에 보관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전우인 김책동지를 얼마나 못잊어하시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여 줍니다….≫

수령의 추억속에서의 영생, 그것은 인간이 한 생을 통해 지닐 수 있는 영광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광이며 혁명가가 한 생을 바쳐 도달할 수 있는 행복가운데서도 가장 큰 행복이다. 김책동지는 그 영광과 행복의 상상봉에 있는 충신중의 충신이다.

그는 어떻게 되어 수령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인간으로 되었는가.

내가 김책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하바로프스크에서 국제당이 소집한 회의를 할 때입니다. 거기서 최용건도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바로프스크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김책은 북만성위와 동북항일연군 3로군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 달 하바로프스크에 머물다보니 나와 김책은 서로 내왕을 자주 하였습니다. 내가 들어있는 숙소에서 안길이와 서철이도 숙식을 하였는데 거기에 김책이 와서는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군 했습니다.

그때 김책을 만나보고 받은 인상이 얼마나 강했던지 지금도 첫 상봉을 하던 때의 광경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나이 40이 채 되기도 전에 앞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그의 침착한 모습을 보니 첫눈에 마음이 끌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초면인 김책이 자꾸만 구면처럼 생각되는 것이였습니다. 소문을 많이 듣고 또 마음속으로 그리던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통성을 한 다음 첫 대면인데 구면같다고 했더니 김책은 자기도 **김일성**이 초면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와 김책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대를 그만큼 마음속으로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김책이나 최용건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부대를 데리고 북만에까지 갔다왔겠습니까. 김책이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벌써 1930년에 길림부터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용건이 나와의 공동투쟁을 얼마나 열망했으면 간도에 연락원을 네 번이나 보냈겠습니까.

투쟁무대가 북만이건 동만이건 우리는 그때 모두가 다 조선혁명을 생각하였고 자기가 조선사람이며 조선의 혁명가라는 것, 단체의 소속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한 몸 바쳐야 할 조선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성이 동만과 북만의 조선혁명가들로 하여금 오래 전부터 서로 그리워하고 동경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책이나 최용건이 왜 더구나 동만을 자꾸 넘겨다보았는가. 조선사람들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동만의 2군이 조선인부대라면 그들이 소속되어있던 3군이나 7군은 다 중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대들이었습니다. 언어와 풍습이 판이한 중국사람들속에서 지내다나니 늘 조선사람들이 수십만이나 와글와글하는 동만을 부러워했고 조선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룬 우리 부대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사령을 만나는 길이 왜 이다지도 멀었는지.≫

초면인사가 끝난 다음 김책이 혼자소리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슴을 파내리었습니다.

김책은 통성이 끝난 다음에도 오래도록 내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쳐다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간도의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그립고 조선인부대들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과묵한 사람이 눈물까지 보였겠습니까.

그날은 나도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김책의 선친은 나라가 망하자 인차 가족을 데리고 간도로 들어갔습니다. 간도가 땅도 많고 살기도 좋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땅으로 말하면 학성도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땅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가난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이 좋은 줄이야 누가 모릅니까. 밥술이라도 얻어먹으려니까 줄레줄레 북행길에 오른 것입니다.

김책이네 부모들은 간도에만 가면 살길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둔 부모들이니 노력걱정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큰 기대를 걸었던 세 아들은 집안 일은 뒤전으로 밀어놓고 혁명, 혁명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집안에 혁명바람을 끌어들인 것은 김책의 형 김홍선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3.1인민봉기 때 거리에 나가 독립만세도 부르고 독립군부대를 따라다니면서 청산리전투에도 참가하고 공산주의운동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교편을 잡고 있던 용정 동흥중학교에 러시아에서 건너온 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 아마 그들과 접촉하면서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김홍선은 영안현일대에서 공산당구위로 일하다가 모해에 걸려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김책의 동생도 쟁쟁한 혁명가였습니다. 김책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자기 동생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다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야학을 다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혁명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관계한 조직이 동만청총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공산당에도 입당하였습니다. 김책이 소속된 세포는 화요파의 영향밑에 있던 조직이었습니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이 파쟁놀음 때문에 해산된 당이라는 것을 알면서

도 그는 자기가 한때 이 당 산하의 어느 한 세포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다 밝히였습니다.

그 당시 만주땅에는 두 개의 만주총국이라는 것이 있였습니다. 하나는 화요파가 장악하고 있던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였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항하여 엠엘파가 만들어낸 만주총국이였습니다.

김책은 영도권쟁탈로 일관된 파쟁의 내막을 알고는 권력다툼을 일삼는 공산당상층인물들에게 환멸을 느끼였습니다. 그 나날에 감옥에도 잡혀들어가게 되였습니다. 그가 파쟁속에서 조락해가는 공산주의운동실태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국제당이 조선공산당을 해산시켰다는 놀라운 소식이 감방안에까지 날아왔습니다. 파쟁으로 피투성이가 된 당이였지만 그 당마저 해산되였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허헌

그렇다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일을 해야 하는가. 김책은 감옥안에서도 감옥밖에 나아서도 이 한 가지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기성세대에 의거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겠고 그렇다고 기성세대를 부정하자니 그것을 대신할만한 세력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야 홀로는 막연한데 감옥문을 나섰다고는 하나 수중에 돈 한푼 없으니 이 몸을 어디다 어떻게 건사하겠는가. 이렇게 막막한 생각을 하다가 은인에게 인사라도 한마디하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찾아간 곳이 허헌선생네 집이였습니다.

김책이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서준 사람이 바로 허헌선생이였습니다. 김책은 원래 변호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붙일만한 돈도 없었고 또 변호를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헌선생이 자청해서 무료로 그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많은 혁명가들과 독립운동자들의 변호를 맡아가지고 형량을 덜게 하거나 무죄가 되게 하였습니다.

김책은 허헌선생네 집에서 며칠동안 보양을 하였습니다. 그가 서울을 떠날 때 허헌선생은 두루마기도 한벌 입혀주고 손에 노자도 쥐여주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3원인가 4원인가 주었다는데 그 돈으로 김책은 차표도 끊고 도중식사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김책과 허헌선생은 이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허헌선생이 김책의 변호를 서준 것은 순수한 애국심의 표현이였습니다. 조선의 애국자들이 조선사람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 것이 가슴 아프고 억울해서 무료변호를 서준 것입니다. 동정심, 연대감, 애국선배로서의 의리…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보면 허헌선생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해방 후 김책은 내각에서 부수상 겸 산업상으로 일할 때 허헌선생은 최고인민회의 초대의장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지난날 피고석에 앉아있던 사람과 그의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이 국가의 고위간부가 되어 일하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이한 인연입니까.

김책은 부수상으로 임명된 날 허헌선생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옛날에는 선생님이 나를 변호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비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부수상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정없이 종아리를 쳐주십시오.≫

허헌선생은 호인이지만 대가 바른 사람이였습니다. 김책이 일을 잘못한다면 정말로 종아리를 칠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허헌선생에게는 그런 기회가 한번도 차례지지 않았습니다 김책이 부수상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비판감이 될만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박헌영은 부수상을 하면서 늘 허헌선생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허헌선생이 무슨 낌새를 챘던지 나보고 노상 박헌영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김책이 서거했다는 말을 듣고 목놓아울던 허헌선생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상님한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른팔이었는데 너무도 일찍이 갔다고 하면서 못내 애석해하였습니다.

김책은 허헌선생네 집에 있을 때 창피한 생각이 들어 끼마다 차려주는 더운 음식도 살에 가지 않더라고 하였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해놓은 일은 별로 없이 파쟁군들한테 농락만 당하다가 감옥살이를 했는데 자기를 대단한 혁명가처럼 돌봐주니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백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자! 이것이 김책이 허헌선생네 집을 떠나 간도로 들어갈 때 다진 맹세였다고 합니다.

김책은 간도땅에 들어서자 그 동안 아버지와 안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는 철도 채 들지 않은 두 아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책은 가사일을 생각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일제의 특무들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출동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활했는가. 혁명가들을 붙잡아다가 한 바탕씩 두들겨패고나서는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앞문으로 석방하고는 다시 뒤문으로 잡아들이군 했습니다. 그들의 잔꾀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김책은 두 아들을 처남네 집에 맡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헌 삿갓을 쓴 농부의 차림으로 처남네 소를 앞세우고 동구밖으로 나갔습니다.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그 소가 외양간에 떼어두고 온 새끼소를 찾느라고 계속 울었습니다. 외양간의 새끼소도 어미소를 부르느라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위장도 중요했지만 김책은 어미소를 더 끌고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서로 울음으로 화답하는 소리를 들으니 처남집에 맡기고온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고 송아지도 아이들도 다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소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16년동안이나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책과 같은 혁명가가 아니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책에게 아이들이 그 후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가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처남이 살아있으면 입에 풀칠은 할 것이다, 그러나 처남네가 잘못되었으면 거지가 되었을 것이다, 거지가 되어 남의 집 대문 밖에서 동냥질을 하더라도 죽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해방의 날도 보고 이 못난 애비도 볼게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김책이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영안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들들과 헤어져서 곧추 찾아간 곳이 영안현인데 거기에 있는 동만청총시절의 동료들과 만주총국시절의 친지들이 길림방면에 기성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새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 그 지도자가 김성주라는 것,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인망이 있고 친화력이 강하다는 것, 군벌 감옥에 갇혀 고생하다가 석방됐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였습니다.

동만청총에 길림선이 닿아있었으니까 그들이 우리의 활동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안현일대에 길림에 가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책은 동료들한테서 그런 말을 듣기 바쁘게 나를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미 길림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대신 여관에서 그는 우연히 우리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들이 김책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김책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가 길림에 오게 된 사유까지 듣고나서

김성주는 길림에 없다, 길림이 초행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물어물하지 말고 몸을 피하라, 지금 ≪적색5월≫의 여파로 군벌들이 혁명가들을 잡아내느라고 혈안이 되어있다, 김성주는 훗날에도 만날 수 있으니 경찰들의 손이 뻗치기 전에 길림성안을 빠져나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노자까지 주어서 바래주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책은 그 길로 북만 쪽에 갔다가 국민당군대에 붙잡혀 또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9.18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김책은 그 후 감옥문을 나서기 바쁘게 또다시 군벌경찰한테 붙잡혀 미결수로 있게 되었습니다. 약식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판은 공산주의자이지만 아직 운동다운 운동은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군벌들의 손가락 하나 다친적 없는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형벌이였습니다. 당시의 만주땅이라는 곳은 말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김책은 사형장까지 끌려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떤 장교가 와서 쏘지 말라고 호통치더라는 것입니다. 반일사상이 강한 진보적인 장교였던 것 같았습니다.

김책은 그때 사형장을 떠나면서 세상이 영 무심하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곡절을 겪는 과정에 그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젊어서부터 혁명을 하느라고 했지만 태반은 감옥이나 노상에서 보내면서 큰일은 치지 못하고 쫓겨다니기만 하다가 무장을 잡은 다음부터야 비로소 주동에 서서 적들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은 맨주먹으로 싸우는 혁명가들을 허재비로 압니다.≫

김책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무장을 하지 못하면 무장한 강도들 앞에서 허수아비처럼 무력한 존재가 되고 자기자신마저 지켜낼 수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의 교훈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책의 그 말을 듣고 그가 옳은 교훈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김책의 반생이 도달한 교훈이기도 했지만 혁명투쟁의 일반적 합법칙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은 총대를 가지고 해야 하며 민족적 독립이나 사회적 해방을 위한 모든 투쟁의 결말은 대체로 무장투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우리가 항일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였던 기본요인도 자체의 독자적인 혁명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 김구네 세력, 이승만이네 세력, 여운형이네 세력을 비롯하여 각이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운 적수로 본 것은 우리의 조선인민혁명군이였습니다. 왜 우리를 제일 무서운 적수로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청원이나 파업이나 붓이나 말로써가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최고형태인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완강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항일혁명의 승리는 혁명은 총대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진리의 정당성을 확증해주었으며 해방 후 우리로 하여금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전행정에서 혁명적 건설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강유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게 하였습니다.

국력도 총대에서 나오고 민족적 자부심도 총대에서 나옵니다. 군대가 강해야 민족이 부흥하고 나라도 융성번영합니다. 총대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총대에 녹이 쓸면 인민이 노예가 됩니다.

오늘 **김정일**동무가 혁명무력의 수위에 서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

우고 군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데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역사적 업적으로 됩니다.

김책은 종파의 해독성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별로 한 일도 없이 감옥으로 끌려간 것은 종파의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그때 자기는 감옥밥을 먹고나서야 공산주의운동을 재래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종파를 없애지 않고서는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를 만나려고 한 것은 길림에 나타난 새 세력이 조선공산당산하도 아니며 종파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참신한 새 세대들의 집단이라는 말을 듣고 그런 세력이라면 서슴없이 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행로에서 인생이라고 할만한 것이 있다면 주하에서 유격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그전의 생활은 방황과 모색과정이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였습니다. 주하에서 유격대를 조직한 때로부터 그는 북만당과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의 주요직책에서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북만의 조중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한결같이 김책을 노숙하고 세련된 혁명가로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김**사령을 주시해왔습니다. 우리 북만의 조선혁명가들이 사령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했는지 압니까. 우리는 늘 **김**사령부대가 있는 백두산쪽을 쳐다보며 싸웠습니다. 그때 길림에서 **김**사령을 만났더라면 내 그 동안 마음고생도 그렇게는 안하는건데…≫

김책은 계속하여 우리가 조국진군을 단행하여 보천보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제일 간절한 소원은 나의 손을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었으며 북만의 조선혁명가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싶었다고 하였습니다.

엄한 사람으로만 알려져있던 김책은 뜻밖에도 다감한 사람으로 내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가 북만에 파견한 사람들한테서 동만소식도 듣고 서간도소식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활동에서 제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은 관병일치,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기풍이며 사상과 넋에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면서도 조국해방을 주되는 투쟁강령으로 내들고 조선사람은 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해온 자주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우리의 투쟁행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가 한 대원의 총가목을 수리해준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혁명투쟁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우리를 거울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책은 그처럼 겸손한 사람이였습니다.

김책은 우리를 거울로 삼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가 혁명가의 표본이였습니다.

그는 범같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으나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대원들을 사랑하는 정치일군이였습니다. 그가 총가목에 대한 일화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와 비슷한 상하관계상의 일화들은 그에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혁명군대의 전투력은 무엇인가, 동지애이다,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라, 사랑하되 자기의 심장처럼 사랑하라, 혁명동지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하는 것이 김책이 대원들에게 강조한 사상이였습니다.

한번은 어느 지대의 한 대원이 문건을 가지고 그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김책은 그 대원을 병실에서 재우고 문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자 바느실을 준비해가지고 그 대원이 자고 있는 병실에 찾아가 그의 해진 옷과 내의를 기워주었습

니다. 낮에 문건을 넘겨받을 때 김책은 벌써 그 통신원의 옷이 해진 것을 보고 기워줄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대의 대원도 아니고 딴 부대의 대원이었는데 친형이나 친아버지처럼 그 사람을 돌봐 주었던 말입니다.

김책은 싸움을 한 번씩 하고 나서는 대원들을 만나 그들의 전투성과를 축하해주군 했습니다. 대원들을 한데 모아놓고 축하해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무가 성문을 돌파할 때 잘한 것은 무엇이고 위만군병실들을 들이칠 때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함화공작에서는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는 식으로 전투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주군 했습니다. 북만부대들에서 싸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대원들이 그런 총화를 받고난 다음이면 싸움을 더 잘했다고 합니다.


장상룡

김책은 비판을 받은 사람이나 책벌을 받은 사람들과의 사업도 아주 노숙하게 했습니다. 만일 어떤 대원이 지휘관한테서 충고를 받으면 꼭 그 대원을 만나 자기 잘못을 뉘우쳤는가를 알아보고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해할 때까지 꾸준하게 설복하였습니다.

김대홍이 소대장으로 공작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번은 그가 입대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관총부사수를 되게 욕질한 적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단련되지 못한 그 대원은 적탄이 우박처럼 날아오자 총을 공중에 대고 쏘았습니다. 김대홍은 그 광경을 보다 못해 ≪비겁한 놈, 목숨이 그렇게 아까우면 총을 놓고 부모들곁으로 썩 사라져!≫라고 하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 김책은 김대홍을 불러 동무, 대원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돼, 그 사람이야 신대원이 아닌가, 싸움을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욕설인가, 동무는 그 대원에게 욕부터 할 것이 아니라 솔선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책의 충고를 받은 김대홍은 그 후부터 절대로 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김책을 부하들을 어루만지기만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설복할 것은 설복하고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는 원칙성이 강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과오가 엄중하면 무섭게 다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김책이 서거한 후 장상룡이 그를 회고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942년 겨울, 그러니까 김책이 하바로프스크회의에 참가했다가 다시 만주에 돌아가 소부대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소부대는 식량부족으로 고생을 몹시 하였습니다.

어느날 장상룡은 사냥을 하려고 진종일 밖에 나가 돌아다니었습니다. 곰 한 마리와 메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숙영지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잡은 짐승들을 감추어놓고 바삐 걸었지만 맥이 빠진데다가 길도 험해서 숙영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냥군들의 숙소에 들어가 하루밤 자고 다음날 아침 숙영지로 돌아왔습니다. 그 숙소는 김책이 특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처라고 하면서 사용금지령을 내린 집이었습니다.

장상룡이 사용하지 않기로 된 집에서 하루밤 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김책은 전창철을 불러 장상룡은 우리 대오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되게 문제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전창철은 지금까지 혁명을 위해 충실히 싸워온 동무인데 한번만 용서해주자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책은 용서할 수 없다, 우선 밖에 내다가 3시간동안 세워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전창철은 그의 명령대로 장상룡을 밖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2시간도 되기 전에 장상룡은 벌써 몸이 꽁꽁 얼어들었습니다. 전창철은 보다 못해 김책에게 그만하면 장동무가 자기 과오를 충분히 반성하였겠는데 이제는 불러들이자고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책은 과오를 범한자의 처벌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규율위반이라고 하면서 전령병에게 전창철도 밖에 내다가 벌을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3시간을 다 채우고서야 장상룡을 천막 안으로 불러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할 터이니 우선 식사부터 하라고 하였습니다.

장상룡은 밥상에 마주 앉았으나 밥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잘못을 뼈아프게 뉘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야 김책은 장상룡을 가까이에 불러앉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무는 자기의 과오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엄중시하는가, 동무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 소부대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은 물론, 혁명임무까지 몽땅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막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동무는 자기 상급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하루밤 모험을 하였다, 거기에 특무들이 있었다면 어쩔번했는가고 하였습니다.


전창철

장상룡은 그때 그 한마디한마디를 뼈에 새겼다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 대신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법조항과 같이 드릴 수 없는 무게가 담겨있었습니다.

적들이 한때 북만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사기를 꺾어보려고 김책이 체포되었다, 박길송이 투항했다, 어느 지대가 귀순했다, 허형식이 어떻게 됐다 하고 엉터리없는 유언비어를 돌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날조라는 것을 알고 있은 유격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격분하였습니다. 그런 유언비어에 신물이 난 2지대의 지대장은 좋다, 너희들을 혼내주마 하고 적들을 골탕먹일 계책을 꾸미였습니다. 그는 부대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특무를 한 놈 유인해다가 그에게 빨치산이 투항하려고 하니 당신이 산에서 내려가 헌병대와 교섭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헌병대는 특무를 통하여 접선장소와 접선시간을 알려주고 지대장에게 후한 표창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순자대열을 인수하기 위하여 약속된 접선시간에 특무를 앞세우고 지정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적들은 수림속에 정렬한 2지대의 대오를 보자 벌쭉벌쭉 웃으면서 그들에게 손까지 흔들어보였습니다.

이때 2지대의 대원들은 일제히 총을 내들면서 ≪꼼짝말라!≫고 고함쳤습니다. 지대장은 적들에게 이 어리석은 놈들아, 우리는 투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놈들을 잡아가려 왔다, 손을 들라고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적의 우두머리는 공산군은 거짓을 모르는 군대라던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법이 어디 있는가, 군대란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지대장이 그 말을 듣고 이 뻔뻔스러운 놈들아, 네놈들이 눈만 째지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신의는 무슨 신의란 말이냐, 네놈들이 하도 대포를 불기 때문에 우리도 대포를 불어본거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2지대는 적들을 몽땅 생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대장이 큰공을 세웠다고 칭찬들이 대단했습니다. 성공한 작전이라고 추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득범이 식량을 해결하려고 ≪투항≫을 광고했다가 되게 비판을 받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책은 2지대의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적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유격대도 거짓말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무슨 사고방식인가, 아무리 가짜귀순놀음이라 해도 어떻게 유격대와 투항이라는 말을 결부시킬 수 있는가, 혁명군대의 지휘관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무섭게 다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대장을 철직시키고 나머지 지휘관들도 다 강직시켰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김책을 책벌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처벌을 망탕 주는 그런 무지막지한 지휘관이 아니였습니다.

실례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한 대원이 전투에 참가했다가 덤벼치던 나머지 척탄통알이 들어있는 배낭을 전장에 두고 척탄통만 가지고 퇴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모임을 열고 그 대원을 비판하였습니다. 무기를 잃은 대원을 비판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혁명군 부대들에서 간혹 보게 되는 일이였습니다. 비판무대에 오른 대원은 전우들이 주는 충고를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초급정치일군이 과오를 범한 대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바람에 회의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김책은 과오를 범한 대원의 입대연도를 요해해보고 그가 신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책임은 그를 잘 교양하지 못한 지휘관들에게 있으니 책벌이 아니라 방조를 주어야 한다고 결론한 다음 초급정치일군이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사건은 확대되었습니다.

과오를 범한 신입대원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종일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날밤으로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조롭게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문제가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심각하게 번져갔습니다. 책벌을 주장하던 초급정치일군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인정사정없는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를 반혁명분자라고 규탄하는 사람, 처벌해야 할 사람이라고 기염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책은 이런 사태를 보고받고서 책임은 다른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대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정치일군이 있다는 것은 정치주임인 내가 일을 쓰게 못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초급정치일군을 자신의 호위반에 편입시키고 가까이 끼고 있으면서 개별교양을 하였습니다.

김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군민관계와 상하관계를 잘 가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책은 우리가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면서 조선혁명의 기치를 든데 대하여 자주성과 결부시켜 높이 평가하였지만 사실은 그자신도 조선인대원들에게 우리는 중국인부대에서 싸우지만 항상 조선혁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혁명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 자신이 해야 한다, 우리는 늘 자기조국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에 대한 견해, 인민에 대한 관점, 자주성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은 물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나와 김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책이 내가 자기의 생활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나도 처음부터 김책을 주시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김책은 그 말을 듣자 웃으면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도 못 본 사람들끼리 서로 주시하고 그리워했다면 그거야 연분이지.≫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감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책이 나를 만나려고 길림에 찾아온 것이 1930년 여름이니 우리의 우정은 벌써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북만부대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던 김책은 나이로 보나 혁명투쟁경력으로 보나 만주빨치산의 조선인군정간부들 중에서 좌상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나로 말하면 그때에는 아직 국가수반도 아니고 당총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책은 쏘련사람들앞에서나 중국사람들앞에서나 나를 조선혁명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되어 그가 자기보다 9살이나 아래인 나를 그처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내세웠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책이한테는 혁명을 하자면 영도중심이 있어야 하고 그 영도중심의 두리에 모두가 하나로 튼튼히 뭉쳐야 한다는 사상이 온몸에 꽉 차있었습니다. 영도중심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결국은 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책은 나를 만난 다음부터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어 시종일관 변함없이 나를 따르고 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국이 어떻게 변하건 상관치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서도 김책은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당건설도 하고 군건설도 하고 국가건설도 하고 산업건설도 하느라 편히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김책이 소갈데 말갈데를 다 갔습니다. 전선사령관으로 있을 때는 충청도에까지 나가있었습니다. 자기는 최전선에 나가있으면서도 내가 전선에 시찰을 나가면 나의 수원들을 보고 여기가 어딘데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오는가, 동무들이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인가고 생야단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수안보에 갔던 사람들이 그때 김책이한테서 욕을 단단히 들었습니다.

길림시절에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나를 영도의 중심으로 내세웠다면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는 김책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자들이 나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나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혁명에서는 영도중심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영도중심을 꾸리는데서 김책은 특출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역사에서 김책이 차지하는 몫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원동의 기지에는 북만에서 싸우던 사람들도 와있었고 남만출신들도 와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곳에서 나서 자란 조선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가 자기 부대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혁명대오가 단합되지 못하고 중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동의 기지에 모인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지방주의라든가 영도권쟁탈과 같은 놀음이 한번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순결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김책, 최용건과 같은 로장들이 처음부터 나를 내세우다나니 영도중심이 확고했습니다.

김책이 나를 어느 정도로 따르고 신뢰했는가 하는 실례를 말해주겠습니다.

김책은 하바로프스크회의에 참가한 후 1942년과 1943년의 대부분을 만주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만주에 나간 것은 북만에서 활동하는 소부대들을 지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소부대들에 대한 지도가 끝난 다음에도 기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북만부대의 지휘관들인 허형식과 박길송이 전사한 후였습니다.

김책은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는 땅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연합군을 조직하면서 지휘부에서는 여러 번 무전을 쳐서 그가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는 매번 할 일을 다하고야 돌아간다는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김책이네 소부

대에는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지휘성원들은 무전을 받을 때마다 그의 처사를 두고 매우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나는 김책이 변화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 있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직접 나의 이름으로 무전을 쳤습니다.

김책은 내가 무전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해서야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국제연합군지휘부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끔쩍하지 않던 사람이 왜 내 연락을 받고는 그 달음으로 들어왔는가. 그것은 그가 나를 그만큼 따르고 신임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동지가 나를 들어오라고 했으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옳은 처사이다, 그러니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내 말이나 요구를 절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책은 원동의 기지에 있을 때부터 진심으로 나를 내세우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1941년 봄에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나갈 때에도 나와 동행하게 될 호위성원들 한사람한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본군에 대한 최후공격작전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는 김책이 나도 모르게 국제연합군의 조선지휘관들만 따로 모아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나의 신변호위와 관련된 회의였습니다. 각자가 경각성을 높여 **김일성**동지의 신변호위를 잘해야겠다,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과 조선혁명가들을 대표하는 영도자이니 목숨으로 옹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조국에 개선하자마자 김책은 나의 호위와 관련된 모임을 또 열었습니다. 조국에 와보니 듣던 것보다 정세가 훨씬 더 복잡하다, 테러분자들의 준동이 여간 심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지 않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평안남도당의 책임비서 현준혁이도 테러분자들한테 피살당했다, **김일성**장군이 개선했다는 말을 절대로 입밖에 내지 말라, 공개할 때가 있으니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경위대원이 된 심정으로 **김**장군의 호위를 각별히 잘해야겠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후에는 그가 주동이 되어 경위대도 조직하였습니다.

김책이 나에게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종일 해도 못다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직후에도 나는 사람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인민들과의 사업, 남조선혁명가들과의 사업, 외국인들과의 사업으로 정말 눈코뜰새가 없었습니다. 노사까 산조도 해방 직후 우리 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귀한 손님들이 와도 그들을 접대할 수 있는 봉사체계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님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초대소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우리 집에 데려다가 접대하였습니다. 우리 집이라야 밥 한 그릇에 국 한 사람이 고작이었습니다.

해방이 갓 되었으니까 별 수 없지 하고 다들 심상하게 여기였지만 김책이만은 이런 실태를 두고 상당한 정도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서 차린 식탁에 좋은 술을 내놓지 못하는데 대해 은근히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나라사정이 딱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군님댁에 손님이 올 때마다 어떻게 노상 되병을 들고 장마당출입을 하겠는가, 이제 공화국이 창건되면 우리 장군님한테로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겠는데 술공장을 하나 꾸려가지고 우리 손으로 접대용술을 만들자, 장군님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술은 우리자체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술은 무엇이고 그 술을 만들어내는 양주전문가가 누구인가 하는걸 물색하기 시작

했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난 술은 용강에서 만드는 술이었습니다. 그 술을 한 양주업자가 딸과 함께 만들어냈는데 해방 전에 일본인 고관들과 부자들이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김책은 그들을 찾아 용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책의 말에서 큰 충동을 받은 양주업자는 나라에 양주기술자가 필요하다면 내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강정숙이였습니다. 강정숙은 그때부터 한편으로는 김책의 밥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술을 고았습니다. 그가 양주작업장을 꾸리기 시작하자 김책은 한 일군을 데리고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사왔습니다. 김책의 숙소는 미구에 양주장으로 변하였습니다.

며칠후 김책은 처음으로 뽑은 술을 병에 넣어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강정숙이 뽑은 첫 용강술입니다.≫

김책은 이렇게 말하며 잔에 술을 찰랑찰랑 부었습니다. 용강술이 최고라고 하던 항간의 소문이 뜬소문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술맛이 좋다고 하자 김책은 ≪그렇다면 됐습니다.≫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정숙

그때부터 강정숙이 제조하는 용강술은 국가연회용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줄로 되어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책이 수령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절대화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단추를 채운 다음에야 통화를 시작하군 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병석에 있을 때에도 나한테서 오는 전화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받군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노상 그렇게 했습니다. 수령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김책은 내가 없으면 자기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기 제일 준엄했던 때가 후퇴 때였습니다. 일시적 후퇴다, 전략적 후퇴다 하고 선포했지만 신념이 약한 사람들은 공화국의 운명이 끝장나는가보다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적들이 사리원을 돌파하자 전선사령관인 김책은 중화, 상원, 강동 일대에 평양방위선을 구축해놓고 나에게 전선정황을 보고하면서 자기는 후퇴해 들어오는 부대들로 방위역량을 보강하고 끝까지 견지하겠으니 장군님만은 최고사령부성원들을 데리고 평양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며칠후 김책은 또다시 전화로 최고사령부의 위치를 옮겨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동무들도 적들의 공격을 그만큼 지체시켰으면 되었으니 이제는 후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책은 후퇴하지 않고 당원증만 보내왔습니다. 결사전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나는 전화로 김책을 찾아 동무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평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김책은 방어부대들을 데리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인민군대가 재진격을 시작했을 때에야 그는 당원증을 찾아갔습니다.

김책을 매우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일군들도 있지만 사실 그가 무섭게 구는 것은 건달군들과 아첨쟁이들, 불평분자들, 이기주의자들, 탐위분자들과 종


최용건동지, 김책동지, 김일동지, 강건동지와 함께계시는 김일성주석님

파쟁이들앞에서였지 아내일군들과 인민들앞에서는 무한히 인자하고 겸손하였습니다. 김책이 딴꿈을 꾸는 자들을 몹시 증오했기 때문에 박헌영도 그 앞에서만은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였습니다. 김두봉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했지만 김책이만 보면 슬슬 피해다니였습니다.

김책은 가식과 위선을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해방 직후 그의 아들이 만주에서 방랑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단추 2개가 달린 베적삼에 짚신바람이였습니다. 김책이 아들을 나한테 인사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짚신바람으로 어떻게 장군님을 만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런 때 어지간한 부모들 같으면 상점에 가서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사신기고 난 다음 자식을 내 방으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책은 처신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짚신바람이라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네가 **김일성**장군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걱정말고 어서 들아가자, 지금까지 내처 발을 벗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부자집자식들 흉내야 낼 수 없지 않느냐, 장군님께서는 네가 짚신에 이렇게 입고 온 것을 더 좋아하신다, 네가 만약 좋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찾아왔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6년 만에 짚신바람으로 찾아온 아들을 데리고 김책이 내 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은 김책이보다 내가 더 울었습니다. 김책 자신도 속으로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가 오래동안 헤어졌던 자식들과 눈물나는 해후를 했지만 그들과는 네 해 남짓하게밖에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김책이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은 과로 때문이였습니다. 그가 안고 있은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951년 1월 30일입니다. 1951년 1월말이면 최고사령부가 건지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저녁 김책이 불쑥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지난달 24일 **김정숙**동무의 생일이였는데 수상동지가 적적해하시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이 달도 다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처신이 잘된 것 같지 않고 또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음이 늦어진 것을 두고 사과하였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길래 나는 지난해 12월이야 북반부땅에 쳐들어온 미국놈들을 몰아내느라고 눈에서 불이 일던 때인데 언제 찾아다닐 경황이 있었는가,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김책은 왜 그런지 기분상태가 김책이답지 않게 감상적이였습니다.

그가 나보고 산보를 하자고 하기에 우리는 산보를 했습니다. 김책은 나에게 전쟁전에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모르고 다니지 못하였는데 전쟁이 끝나면 여기에 휴양소를 하나 잘 짓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해방

후 우리는 새 조국 건설로 몹시 바삐 보내다나니 어디에 휴식에 적합한 골짜기가 있고 명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휴식이라고 해야 장수원다리밑이나 맥전나루터 같은 데 가서 발이나 씻고 돌아오는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 날 내앞에서 뒤축이 뀌진 양말을 감추느라고 애쓰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김책에게 일만 일이라 하지말고 몸을 좀 돌보시오, 이 엄동설한에 살이 보이는 양말을 신고 다녀서야 어떻게 견디겠소, 나를 생각해서라도 몸을 조심해주시오라고 하면서 새양말을 꺼내 신기였습니다.

김책은 그날저녁 나와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허가이가 갑자기 내앞에 나타나 당사업정형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외교를 하느라고 오래동안 이런말저런말을 하며 흐지부지하다나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책은 식사도 못하고 건지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최고사령부를 떠나면서 나를 보고 ≪장군님, 미국놈들과의 싸움은 저희들이 하겠으니 장군님께서는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여 주십시오.≫하고 권고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나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보니 왜 그런지 그날따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밤도 김책은 집무실에서 철야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군의국장을 겸하고 있던 이병남보건상이 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할 때 나는 그 사실을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간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호위성원들의 만류를 뿌이치고 대낮에 자동차를 달려 내각이 자리잡고 있던 곳에 가보고서야 나는 이병남의 보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날밤 그를 내곁에서 재워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가 내곁에서 자고 갔으면 밤을 새우지 않았을 것이고 심장마비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후회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책이 나를 찾아온 날 밤 식사를 나누지 못하고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여보냈다고 해서 내 슬픔이 덜어질리는 없겠지만 어쩐지 그게 지금까지도 속에 얹혀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김책과 영결하던 날의 일들은 거의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똑똑하게 기억되는 것은 영구를 발인하기 전에 김책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보던 일입니다. 10년 전에 하바로프스크에서 처음으로 잡고 오래 놓지 못하던 손이였습니다. 10년 전에 잡아보고 그 따뜻한 온기를 평생 잊지 못했는데 그를 영결하던 그날은 얼음처럼 차거웠습니다. 지방에 현지지도를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선참으로 뛰어나와 내손을 부둥켜잡던 김책의 손이였습니다.

김책은 한생을 나의 충직한 전우로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내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잊지 못합니다. 김책이 돌아간 다음 나는 그의 자식들을 친부모처럼 돌보아주었습니다.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잔치도 차려주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축하도 해주고 우리 집에 종종 불러다가 음식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책을 위해 무엇인가 더해주지 못한 것만 같아 노상 허전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혁명이 시련에 부닥치거나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면 김책 생각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김책의 묘앞까지 차를 타고 가지 못합니다. 그의 묘지를 찾을 때는 차를 타고가는 것이 죄스러워 대성산밑에서 내려 걸어서 올라가군 했습니다.

김책이 저 세상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마음이야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혁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슴깊이 새긴 것 중의 하나가 동지에 대한 체험입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결사의 각오를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입니다. 진실한 동지는 제2의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충직하고 의리깊은 동지들이 뭉치면 하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한다는 말인데 뜻이란 곧 사상입니다. 일시적인 이해관계나 타산에 의하여 맺어진 동지관계는 공고할 수 없으며 때에 따라 쉽게 깨여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동지관계는 영원하며 총알도 단두대도 그런 동지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혁명은 영도자에 대한 충정으로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수많은 동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동지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책이 서거한 다음 우리는 그를 영원히 추억하기 위하여 그의 고향 가까이에 있는 성진시와 그의 심혈이 깃든 청진제철소, 그리고 평양공업대학을 각각 김책시, 김책제철소, 김책공업대학으로 명명하고 인민군대의 한 군관학교도 그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김책시에는 그의 동상도 세웠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김책의 이름을 가진 도시와 공장, 대학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김책은 남의 뒤꽁무니에서 우물거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선봉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나라 산업건설에서 김책이 해놓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경제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볼 때면 속으로 김책이 만일 이걸 안다면, 김책이 만일 이걸 안다면 하는 생각을 하군 합니다. 그가 산업상으로 일할 때 우리 나라 경제는 치차처럼 잘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김책과 함께 사업하던 일군들도 적지 않은데 동무들은 그가 우리 나라 산업건설을 위해 바친 심혈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업을 보좌하는 김책동지




새朝鮮건설에힘쓰자



3.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0. 3. 1 B야영구≫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한 장의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활달한 친필이 적혀있는 사진이다.

언제인가 혁명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사진앞에서 이 사진은 자신께서 제일 아끼던 사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시절을 추억하실 때마다 **김정숙**동지를 자주 회고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장 귀중하고 친근한 동지로, 잊을 수 없는 혁명전우로 살아계시였다.

내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남야영에 머물러있을 때입니다. 남야영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항일연군 1로군산하의 부대들이 초기에 사용한 워로쉴로브근방의 임시기지입니다. 남야영을 B야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서 한 해 겨울을 난 다음 나는 다시 만주와 국내에 나와 소부대활동을 벌였습니다. 1942년 여름부터 우리는 쏘독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급변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동북항일연군과 쏘련군부대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뭇고 북야영에 정착하였습니다. 항일투사들이 A야영이라고 부르는 하바로프스크부근에 있는 기지가 바로 북야영입니다.

나는 하바로프스크회의가 있은 다음 남야영으로 갔습니다.

우리보다 한발 먼저 남야영에 와있던 최현이 멀리까지 나와 우리를 마중해주었습니다. 그가 털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나를 눈이 떼꾼해서 쳐다보다가 웬 신사인가 했더니 **김**장군이였구만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현이 어찌나 포옹을 세게 했던지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였습니다. 그는 하바로프스크에서 회의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무슨 회의를 그렇게 오래 했는가고 투정 비슷하게 롱도 하였습니다.

남야영에서 동쪽으로 얼마간 가면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통하는 철길이 있고 자그마한 철도역이 있었습니다.

남야영에 모인 인민혁명군대원들은 자체로 병실도 더 짓고 주택도 짓고 창고며 식당이며 세면장도 지었습니다. 병실은 반토굴식이였는데 인민군대의 현재 병실들처럼 침대를 2층으로 놓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그때 건설공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실앞에는 널직한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남야영에 있을 때 국내와 만주에서의 소부대활동을 준비하면서 정치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대부분이 그때 처음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간 다음부터는 식량걱정을 안해도 되었습니다. 끼당 200그램 정도씩 얇게 썬 빵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입에 잘 당기지 않았습니다. 입에 선 서양음식인데다가 찬도 변변치 않아서 다들 식성이 맞지 않아했습니다.

거기에는 후방차도 있었습니다. 그 화물자동차가 근처에 있는 부업농장에 다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후방물자를 날랐습니다.

운전수는 쏘련사람이였습니다. 이오송이 운전기술을 배우느라고 내내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였습니다. 어떤 날은 부업농장에도 같이 갔습니다. 그는 운전수를 따라 다니는 과정에 자동차운전법도 배우고 술도 배웠습니다. 그 운전수라는 사람이 술을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오송은 그때 배운 밑천을 가지고 해방 후에도 얼마간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차라면 오금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내 차를 몰다가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무들이 그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남야영에서 생활하던 쏘련전우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후방차운전수도 평양에 와서 옛친구인 이오송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원동에서 겨울을 나고 봄을 맞던 그 해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1941년은 우리 혁명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지만 세계적 판도에서 볼 때에도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해입니다.

6월에 히틀러군대가 쏘련을 침공했고 12월에는 일본군의 진주만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되였습니다.

참으로 1941년은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준 불행한 해였습니다. 수천년을 두고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이 탱크와 대포앞에서 형체도 없이 박살나던 수난의 해, 전화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쏘독전쟁도 태평양전쟁도 아직은 미래의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낙관과 신념에 넘쳐 1941년을 뜻깊게 맞이하였습니다. 조선혁명가들이 시대와 역사앞에,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실현할 시각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봄을 맞으면서 소부대활동과 앞으로의 공동작전과 관련된 구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 구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우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김책과 주보중이 남야영에 얼마동안 와있었는데 그들과도 자주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바로프스크회의 후 소부대들을 편성하여 국내와 만주에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도 소부대를 데리고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날자가 박두하자 **김정숙**은 나와 소부대공작에 나갈 동무들의 길차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그때 이미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 알게 되였고 백두산을 넘나들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이에 벗이 되고 동지가 되고 한 생을 같이하게 되였습니다.

내가 **김정숙**을 처음으로 본 것은 다홍왜회의를 하던 무렵입니다. 회의 후였던지 도중이였던지 삼도만에 갔습니다. 연길현에 속한 고장입니다. 삼도만 능지영이라



삼도만유격구에서 김정숙동지를 만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는 곳에 당비서처가 있었는데 **김정숙**은 그 비서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능지영에서 소집된 비서처일군들의 회의장소에서 **김정숙**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후 나는 마안산에서 우리 부대에 편입된 **김정숙**을 다시 만나게 되였습니다. 김명화와 함께 만강에서 나를 맞아주던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였습니다. 그날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듣고보니 그는 의지가지할 데 없는 몸이였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곳이란 혁명전우들의 품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후부터 내내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김정숙이 우리한테 온후 무송현성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여투사로서의 담력과 지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무송현성전투에서 살아난 것도 **김정숙**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가 아주 심각한 전투였습니다. **김정숙**은 전투장에서 좀 떨어져있는 잘루목에서 7-8명의 여대원들을 데리고 아침식사준비를 하고 있였습니다. 그 잘루목에 밥을 지을만한 집이 한채 있었는데 연기가 나도 다른데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갑자기 여대원들만 있는 잘루목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잘루목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부대가 앞뒤에서 얻어맞을 수 있었습니다. 정황이 몹시 위급하다는 것을 간파한 **김정숙**은 싸창을 뽑아들고 전우들과 함께 맹렬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여대원들의 드센 반격에 부딪친 적군은 숱한 주검을 남기고 퇴각하였습니다.

이 싸움이 있은 후부터 그는 더욱더 전우들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되였습니다.

그 해에 우리는 장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3월에 무송원정을 떠났습니다.

무송원정이 힘든 원정이였다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나도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대부분의 대원들이 다 잠에 곯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숙**만은 우등불곁에서 온밤 자지 않고 대원들의 해진 옷을 손질해주었습니다. 행군길이 하도 험하다나니 옷이 쉽게 해졌습니다. 신입대원인 마동희도 그 원정에 참가했다가 우등불에 모자를 태웠는데 **김정숙**이 새것처럼 기워놓았습니다.

후에도 체험한 바이지만 **김정숙**은 무슨 일거리든지 손에 잡기만 하면 온 심혼을 다 바쳐 맵시있게 마무리를 해놓군 하였습니다. 그날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탄복하였습니다.

무엇에 탄복하였는가. 남을 돕지 않고서는 발편잠을 자지못하는 그 남다른 성품과 인정미에 탄복하였습니다.

이 생활세부를 통하여 나는 여성으로서의 **김정숙**을 깊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휘관들이 **김정숙**을 도천리지하공작조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할 때에도 서슴없이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숙은 도천리와 신파 일대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혁명가로서의 만만치 않은 수완과 능력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에게는 군중을 감화시키고 각성시키고 동원시킬 줄 아는 비상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안군놈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도천리와 그 주변 인민들이 경찰에 제출했다는 수백 명의 연명으로 된 ≪양민보증서≫는 **김정숙**에 대한 군중의 평정서와도 같은 것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 인민들한테서 그런 신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숙**이 한 몸을 내대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몸을 내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무엇이 두려우랴 하는 배심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까 위험한 고비에 부닥쳐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1938년 4월 6도구의 적을 치고 나오다가 쌍산자라는 곳에서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나까지 기관총을 잡고 일선에서 적들을 쏘아눕히였습니다. 사면팔방에서 적들이 조여들다보니 우리는 어데로 빠질 데도 없었고 잠간 숨을 돌리며 식사할 짬도 없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가 뜨끈해났습니다.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난데없는 만두가 들어있었습니다. 얼핏보니 **김정숙**이 전장을 돌아다니며 전우들의 손에 만두를 쥐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만두를 하나씩 꺼내먹으며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작식터는 벼랑아래 샘터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음식그릇을 가지고 그 아찔한 벼랑을 어떻게 톺아올라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이처럼 전우들한테는 늘 끼니를 번질세라 싸움터에까지 뛰어들어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도 **김정숙**자신은 노상 배를 곯았습니다.

언제인가 부대에 쌀이 떨어져 모두 맨 감자만 먹고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감자도 여러 끼를 먹으면 대체로 새가 나고 입맛을 잃게 됩니다. 전우들이 며칠째 맨 감자로 끼니를 에우게되자 **김정숙**은 그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우들의 입맛을 돋구겠는가를 줄창 궁리하였습니다. 그는 감자를 갈아서는 전우들에게 지짐도 해주고 산나물을 뜯어다가 볶아서 소를 넣고 떡도 해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원들이 감자음식을 모두 달게 들었습니다.

김정숙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들을 위해 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동지애로부터 시작되었고 동지애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 공산주의적 도덕의리가 최대한으로 발양된 비범한 혁명가로 되었습니다. 그가 일생동안 해놓은 그 모든 것은 다 동지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 것이였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관념속에는 자기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굶어도 좋고 얼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관이였습니다.

김정숙의 동지애가 얼마나 진실하고 열렬한 것인가를 알려면 한 장의 모포에 깃들어있는 사연만 들어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연길에서 살고 있는 **김정숙**의 전우인 서순옥이 나를 만나려고 평양에 왔다갔습니다. 그때 그가 모포 한 장과 쌍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순옥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서 사령부작식대원으로 일하던 동무입니다. 그의 남편 김명주도 한 때 주력부대에서 군사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연길감옥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 무송지방에 나와 활동할 때 7연대에 있었습니다.


서순옥

서순옥은 최희숙이 요방자라는 고장에 지하공작을 나갔다가 데리고와서 입대시킨 여대원이였습니다. 입대당시의 그의 나이는 열대여섯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희숙은 서순옥을 부대로 데리고 올 때 그의 조카가지도 데려왔습니다. 엄광호가 청봉밀영에서 적의 밀정으로 몰아붙인 애숭이대원이 바로 서순옥의 조카였습니다.

서순옥은 **김정숙**의 사랑을 많이 받던 여대원이였습니다. **김정숙**은 숙영지에서 늘 자기보다 몇 살 아래인 서순옥을 껴안고 잤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포 한 장을 함께 사용하군 했습니다. 그 당시 사령부가까이에 있은 여대원들이란 **김정숙**과 서순옥뿐이였습니다.

서순옥이 가져온 모포는 **김정숙**이 애용하던 모포입니다. **김정숙**의 배낭에는 언제나 그 모포가 얹혀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배낭이 더 커서 누구인지 가려보기가 힘들 때에도 나는 모포를 보고 그를 알아보군 했습니다.

김정숙은 서순옥이 소부대기지에 갈 때 그 모포를 그에게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그 기지에 김명주도 있었고 현철도 있었습니다. 김명주와 서순옥은 거기에서 결혼하였을 것입니다.

서순옥은 떠나는 날 **김정숙**을 붙들고 자꾸 울었습니다. 한 모포밑에서 지내던 여성들의 이별이여서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서순옥에게 줄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와했습니다.

김정숙은 서순옥의 배낭에 그 모포를 넣어주면서 자, 기념으로 가지고 가거라, 새것은 아니지만 너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온 이 언니의 온기가 스며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서 그 모포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왔습니다.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그 모포가 **김정숙**이 애용하던 모포라는 것을 인차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쌍안경도 내가 김명주에게 준 것이였습니다.

그때 그 모포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 있었다면 **김정숙**은 서순옥에게 그것도 서슴없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의 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자기 정을 줄 때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철학입니다.

김정숙의 동지애는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헌신성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습니다. 자기 사령관에 대한 충실성도 그 본질은 동지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가 식량이 떨어져 몇 끼씩 굶으면서 전투를 계속하던 때였습니다. 한창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주머니에 무엇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다보니 **김정숙**이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주머니의 것을 꺼내서 펼쳐보았더니 잣을 알알이 까서 종이에 싼것이였습니다.

나는 **김정숙**에게 어디서 얻은 잣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이였습니다. 훗날 다른 여대원들이 하는 말이 그가 직접 잣나무에 올라가 따온 잣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김정숙은 여러 번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주었습니다. 그는 내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육탄이 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현철

우리가 대사하치기에서 전투를 할 때 내 주변에서는 아슬아슬한 정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한무리의 적들이 나한테로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투를 지휘하느라고 그런 정황이 조성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숙**이 아니였더라면 큰일이 일어날 번했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를 막아서며 달려드는 적들을 모조리 쏴갈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산에서 여러 해 동안 입고 다니던 솜외투도 실은 **김정숙**이 지어준 것이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총알이 명주솜을 뚫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명주솜을 모아두었다가 나에게 솜외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 날을 두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한뜸두뜸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낸 외투가 내몸에 꼭 맞는 것을 보자 그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나는 숙영지에서 밤을 새우거나 잠을 잘 때면 휴대하고 다니던 노루가죽을 땅바닥에 편 다음 그 솜외투를 덮군 했는데 그러면 몸이 훈훈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뜨개질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계로 편직물을 짜내는 시대이니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뜨개옷을 볼 때마다 **김정숙**을 생각하군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뜨개질을 많이 했습니다. 작식일을 하느라면 일손도 딸리고 시간도 바쁘겠는데 시간을 어떻게 짜내고 털실을 어데서 구해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짬만 생기면 책을 읽든가 뜨개질을 하였습니다.

산에서 털실을 구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이였습니다. 그때는 바늘 한 쌈을 얻자고 해도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은 적들과 싸우느라고 사철 밖에서 자고 먹고 행군하는 나를 걱정하여 솜외투도 지어주고 배띠개도 만들어주고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털양발을 떠주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고생하는 것이 미안해서 나는 언제인가 그에게 털실은 어데서 어떻게 구했는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은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한테는 털양말이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 말에도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고 자꾸 캐여묻자 마지못해 ≪장군님은 큰일을 하시는 분이니 그런건 몰라도 됩니다.≫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김정숙은 해방 후에도 나를 위해 뜨개질을 하였습니다. 내가 신은 양말이 해지면 깁지 않고 그것을 풀어 실토리에 감았다가 새로 양말을 뜨군했습니다. 온밤 자지 않고 떠서는 아침이면 내 침상곁에 놓아두군 했습니다. 상점이나 시장에 가면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양말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서는 실이 삭아서 못쓰게 될 때까지 그냥 풀어서 쓰고 풀어서 쓰고 하면서 제 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목숨으로 보위하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으로 양말을 떠서는 나에게 신기였습니다.

그는 양말 한 켤레라도 제 손으로 직접 떠서 나에게 신기고 싶어했습니다. 여성들의 정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김정숙의 그 남다른 정성앞에서 한번은 내가 본의 아니게 성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였던지 그가 내 옷을 빨아서 제 몸에 품어 말리웠다가 내놓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노릇이였지만 그 소행에 감탄한 여대원들이 뒤에서 **김정숙**을 칭찬하는 말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옷가지를 몸에 띠고 말리웠다는 말을 난생처음 들은 나는 아연해서 **김정숙**을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너무나 얼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그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전에 우리 어머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그가 했다는 생각을 하니 나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도 해주지 못한 일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서서 자신을 희생시킨 **김정숙**의 동지애,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 사령관에 대한 혁명적인 동지애인 동시에 인간 **김일성**에 대한 뜨거운 정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정숙**동무, 나를 위한 동무의 정성에는 나도 머리를 숙인다, 그것만은 늘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동무가 어쩌자고 그런 노릇을 하는가, 그러다가 촉한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할텐가, 동무가 자기를 희생한 값으로 내가 덕을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숙**은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고생이야 고생이랄게 있습니까. 장군님만 무탈하시게 된다면…≫

비록 **정숙**이 앞에서는 성을 냈지만 나는 그를 돌려보내고나서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그 순간에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숙**이 나를 위해 기울이는 정성속에 어머니가 못다주고간 사랑도 겹쳐져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의 열기를 젖은 옷에 빼앗기고 오한으로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김정숙**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도 **김정숙**은 몸으로 나의 젖은 옷과 내의와 같은 것을 말리워주군 하였습

니다. 그러고보면 **김정숙**은 몸으로 나에게 날아오는 총탄도 막아주고 눈비도 막아주고 촉한도 막아준 셈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가들이 우리가 걸어온 항일혁명의 길을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 뿐 아니라 사랑에서도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고했지만 백두산 부석우에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연인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 동지간의 사랑을 비롯하여 인간생활에 존재하는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성이라고 봅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굶지않게 하며 자기는 춥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춥지않게 하며 자기는 아프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지않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불속에도 들어가고 형틀앞에도 나서고 얼음구멍에도 뛰어드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헌신성만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진실한 사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다음 만경대에 가니 가족들과 친척들이 나에게 산에서 싸울 때 좋은 여자를 만났다는데 결혼식은 어디서 어떻게 했고 들러리는 누가 섰으며 상은 어떤 사람들이 차려주었는가고 자꾸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물음에 대답하자니 갑자기 목이 메고 말문이 막히었습니다. 사실대로 설명하자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슴아파할 것 같고 친척들도 섭섭해할 것 같아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는 결혼식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활이 간고하고 어렵기도 하였지만 나라를 찾지도 못하고 망국민의 수치를 씻지도 못한 처지에 우리가 어떻게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오에는 그런 호사를 바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격대식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대원들앞에서 오늘 아무개동무와 아무개동무가 결혼을 한다고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처럼 첫날옷을 차려입고 큰상을 받는 것같은 예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좀 괜찮은 경우라야 밥 한 그릇이 고작입니다. 밥이 없으면 죽을, 죽이 없으면 감자나 강냉이 같은 것을 나누었는데 그런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응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부부로 선포된 다음에도 소속 중대나 소대에서 종전과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싸움터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쓰러진 부부가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임무를 맡아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나와 **김정숙**이 결혼하던 날 전우들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마련해보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온 부대가 식량이 떨어져 끼니도 잇지 못하는 때에 어디서 무엇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날옷도 큰상도 주례도 들러리도 없었지만 그 혼례가 한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정숙**이도 생전에 그날을 두고두고 추억했습니다.

새 세대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때의 형편에서 달리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식으로 혼례를 치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멋으로 여기였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며 참고 견디는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원들의 락이었습니다. 그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오늘의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백두산밀영과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조국이 해방된 다음 전우들의 결혼식을 잘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라를 찾고보니 그것도 마음뿐이

였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인민들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못하고 식량사정도 무척 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 장시우가 나를 찾아와 빨치산출신이라는 사람이 평남도당의 자금을 꺼내다가 개인잔치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가고 들이댄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가고 물으니 김성국이 도당의 돈을 꺼내갔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김성국을 방에 불러다놓고 이을설이더러 그의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무슨 권한으로 도당자금을 마음대로 다루는가고 추궁하였습니다.



여성유격대원들과 함께 계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김성국이 울먹거리면서 ≪손종준이 잔치를 하는데 첫날옷도 해주고 이부자리도 갖춰주고 상도 차려주자고 그랬습니다. 혈육도 친척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쩝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김성국을 호되게 비판하였습니다. 손종준에게 첫날옷을 해주고 이부자리도 갖춰주고 상도 차려주면 좋다는 것이야 낸들 왜 모르겠는가, 그렇데 지금 어디 그럴 형편이 되었는가, 밥 한 그릇도 변변히 떠놓지 못하고 결혼식을 하던 지난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동무가 당에다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에 빨치산 출신답게 동서남북을 살펴보면서 처신을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김성국을 돌려보내긴 하였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의 결혼식을 잘 차려주자고 애를 쓴 김성국의 그 마음이야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투사들이 해방된 조국에 와서 결혼을 많이 했지만 다들 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게 늘 속에 얹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동무는 그들이 생일 60돌, 70돌을 맞을 때에는 상도 차려주고 선물도 보내주군 합니다.

그런데 **김정숙**이만은 그런 낙도 보지 못하고 30살을 넘기기 바쁘게 이렇게 사진만 나기고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나와 정숙이가 이 사진을 찍게 된 것도 우연이였습니다. 아마 혁명전우들이 관심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것조차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부대를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동무들이 나를 찾아와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소부대공작을 떠나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자고 하였습니다. 사진기도 얻어왔으니 **김**장군은 얼굴만 빌려주면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밖에 나가니 최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아직 쌀쌀했지만 어데서나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나는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에 기대여 전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남야영에 와서 만난 기념,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게 되는 소부대공작기념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둘씩, 셋씩 패를 무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창 찍고 있을 때 여대원들 몇이 어떻게 낌새를 챘는지 우리곁에 달려와 자기들도 사진을 찍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대원들과도 몇 장 찍었는데 그들이 나와 **김정숙**이더러 둘이서 함께 찍으라고 했습니다.

김정숙은 그 말을 듣자 부끄럼을 타면서 여대원들의 등뒤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대원들은 **김정숙**의 등을 막무가내로 떠밀었습니다. 그는 내우를 하며 어쩔 바

를 몰라했습니다. 전우들이 등을 떠미는 통에 그가 웃으면서 내곁에 밀려왔습니다.

동무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내가 일생에서 개별적으로 여전우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그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나와 **김정숙**에게 있어서는 결혼사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혈기왕성한 청춘들이였습니다. 꿈도 많고 웃음도 많은 때였습니다. 타향에서 봄을 맞이했지만 다들 신심에 넘쳐있었고 기세도 좋았습니다.

나나 **정숙**이로서는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잊을 수 없는 봄이였습니다.

나는 그 봄을 영원히 기념하고 싶어 사진뒤면에 타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야영구에서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역사에 남아 이처럼 큰 박물관에 전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항일혁명을 20년동안이나 했는데 사진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진을 찍자고 발기한 동무들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였습니다.

김정숙은 다른 여대원들과 꼭같이 중발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머리모양새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머리칼을 군모안에 모조리 몽그려넣었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해 봄에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만주와 국내로 나갈 때였습니다. 쏘련국경을 넘어 훈춘땅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발이 후끈후끈해났습니다. 처음에는 행군을 많이 해서 그런가보다하고 무심히 생각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 무엇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와닿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보았더니 바닥에 머리칼로 만든 깔개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때에야 **김정숙**이 방안에서도 별스럽게 군모를 벗지 않고 지내던 것을 상기하고 그가 나를 위해 머리카락을 솎아서 신발깔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이 군모를 쓰고 있은 것은 숱이 성글어진 머리를 남들에게 보이기가 면적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안길이도 가고 최현이도 가고 **정숙**이도 가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랑, 안길이랑, 최현이랑 기대여 서서 사진을 찍던 그 나무도 지금쯤은 거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야영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내여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납니다.

김정숙은 해방 후에도 지성을 다해 나를 받들어주었습니다.

그가 어느정도로 나에게 세심하였는가. 며칠에 한번씩 갈아대는 목달개도 풀을 먹여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다듬이질을 해야 목달개가 노긋노긋해지고 목에 닿아도 빳빳한 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을 먹인 목달개가 인두나 다리미로 다리면 빳빳해서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김정숙은 다듬이질도 내가 없을 때에만 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사색에 방해가 된다고 한번도 다듬이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실성과 관련된 일화를 한 가지 더 말해주겠습니다.

조국해방 전야에 내가 대일작전회의에 참가하려고 모스크바에 가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밤 나는 초대소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김정숙**이 큰방에 책을 가득 가져다 놓고 나에게 이 책들을 마음대로 골라보십시오, 이만한 책이면 사령관동지께서 일생동안 보아도 다 못보실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잠에서 깨여난 다음 동무들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대통령이 될 꿈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농질을 해가며 한참동안 어마어마한 해몽을 하고나서는 꿈을 보면 내가 장차 운이 굉장하게 트일 것 같은데 축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모스크바에서 돌아와 **김정숙**에게 꿈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웃으면서 좋은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한 달, 두 달 흐르는 사이에 그 꿈에 대한 추억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숙**이만은 그 꿈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광복된 다음 우리가 해방산기슭에 집을 잡고 살 때 그는 서재에 책을 가득 채워놓고 나더러 해방도 되었으니 이제는 책을 마음껏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김정숙의 한 생은 나를 위해 바친 한 생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와 결혼한 다음에도 시종일관 나를 사령관으로, 지도자로, 수령으로 내세워주고 받들어주었습니다. 나와 **김정숙**과의 관계는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 동지와 동지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김정숙은 자기를 늘 수령의 전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까지 나보고 보통 집안에서 쓰는 호칭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를 때에는 그저 장군님이라고 하든가 수상님이라고만 하였습니다.

해방 후 언제인가 여기자들이 **김정숙**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그들에게 ≪전사의 일생은 수령의 력사속에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해 더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속에 **김정숙**의 남다른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은 일생동안 고생만 하다가 갔습니다. 일생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는 것이 너무도 가슴아파서 그와 영결할 때는 손목에 시계를 채워서 보냈습니다. 시계를 채워보낸다고 그가 한평생 나를 위해 바친 지성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다고 그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아무런 사연도 없는 보통시계라면 그런 궁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계가 사연이 깊은 시계였습니다.

어느 해였던지 우리 할머니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값이 좀 나가더라도 어디서 좋은 여자시계를 하나 구할 수 없겠는가고 하였습니다.

한평생 벽시계조차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여자용시계를 찾는데다가 그것도 좋은 것으로 구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여자용 시계를 사가지고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이 시계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너희들이 산에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다는데 그게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고 산에서 온 지도 퍼그나 되는데 이 할미가 상을 차려준게 있나 옷 한 벌 해준게 있나, 그래서 시계라도 채워주려고 그랬다면서



김정숙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사용하시던 권총

정숙이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손자며느리에게 부어주는 할머니의 그 사랑이 참으로 극진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전에 떠나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김정숙**을 위해서 해준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정숙**은 해마다 잊지 않고 소박하게나마 내 생일상을 차려주었지만 나는 가정을 이룬 후 1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도 그에게 생일상조차 차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생일에 대해서는 말조차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김정숙**의 성품이였습니다.

김정숙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나는 공화국이 창건되던 날 점심참에 집에 들어갔다가 그에게 술을 부어주었습니다. 그 동안 내 뒤바라지를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잔 부을터이니 마시라고 했습니다.

김정숙은 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 생에 쌓인 원을 다 풀어주시였는데 그것이며 더 바랄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이 돌아간 이듬해에 여투사들이 돈을 모아 당에 바치면서 그의 묘를 잘 꾸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란봉에 안치된 **김정숙**의 묘에 가보니 쇠울타리도 치고 석축도 하고 화강석으로 계단을 한창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사장에 나와 일하는 여투사들에게 내가 동무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다, 저 집들을 보라, 인민들은 아직도 저런 작은 집들에서 살고 있다, 지난날 그렇게 피눈물속에 고생해온 인민인데 아직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지 못했다, 이런 때에 동무들이 화강석으로 묘를 꾸린다는 걸 **정숙**이가 안다면 인민들앞에 얼마나 미안해하겠는가, 동무들이 정 성의를 표시하고 싶거나 묘주위에 꽃이나 나무를 심으라, 그리고 그가 생각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휴식도 하고 묘도 보라, 이것이 **정숙**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그러니 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저 화강석은 건설장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한평생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송두리채 바치고 세상을 떠나간 **김정숙**이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한푼의 돈도 재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비한 돈은 내가 받은 생활비였고 그가 사용한 집과 가구들은 다 나라의 것이였습니다.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동무를 미래의 영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앞에 내세워준 것입니다.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동무를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가 혁명앞에 남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숙동무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날에도 **김정일**동무를 불러앉히고 그에게 아버지를 잘 받들라는 것과 아버지의 위업을 계승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김정일**동무에게 남긴 유언으로 되었습니다. 그 유언을 남긴 후 3시간이 지나서 **김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김정숙**을 자주 생각하군 합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치마저고리도 입고다녔지만 어째서인지 사복을 입은 모습보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몸으로 말린 옷을 들고 나를 찾아왔을 때 오한으로 떨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단연예대를 데리시고 항일유격대를 찾으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애국미를 가지고 찾아온 한 농민을 따뜻이 맞아 주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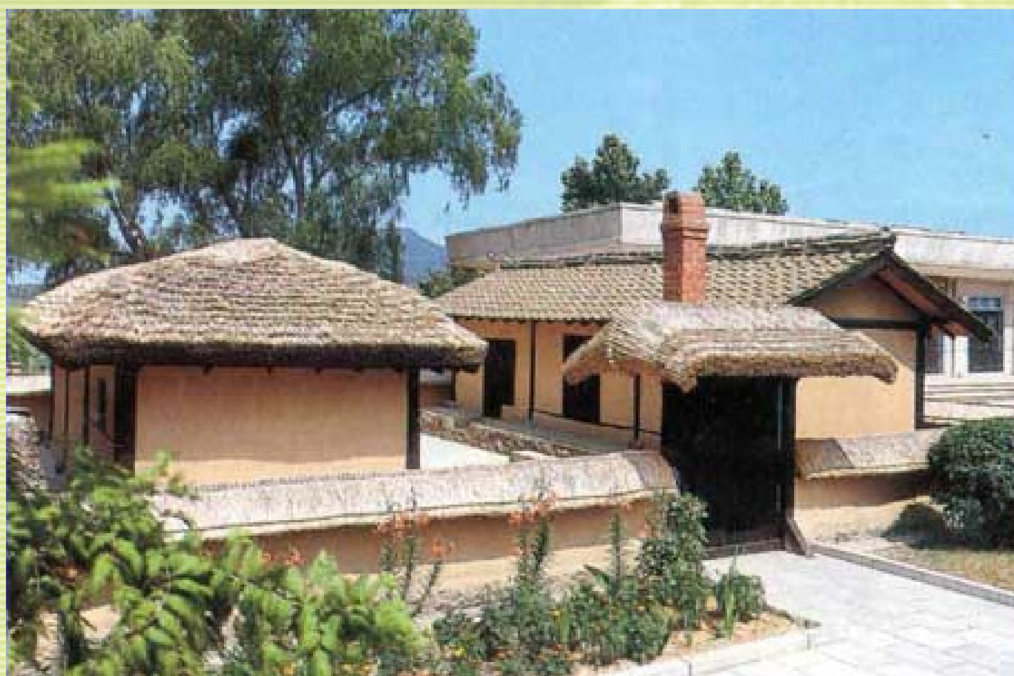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건립사업을 지도하여 주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방침을 해설해주시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김정숙동지께서 태어나신 회령생가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농민들과 여러차례만난 집



회령혁명사적지-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동상



김정숙동지의 지하임무 수행에 대한 자료

4. 소부대활동의 나날


소부대활동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한때 일본의 어용출판물들은 항일연군부대들에서 지휘관들이 희생되면 그 부대가 다 녹아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관동군 사령부를 비롯한 일만군경 역시 항일연군의 많은 역량이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격대가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항일무장부대들이 다 녹아나고 우리의 항전이 종말을 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노조에가 사령부를 길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지역인 연길로 옮긴 것은 무엇때문이며 양정우를 치는데 돌렸던 병력까지 다 끌어다가 백두산동북부에 들이민 것은 무엇때문이였겠습니까. 또 빨치산토벌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무력과 함께 철도경호대와 협화회의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몽땅 내몬 것은 무엇때문이였겠습니까.

우리는 소부대활동시기에도 계속 총소리를 냈습니다. 무의미한 충돌은 피하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적들을 되게 답새겼습니다.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큰 규모의 싸움은 물론 피했습니다. 그 대신 대중정치공작과 정찰활동에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 국내에 많은 소부대와 소조,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전민항쟁준비도 하였습니다.

소부대와 소조의 인원은 경우에 따라 각이했으나 소부대는 보통 10명 안팎으로부터 수십 명으로, 소조는 수명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은 사명과 임무에 맞게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소부대와 소조를 편성한 다음에는 해당한 임무와 활동구역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임무분담에 따라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를 두는가 하면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도 두었으며 정찰을 기본으로 하는 소부대, 소조도 두었습니다. 그러되 그 분공이 고정불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황에 따라 정찰소조가 정치사업을 하기도 하고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소조가 정찰과 정치사업을 동시에 맡아보는 식으로 다른 임무를 겸해서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대편성이 끝난 다음에는 소부대나 소조들이 의거할 임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 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소할바령회의 이후 건설된 대표적인 임시비밀근거지들로는 연길현 도목구부근기지, 화룡현 맹산촌부근기지, 안도현 황구령기지, 왕청현쟈피거우기지 등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은덕, 선봉, 무산, 나진으로부터 종심깊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임시비밀근거지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임시비밀근거지들

에는 소부대가 있을 밀영과 통신연락장소, 비밀회합장소, 후방물자보관장소 등을 두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할바령회의 후 몸소 경위중대의 일부 대원들을 친솔하시고 안도현 황화전자부근 사득판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소부대활동의 시범을 창조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이 전투를 두고 아래와 같은 회고를 하시었다.

황화전자부근에서 있은 싸움은 소할바령회의 후 우리가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가면서 벌인 첫 전투입니다. 소할바령회의가 끝난 다음 1개 분대가량 되는 경위대원들을 데리고 한총구에 갔다 돌아오다가 황화전자라는 곳에서 불의에 적과 조우전을 벌였는데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지금도 머리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양덕지구
비밀근거지

마당거우나 남패자와 마찬가지로 황화전자라는 지명에도 유래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사람들을 보고 황화전자가 무슨 뜻인가고 물으면 서로 엇갈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국화가 많이 피는 사득판이라는 뜻이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처녀총각의 사랑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황화전자라는 고장을 여러 번 지나 다녀보았는데 들국화도 그닥 많지 않고 원추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득판은 있었습니다. 전투는 바로 그 사득판에서 붙었습니다.

우리 일행 가운데는 황순희도 섞여있었습니다. 최현에게 소할바령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방침을 전달할 임무를 주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몸은 체소했지만 날파람도 있고 책임성도 높았습니다. 황순희는 최현부대의 위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 황화전자 뒤산에서 잠간 휴식을 하였습니다.

나는 대원들을 휴식시키면서 저 사득판을 어떻게 돌파하겠는가 하는걸 궁리하였습니다. 사득판가운데 큰 물도랑이 있고 그 우에 외나무다리가 놓여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몇 길이 될지 모르는 썩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외나무다리를 건느고 산 한두 개만 넘으면 우리가 임시 비밀근거지로 내정한 연길현 도목구까지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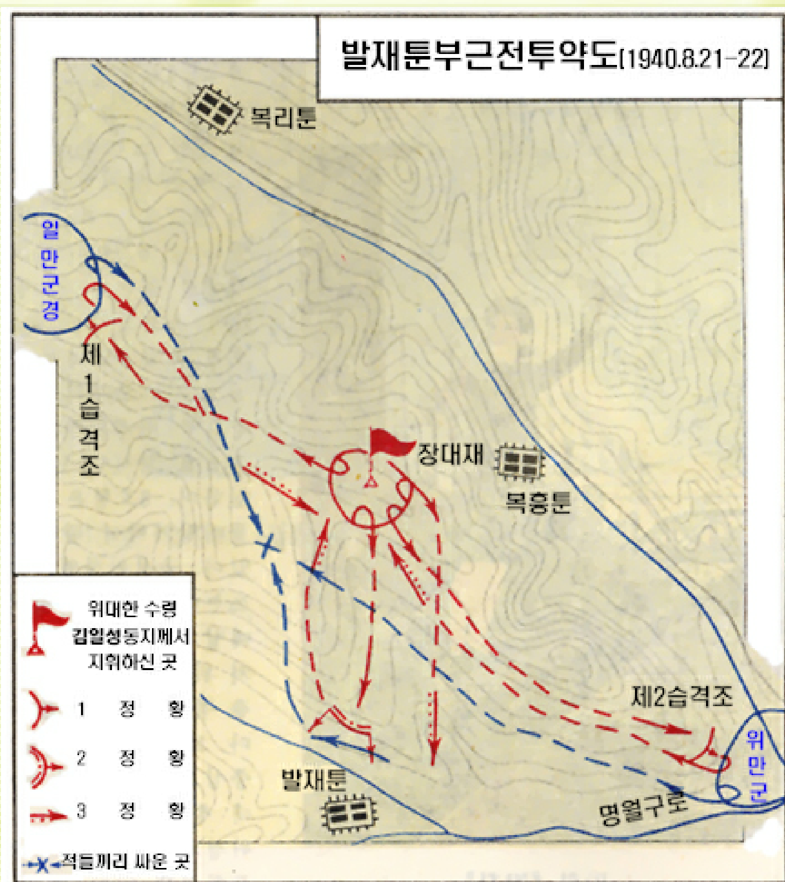
그런데 다리건너편에 적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 다리목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나다를가 건너편에서 무슨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혹 반디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분명 적들의 전지불이였습니다. 외나무다리를 건너가야 도목구로 가겠는데 적들이 어둠속에 도사리고 있으니 야단이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외나무다리에서 원쑤와 맞다든 격이였습니다.

무장투쟁을 하는 나날에 적의 포위에도 들어보고 사지판도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그때처럼 정황이 급박하고 방도가 떠오르지 않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다리를 건느지 못하면 수십 리를 에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난감한 일이였습니다. 죽으나사나 가던 길로 곧추 가야 하였습니다. 내가 정황을 살피며 방도를 찾느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대원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가슴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한참만에야 나는 적들이 눈치채기 전에 감쪽같이 외나무다리를 건너갈 결단을 내리고 대원들에게 출발구령을


안현 화전자



주었습니다. 모두가 외나무다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후위에 선 내가 맨 나중에 다리를 건너 풀숲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기관총수에게 적의 기관총수를 답새기라고 명령한 다음 대오를 큰길 쪽으로 빼돌리였습니다. 그때 전문섭이와 황순희가 나를 결사적으로 보호해주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였습니다. 한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데다가 적의 총알이 비발치듯하였으나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무사히 그 위험한 함정을 헤쳐나왔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천행이였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조성된 정황에 놀라 당황하거나 제때에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더라면 적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큰 손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길 쪽으로 한창 빠지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앞에서 적들이 나타났다는 척후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목에서 울리는 기관총소리를 듣고 대기했던 주력이 밀려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열에 다리쪽으로 되돌아서서 급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였습니다. 대원들을 시켜 다리목의 적과 꽁무니를 따르는 적들에게 총을 쏘고 옆으로 슬쩍 빠져 산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휴식구령을 내리였습니다.

대원들은 산중턱에 앉아 숨을 돌리였습니다. 그럴 때 다리목에 있던 적들과 대도로쪽에서 밀려온 적들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훗날 안도지방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적들은 저희들끼리 총격전을 벌이다가 무리주검을 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총질을 시작했느냐 하는 책임추궁이 따르고 외

나무다리목을 건너온 것이 귀신인가 빨치산인가 하는 비명도 터지고 적들 내부가 온통 수라장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연길현 발재툰과 안도현 오도양차 부근에서도 숱한 적들을 요정냈습니다.

연길현 발재툰일대에서는 황화전자에서와 달리 3개의 습격조에 의한 습격전법과 망원전술을 배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적들은 저희들끼리 총격전을 해서 많은 무리주검을 냈습니다.

이런 싸움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몇 개 소부대가 역량을 한데 합쳐가지고 큰 대상을 쳐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부대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때때로 큰 싸움을 배합했기 때문에 적들은 인민혁명군이 대부대전으로부터 소부대전으로 전술을 바꾼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황순희

황순희한테서 소할바령회의 방침을 전달받은 후 최현이네도 소부대활동을 잘했습니다. 최현이네 부대들은 왕청현에서 먼저 대부대로 광성툰과 소성자의 적을 친 다음 소부대로 분산하여 사방으로 오가면서 적들을 요정냈습니다.

연길, 화룡, 안도현에서는 오백룡이네 소부대들이, 훈춘과 동녕현 일대에서는 김일, 손장상의 소부대들이, 동녕현과 영안현, 목릉현, 오상현 일대에서는 한인화와 함께 박성철, 윤태홍이네 소부대들이 싸움을 벌이였습니다.

온 동북땅과 조선의 북부국경지대는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으로 죽가마처럼 끓어번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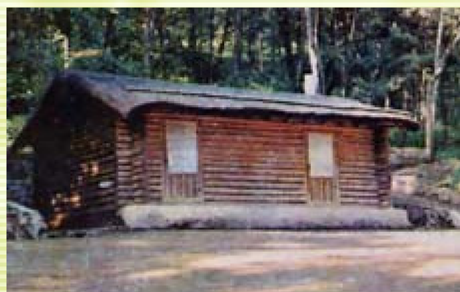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바로프스크회의 후 자신께서 친히 지휘하신 소부대활동정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시었다.

이전에는 소부대, 소조들이 주로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하였지만 이 시기부터는 국내종심깊이에로 뚫고들어가 조선남단의 군사요충지들과 멀리 일본본토에까지 활동지역을 확대해나갔습니다.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내용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국내와 동북일대에서 파괴된 당조직들과 지하혁명조직들을 복구하고 새로 꾸리며 남아있는 무장부대들을 수습하고 재편성하는 사업, 전민항쟁조직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확립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각지의 비밀근거지들을 보강하며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임시 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 사업, 국내와 동북일대에서 애국적 청장년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확대하며 군사적 골간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습격전과 매복전, 파괴전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전쟁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투쟁, 적의 군사시설과 기지, 요충지들에 대한 군사정찰활동과 적통치체계와 적군의 내부를 혼란시키기 위한 투쟁 등을 폭넓게 벌려나갔습니다.

그 시기의 소부대활동에는 동북항일연군 부대들도 참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별로 소부대활동지역을 분담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제1로군관하의 부대 그리고 일부 2로군부대들은 조


선봉읍뒤산
임시 비밀근거지의 귀틀집

선국내와 동남만지역을 맡았고 제2로군의 기본부대들은 홍개호 이북으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제3로군부대들은 경성, 철리, 해륜을 비롯한 여러 현들에서 소부대작전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백두산과 원동의 임시기지를 왔다갔다하면서 국내와 동남만에 대한 소부대활동을 시도하는 한편 군정학습도 동시에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부대활동에 나갔다가 기지에 돌아오면 정치학습과 현대전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영

남야영에서는 비교적 많은 인원이 망라된 소부대를 데리고 내가 제일 먼저 백두산 동북부와 국내에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현이네 소부대와 안길이네 소부대도 정황을 보아가며 국내와 만주에 나가기로 하고 활동구역과 임무를 정해주었습니다.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기지를 떠난 것은 1941년 4월이었습니다. 우리 소부대가 해야 할 기본임무는 동남만일대에 남아 투쟁하고 있는 소부대들과 소조들과의 연계를 맺고 그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는 것이였습니다.

이와 함께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새 조직들을 건설하며 지하조직망을 통하여 선발된 청년들로 무장대오를 늘이는 한편 그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최종작전과 새 조국건설에 필요한 간부들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중요한 활동목적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위증민의 행처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국내와 만주정세는 험악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41년 초봄부터 새로운 토벌작전에 달라붙었습니다. 노조에토벌사령부는 해산되고 그 권능이 관동군사령부에 이관되였습니다. 관동군의 기본부대와 각 지구별 위만군 군관구사령부들과 관동헌병대사령부 관하의 모든 토벌대들이 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더욱 미쳐날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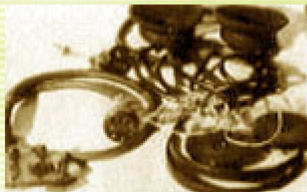
그래서 내가 직접 소부대를 이끌고 적구로 나가는데 대하여 걱정하면서 일부 지휘관들은 정세를 좀 보아가며 행동했으면 하였습니다. 김책도 처음에 나의 신변을 염려하여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나는 소부대공작을 떠나면서 중대장으로 유경수를 선발하고 정치지도원으로는 김일을 임명하였습니다. 전령병으로는 전문섭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를 전령병으로 임명할 때 김책은 그에게 내곁에서 한발자국도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소부대의 무전수로는 안영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동만에서도 활동하고 북만에서도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러 해 동안 교단에 서서 청소년들에게 애국주의교양을 많이 하였습니다. 동만에서 활동할 때는 순회극단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군중계몽사업도 하였습니다.

안영은 식견이 높고 생활체험이 풍부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북만에서 대중공작을 할 때 남의 집 부엌데기노릇도하고 약담배밭에 가서 품도 팔았습니다.


소부대활동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사용한 무전기부속품

우리가 만주로 떠나면서 안영을 무전수로 선택한 것은 그가 북만부대에 있을 때 쏘련에서 무전강습을 6개월동안 받고 나온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영의 콧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였습니다. 그를 콧수염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소부대의 인원이 3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소부대전원

이 일본군복으로 변장했는데 그럴듯했습니다.

우리일행은 4월 상순 어느날 심야에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국경을 넘은 다음에는 옛 근거지자리를 밟으면서 백두산 동북부쪽으로 행군해갔습니다.

우리가 백두산동북부에 가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구를 해산하고 서간도쪽으로 진출하자 적들은 동만과 백두산 동북부 일대에서 전면적인 파괴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과를 수습하기 위해 무산지구전투후 백두산 동북부에서 다시 진출하여 이 일대에 대한 혁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켰습니다.

우리가 잠시 쏘련에 들어가있는 짬을 타서 적들은 또다시 이곳에 정규무력을 들이밀어 대대적인 파괴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나서는 ≪동만은 치안이 확보되었다.≫고 떠들었습니다.

백두산동북부에서 혁명을 다시 앙양시키자면 소부대와 소조들의 과감무쌍한 활동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실체만 보여주면 얼마든지 군중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안도, 왕청, 연길, 훈춘, 돈화 일대를 휘저어놓은 다음에는 백두산에 나가 서간도 일대와 국내에 혁명조직을 더많이 꾸리는 한편 전민항쟁역량을 강화하며 애국적인 청년들을 수백 명 선발해다가 백두산근거지와 원동의 기지에서 군정간부로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소부대가 며칠간 강행군을 하여 도착한 곳이 큰곰의골밀영으로부터 멀지 않은 골안이였습니다.

언제인가 연변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이 왕청, 동녕, 훈춘 세 현계에 있는 유격대 숙영지자리를 찾아냈다고 하면서 답사과정에 찍었다는 녹화테이프를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 그 지대가 바로 우리 소부대성원들이 임시 비밀근거지로 정한 고장 비슷했습니다.

이 골안에까지 오고보니 벌써 지고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김일이네를 금창에 보냈습니다. 왕청현 금창부근에 가서 금광을 치고 식량도 해결하고 군중공작도 하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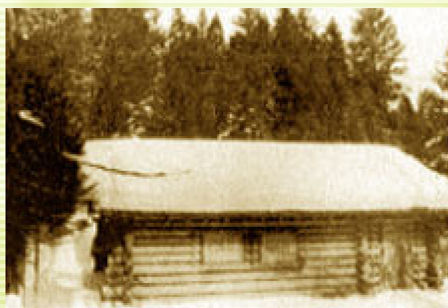
큰곰의골기지근방에서 전문섭이 곰을 잡았는데 대단히 컸습니다. 여럿이 목도를 해서 겨우 기지까지 날라왔습니다. 그때 그 곰한테서 기름을 한초롱이나 뽑았습니다.

며칠후 김일이네가 식량을 해결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통한 얼굴빛으로 공작도중에 장흥룡이 전사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장흥룡이 전사한 것은 지갑룡이 때문이였습니다. 금광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밥을 해먹고 가자고 우겨대는 바람에 한 시간쯤 지체했는데 그사이에 뒤따르던 적들이 소부대가 있는 장소에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은 지갑룡이 밥을 해먹고 가자고 할 때 그 제의를 물리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흥룡의 희생은 우리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하였습니다. 소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그가 과오를 씻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하던 일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쓰렸습니다.

장흥룡의 희생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인대원 1명이 적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우리 부대의 행정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김일성**이 나타났다고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

하면서 기를 쓰고 우리를 추적해왔습니다.

나는 우리의 행적이 노출된 것이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적들이 **김일성**부대가 나타났다고 떠들어대게 되면 그 사실이 인민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서 투쟁한다는 걸 선전하는 것으로 될 것이란 말입니다. 소부대의 행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적들 자신이 우리를 선전해주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종적을 감추기 위하여 그 후 영을 넘어 태평구쪽으로 행군하였습니다. 5월 상순에는 왕청현 쟈피거우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쟈피거우에서 김일과 헤어졌습니다. 그가 소부대 하나를 데리고 쟈피거우를 임시 비밀근거지로 하여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그 소부대의 활동구역으로 된 나자구와 도가선일대에는 유격구시절에 우리가 손때를 묻혀 키워놓은 조직성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김일에게 여기 어디에 최춘국의 가족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니 연계를 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무전수 안영도 보조성원 2명을 데리고 쟈피거우기지에 남게 했습니다. 쟈피거우기지는 중간연락소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나는 20여명쯤 되는 대원들을 데리고 백두산동북부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으로 나가기 위하여 쟈피거우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돈화현, 안도현, 무송현, 화룡현, 연길현 등 동만의 여러 현들을 선회하면서 활동할 작정이였습니다.

우리소부대는 돈화현을 거쳐 안도현 한총구에 기지를 꾸리고 연락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한총구는 내가 위증민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한총구에 이르니 절기가 바뀌여 숲이 무성해지고 한낮이면 더웠습니다.

한총구에서 정치공작소조들을 장백과 돈화, 처창즈, 국내와 백두산 등지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때 장백일대에 파견된 사람은 한창봉과 한태룡이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장백지방의 지하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며 우리 대원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찾아 조직의 줄을 달아 국내에 이주시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부대에 장백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일가친척을 다 조직에 망라시키고 국내에 박아넣으면 전민항쟁조직을 꾸리는데 크게 한 몫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원동기지로 보내라는 임무도 주었습니다.

나는 한창봉과 한태룡에게 장백 도천리에 가면 누가 있고 또 어디가면 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하조직을 꾸린 다음에는 국내에 나가 노동계급속에 틀고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섭과 김홍수는 처창즈치기에 가서 우리가 그전에 묻어 놓았던 무기와 지도를 파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돈화 쪽에 공작나갔던 동무들이 대황구부근 밀림속에서 산짐승잡이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던 박가성을 가진 노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원래 화전현에서 반일회에 관계하던 지하조직원이였습니다.

나는 노인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산마다 일본놈 토벌대가 쫙 깔려있고 주구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이였습니다. 소부대들이 거점으로 삼군하던 숯구이막이나 아편재배막, 도가집, 동굴 같은데도 다 밀정들이 틀고앉아 있는데 조심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인민들을 집단부락에 말짱 가두어넣고 왕래마저 통제하는데다가 서로 감시까지 붙여놔서 지하공작이 정말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격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건 힘껏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돈화현 소재지와 집단부락들에 드나들면서 조직관계자들의 명단을 가져

오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구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보내온 자료에 근거하여 이 일대의 조직들을 재빨리 복구하였습니다.

그 후 노인은 적들에게 체포되어 희생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부대활동시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았습니다. 적후에서 하는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인민들의 지지야말로 우리에게 크나큰 고무로 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에 대한 인민들의 이러한 지지는 사실상 그들이 벌써부터 전민항쟁에 떨쳐나서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지하조직망을 확대하는 한편 1로군의 남아있는 부대들과 위증민의 행방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조를 3개 만들어서 돈화현과 화전현 그리고 안도지방과 화룡현 북부, 무송현일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류경수

그때 유경수가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가 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화전현 쟈피거우로 가자면 푸르허강을 건너가야 하였는데 물이 불어난 때여서 건너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강줄기를 올리훑고 내리훑다나니 식량도 다 떨어지고 돌아와야 할 날자가 되였습니다. 유경수는 며칠간 굶은데다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너무 속을 태우다나니 병이 나서 몹시 앓았습니다.

쟈피거우에는 누구든 꼭 갔다와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경수를 보내려던 곳에 내가 직접 소부대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막 한쪽에서 정신없이 앓고 있던 유경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척거리며 내앞에 나서더니 장군님, 장군님은 가시면 안됩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내가 못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떼를 쓸 때에는 설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고통스러운대로 그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활에는 그가 어떤 인간인가를 검열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우리의 유격투쟁은 매 분초가 그런 검증의 순간이였습니다. 자기를 바치는가 마는가 하는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있었습니다.

유경수는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자기를 육탄처럼 내던지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어려운 모퉁이에 늘 그를 보내군 했습니다.

헐한 일은 전우들에게 맡기고 힘든 일은 자기가 맡아하며 영광의 자리에는 동무들을 내세우고 책임추궁이 가해지면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서 찾고 어떤 처벌이나 책망이든지 달게 받아들이는 여기에 바로 유경수의 인간적 매력이 있고 그가 만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경수가 화전현 쟈피거우로 떠날 때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식량을 다 털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유경수는 전문섭에게 우리의 몫으로 남겨둔 식량은 있는가고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전문섭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본 그는 전령병이란게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가고 되게 다불리면서 배낭의 쌀을 도로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유경수는 여러 날만에야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나를 만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여진 신발을 벗겨보니 발이 썩어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에 미음을 떠넣으니 간신히 눈을 뜨고 사업보고부터 하였습니다.

그들은 쟈피거우일대에서 유격대와 연계가 있는 한 농민을 만나긴 했으나 그가 속을 주지 않는 바람에 곽지산네를 만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위증민이 사망한 것 같

다는 소문만을 듣고 왔습니다.

유경수는 할 수 있는껏 다하고서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1개조를 책임지고 왕바버즈에 나갔던 지갑룡은 변절하였습니다.

1941년의 시련은 다시한번 누가 진짜배기혁명가이고 누가 가짜였는가를 가른 시금석이였습니다.

이런 시련과 검열은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항일투사들은 다 시련속에서 백번천번 검열된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갑룡이 변절한 후에 우리의 행처를 알게 된 적들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리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대오를 이끌고 적들의 포위를 교묘하게 빠져 대사하, 소사하를 거쳐 안도쪽으로 나갔습니다.

안도와 무송의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박아놓았던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조직원들을 통하여 위증민이 병사했으며 그의 사진을 실은 광고가 명월구시가에까지 나붙었다는 풍문이 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여명의 유격대원들이 남북하마탕일대에서와 명월구와 연길부근에 나타나 활동한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들에 좀더 머물러 활동하기로 작정하고 1개의 소조를 사하장, 남호두, 다홍왜, 북하마탕 일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자신은 나머지 성원들을 데리고 백두산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간백산밀영에 가서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 혁명조직 책임자들을 불러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입장을 튼튼히 견지하며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일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서간도일대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원동의 기지에 데려다가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와 그밖의 많은 역량을 백두산밀영과 간백산일대에서 튼튼히 키워 전민항쟁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온성군에 나가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국내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습니다.

백두산일대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정도 간단치 않았습니다. 소부대들이 울린 총소리에 놀란 적들이 우리의 행적을 찾아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데가나 토벌대가 누렇게 깔려있었습니다. 적들은 신작로에도 있고 산꼭대기에도 있고 골짜기에도 있고 없는데가 없었습니다.

연길현 노두구는 적들의 군사요충지의 하나로서 관동군의 헌병대와 특수부대들, 위만군과 경찰이 틀고 앉아있는 곳이어서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방대수림으로 통하는 산발에 붙을 수도 없었으며 우리 소부대의 집결지점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복을 입고 야간행군으로 노두구를 통과할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두구철길을 건느기 전에 그만 날이 밝았습니다. 낮에는 행군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있어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니 대통로 옆에 집이 몇 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가들에 들어가 어두울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대원들은 그 집들에 배치하고 나는 길옆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농민으로

변장한 대원이 호미를 들고 밭김을 매면서 망을 보고 나머지 성원들은 모두 휴식하였습니다.

점심때 누르스름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가 들어있는 집문을 벌컥 열어제꼈습니다. 그들은 방안에 군대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아연해했습니다. 앞에 섰던 사람이 놀라서 돌아나가려고 하자 우리 대원이 그의 잔등에 총을 들이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우리를 일본군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자기는 협화회회장인데 **김일성**부대가 출몰했다는 정보를 듣고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직방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회장이란 자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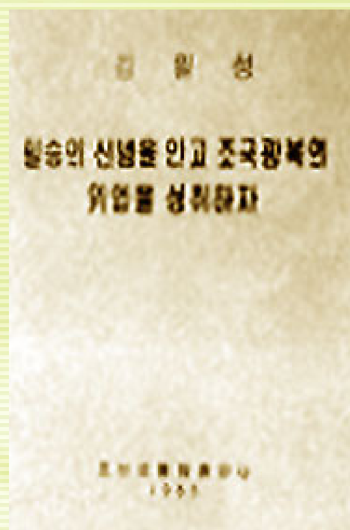
우리는 그에게서 가치있는 자료들을 많이 알아냈습니다.

나는 그날 그 사람이 옆구리에 끼고온 신문을 보고 쏘독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일본놈들이 갑자기 등이 달아 날치면서 쏘만국경일대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쏘일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소문도 돈다고 했습니다.

나는 협화회회장에게 우리가 마을을 떠난 다음 경찰에 가서 **김일성**부대가 대낮에 노두구시가지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그대로 통보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보고를 받은 적들은 **김일성**부대가 우리 코앞에서 밥도 해먹고 여유작작하게 낮잠까지 자고갔다니 천하에 이런 변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쟈피거우회의 연설

우리는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집결지점인 왕청현 쟈피거우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공작을 마치고 돌아온 김일이네와 합세하였습니다.

내가 쟈피거우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쏘일중립조약의 체결과 쏘독전쟁의 발발로 국제무대에 생긴 정세의 격변과 관련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장병들과 소부대성원들에 대한 사상동원을 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쏘독전쟁의 발발을 두고 소부대성원들속에서는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쏘독사이의 전쟁이 우리 혁명에 유리한 전망을 열어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쏘련이 동서에서 두강국의 협격을 받게 되면 우리 혁명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계정세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쏘련침공이 현실로 될 때 가늠해볼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논의를 시급히 하나의 견해로 통일시키고 모든 대원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주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로 그들을 더욱더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쟈피거우에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쟈피거우회의에서 각지에 파견되었던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활동정형도 총화하고 차후활동방향을 토의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대세가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흔들리지 말라, 독일이 쏘련을 친 것은 자기무덤을 파는 길이다, 일본도 쏘련을 치면 무덤을 파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일본은 쏘련을 칠 힘이 없다, 열강들의 세력관계를 보라,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파쑈는 망하고 민주는 승리한다, 우리 혁명에도 밝은 전망이 열린다, 그러니 일시적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차후 소부대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역량의 보존을 위해 무모한 정면충돌이나 수량상 우세한 적과의 교전을 피하면서도 적후교란작전을 맹렬히 벌이자, 군수물자수송로와 군수물자보급기지도 기습소탕하자,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정찰활동과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영숙

8월초에 우리는 왕청－나자구간 도로공사장을 습격하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일제는 쏘만국경일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우글우글하는 이 지역에서 총소리를 낸다면 그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총소리를 낼 바엔 적종심에서 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배짱이었습니다.

두 개 방향에 차단조를 각각 하나씩 파견한 다음 일본군으로 가장한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공사장에 돌입하여 순식간에 호로병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병실의 적들을 제압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얼마나 번개같이 해치웠던지 공사장의 노동자들은 벙벙해서 눈들을 슴뻑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유경수가 ≪우리는 **김일성**빨치산입니다!≫하는 소개를 해서야 그들은 사방에서 달려와 우리를 부둥켜안았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한 후 왕청현 북부지대를 에돌아 태평구마을이 바라보이는 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 왕청지방에서 우리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산정에서 망원경으로 태평구마을을 내려다보니 이광의 집이 보이고 오중흡이네 집과 박길송이네 집도 보였습니다. 오중흡이네 아버지가 마당에서 왔다갔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는 김일에게 이 일대에서 그들과 연계를 맺고 지하조직을 꾸릴 과업을 주었습니다.

김일은 그 후 오중흡의 아버지 오창희와 박길송의 아버지 박덕심과 연계를 가지고 지하조직을 꾸리였습니다. 그는 왕청현 남북대동일대의 농민들과 소왕청역 노동자들속에도 지하조직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때 오중흡의 아버지는 지금 **김일성**부대가 다시 백두산 쪽으로 나왔다는 소문이 쫙 퍼져 인민들이 크게 기뻐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인민혁명군소부대들은 적의 집중수송과 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쏘만국경연선에서 적들의 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군사정치활동도 적지 않게 벌였습니다. 우리 소부대들이 도문역구내에서 군용열차를 충돌시킨 것도 이때이고 화룡현 두 도구와 왕청현에서 이동하는 적들을 타격한 것도 이때입니다.

우리는 국내와 동북지방에서의 소부대활동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8월에 원동의 임시기지로 돌아왔습니다.

1941년 9월 중순경에 나는 지난번 소부대활동의 성과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다시금 소부대를 거느리고 만주와 국내로 나갔습니다. 그때의 주요임무는 안길, 김일, 최현 소부대들과 연계를 맺고 그들이 수집한 정찰자료를 종합하며 두만강연안과 국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부대, 소조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그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자는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소부대와 소조들의 활동지대를 국내 깊이에로 확대함으로써 조국광복의 대사변

을 준비있게 맞이하는데서와 쏘만국경일대에서의 일본의 반쏘침공기도여부를 확인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습니다.

출발에 앞서 안영을 부인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안영의 부인 이영숙은 북야영에 와있었습니다. 이영숙은 부모들의 주선으로 한마을에서 야학선생을 하던 안영과 결혼한 후에 함께 최용건의 부대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안영이 쏘련으로 무전배우러 들어갈 때부터 헤어져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해가 북야영에 와있다고 하니 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부부의 상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전투임무를 맡고 나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안영은 안해를 만나고 나서 더 힘을 얻은 듯 싱글벙글하였습니다.


최광

왕청쪽으로 나온 우리가 숙영지로 정한 곳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이두익과 전문섭은 그 강에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들이 낚시질을 괜찮게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여서 강물이 몹시 불어난 때였습니다. 두 대원은 낚시질을 하다가 썩은 나무등걸에 기여 다니는 불개미를 핥아먹는 곰까지 잡았습니다.

우리는 곰의 각을 떠서 더러는 강물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산골물은 이가 시릴 정도로 차기 때문에 고기를 넣어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밀가루도 깊은 소 같은데 보관해두면 변질될 염려가 없습니다. 밀가루포대를 물에 넣으면 몽땅 젖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층이 1센치미터가량 젖을 뿐 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산 생활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다 묘리가 있고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소부대지휘관들을 불러 그 동안 입수한 정찰자료들을 종합하고 정세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지휘관들이 흥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와 같이 일본이 쏘련을 침공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을 좀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금의 형세로 보아 당장은 침공할 것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안길은 그 증거로 철도를 통과하는 화차들에 대한 정찰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일본의 경찰관들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조만간에 쏘련과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방공호도 파고 도로공사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호통치는데 철도로 오가는 화물차량들을 조사해보면 무개화차들에는 대포와 탱크 같은 것이 실려있지만 대다수 유개화차들은 텅 비여있더라고 하였습니다.

목단강지구에 나가 활동한 최광이네 소조가 수집한 정찰자료도 흥미있는 것이였습니다. 최광이네는 철도역이 가까운 산에서 망원경으로 매일같이 적들의 병력이 국경지대에 얼마만큼 쓸어드는가 하는 것을 정찰하였습니다.

최광은 열차가 정거장에 들어와 설 때마다 망원경으로 승강대를 살피면서 한 방통에서 몇 놈이나 내리는가를 세여보았습니다. 어느날 그는 승강대를 주시하다가 입에 담배대를 꼬나물고 홈에 내리는 장교를 보았습니다. 행동거지가 특별히 거만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담배대를 꼬나물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표가 나서 그랬던지 최광이 그놈의 얼굴을 똑똑히 봐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최광은 승강대에서 그 장교를 보았습니다. 전날 내린 놈이 오늘 또 내릴 수가 있는가 하고 처음에는 자기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는 그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 장교는 담배대를 꼬나물고 있었다는 것입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부대, 소조활동을 지도하신 새별군연봉

니다. 최광은 그때에야 적들이 유개차로 매일같이 군대를 실어나르지만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 자료가 아주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최광이 기지로 돌아온 다음 우리 동무들은 농으로 그가 애연가이니 그런 자료를 수집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광이 왜놈장교가 입에 문 담배대에 눈독을 들이다나니 자연히 그 장교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고 그래서 그놈이 전날 보던 그 장교라는 것도 쉽사리 알게 되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최광은 담배를 인연으로 해서 좋은 정보자료도 수집하였지만 담배가 화근이 되어 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광은 16살 때 청년의용군 소대장이 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대장이 되다보니 대원들이 모두 그를 애숭이로 대하였습니다. 최광은 자기가 애숭이가 아니고 어른이 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담배인데 몇 해가 못되어 인이 박히고 나중에는 담배가 없으면 몸살을 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전투에 참가했다가 전리품으로 밀가루 한 포대에 담배 한 지함을 얹어지고 부대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당회의를 열고 그를 처벌하였습니다. 식량사정이 곤란한 때에 같은 값이면 밀가루 한 포대라도 더 지고올 것이지 먹지도 못할 담배는 무엇 때문에 지고 왔는가고 하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 우리가 수집한 모든 정찰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쏘련을 침공할 실제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과 그들이 쏘만국경지대로 무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냄새를 피우려고 애쓰는 것은 남방진출기도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본이 북공이 아니라 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쏘련의 대일군사전략을 세우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11월 중순이 다되어서야 기지로 돌아갔는데 새별군연봉에도 들렀댔습니다.

내가 직접 소부대를 이끌고 나갔다온 다음에 여러 소부대가 국내와 만주로 진출하였습니다.

강건의 소부대는 1941년 말에 목가선의 신가점부근에서 적의 군용열차에 대한 큰 규모의 매복전을 진행하여 일본장교들을 실은 객차와 함께 장갑차와 휘발유를 가득 실은 차량들을 순식간에 녹여냈습니다.

박성철이네는 1942년 초봄에 동녕현과 영안현, 교하현 일대에 나가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안현 노송령과 교하현 청구자, 오상현 일대에 남아서 활동하는 전우들을 찾아 대오를 늘이고 적과 부단한 조우전을 하면서 그 해 9월까지 소부대활동을 하다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소부대활동시기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권총과 작식도구

동북항일연군의 채세영소부대는 영안현, 목릉현, 목단강 주변에서 활동하였는데 많은 실적을 올리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첫 단계로 진행한 소부대활동의 성과를 총화해보면서 원동의 임시기지에서 국내와 동만일대에로 다시 진출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정황에서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에로 넘어간 것이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로 되며 소부대활동이 대부대활동에 못지 않게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인민들을 반일항전에도 힘있게 고무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소부대활동과정에서 달성한 성과는 우리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소부대활동은 국내외의 인민들에게 혁명군은 이전날처럼 여전히 건재해서 적들을 족치고 있으며 승리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혁명군의 두리에 전민이 뭉쳐 거족적인 항쟁을 벌인다면 얼마든지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새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과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으로 유격대를 다 소멸한 것처럼 허장성세하던 일만군경들은 우리의 영활한 소부대작전앞에 궁지에 몰려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소부대활동은 국제연합군이 편성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가오는 대일최종작전을 내다보고 그 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사정찰활동과 전민항쟁준비에 모를 박으면서 소부대활동의 폭과 심도를 확대해나갔습니다.

그 시기 우리의 소부대작전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성원들로 조직된 소부대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국제연합군 별동대에 소속되어 활동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군사정찰공작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였습니다. 당시 조성된 활동조건과 군사정치정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보충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활동방식은 소부대활동의 정치군사적 성과를 공고히 하고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된 다음 소부대활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조활동을 위주로 하면서도 여기에 덩치가 비교적 큰 소부대활동을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군사작전에서도 소조들에 의한 활동에 주력하면서 여기에 소부대에 의한 습격전과 매복전을 적절히 배합하였습니다.

국내와 만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 소조활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소개한다.

≪…새로 만주로 들어온 **김일성**, 최현, 채세영 등은 …무력항쟁이 불리함을 깨닫고 주로 군사, 산업, 경제 방면의 중요시설 파괴, 민중의 적화공작 혹은 폭동유발, 사병공작 등 모략적인 행동으로 나오려는 경향이 극히 농후하다.≫≪목단강 영사대리 후루야의 보고, 소화 16년(1941년) 6월 23일≫

≪1942년초 북부조선에서 조선빨치산들은 일련의 전투작전으로 22대의 일본비행기와 2개의 격납고를 파괴하고 2척의 유조선과 92척의 고기배를 침몰시켰다.≫≪베. 야로보이≪조선≫44페지, 주체34(1945)년 9월 쏘련해군출판사≫

국내와 만주에 파견된 소부대들은 적군와해공작도 벌였습니다. 소부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일본군내부에서는 염전사상이 더욱 만연되고 군대에 강제적으로 징집된 조선청년들이 무기를 메고 탈출하여 우리 소조원들을 찾아오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적항공대의 비행사들도 폭동을 일으키고 인민혁명군을 찾아왔습니다.

소부대활동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우리를 몰살시키려던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우리의 역량을 보존축적하면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한 것입니다.

소부대활동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달성한 정치군사적 성과는 조국해방의 새날을 앞당기기 위한 훌륭한 밑거름으로 되였습니다.

5. 신념과 배신

최근 신문들에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다시 싣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훌륭한 교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귀중한 재보입니다.

≪필승의 신념≫도 얼마나 좋은 글입니까. 1960년대에 우리 인민이 이 회상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전후 경제를 복구하고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정세가 어렵고 투쟁이 간고한 때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같은 회상기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정세가 어렵고 투쟁이 간고해지면 동요분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혁명앞에 고난의 행군과 같은 모진 시련이 닥쳐오자 혁명적 신념이 박약한 사람들속에서는 낙오자와 도주자, 투항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쏘련과 일본사이에 중립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 대오에서는 동요분자, 도주자들이 생겼습니다. 회상기 ≪필승의 신념≫에 나오는 지갑룡이도 바로 그런 도주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쏘일중립조약은 1941년 4월에 체결되였습니다.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활동할 때입니다. 일본외상 마쯔오까가 독일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모스크바에 들려 중립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파동이 인민혁명군에까지 미쳤습니다.

체약쌍방이 평화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호상영토의 보존과 불가침을 존중한다는 것, 어느일방이 제3국과 분쟁상태에 들어가는 경우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이 조약의 골자였습니다.

보다시피 조약에는 조선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문제가 상정되지 않은 조약이니 조선사람들의 신경을 특별히 건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조선의 혁명가들은 쏘일중립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였습니다. 쏘련을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보고 있었는데 그 동맹자가 일본과 같은 적국의 손을 잡게 되자 판이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상영토를 존중하고 평화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쏘련이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고 해석하면서 낙심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대오의 한구석에서 비관주의와 패배주의, 투항주의를 낳게 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쏘일중립조약을 체결하고나서 그것을 요란스레 광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스탈린과 마쯔오까가 만나는 사진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동요분자들의 심리를 크게 자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에서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조선혁명에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근본입장이야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혁명을 시작할 때 어떤 큰 나라를 믿고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을 시작했지 그 누구의 힘을 믿고 혁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무장투쟁을 시작한 후에도 이웃나라들에서 수류탄 한 알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해가면서 무장투쟁도 하고 당건설도 하고 통일전선운동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중국사람들과의 공동투쟁을 했고 쏘련사람들과도 연합전선을 무었습니다. 동맹자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였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첫날부터 군대와 인민을 자주의식으로 교양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였습니다. 자주를 하면 살고 외세에 의존하면 노예가 되며 자력갱생을 하면 흥하고 자력갱생을 하지 않으면 조국광복도 할 수 없고 새나라 건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휘관들이 자력해방이나 자력갱생을 고취하는 교양에는 힘을 덜 돌리고 쏘일간의 모순과 쏘련의 강대성에 대해서만 강조하다나니 쏘련과 일본이 전쟁을 해야 조선해방을 위한 결정적 계기도 마련될 수 있고 쏘련과 같은 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일본도 타승할 수 있다는 사대주의적인 병균이 지갑룡과 같은 사람들의 머리에 침습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외상이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쏘련사람들과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하나의 기만동작에 불과한 것이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그때 자나깨나 북진의 기회만 노리고 있였습니다. 북진이란 쏘련을 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쏘련을 칠 때 서로 합작하기로 밀약하였으며 우랄을 경계로 하여 쏘련의 광활한 영토를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한 쪽씩 차지한다는 분배안까지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력이 딸리는 일본으로서는 아직 쏘련침공이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래서 남진론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를 타고 앉아 전략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마련해두었다가 히틀러 독일이 쏘련에 치명상을 입힌 다음 원동으로 쳐들어가 우랄계선까지 단숨에 집어삼키자는 것이 일본의 속심이였습니다. 말하자면 감이 무르익기를 기다려 따먹자는 숙시주의적인 책략이였습니다. 쏘련과의 중립조약은 이 시간표에 따르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중립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난 후 독일군이 쏘련을 침공하자 일본은 지체없이 ≪관동군특별연습≫이라는 것을 발령하였는데 이것은 대쏘전쟁예령이나 다름없는 것이였습니다. 이 연습때 쏘만국경에 배치된 관동군병력이 2배로 증강됐다고 하니 일본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쏘련이 일본의 이런 속임수를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쏘련은 일본의 책략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발로 찾아와 평화관계의 유지요, 영토존중이요 하니 일본과 독일의 합작에 의한 동서협공을 몹시 경계하고 있던 쏘련으로서는 그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쏘련은 히틀러독일의 침공이라는 미증유의 대국난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서부국경일대에 집결되어있는 독일군의 대병력이 어느순간에 밀려들지 모르는 형편에서 시베리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이 중립을 표방한 것은 쏘련으로 하여금 동서양면전쟁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마쯔오까와상이 모스크바를 떠날 때 스탈린이 역에까지 나가서 바래주었다고 하는데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쏘독전쟁을 눈앞에 둔 쏘련지도부의 심리상태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중립조약체결을 계기로 쏘련이 일본의 우방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은 얼마나 암둔합니까.

정세가 긴장할수록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그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착오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지갑룡의 실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갑룡이 도주한 사람을 왕바버즈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41년 봄입니다.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안도지방에서 활동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한총구라는 곳에 기지를 정하고 각 지방에 파견된

소부대활동을 하면서 제일 큰 애로로 느끼고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모두 집단부락에 들어가 있는 것이였습니다. 집단부락에 갇혀있는 인민들과 연계를 맺어야 하겠는데 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출로는 산중에서 돌아다니는 사냥군들이나 숯구이군들, 약초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연계를 맺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사냥군들은 이른봄부터 가을철까지 녹채를 놓는 방법으로 사슴사냥을 하였습니다. 녹채란 사슴을 잡는 함정을 말합니다. 깊은 구뎅이속에 쇠로 만든 뾰족한 창들을 촘촘히 세워놓고 그우에 사슴이 밟으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가느다란 나무가지들을 가로지른 다음 새초를 펴고 소금을 뿌립니다. 사슴이 소금을 먹으려고 새초풀우에 올라서기만 하면 구뎅이속에 빠져 뾰족한 창끝에 찔리게 되어있었습니다.


유경수

녹채를 놓는 사람들과 교섭을 잘하면 지하조직들과 연계도 맺을 수 있고 적정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부대들을 여러 개의 소조로 나눈 다음 매개 소조들에 과업을 주어 사방에 파견하였습니다. 지갑룡과 김봉록은 안도현 왕바버즈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들한테는 지방공작을 하면서 식량을 해결할 임무를 주었습니다.

사령부의 명령대로 각 지방에 파견된 소조책임자들을 닷새에 한번씩은 꼭꼭 사업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갑룡이네 소조에서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상사고였습니다. 왕바버즈에 책임적인 사람을 한 명 파견해서 실태를 요해해야겠지만 사령부에 인원이 없어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유경수네가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조에는 김익현과 서보인이라는 중국인대원이 속해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사람들이였는데 주제를 보니 말이 아니였습니다.

식량이 거덜나서 고생, 푸르허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길을 곱절이나 에도느라고 고생, 위경련을 만나서 고생,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이 겹치는데다가 대포시하인지 어디인지를 지날 때는 농민으로 가장한 류꾸인 이주민들의 무장집단과 맞다들어 그들의 추격을 받느라고 이만저만 고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 류꾸인 이주민무장집단에 대한 말을 듣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정말 음험하고 교활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경수와 김익현이 번갈아가며 하는 말이 그 무장집단은 100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농민복차림을 한 그 사람들이 밭에서 봄씨붙임을 하기에 저 농사군들한테 식량을 좀 부탁해보자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만 화단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세 소조원은 길가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밭머리로 나온 사람을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항일빨치산이다, 돈을 주겠는데 식량을 좀 사줄 수 없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은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조선말을 해도 몰라, 중국말을 해도 몰라, 그래서 벙어리인가보다 하고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더니 그제서야 의사가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의 부탁을 받은 농민은 밭으로 술렁술렁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지며 돌각담뒤와 덤불속에서 총을 찾아쥐고 유경수네를 향해 사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숱한 사람들이 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기관총도 불을 뿜었습니다. 기관총이 2정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함정이라도 이만저만한 함정이 아니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5리나마 달려서야 놈들을 떼버릴 수 있었습니다. 추격에서 벗어나고 보니 눈을 뜰 힘도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일행은 주인없는 밭에서 감

자눈을 한 소랭이 파서 삶아먹었습니다. 감자눈 한 소랭이 값으로 돈 50원을 유지에 싸서 작대기 끝에 달아맨 다음 주인이 알아볼 수 있게 밭머리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부림소 한 마리에 50원 정도 할 때였는데 감자눈 한 소랭이 값으로 50원을 두고 왔더란 말입니다.

기관총까지 가진 류꾸인 이주민들의 무장집단과 맞다들린 사실은 이 시기 소부대활동이 얼마나 간고한 정황에서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적들은 혁명대열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김익현

김익현은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지갑룡소조의 형편을 알아보아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가보겠다고 자원해 나섰습니다.

다음날 나는 왕바버즈에 김익현을 파견하였습니다.

김익현은 소조의 활동정형을 요해해보고 소조책임자인 지갑룡이 패배주의에 빠져 사령부가 준 임무를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룡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앞산봉우리에 올라가 마을을 바라보는 것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봉록은 식량이 떨어져서 나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서 풀막에 누워있습니다. 공작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데다가 기력이 없어서 사령부에 보고하러 갈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익현은 지갑룡이 풀막으로 돌아오자 타일렀습니다. 공작임무를 받고온 지 열흘이 다되어오는데 사령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가만있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사냥군들을 만나 일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갑룡은 지금은 적정이 삼엄해서 움직이기 위험하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익현이 아무리 설복해도 마이동풍이였습니다.

다음날아침 지갑룡은 김익현과 김봉록이 세수하러 간 틈을 타서 그들의 총을 걷어쥐고 나서 두 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무장대오를 따라다니였다, 그 과정에 고생이란 고생을 다했지만 고생 끝에 조선독립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참아왔다, 그런데 오늘은 그 꿈이 깨지고 말았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쏘일간에는 중립조약이라는게 체결되었다, 나는 쏘련과 일본간에는 뿌리깊은 적대적 모순이 있고 불원간 전쟁이 폭발한다고 믿어왔다, 전쟁이 터지면 쏘련군대와 협동하여 일본군을 격멸하고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바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 허망한 노릇을 더는 못하겠다, 게다가 병까지 도지니 어쩌겠는가, 나는 집에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익현은 그 말을 다 듣고나서 그게 정말인가고 물었습니다.

지갑룡은 사실이다, 여러 날 고심하며 생각한 끝에 먹은 마음이다, 너희들도 가려면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김봉록은 억이 막혀 울면서 달아나고 싶으면 너나 혼자 가라, 나는 죽어도 사령관동지의 곁에 가서 죽겠다, 혁명의 전도가 어두우면 어두웠지 사령관 동지를 버리고 달아난다는게 말이나 되는가고 하면서 지갑룡을 쏘아주었습니다.

지갑룡은 부대를 떠나도 임수산이처럼 너절한 짓은 하지 않을 테니 나를 믿어달라, 이 세상 그 어데를 가도 인간답게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익현이 그를 면박하였습니다.

혁명의 전도가 암담하다고 해도 우리는 사령관동지를 버리고 당신을 따라갈 수

없다, 좋을 때는 좋아서 따르다가 나쁠 때 나쁘다고 물러서면 그게 무슨 인간의 도리인가, 당신은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인간답게 살겠다고 하는데 산에서 내려가 보라, 아무리 인간답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손에서 총을 놓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가치는 막돌만도 못하게 된다, 임수산이 어떤 꼴이 됐고 최용빈이 어떤 꼴이 됐고 김백산이 어떤 꼴이 됐는가, 그러니 원쑤들한테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갑룡은 자기 결심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산에서 무사히 내려갈 때까지 총을 못 내놓겠다, 총은 풀막에서 멀지 않은 다리밑에 걸어놓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풀막을 떠나 내려간 다음 김봉록은 다리목에 가서 두 자루의 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갑룡이 도주한 후 김익현과 김봉록은 약속된 연락지점으로 떠났습니다.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데다가 노상에서 적들과 맞다들기까지 하다나니 예정시간보다 퍼그나 뒤늦게 연락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견한 연락원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격대에는 소부대가 지방공작을 떠난 다음에는 지휘부가 자리를 옮기고 그 대신 거기에 연락원을 파견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두대원은 연락원을 만나지 못했지만 연락지점을 떠나지 않고 풀을 우려먹으면서 사령부와의 선이 이어질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소랭이에 풀을 뜯어넣은 다음 소금을 치고 끓이면 퍼런 풀물이 우러나오는데 그걸 조금씩 마시고 연명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몇 달전에 먹다버린 소뼈다귀를 끓였는데 흰쌀알같은 것이 국물에 떠있었습니다. 그것은 흰쌀이 아니라 뼈다귀속에 있던 구데기였습니다. 구데기가 떠있는 국물을 먹고 두 대원은 취해서 노그라졌습니다.

며칠 후 굶어죽을 지경이 된 그들은 껍질이 벗겨진 나무에다가 우등불자리에서 얻은 숯으로 지갑룡이는 도주하고 김익현과 김봉록이 굶어죽었다는 글을 써놓고 덤불속에 나란히 누워서 죽음의 시각을 기다렸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전문섭이를 연락지점에 파견하지 않았더라면 김익현과 김봉록은 이름모를 덤불속에서 한줌 흙으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무의 글을 본 전문섭이 온 산판을 돌아다니며 두 전우의 이름을 안타깝게 불렀으나 김익현과 김봉록은 기력이 없어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섭은 모기소리같은 신음소리를 듣고 전우들을 찾아냈습니다.

두 전우를 사령부까지 데려오느라고 전문섭이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마저 기진맥진해서 걸음을 옮기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전문섭은 있는 힘을 다 짜내여 김익현과 김봉록을 사령부까지 데려왔습니다. 김익현과 김봉록은 미음을 몇 숟가락씩 먹고서야 비로소 실신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바버즈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일 심각한 교훈은 무엇이였는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자기 힘을 믿도록 교양해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지갑룡의 도주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 데로부터 발생한 사건인 동시에 사대주의로 해서 생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슨 사대주의였는가. 쏘련에 대한 사대주의였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이 쏘련에 대한 환상을 주입하면서 쏘일간의 모순으로 전쟁은 언제든지 꼭 터진다, 그러면 일제는 망한다는 식으로 이해시키다나니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갑룡의 도주와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사대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왕바버즈사건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은 혁명가의 생명은 신념에 있다는 것, 신념이 고갈될 때 혁명가의 생명은 끝장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지갑룡이 도주한 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었기 때문이며 김익현이나 김봉록이 도주하지 않고 사령부로 돌아온 것은 풀을 우려먹으면서도 신념을 고수했고 덤불속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순간에도 자기들은 죽지만 혁명은 승리한다는 신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입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힘을 믿는데서부터 생깁니다. 자기영도자에 대한 믿음, 자기자신의 힘, 자기집단의 힘, 자기인민의 힘, 자기당의 힘을 확고하게 믿을 때만이 혁명가의 신념이 고수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길에 들어섭니다. 문제는 그 신념을 얼마나 오래 고수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연마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마과정을 떨떨하게 거친 신념은 인차 부패변질됩니다. 신념을 연마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이 바로 조직사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한 정치사상적 단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혁명연조가 오래면 신념도 의례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념은 연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조가 길어도 자체수양을 잘하지 않으면 신념상으로는 약자가 되며 연조가 짧아도 자체수양을 잘하면 신념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갑룡이란 사람도 연조로 볼 때에는 김익현이나 김봉록보다는 퍽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격대생활을 근 10년이나 해온 사람이였습니다. 김익현이 그때까지 인민혁명군에 몇 해 복무했다가 하면 4년 복무했습니다. 김봉록은 2년밖에 안되니 신입대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변절은 누가 했습니까. 더 오랜 유격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갑룡은 도주했지만 후배인 김익현과 김봉록은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연조가 오래거나 투쟁공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신념을 잃으면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갑룡은 건군초창기부터 유격대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공로도 세워 중대장으로까지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엄한 시기가 도래하자 동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혁명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동정도 하고 특별히 돌봐도 주었는데 종당에는 곤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싸움을 잘하던 사람이 신념을 잃게 되자 낙오자가 되고 의리도 다 줴던지고 말았습니다.

임수산이도 혁명연조가 짧아서 변절한 것이 아닙니다. 혁명연조로 말하면 그는 좌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성철이 8도구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하려고 장재촌으로 들어갔던 1933년에 임수산은 거기서 벌써 연길유격대 2중대 정치지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철이 비조직적으로 찾아왔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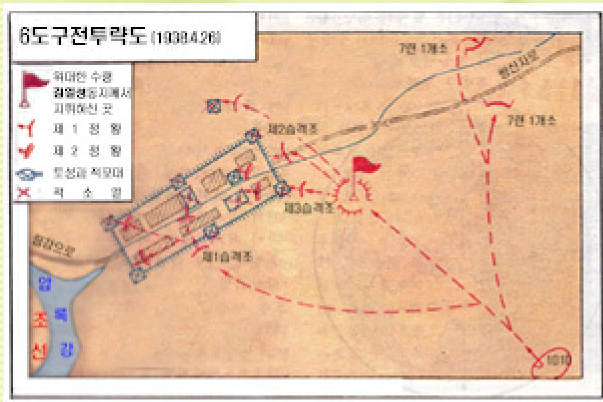
입대전에는 그가 중학교에도 다니고 교원도 하였습니다. 키가 구 척이나 되었는데 김일보다 더 컸습니다. 멀끔하게 생긴 데다가 식견도 있고 말주변이 있어 초기에는 전우들의 호감도 샀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원들속에는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돌아갔습니다. 임수산이란 사람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1938년 봄 한 달 사이에 우리가 6도구전투를 두 번 했는데 왜 두 번 했는가.

첫 전투를 임수산이 지휘하였으나 다 이긴 전투를 망쳐놓았습니다.

6도구는 1,000여 호의 집들이 밀집되어있는 큰 성시였습니다. 성시에 적이 얼마



없다는 보고를 받자 임수산은 즉시 연대를 이끌고 6도구 시내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진입하자 곧 예상치 않았던 적부대와 조우하게 되였습니다. 정찰병들이 정찰을 하고 돌아온 후 6도구에 새로 나타난 부대였습니다.

연대가 성안으로 쳐들어갔을 때 적들은 한창 먹자판을 벌이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능히 소멸할 수 있는 적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임수산은 적의 역량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겁을 집어먹고 얼른 퇴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퇴각명령은 아군으로 하여금 주동으로부터 피동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대원들은 어리둥절해서 전투를 중지하였고 그 틈을 타서 적들은 인차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반격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부대는 아무 소득도 없이 6도구거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 적들은 유격대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인민들이 그 선전을 듣고는 누구나 어깨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임수산의 오류로 해서 첫 6도구 전투는 이처럼 인민혁명군의 권위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6도구전투를 다시 조직하였습니다. 부대를 이끌고 성시로 쳐들어가 6도구를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적들은 유격대의 공격을 격퇴했다는 선전을 더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휘관회의에서 임수산의 과오를 비판하였습니다. 사상적으로 분석하면 비겁성이 그 과오의 주되는 요인이였습니다.

그러나 임수산은 비판을 받은 후에도 잘못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행군 때에도 사령부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후방밀영에 들어가 안일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과오를 고치지 않는다고 북대정자회의에서 또 그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수산을 참모장자리에서 떼내깔리자고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다시한번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임수산은 우리의 이 신임에 변절로써 대답하였습니다. 무장투쟁이 장기화되어가는데 대해 권태를 느끼고 있던 그는 노조에토벌대의 출현과 그 전례없는 규모에 질겁하여 전전긍긍하다가 동패자밀영에 가서 단독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적들한테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만 달아난 것이 아니라 적과 내통하여 밀영주변에 토벌대를 미리 대기시켜놓고 있다가 숱한 전우들을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동무들이 적들에게 붙잡혀간 것은 다 임수산 때문이였습니다.

그 임수산이란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를 잡아보겠다고 사령부에까지 토벌대를 끌고온 적이 있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임수산이 싸움판에서 총 쏘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정치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적의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였습니다.

임수산이 투항했을 때 적들은 산 범이라도 잡은 것처럼 기세등등해서 **김일성**빨치산의 몇 번째가는 인물이 다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대일본제국에 귀순해왔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임수산의 투항은 우리 대오에 일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들 심각해서 며칠동안 말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임수산의 변절로 해서 우리 부대는 실지

로 적지 않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도 않았고 상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임수산은 타락분자였습니다. 타락분자란 사상적으로 부패변질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대오에 있어야 해독작용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혁명을 하는 과정에 배신자들이 생기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보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에는 스탈린이나 주은래나 텔만이나 체 게바라와 같은 사람들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령과 수령의 위업을 배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도 맑스, 엥겔스를 숭상하던 사람들이였지만 역사에 배신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맑스주의도 배신하고 자기들의 스승이며 혁명선배인 맑스, 엥겔스도 배반하였습니다. 한편 쏘련당의 요직에 있던 트로츠키도 쏘비에트국가의 적으로 되었습니다. 장국도는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을 배반하고 장개석에게로 달아나버렸습니다. 배신자들의 말로는 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자들이 혁명을 배신했다고 해서 혁명이 좌절되거나 후퇴했습니까. 배신자들이 제거될 때마다 혁명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고조되고 앙양되었습니다. 트로츠키가 청산된 후 쏘련의 사회주의건설이 얼마나 눈부신 속도로 진척되었습니까. 트로츠키는 자기가 없으면 스탈린이 하는 모든 일이 시시해지고 쏘련이라는 나라가 망가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쏘련인민은 자기나라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국도가 공산당을 등지고 국민당의 식객이 된 다음 중국혁명은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로상승하여 전국적인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임수산이 적에게 투항하여 사령부의 비밀을 다 팔아먹고 토벌대를 끌고 돌아치며 우리에게 피해도 입혔으나 조선인민혁명군은 약화되지도 않았고 붕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변절한 다음 우리 대오는 더욱더 철통같이 단합되었고 우리 혁명은 자체의 순결성을 튼튼히 고수해가면서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였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전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벌어질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최창익, 윤공흠, 이필규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하던 자들이 저들의 종파적 기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당을 배반하고 조국을 반역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떨어져 나가자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고조가 일어나고 천리마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때부터 온 세계가 우리 나라를 천리마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였습니다.

배신자들은 민족운동대열에도 있었습니다.

실례로 최남선과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최남선이 3.1인민봉기 때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데 참가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쓴 백두산기행을 읽어보았는데 구절마다 애국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으로 이름높던 그가 돌연히 양심과 신념을 버리고 배신과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가장 어려운 시









스탈린, 주은래, 텔만, 체 게바라 (위로부터)

련을 겪고 있던 1940년대 초에 최남선은 우리의 이름을 크게 찍어가지고 투항을 촉구하는 권고문까지 써서 비행기로 뿌렸습니다.

아래에 최남선이 몇몇 친일파들과 함께 쓴 권고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황량한 산야를 정처없이 회배하며 풍찬노숙하는 제군! 밀림의 원시경에서 현대문화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불행한 맹신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도하고 있는 가엾은 제군! 제군의 저주된 운명을 깨끗이 청산하여야 될 최후의 날이 왔다. 생하느냐 사하느냐…

오호! 밀림에 방황하는 제군!

이 권고문을 보고 즉시 최후의 단안을 내려 갱생의 길로 뛰어나오라.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참회할 것도 참회하고 이제까지의 군등의 세계에 유례없는 불안정한 생활에서 즉각으로 탈리하여 동포애의 따뜻한 온정속으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군등의 무용과 의기를 신동아건설의 성업으로 전환봉사하라. 때는 늦지 않다!…

동남지구 특별공작후원회본부

고문 최남선…

총무 박석윤…≫

≪잡지≪삼천리≫, 소화 16년(1941년) 1월호 206-209페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 충청도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50대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유한종이였습니다. 그는 우리 부대에서 몇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상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사람이 아주 진국이였습니다.

유한종은 금침 몇 대와 수술칼 하나를 가지고 외상이란 외상은 다 고쳤습니다. 명의인데다가 정성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여서 대원들이 다들 따르고 존경하였습니다. 나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언제인가는 한 지잠을 많이 자는 그를 위해 곰가죽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는 성시공격전투를 하고 대원들이 전리품을 노획할 때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부터 찾아서 유한종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유한종의 건강상태가 몹시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1940년 정초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나이에 산속에서 유격대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의지나 각오를 가지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만에 유한종은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안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호강스럽게 보냈지만 먹는 밥이 살로 가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호강스럽게 보냈지만 먹는 밥이 살로 가지 않고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모로 서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목숨이나 구차스레 부지해서야 그게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유한종은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사고방식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건강상태로 보아 부대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였습니다. 그를 설복하느라고 땀을 뽑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한종은 몹시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방 직후 그는 딸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와 반갑게 만나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 손을 꽉 잡고 건강한 장군님을 뵈었으니 이제는 한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그에게 나는 왜놈들을 몰아냈으니 나와 함께 건국사업을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유한종은 그 후 평양에 눌러앉아 혁명자후원회사업도하고 평양학원군의로도 사

업하였습니다. 그의 딸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서기실 타자수를 하였습니다. 유한종의 두 아들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최남선이나 임수산이나 지갑룡이와는 얼마나 대조되는 인간입니까. 신념을 잃은 임수산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유한종은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최남선은 우리의 투항을 촉구하는 권고문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다니며 만주산야와 백두산에 뿌리었지만 유한종은 그가 밀림의 원시경이니 불안정한 생활이니 하고 묘사한 유격대의 생활이 그리워 몇 달전에 떠났던 우리의 대오에 다시 찾아와 복대를 탄원했습니다.

평범한 의사였지만 유한종은 최남선이나 임수산, 지갑룡이보다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는 수정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진실한 인간이였습니다. 그가 돋보이는 것은 고결한 양심 때문입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을 쉽게 배반하는 것은 신념이 없이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과 불평분자들, 우연분자들, 탐위분자들, 의지박약자들, 행세식운동자들이었습니다.

일을 태공하는 사람들, 임무수행에서 무책임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맡기면 얼굴부터 찡그리면서 이 타발, 저 타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혁명이다 뭐다 하고 번지르르한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제 주머니를 채우느라고 여념이 없는 사람들, 남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서슴없이 만드는 사람들, 거짓말을 식은죽먹기로 하는 사람들, 이런 유형의 인간들도 기회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붉은기를 팽겨치고 적진으로 빼소니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인간들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하나의 공통점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혁명가에게서 양심을 떼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념도 사상도 도덕의리도 다 무너집니다. 양심을 버리면 인격도 찌그러집니다.

혁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은 곧 양심을 가진 존재, 도덕의리에 충실한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양심을 가져야 도덕도 알게 되고 의리도 지키게 됩니다.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도덕도 의리도 희생성도 정의감도 성실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해야 한다고 한 **김정일**동무의 말은 명언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가로 될 수 있고 양심에 때가 오르며 양심에 금이 생기면 신념에도 금이 생기고 투지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혁명가는 양심을 버리는 순간부터 혁명가이기를 그만두며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자들과는 같이 길을 걸을 수도 없고 한 가마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그 순간부터 동상이몽을 하며 양봉음위를 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헤어져야지 헤어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지갑룡도 양심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혁명가의 면모를 잃었습니다.

내가 지갑룡의 행동에서 비양심적인 색채를 발견한 것은 육과송전투에서였습니다.

육과송전투에서 주공방향은 적병영이었고 그것을 담당한 것은 7연대와 황정해네 구분대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벼락치듯 총소리가 울렸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총성이 뚝 멎었습니다. 그것은 적병실을 점령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다시금 요란한 기관총소리가 병실 쪽에서 울려왔습니다. 왜 기관총소리가 다시 울리는가 하고 이상스레 생각한 나는 즉시 정황을 알아오도록 지갑룡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갑룡은 병실로 가다가 되돌아 달려오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우는소리를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보니 싸창목갑이 적탄에 맞아 터졌을 뿐 몸

은 상한데가 없었습니다. 목갑에 탄알이 맞을 때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타박을 좀 입은 것 같았습니다.

지봉손과 김학송은 비발치는 적탄 속을 뚫고 전투장으로 달려가 적패잔병들이 병실밑 비밀지하도에 들어박혀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즉시 대원들을 병실에서 철수시키고 화공전술로 지하도를 제압하라는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명령이 가닿기 전에 오중흡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오중흡의 자체판단으로 화공전술을 썼지만 대원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서둘러 수색작전을 벌이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오중흡

만약 지갑룡이 되돌아서지 않고 제때에 병실에 달려가 정황을 알아왔더라면 우리의 명령이 지체없이 오중흡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수도 있었습니다. 전투에서의 정황처리는 분초를 다툽니다. 지갑룡이 수행하지 못한 임무를 김학송과 지봉손이 대신 수행하느라고 늦어진 사이에 오중흡은 지하도에 깊이 숨어있던 패잔병들이 난사하는 총탄에 맞았던 것입니다.

지갑룡은 그때 이미 전투원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원들이라면 중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되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에 병이 든 자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소행으로 얼마나 큰 화를 입었습니까.

양심을 버리고 혁명을 배반한 자들의 말로는 어느 경우에나 다 비참하였습니다. 역사는 그런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였습니다. 죄가 가벼워 용서를 받은 사람들도 죽는 순간까지 얼굴을 쳐들고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날까지 혁명적인 양심을 간직하고 신념을 고수한 투사들에게는 인민이 꽃보라를 뿌려주고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8도구광산에서 노동을 하다가 유격구에 찾아와 입대청원을 했을 때 비조직적으로 왔다고 임수산에게서 수모를 받았던 박성철은 그 후 간고한 투쟁의 길을 끝까지 걸어 조국으로 돌아왔고 오늘은 국가의 주요한 직책에서 혁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박성철은 행군도중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입대후 몇 해가 지나도록 가족들의 안부도 몰라 궁금하던 차에 부대가 자기네 마을을 지나게 되니 부모처자들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성철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생각지도 않던 봉변을 당했습니다. 안해가 아이를 들쳐업으며 남편을 따라 유격대로 가겠다고 떼를 썼던 것입니다. 박성철이 제정신이 있는가, 아이를 가진 여자가 가긴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가 하고 막아나서자 안해는 그의 허리띠를 꽉 거머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말로 타일러서는 이가 들 것 같지 않고 콱 떠밀쳐버리고 달아나자니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울음만 터뜨리는 날에는 온 동네가 그 사연을 다 알게 되고 적의 귀에도 들어가 유격대가족이라고 식구들이 결딴나게 될 판이었습니다.

박성철이 어쩔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어머니가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네가 지금 처신을 잘못하면 남편을 죽일 수 있다, 저 사람이 약속된 시간까지 부대를 따라서지 못하면 도망군이 될 것인즉 그건 역적이 되는 길이다, 아이애비가 그렇게 돼도 좋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안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허리띠만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사내가 한번 큰일을 하자고 집을 나섰으면 그만이지 넌 왜 이 밤중에 뛰어들어 소동이냐,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독립이 되기전에 또 오면 네 정갱이를 분질러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에야 안해는 남편의 허리띠를 놔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는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던지 박성철은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박성철

지식으로 볼 때에야 그 어머니나 안해가 임수산에게 비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혁명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임수산에 비할 수 없는 선생이였습니다. 아이를 업고서라도 유격투쟁을 하겠다는 안해의 지향도 아름답지만 나라를 독립하기 전에 다시 집에 나타나면 아들의 정갱이를 분질러놓겠다고 엄포를 놓는 어머니의 뜻은 또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 것입니까.

김익현이 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받던 날 나는 그가 어린나이에 지양개등판에 찾아와 유격대에 받아달라고 간청하던 일이며 지갑룡의 회유를 뿌리치고 사령부로 찾아오다가 굶어죽게 되자 나무에 숯덩어리로 글을 써놓고 덤불속에 들어가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일들을 회상하였습니다.

김익현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 후대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익현도 훌륭한 대원이지만 그와 김봉록을 사령부에까지 부축해가지고 온 전문섭은 또 얼마나 강인하고 동지적 의리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실신상태에 있는 두 전우를 사령부에까지 업어온 그를 보니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우들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해서 눈물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혁명적 신념이 박약하고 의리와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배고픈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동지들을 버리고 달아나버렸을 것입니다. 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있는가, 울타리가 있는가, 감시막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을 던지고 내려가서 문서장에 손도장만 찍으면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뜨뜻한 온돌방에서 마음껏 잘 수도 있었습니다.


전문섭

하지만 전문섭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두 전우를 번갈아 업으며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따르며 충실하게 혁명을 해왔습니다.

동무들은 한 생을 빛나게 장식한 항일의 노투사들과 같은 신념의 강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욕망만으로는 내밀 수 없는 것이 혁명이고 사회주의위업입니다. 신념이 강해야 자기도 지키고 사회주의도 고수할 수 있습니다.

백 날을 굶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단 하루의 떳떳한 삶을 위해 천 날 고생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 절해고도에 홀로 떨어져 이름모를 숲속에서 한 점의 티끌로 사라져도 조직이 자기를 찾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를 키워준 지도자와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폭도 하고 교수대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교양,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교양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6. 국제연합군을 편성하여


국제연합군의 전우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우리 혁명역사에서 그다지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1940년대 전반기 쏘련경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뜻깊은 회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는 국제연합군의 편성과 그 활동전모를 뚜렷이 밝히는 것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큰 것이다.

1940년대에 이르러 항일혁명투쟁은 조국광복위업수행에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의 투쟁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 것은 우리가 1942년 여름부터 쏘련경내에서 중국, 쏘련의 전우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일제를 최종적으로 격멸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간 것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쏘련, 중국의 무장력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공동투쟁을 벌인 것은 조선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우리 혁명은 원래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하는 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됨으로써 우리는 조국해방의 위업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체를 종국적으로 괴멸시키기 위한 세계사적인 과업을 겸하여 수행하게 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의 편성으로 하여 우리의 무장투쟁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연합군편성을 분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중국인민과의 공동투쟁단계로부터 조, 중, 쏘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내용으로 하는 폭넓은 공동투쟁단계에로, 세계반제, 반파쑈 투쟁의 거창한 흐름에 합류하는 새로운 공동전선단계에로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결정적인 최후공격작전을 위해 유리한 지대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핵심을 보존육성해가면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최종준비를 갖추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2년 7월에 우리는 쏘련, 중국의 동지들과 함께 국제연합군을 편성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반제역량과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격멸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쏘련의 외교, 군사 관계 문헌들에서 우리가 1942년 여름부터 쏘련에 들어가서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공동군사작전을 준비하였다고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쏘련원동군의 일부부대들로 이루어진 국제연합군편성의 역사적 필연성과 그 발전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우리가 원동에 임시기지를 정하고 동북지방과 국내에서 적극적인 소부대활동을 벌이던 시기는 국제정세발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던 때입니다.

1941년 4월에 쏘련과 일본사이에는 중립조약이 체결되였습니다.

쏘련과 일본 사이에는 러일전쟁 당시부터 역사적으로 형성된 뿌리깊은 모순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순관계가 쏘일간의 새로운 전쟁으로 번져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즉시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향에서 정치군사외교를 추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쏘련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한 세계최악의 호전국가들이였습니다. 쏘련은 반공의 돌격대로 등장한 히틀러독일의 침공을 미연에 방지해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쓰면서 독일과의 있을 수 있는 전쟁을 피하든가 최소한 지연이라도 시킬 목적으로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일본사람들과의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침공을 예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쏘일중립조약의 체결은 이런 맥락속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목적은 쏘일쌍방이 서로 상대를 견제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쏘일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었습니다.

1941년 6월에는 소독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나는 소부대의 전체성원들을 모아놓고 불가침을 약속했던 독일이 쏘련을 침공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다, 히틀러는 처신을 달리할 수 없다,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돌아서서는 불의에 뺨을 때리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오산하고 있다, 독일이 쏘련을 침공하는 것은 히틀러의 무덤을 파는 것으로 될 것이다, 대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곁눈을 팔지 말고 기존방침대로 최후결전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파쑈독일의 불의적인 선제타격으로 하여 쏘련의 군사력은 전쟁초기에 심대한 손실을 당하였으며 붉은군대는 불리한 사태를 역전시킬 사이도 없이 일시적인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키예프, 하리코프, 민스크를 연이어 함락하고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로 육박하였습니다.

그 후 나는 쏘독전쟁의 발발로 해서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방안을 검토한 다음 하바로프스크에 가서 쏘련, 중국의 군사간부들과 함께 앞으로 세 나라 무장력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군은 하와이에 있는 미군기지 진주만을 불의에 공격하여


전선으로 나가는 레닌그라드 노동자부대

태평양전쟁을 터쳐놓았습니다.

미일간의 개전은 우리를 크게 흥분시켰습니다. 개전일방인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점한 적국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결속짓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다른 전쟁을 도발한 것은 무모한 도박이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석유, 고무, 철과 같은 전략물자를 긁어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섬나라 일본이 무슨 타산을 가지고 그런 모험에 뛰어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국력을 탕진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였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큰 함정속에 스스로 뛰어든 것은 우리들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최후결전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였습니다.

우리는 쏘일사이에 조만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도 예견하였습니다. 쏘일전쟁이 현실로 된다면 일본은 중국, 미국, 쏘련을 상대로 하는 세 방면에서의 큰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만주에 있는 관동군이나 조선주둔군을 상대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작전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앞당길 수 있겠는가. 우리의 관심은 이 하나의 문제에로 집중되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결판을 짓자면 우리자신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남들이 독립을 선사해주기를 기다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방들의 지원이라는 것도 자체의 힘이 강해야 은을 내지 그렇지 않으면 은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제반제반파쑈역량과의 연대를 위해서도 응당한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그 당시 쏘련의 원동은 조, 쏘, 중 세 나라 항일세력의 중요한 집결지로 되고 있었습니다. 쏘련과 중국 두 나라 무장력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집단이 동북항일연군의 전우들과 함께 원동의 임시기지에 들락날락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조건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쏘, 중 두 나라 무장력과의 협동을 잘해나가는 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것을 확대공고히 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데서도 반드시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전략적인 문제였습니다.


독일과 쏘련의 불가침조약

그런데 우리가 쏘련, 중국 두 나라 무장력과의 협동을 어떤 형태로 실현시키는가 하는 것은 매개나라의 민족적 이익과 세 나라 혁명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선인민혁명군의 독자성은 독자성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무장부대들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을 뭇고 공동투쟁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인 일제를 반대하여 진행한 조중무장력의 공동투쟁은 두 나라 혁명의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항일혁명의 객관적 요구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였습니다.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투쟁은 쌍무적인 군사관계에서의 하나의 모범이였습니다.

조중 두 나라 무장력이 원동에 또 하나의 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쏘련원동군이 우리의 익측에 존재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공동항일의 폭과 심도를 더욱 넓히고 그것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혁명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이나 쏘련의 대일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조선, 중국, 쏘련 세 나라 무장력의 이상적인 연합형태를 국제연합군으로 보았습니다.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된 나의 구상에 대해서는 김책, 최용건, 안길, 강건을 비롯한 우리 동무들도 지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치하게 그 구상을 빨리 실현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면서 쏘련, 중국 동지들과의 협의를 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한때 적지 않은 중국동지들은 만주의 항일무장부대들과 쏘련원동군의 일부역량으로 하나의 새로운 군체계를 창설하고 공동활동을 할 데 대한 국제당과 쏘련군사당국의 발기를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쏘련측의 일부당국자들이 일방적인 요구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가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된 구상을 무르익히고 그것을 토론에 붙이였을 때 그들은 종래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은 성숙된 문제로 된다고 한결같이 인정하였습니다.

쏘련군사당국도 그 구상을 지지하였습니다.

내가 국제연합군편성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 것은 1942년 봄 쏘련의 고위군사관계자들과 남야영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국제당과 쏘련군사당국을 대표하여 우리와 연계를 맺고 있던 쏘르낀장령은 모스크바방위전의 영웅들에 대하여, 모스크바방어와 반타격전에서 특출한 솜씨를 보인 시베리아사단들의 전공에 대하여 생동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쏘련원동군의 래력에 대해서도 자랑하였습니다. 원동군과 모스크바방위전에 참가한 시베리아사단들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된 구상을 터놓자 쏘르낀장령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지금 정세가 요구하는 가장 적중한 대안은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구상에 동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한다면 자기도 사실은 조만간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조선동지들이나 중국동지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겠는가, 이해와 지지대신 오히려 대국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게 되지나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주춤거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어딘가 깊은 속대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력독립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적 협조나 국제혁명역량과의 연합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기나라 혁명에도 이롭고 세계혁명에도 이로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주의야 왜 반대하겠는가,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강적을 때려부시자면 힘을 합쳐야 한다, 쏘련과 같은 큰 나라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나라의 혁명역량과 연합하여 투쟁하는 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다,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덕을 볼 생각만 하거나 자기나라 혁명은 다 집어던지고 남의 나라 혁명을 돕는 것만이 진정한 국제주의라고 생각하는 사상적 경향을 사대주의라고 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국제련합군 지휘부가 자리잡고 있던 건물

쏘르낀장령은 나와의 담화 내용을 쏘련군사당국과 국제당에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국제연합군편성과 관련된 문제를 시급한 현안문제로 부상시키었습니다.

쏘독전쟁이 결속될 때까지 미일간의 전쟁이 결속되지 못하면 어떤 형세가 조성되겠는가. 우리의

공통된 관측은 쏘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하게 되리라는 것이였습니다. 비록 쏘련이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대일참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국제항일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대일전쟁준비에서 쏘련이 추구하고 있던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국제당이나 쏘련 자체의 정치군사적 요구와 우리의 전략적 구상이 일치됨으로써 국제연합군편성 문제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7월 중순경에 우리는 쏘련, 중국의 군사간부들과 함께 조, 중, 쏘 무장력의 연합문제를 최종적으로 토의하고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독자성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전제하에 국제연합군을 창설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장수전

1942년 7월 22일에 나는 주보중, 장수전과 함께 쏘련원동군사령관 아파나센코대장을 만났습니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눈매가 예리한 아파나센코는 다부진 몸매를 가진 50대의 로숙한 장령이였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면서 조선의 젊은 빨치산대장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령관의 방에서 참모장 니체브중장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파나센코는 쏘련과 중국, 조선의 혁명무력을 연합하여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는 것은 조선과 중국의 혁명투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쏘련의 안전과 대일작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국제연합군이 자기앞에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국제연합군이 편성되면 조선과 중국의 민족혁명전쟁에 필요한 군사간부들을 많이 양성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연합군의 조중부대들은 조선과 만주를 해방시키는데서 결정적 역량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아파나센코는 훈련의 강도와 질을 높여 임의의 시작에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큰 작전지도가 걸려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파나센코는 우리에게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벌인 유격운동실태와 앞으로의 작전을 위한 구상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만주와 조선의 군사정치정세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작전지도앞에 나가 동북항일연군 제2로군의 활동정형에 대해 개괄하고 앞으로 있게 될 동북해방작전과 관련한 자기 견해를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의 활동정형과 현 실태에 대하여, 일제를 격멸하고 조선을 해방하는데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군사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모를 박아 설명하였습니다.

아파나센코는 조선에서의 일본군의 무력배치, 조선자체의 반일역량의 실태와 그 발전전망, 쏘련과의 연합작전의 실제적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해주었습니다.

제3로군의 실태에 대해서는 장수전이 설명하였습니다.

아파나센코는 북만일대의 군사정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나센코와의 협의에 따라 국제연합군에 대한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 피복과 식량을 비롯한 후방물자공급을 쏘련측이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국제연합군을 쏘련원동군 독립88여단으로 부르도록 하고 부대의 대외번호는 8461보병특별여단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은 그 존재와 활동의 비밀을 보장하며 위장을 철저히 하기 위해 축소하여 편성하는 원칙을 세워 여단규모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1로군 역량으로 편성된 제1지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제1지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국제연합군의 조선지대였습니다.

그때 적들의 첩보암해활동으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군사관등급도 실제보다 낮게 상징적인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의 편성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는 모두 북야영에 집결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됨으로써 원동의 군사정치정세는 국제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소부대

우선 쏘련이 그 덕을 적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쏘련은 일본의 침략책동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역량을 확보하고 중국동북지방과 조선에서의 군사작전수행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새로운 특수부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존재는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에도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쏘련원동군과 함께 활동하게 됨으로써 정규무력의 테두리속에서 조국해방작전에 필요한 가장 현대적인 작전수행능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쏘련경내에서 대사변이 도래할 때까지 조국해방의 과업을 자체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정치적 준비와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연합군본부에서 아파나센코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파나센코는 그때 군사위원을 비롯한 참모부와 정치부, 후방부 일군들을 데리고 북야영에 왔습니다.

국제연합군은 그날 분열행진을 하였습니다. 분열행진대오의 맨 앞장에는 조선지대가 서 있었습니다. 조선지대가 행진을 잘했습니다. 그날의 행사는 국제연합군의 탄생을 경축하는 일종의 기념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파나센코와 함께 오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아파나센코가 자기경력을 소개한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는 10월혁명 직후에 쏘비에트정권을 지키기 위해 백파들과도 싸우고 독일강점군과도 싸운 로투사였습니다. 아파나센코는 벌써 공민전쟁시기에 기병사단을 지휘하였으며 중앙아세아군관구사령관으로 있다가 원동군사령관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쏘련 당국은 일찍부터 원동군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원동군사령관들은 모두 이름난 실력가들이었습니다. 쏘련의 력대 국방상들과 고위군사간부들 가운데는 원동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아파나센코는 1943년 초에 쏘독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의 하나였던 워로네쥬전선 부사령관으로 조동되어갔다가 그 해 여름 치명상을 입고 전사하였습니다.

아파나센코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연합군의 전체장병들은 한자리에 모여 조중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고 도와주던 그를 슬픔속에 추모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우애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쏘련인민이 당하고 있던 국난을 자기 나라의 국난처럼 여겼습니다. 쏘련군대가 전선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많은 장병들이 서부전선에 보내달라고 탄원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제당과 쏘련당국은 연합군장병들이 참전을 요구할 때마다 당신들한테는 자기 조국을 해방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요구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성새이고 유일한 보루였던 쏘련을 그처럼 열렬히 옹호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쏘련이 망하면 사회주의도 망하고 세계평화도 고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공통된 관념이였습니다.

적지않은 나라의 인명사전들은 내가 조선사람들로 꾸려진 큰 부대를 이끌고 스탈린그라드 격전에 참가했고 거기서 공을 세워 적기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들은 내가 베를린공격작전에도 제1선부대로 참가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쏘련정부로부터 적기훈장은 받았지만 스탈린그라드격전이나 베를린공격작전에 참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전의 필자들이 어디서 그런 자료들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글들이 참전열로 끓던 훈련기지분위기의 일단을 반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제연합군의 존재는 조, 쏘, 중 세 나라 무장력의 연합을 두려워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떨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민들에게는 큰 신심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경내에 훈련기지를 정하고 대일최종작전을 준비하신 사실과 관련된 적측의 자료들은 수없이 많다.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김일성**의 동정에 관한 건

입소중의 **김일성**은 … 지난해 여름 쏘련 하바로프스크로부터 … 연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중공요인 모택동, 하룡, 강생 등과 회견하고 일쏘개전전후에 있어 중공당군과 항연군과의 합작행동 기타 항연군의 금후에 있어서의 활동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다시 연안부근에 있는 조선인공산당원과도 회견하고 각종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일성은 작년말경에 그곳에서 비행기로 쏘련에 돌아와 목하 쏘련하바로프스크부근에 있으면서 … 대만선 첩보 및 사상공작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하바로프스크부근 야영학교에 조선인, 중국인 공비 기라 입쏘한 선만인불령분자, 피납치자 등 약 300명을 수용하여 하바로프스크 붉은 군대…의 지도원조하에 일쏘개전전후에 일제히 만주로 들어와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훈련교육중이라 한다.≫

≪남양경찰시장이 함경북도경찰부장에게 보낸 경찰자료, 소화 19년(1944년) 2월 21일≫

≪**김일성**은 지금 연안에 있으며 열하성에 군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한다. 또 니꼴라엡스끼(연해주)에는 순전히 조선사람들로 편성된 4개사단의 군대가 있으며 일쏘개전의 시기에는 4개사단의 군대가 결사대로서 북조선지방에 상륙하거나 혹은 낙하산을 타고 조선내에 강하할 것이다.≫

≪≪성대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전쟁후방교란 및 무장봉기 불온책동 사건철(4)≫고원경찰서, 소화20년(1945)≫

≪시베리아를 횡단해 돌아온 사람이 연설하면서 시베리아의 어느 곳에 주위가 10리나 되는 진지가 있고 거기에 조선기발이 꽂혀있으며 조선인군대가 수비를 서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모양이다.≫≪≪특고월보≫내무성경보군, 소화19년(1944) 2월분 79페지≫

국제연합군편성소식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싸우고 있던 반일애국역량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주에 있는 동북항일연군의 대원들이 삼삼오오 패를 지어 강

을 건너와 연합군에 합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위만군병사들이 반변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조직된 전이였던지 후였던지 요하현 동안진에 있던 위만군연대의 1개중대가 저들의 지휘관과 일본장교를 처단한 다음 수많은 보총과 기관총, 척탄통 등을 가지고 목선을 타고 우쑤리강을 건너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여 부대에 편입시켰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우리는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면서 대일작전준비를 급속도로 다그쳤습니다.

그 당시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이였습니다.

고대전쟁이건, 중세전쟁이건, 현대전쟁이건 군사작전의 근본원리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수단들이 발전하는데 따라 그것을 어떻게 구사하며 각이한 군종, 병종간의 협동과 배합작전을 어떻게 조직해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전법들을 파악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이 노력은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배가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현대전법구사능력은 훈련기지에서의 훈련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백두광야에서 연마해온 유격전법들을 더욱 완성하는 한편 정규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전법들을 익혀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을 담당한 주력군으로서의 정치군사적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갔습니다.

쏘련원동군도 국제연합군의 전투능력을 속성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1942년 11월 중순경에 아파나센코는 쏘련원동군 남부주둔군의 여단종합군사연습을 조직하고 거기에 연합군의 주요지휘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장갑열차를 타고 그 여단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거기서 여단의 동기종합연습이 진행되였습니다. 그날의 연습에는 4개의 보병대대와 탱크, 포, 박격포, 통신, 반탱크포 대대를 비롯하여 많은 무력이 참가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대규모의 군사연습이였던 것만큼 우리도 큰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있게 그 연습을 참관하였습니다.

여단이 맡은 전투임무는 고지의 적을 공격소멸하고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였는데 낮 12시에 시작된 공격이 오후 4시에야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후 하바로프스크교외의 아무르강안에 주둔하고 있던 또 하나의 여단군사연습도 참관하였습니다.

그날의 연습에서 여단앞에 제기된 임무는 밸리좁까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부대를 집결시키고 전투준비를 완료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연습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원동군부대들의 열병식도 참관하였습니다. 군사연습과 열병식에 동원된 여러 가지 현대적 무장장비들과 전투기술기재들이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언제면 저런 현대화된 군대를 가지게 될가. 이것이 군사연습과 열병식을 참관하는 과정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나라를 해방한 다음 인차 정규군건설부터 해야겠다는 결심은 원동의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더욱더 확고한


국제연합군시절에 진행한 공연의 한 장면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조, 쏘, 중 세 나라 군사지휘관들의 진지한 노력과 상호협조의 덕으로 국제연합군은 짧은 기간에 현대전에 상응한 무장력으로 급격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쏘련은 전선형편이 몹시 어려워 하나의 연대나 대대무력이 그리울 때에도 국제연합군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연합군이 오직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최후결전을 위해서만 착실히 준비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쏘련의 군사일군들은 스탈린이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장병들을 얼마나 아끼는가에 대하여 자주 말해주었습니다. 스탈린은 조선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에서 싸운 매개전사들은 다 장차 자기조국을 해방하고 새 조국 건설을 해나가는데서 한몫 단단히 할 귀중한 사람들이므로 한 명의 손실도 없도록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스탈린

쏘련 원동지역에서의 국제연합군의 창설과 발전은 구라파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항쟁역량을 결속하는데서도 좋은 본보기로 되었습니다.

1943년에 쏘련과 체코슬로바키아사이에 친선과 호상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쏘련영토에서는 붉은군대와 함께 히틀러독일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참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여단은 키예프해방전투와 벨라야 뻬르꼬비해방전투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군사작전들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폴란드도 쏘련영토에서 파쑈독일을 반대하여 싸울 군대를 창건하였습니다. 폴란드집단군은 루블린해방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폴란드땅을 독일파시스트강점자들의 마수에서 해방하기 위한 여러 군사작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쏘련경내에서 국제연합군을 뭇고 활동하던 1943년 5월 국제공산당이 해산되었다는 소식이 훈련기지에 날아왔습니다. 국제당의 해산을 두고 훈련기지에서는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파쑈와의 대결을 위해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가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던 2차 대전도중에 어떻게 되어 세계혁명의 영도기관으로 20여년동안이나 존재해온 국제당을 해산하였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레닌이 국제당을 조직한 것은 1919년입니다.

국제당이 해산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의 이유는 국제당이 세계혁명을 영도해오는 동안 각국에서 공산주의적 정당들과 혁명역량이 충분히 자라나 국제당의 중앙집권적인 영도와 간참이 없이도 자기나라 혁명을 자신의 노선과 힘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제공산당제7차대회회의장

국제당이 해산되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국제공산당의 존재가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보다 폭넓은 반파쑈연합을 실현해 나가는데서 걸림돌과 같은 존재로 되고 있었던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파쑈연합은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

는 새로운 양상의 연합이였습니다. 이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파쑈와의 대결에서 보여준 초이념, 초제도적인 입장은 사회주의국가인 쏘련과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자본주의나라들의 연합, 공산주의자와 부르조아우익정객들과의 합작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반제를 이념으로, 세계의 공산주의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던 국제당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공산당의 해산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당시 정세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남의 힘이나 노선에 의거하지 않고 혁명의 매단계에서 전략과 전술도 자체로 채택하고 혁명역량도 자체로 꾸리면서 만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해온 우리자신의 투쟁노정을 두고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제당이 해산되였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가 무의미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연합군의 테두리안에서 활동의 독자성을 계속 고수하면서도 의연히 국제적인 벗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쏘련경내를 무대로 하여 벌인 군사정치활동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사로 되고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동향과 조직구조, 그 활동내용을 탐지하려는 일본 군부와 경찰, 특무기관의 책동은 참으로 집요한 것이었다.

일제는 국제공산당이 해산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차후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방침의 추향과 특별하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활동을 두고 이러저러한 판단과 억측을 일삼기도 하였다.

일제가 발표한 ≪국제공산당의 해산과 금후전망≫의 한 단락을 아래에 소개한다.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따라서 이번 전쟁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패전에로 이끌어감으로써 조선이 우선 민족해방, 민족적 독립을 획득하는 것이 당면한 전략적 목표로 될 것이며…무장투쟁의 임무에 대해 말한다면…만주에 있는 공산비 **김일성**일파 내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는 조선의용군의 활동과 같은 것은 이 방침의 표현으로서…현재의 조선에서의 운동은 일쏘관계의 여하에 따라서 규정되는데 일쏘현상유지의 경우와 정면충돌의 경우에 의하여 국면은 급전하며 후자의 경우 운동이 급속도로 테러화되어가거나 무장투쟁화될 것이라는 것은 동맹국인 독일의 점령하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실례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사상휘보≫속간호 131페지, 소화18년(1943년)10월 고등법원 형사국사상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제당이 존재하거나 해산되었거나에 관계없이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조선인민자체의 투쟁으로서 독자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연합군의 조직과 그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은 혁명투쟁에서 매개나라의 자주성, 독자성과 국제적인 단결과 협조의 두 개 원칙을 옳게 결합시킨 모범으로 됩니다.

국제연합군을 조직하고 그것을 강화발전시키는 나날에 얻은 성과와 경험은 일제를 격멸하는 최후격전의 나날에는 물론, 전후 복잡한 정치정세하에서 주체적 입장을 가지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합전선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데서도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7. 동북항일연군의 전우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채세영

국제연합군시절에 나는 주보중, 장수전, 채세영, 풍중운을 비롯한 동북항일연군의 많은 전우들과 함께 한 대오안에서 깊은 연계를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중에서 나와의 연계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주보중이였습니다. 그와의 친교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전반기 간도에서 구국군과의 통일전선사업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주보중과는 반일병사위원회에도 함께 참가하고 나자구전투도 같이하였습니다. 왕청에 있을 때 북만원정을 두 차례 하였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주보중이네를 만나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기에 활동무대를 백두산지구와 서간도로 옮긴 후부터는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지만 대문은 아니다.≫ 이것은 주보중이 나와 헤어질 때마다 격언처럼 한 말이였습니다. 활동무대가 다르고 투쟁노정도 각이하지만 공동항일을 하는 이상 어느 때든지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였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 직전에 나를 만났을 때에도 주보중은 ≪그것보시오. **김**사령,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은 여러 갈래지만 대문은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해만에 이루어진 해후여서 그때의 상봉은 참으로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습니다.

≪양사령이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노상 남만동지들의 신변을 걱정했습니다. 일제가 **김**사령에게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려운 고비들을 용케 이겨냈습니다. 동남만이 얼마나 위험한 전장인가 하는거야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바로프스크에 온 **김**사령을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김**사령이 오기를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보중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퍼그나 늙어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임해설원에서 살아온 풍상고초가 역력히 어려있었습니다.

주보중은 고생이 많았겠다는 나의 말에 오히려 우리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남만동무들이 겪은 고생이야 어떻게 비기겠는가,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연전연승했다니 우리로서는 그저 경탄할 뿐이다, 국제당일군들과 쏘련군지휘관들의 찬사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바로프스크에서 주보중을 만난 것은 국제당이 동북의 유격대지휘관들과

쏘련 원동군대표들의 회의를 시작하려고 서두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만치 나와 주보중도 담화의 많은 몫을 이 회의와 관련된 문제들에 돌리었습니다.

주보중의 고충은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 혁명투쟁에서의 독자성과 국제적 연대문제를 어떻게 결합시켜나가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중공중앙과의 연계를 몹시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해 초조해 하였습니다. 중국공산당원인 주보중이 당중앙의 지도밑에 동북혁명을 발전시키려고 여러 해 동안 모대긴 것은 응당한 일이였습니다.

주보중은 언제나 중공중앙과의 연계를 앞세우면서 쏘련과의 연대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은 동북지방에서 싸우고 있던 중국동지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국제당과 쏘련군사당국이 한때 동북항일연군을 쏘련의 지휘권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만큼 주보중이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였습니다.

그날 나와 주보중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 보아 쏘련과의 군사정치적 협동과 협조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협동과 협조의 구체적 형식과 방법은 매개나라 민족혁명의 이익과 국제혁명의 이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인민혁명군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주보중은 담화를 마치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남만대표동지들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반일병사위원회시절에도 **김**사령의 발언은 매번 우리의 화제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새로운 정황에 맞게 서로 손잡고 일해 나갑시다.≫라고 뜨겁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나에 대한 주보중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은 쏘련을 옹호하고 쏘련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항상 지지하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의 언행이나 처사에서 대국주의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매우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에게 원칙적 입장을 강하게 지키면서 아량을 가지고 동지적 협조정신을 잘 보여주면 대방의 그릇된 태도도 능히 바로잡을 수 있고 맺혔던 고리도 조만간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보중은 머리를 끄덕이며 ≪아무튼 **김**사령은 노숙하오.≫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노숙해서가 아니라 주사령에게 한 가지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 우리처럼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해본 경험이야 없지 않는가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렇지, 조선동지들이야 동만에서 민생단문제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지요 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은 길동에서 활동할 때 이미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까밝히고 그 잘못이 동만특위의 사업상 착오로부터 초래된 것이였다고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간도시절부터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대해 비교적 공명정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국광복회를 조직했을 때 주보중이 자기가 지휘하고 있던 동북항일연군부대 안에 꾸려진 그 지부의 활동을 적극 떠밀어준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 일인가 하면 1936년 12월에 있은 일입니다.

주보중의 이 처사는 조선혁명에 대한 국제주의적인 지지와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주보중이 조선혁명에 대해 그처럼 호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우리가 유격운동의 초창기부터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여러 차례의 연합작전을 통하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북만원정 때에는 원정대의 성원 중 과반수를 뚝 떼서 주보중이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북만동무들과 함께 연합작전도 많이 했습니다.

2차 북만원정때에는 2군과 5군의 합동총지휘부까지 구성해놓고 큼직큼직하게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지휘를 맡고 내가 정치위원으로 되었으며 평남양(리형박)이 부지휘를 담당하였습니다. 총부산하의 6개 부대가 활동지역을 분담하였는데 서부의 안도부대는 주보중이, 위하부대는 내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서선지휘부, 중선지휘부… 하는 식으로 지역별 지휘부를 내오고 그 산하에 여러 부대들을 갈라서 배속시켜 무송으로부터 목릉일대를 오가며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나와 주보중과의 인연은 이처럼 뿌리가 깊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인지 주보중은 국제연합군 시절에도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나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쏘련사람들과 협의할 문제가 제기되어도 주보중은 먼저 내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고 물으면 그는 간도시절부터 **김**사령의 조언에 습관된 탓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의 주보중은 그 어떤 형식상 위계에 구애되지 않고 나를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 조선혁명의 지도자로, 연합군 내의 조선측대표로 인정하고 존대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어떤 단체의 공동위원장처럼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공동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그것은 쌍방이 서로 상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보중과의 관계는 깊은 존경과 신뢰에 기초한 동지적, 형제적 관계였습니다.

내가 주보중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가 동북혁명의 개척과 발전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업적을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한 사람이라는데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주보중은 자기는 두 가지의 잊지 못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는 항일유격투쟁에서 조선사람들이 선봉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주보중의 입장은 명백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응당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동북혁명은 조선사람들을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주장하였습니다.

주보중은 동북항일연군 2군은 동시에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고 하면서 공동투쟁노정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중항일무력의 연합을 늘 격찬하였습니다.

주보중은 동북혁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논 선봉적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1932년도에 건립된 억센 동만유격대와 1933년에 건립된 반석유격대, 주하유격대, 밀산유격대, 탕원유격대, 요하유격대는 모두 조선동지와 혁명적인 조선군중들에 의해 창건되었다, 후에 항일연군 제1, 2, 3, 4, 6, 7군으로 발전하였다. 제5군에도 적지 않은 우수한 조선동지들이 있었다, 항일연군 각 군내의 군장, 정치부주임으로부터 소대장, 지도원, 각급 군정영도간부는 모두 조선동지들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왕신림에게 보낸 아래의 서한내용들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높이 평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가장 훌륭한 군사간부이며 … 조선인동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일군이다. 그는 만주남부와 압록강동부, 조선북부지대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주체30(1941)년 7월 1일 왕신림에게 보낸 주보중의 서한≫

≪**김일성**은 남만 제1로군에서 현재 유일하게 중요한 간부이다. 양정우, 위증민 두 동지가 희생된 이후 오직 **김일성**이 남만유격운동의 영도와 남만전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책임지고 있다.≫≪주체30(1941)년 9월 15일 왕신림에게 보낸 주보중의 서한≫

내가 주보중의 인간상에서 좋다고 보는 다른 하나는 그가 혁명투쟁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자기나라 혁명에 대한 열렬한 옹호정신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보중은 중국혁명을 쏘련혁명에 복종시키든가 쏘련혁명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쏘련혁명과의 연대, 쏘련옹호를 주장하면서도 항상 중국혁명의 독자성과 독자적 발전을 견지하였습니다.

혁명에 대한 주보중의 이런 원칙적 입장은 우리의 주장과 통하는 것이였습니다. 혁명가의 금새란 혁명에 대한 자주적 입장의 확고성에 정비례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자주적 입장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혁명가의 권위는 높아지고 자주성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혁명은 백전백승하는 법입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도 주보중은 변함없이 나를 **김**사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평양에 와서는 나를 한번도 **김**사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보중은 자기를 이전날처럼 허물없이 주사령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도 나를 꼭꼭 수상동지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이 나를 부르는 것이 어딘가 귀에 설고 또 우리사이에 불필요한 간격을 두는 것만 같아 그전처럼 **김**사령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주보중은 정색해서 그래서는 안되지요 하고 말하군 했습니다.

나와 주보중은 가끔 논쟁도 벌였습니다. 주보중이 한번 주장하면 요지부동이여서 양보를 얻어내기가 조련치 않았습니다. 나도 좀처럼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당에 가서는 양자의 주장이 조절보충되어 견해의 일치점에 도달하군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 사이의 우의는 더 두터워지고 이해도 더 깊어졌습니다.

나와 주보중은 드문히 사담도 나누었습니다. 주보중의 사담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가족과 동지들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주위라고 부르는 어린 딸애가 있었습니다. 마흔고개에 본 자식이다보니 그 애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그 애의 재롱이 한 가지라도 늘면 주보중은 내앞에서 그것을 곧잘 자랑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의 얼굴에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가 느슨하게 피여오르군 하였습니다.

주보중과 그의 부인 왕일지는 오래동안 한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만의 밀림속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안해와 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에서 정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사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부대주변에서 사는 나나이족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방식에 대한 견해를 내놓는가 하면 하바로프스크거리의 하숙집 러시아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그 관찰력과 묘사솜씨가 그럴 듯했습니다.

한번은 주보중이 운남성의 자기고향마을에서 성대하게 쇠군 한다는 닭싸움명절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음력 2월 8일만 되면 새옷단장을 하고 나와 제 집 수탉의 목에 붉은띠를 매여놓고 닭싸움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닭은 그 지방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지방의 선조들은 닭을 기르면서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닭을 믿고 가정을 추세운다는 말까지 전해온다고 하였습니다.

주보중은 국난을 타개하는데서는 닭따위를 믿을 수 없겠지만 수탉처럼 적수를

물리치는데서는 용감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주보중은 과묵하고 무뚝뚝한 인상을 주는 사나이였으나 인정미가 있고 의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덕은 덕으로 갚고 정에는 정으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반생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보중은 여러 해 동안 국제연합군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혁명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면서도 국제주의적 의무에 항상 충실하였습니다. 주보중이 만일 제것만 제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혁명임무를 외면하거나 세계혁명만세만 부르면서 자기나라 혁명을 방관시하였더라면 그는 시간을 내여 회고할 만한 인물로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보중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나는 주보중이 동북지방에 소부대들을 끊임없이 파견하여 유격운동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할 때마다 그가 중국인민의 참된 아들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주보중이 연합군 안의 각 민족부대들의 친선단결과 쏘련옹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가 참된 국제주의전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보중은 국제연합군의 대오관리와 살림살이도 잘하였습니다. 각이한 민족부대의 집합체인 국제연합군의 생활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훈련강령의 작성과 훈련지도, 인사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구락부건설을 비롯한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그가 관여하지 않은 일이란 별만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주자가 생겨 그를 괴롭힌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자동차사고가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된 초기에는 일부 쏘련군관들과 보조가 잘 맞지 않아 주보중이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쏘련군사당국의 엄한 요구가 쏘련군관들의 생활기풍을 일변시켰습니다.

주보중은 언제나 말보다 실천적 모범으로 대원들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북야영에서 낙하산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주보중은 훈련 첫날부터 대원들과 함께 락하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마트면 목숨을 잃을 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으나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보조산을 펴고서야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보중에게 그런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고했대야 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1년 봄에 운남성부녀연합회 주임을 하던 왕일지가 위문단으로 평양에 왔다가 최고사령부로 나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어려운 전쟁의 중하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것을 보니 기쁘다고 하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가 그때 나에게 ≪보중의 부탁입니다. 절대로 위험한 전선 길을 걷지 말고 신변안전에 최대로 주의해 달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주보중이 그런 부탁을 하네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일지에게 ≪돌아가면 주사령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하고 말했습니다.

왕일지는 ≪이건 보중의 부탁이자 내 부탁이지요. 우리 중국사람들이 지금 수상동지의 신변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

하면 주보중은 국제연합군시절에도 소부대활동을 나간 내가 예정된 날자에 돌아오지 않으면 온밤 자리에 눕지 못하고 문밖을 들락날락하면서 걱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이 승리하고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청산된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에 주보중과 헤어지시었다. 그러나 우리수령님과 주보중사이에는 그 이후에도 전투적 우의에 찬 교제와 왕래가 계속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 후 주보중과의 친분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고하시었다.

해방 후 나는 주보중을 몇 번 만났습니다. 두 번은 우리 나라에서 만났고 마지막 번은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주보중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온 것은 1946년 초봄이였습니다. 그를 남양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주보중은 동북민주연군 부총사령원 겸 길로군구 사령원으로 있으면서 국민당반동들과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장개석이 반공을 하면서 국민당군대를 총동원하여 해방지구에 달려드는 바람에 중국대륙은 또다시 국내전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어갔습니다. 주보중은 동북지방의 형세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적아의 역량대비와 군사정치정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쫓겨간 다음 만주땅은 얼마동안 정치적 공백지대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어느 편이 장악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개석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첨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당도 공산당도 만주를 중국전토장악을 위한 주요한 대결장으로 보았습니다.

국민당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함선과 비행기로 그리고 육로로 수십 만의 군대를 들이미는 통에 갓 조직된 동북지구의 민주연군은 우세한 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주보중이 나를 만나려고 한 것은 이런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하려는데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한때 조직부장을 하다가 중공중앙 동북국의 부서기로 임명된 진운을 평양에 보내어 우리의 지원을 청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주보중에게 중국의 전우들이 장차 동북에서 진행하게될 작전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들을 죄다 해결해주고 최대한의 지원을 줄데 대해 쾌히 약속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우리 나라의 형편은 남을 도와줄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건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동북땅이 장개석의 세상으로 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 당시 동북땅에서는 항일유격대출신의 우수한 군정간부들인 강건, 박락권, 최광을 비롯하여 약 25만 명에 달하는 조선청년들이 동북해방 전투에 직접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왕일지도 동북해방작전과 관련된 주보중의 부탁을 가지고 여러 번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처음 온 것이 1946년 여름이 아니면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소화가 이끄는 요동군구의 무력이 안산, 해성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안산, 해성 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군대의 한 부대가 반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변소식을 듣고 대경실색한 장개석은 반변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멸해치우겠다고 하면서 맹렬한 공세를 들이댔습니다. 반란부대는 그 공격에 밀려 조중국경연

안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이 막혀 더 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보중은 반변부대를 구원할 방도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들을 연방 우리 나라에 보냈습니다. 왕일지도 그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남에 왔다갔습니다. 그 후 우리는 반변부대가 우리 나라 영토를 거쳐 동부만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왕일지를 만난 것은 1947년 초였습니다.

왕일지는 주보중을 대신하여 동북해방작전을 여러 모로 도와준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부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2만 여명의 부사병들과 가족, 후방인원, 2만여톤의 전략물자를 안전한 곳으로 소개시키자면 아무래도 또 조선땅을 빌려야 할 것 같은데 김장군의 도움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일지는 전체 동북민중이 김장군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듭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왕일지에게 우리가 원동에서 헤어질 때 임춘추가 기념으로 준 시계를 그냥 가지고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왕일지는 웃으면서 쏘련사람에게 주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조중친선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차고다니겠다고 하던 그 시계를 어떻게 되어 쏘련사람에게 주었는지는 모를 일이였습니다.

사실 그 시계는 임춘추가 몹시 애용하던 시계였습니다. 우리가 훈련기지를 떠나던 날 주보중과 왕일지는 석별의 정을 이기지 못해 우리를 인차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춘추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어 왕일지에게 주었습니다.

왕일지는 처음에 그 시계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귀물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두라고, 앞으로 그 시계가 은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야 왕일지는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춘이 해방된 다음 방송국을 장악하고 방송을 맡아하면서 무기운반에도 종종 참가했는데 그 시계덕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왕일지의 말에 의하면 무기운반을 할 때 쏘련군의 한 자동차운수대가 자기네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시계는 바로 그 쏘련군 운수대장에게 기념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왕일지는 결국 그 시계는 중, 조, 쏘 세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우의의 상징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왕일지를 동북으로 인차 돌려보내지 않고 휴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선에 와있는 동안 모란봉을 비롯하여 평양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습니다.

왕일지는 그 후에도 전략물자운반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 왔습니다. 왕효명과 팽시로도 그 무렵 평양에 와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때 국제연합군 시절의 전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그 후 왕일지를 나에게 보낸 것이 아마도 1947년 여름이였던 것 같습니다. 동북민주연군이 50일 동안의 전투에서 8만 여명의 적을 살상하고 42개의 성, 진을 해방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전선형편은 여전히 긴장한 때였습니다. 민주연군측 장병들은 신발의 부족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맨발로 진흙탕과 자갈밭을 행군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일지가 나를 찾아온 것은 신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모든 신발공장들에서 다른 신발생산을 다 중지하고 중국의 전우들에게 보낼 신발만 생산할 때 대한 긴급지령을 내렸습니다.

동북해방작전과 관련한 중국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주체 36(1947)년의 첫 7개월 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동북민주연군측을 위해 21만 톤의 물자를 수송해주었고 그 이듬해 한 해 동안에는 30만 900톤의 물자를 수송해 주었다고 한다.

조선을 통과한 인원은 주체 35(1946)년 하반년에 18개 부대에 이르렀고 주체 36(1947)년 9개월동안에 조선에 들어왔다가 동북근거지로 간 인원은 1만 명 이상이나 된다. 주체 37(1948)년에 남양교두를 통과하여 근 9천명이 두만강을 건너갔고 신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의 적지 않은 민주당파, 무당파와 해외교포 대표들이 조선을 경유하여 하얼빈으로 갔다. 사업상 용무로 조선을 통과한 중국공산당 간부들의 수는 더욱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동북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된 직후인 1948년 가을에 주보중은 왕일지와 딸 주위를 데리고 길림성정부 주석 겸 동북군구 부사령원의 자격으로 다시금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의 방문은 동북해방작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우리에게 사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이 기차에 싣고온 많은 양의 밀가루는 바로 그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그때 주보중부부를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김책이 동행하면서 안내도 하고 말동무도 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보중부부는 금강산에 있는 온천휴양소에서 얼마동안 휴양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강산에서 돌아와 단풍경치에 감탄하며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보중부부는 평양에 돌아오자 김책과 함께 만경대도 방문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직접 주보중부부를 데리고 **김정숙**과 함께 안길의 묘도 찾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보중을 회고할 때면 조국해방 전쟁 2계단때 있은 일을 종종 돌이켜보군합니다. 우리가 일시적 후퇴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낯모를 청년 2명이 나를 찾아와 주보중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주보중이 동북해방작전을 지휘할 때부터 그의 부관과 운전수로 일하던 조선청년들인 현주영과 김길룡이였습니다. 주보중이 운남성 부성장으로 갈 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인데 인민군대가 후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조선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 보냈다는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은 편지에서 몸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선의 전호속에 있다고 하면서 똑똑하고 책임성이 높은 두 청년을 나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조국이 시련을 겪고 있던 때 주보중의 그 편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혁명동지들 사이의 우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간도와 북만에서 그리고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우리가 백설같이 순결한 감정을 가지고 나눈 전투적 우의와 우정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전우애란 생명력이 강한 사랑입니다. 전우애가 생명력이 강한 사랑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초연속에서 연마된 사랑이고 동지를 대신하여 불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리에 충실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의리로 하여 인간은 숭고한 존재로 되고 의리로 하여 인간생활은 백화만발한 화원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보중을 마지막으로 만나본 것은 1954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주보중은 그 때 고질병인 심장병이 도져 이화원 개수당에서 료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은래총리가 그를 베이징에 데려다 치료하도록 해주었다고 하였습니

다.

주보중은 나를 만나자 얼싸안고 눈굽을 적셨습니다. 그 무쇠같은 사나이가 그 날은 눈물을 자꾸 흘렸습니다. 병상에 매인 몸이여서 그런지 마음마저 몹시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내 안부부터 물으면서 전쟁 3년간에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는가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주보중은 병석에서도 쉬지 않고 저술활동을 하여 ≪동북항일유격전쟁과 항일연군≫이라는 큰 책도 남기였습니다. 이화원에서의 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1964년 2월 주보중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전에 조전을 보내던 날은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무실을 거닐며 주보중을 추억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에 나는 채세영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꽉 부둥켜안고 ≪로징≫, ≪로징≫하면서 꺼칠꺼칠한 볼로 내 볼을 막 비벼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나보다 스무살 가량이나 나이가 더 많은 채세영이 손우의 사람을 찾을 때처럼 ≪로≫자까지 붙여서 부르는 바람에 나는 이 **김일성**을 중늙은이로 만들 작정인가고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김사령은 자기를 공산주의자로 이끌어준 선배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고 하였습니다.

채사령의 본명이 채조승입니다. 일본군대가 만주땅을 먹기 전에는 화룡현 어디에선가 경찰서장을 했다고 합니다. 9.18사변이 터지자 그는 경찰들로 자그마한 무장대를 무어가지고 반만항일에 나섰습니다.

내가 채세영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왕청지방에서 구국군의 1개 부대를 지휘하던 1933년이였습니다. 오의성부대와의 합작을 성사시킨 후 채세영을 찾아갔지만 담판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채세영은 연공을 하였고 나중에는 공산주의자가 되어 나와 두터운 친교를 맺었습니다. 채세영이 하고는 동녕현성전투도 같이하고 나자구전투도 같이하였습니다.

그 후 북만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채세영은 동북항일연군 5군 군장으로까지 되었습니다. 2차로 북만땅에 원정을 갔을 때 우리는 채세영이네 부대와 연합작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채세영은 중선지휘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액목과 영안 일대에서 연합작전을 하였습니다.

채세영은 나를 혁명선배로 존대해주면서 내앞에서 늘 어깨를 낮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에게서 숭고한 인격미를 느꼈습니다.

나와 채세영은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다음에 1지대와 4지대를 각각 지휘하였습니다.

이제는 채세영도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채세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사상이 한인간을 어떻게 개조시켰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입니다.

채세영의 미망인 호진일이 아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동북항일연군 5군에 있다가 훈련기지에 왔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호진일이 아들과 함께 금수산의사당 홀에 들어설 때 나는 그 백발너머도 채세영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의 중국인 전우들 가운데는 동북항일연군 3로군 정치위원을 하던 풍중운도 있었습니다. 풍중운은 청화대학당지부 서기를 했으며 한때는 하얼빈에서 교원도 하였습니다. 혁명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는 북만성위와 산하 여러 현들에서 당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살이도 두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당사업과정에 범한 과오로 책벌을 받은 적도 있고 두차례나 총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풍중운은 동북항일유격운동과 쏘련과의 군사정치적 연대문제를 풀기 위하여 1939년 가을부터 1940년 2월까지의 기간에 쏘련에 가서 활동하였습니다. 1940년대 초에 열린 북만성위와 길동성위의 연석회의, 그 후에 있은 쏘련당국과의 회의를 마련하는데서도 그의 노력이 컸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에는 정치부 정보과장으로 있으면서 군관교육을 위한 정치과목 교원도 하였습니다.

풍중운은 원동의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오래전에 헤어진 처자들의 생사여부를 몰라 몹시 속을 썩이었습니다. 그가 처자 생각으로 잠 못들거나 우울해 할 때 동무들은 그에게 생사를 모르는 처자는 십중팔구 잘못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새 가정을 꾸리고 안착해서 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풍중운은 그때마다 일생을 홀아비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여자는 보지 않겠다고 딱 잘라대군 하였습니다. 다시 만날 가망은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한번 정한 안해를 변함없이 기다리며 사랑하는 거기에도 혁명가, 인간으로서의 그의 고결하고 강직한 풍모가 비껴있었습니다.


풍중운

밤에 여가가 생길 때면 산책을 하며 애인을 그리는 중국노래를 흥얼거리던 풍중운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방 후 풍중운은 그렇게도 그리던 안해를 만나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주보중처럼 깊은 존경과 감사의 정을 가지고 조선인민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영웅적 투쟁을 언제나 격찬하였습니다.

풍중운은 송강성인민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 ≪동북항일연군 14년 고투간사≫라는 책을 썼다. 그 책에 담겨진 일부 내용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항련 제2군의 전신은 동만유격대이다.…동만항일유격대는 원래는 연길, 왕청, 화룡, 훈춘의 4개의 반일유격대대로 나뉘여져 있었다. 간도지구의 주민은 조선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만유격대는 조선사람들이 주요골간으로 되고 있었다.

… 저명한 조선의 민족적 영웅 **김일성**장군의 영솔하에 안도, 임강, 장백, 압록강에 진출하여 … 형제군인 항연 제1군 양정우사령과 회합하였다.

… 또한 **김일성**장군의 영솔하에 조선조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여러 차례 조선본토의 북부지역에 깊숙이 진출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여기에서 일제침략자들과 수차에 걸치는 혈전을 벌였으며 또한 비밀리에 조선인민의 조국광복회 지하조직들을 조직하였다.

… 해방 후 조선국내 남여노소 모두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을 환영하였으며 민족적 영웅 **김일성**장군 만세를 열렬히 외치였다.≫

송강성인민정부 주석으로 있던 풍중운은 그 후 베이징도서관 관장, 수리전력부 부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수리전력부 부부장을 할 때 조중 양국간의 발전소공동이용문제 때문에 우리 나라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1958년 9월에 풍중운이 중국수리전력부대표단 단장으로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수풍발전소에서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발전소시설들을 돌아보고 언제우에 올라가 수풍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면서 압록강에 새로운 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하며 수력발전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데 대해 의논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풍중운은 그 후 문화대혁명 때 우파로 몰려 고생하다가 1968년 봄에 감옥에서 사

망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생일 80돌 때 풍중운의 부인 설문이 아들딸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풍중운이 그렇게도 그리던 부인이었습니다.


이민

항일전쟁시기 만주성위일군이었던 설문은 자그마한 키에 지성이 넘치는 용모를 가진 여인이였습니다.

설문의 말에 의하면 풍중운은 옥사한 때로부터 근 10년이 되는 1977년 말에 명예회복이 되어 베이징교외에 있는 팔보산열사릉에 안장되였다고 합니다.

풍중운의 가족일행이 눈물을 뿌리며 내 품에 안길 때 나도 흘러간 옛일을 추억하며 뜨거운 것을 삼켰습니다.

풍중운의 유가족들은 그 후에도 우리 나라를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풍중운의 맏딸 풍억라가 평양에 와있을 때 환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정일**동무가 그에게 환갑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와 풍중운사이에 맺어진 전투적 우의와 친분관계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의해 맥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 정치일군으로 활동한 장수전도 내가 가깝게 지낸 중국전우들중 한 사람입니다. 장수전은 북만에 있을 때 3로군 군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리조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는 풍중운과도 막역한 사이였지만 김책과도 허물없는 사이였습니다.

그의 풍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겸허성과 헌신성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와는 첫 대면에 벌써 친구로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동지들을 내세우고 힘든 일이 나서면 제몸을 내대군하는 그에게 나는 정이 푹 들었습니다.

국제당이 가지고 있던 유격부대지휘성원들에 대한 평정서에서는 장수전을 훌륭한 조직자로, 용감하고 정력적이며 창발성이 높은 유격대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덕

항일전쟁시기 그가 창작한 ≪로영의 노래≫를 북만유격대원들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다음 장수전은 중공 송강지구위원회 서기, 송강성 부성장 등 중임을 맡아가지고 정력적으로 활동하다가 하얼빈에서 국민당특무들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보중도 장수전도 풍중운도 다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1992년 4월 국제연합군 시절의 옛전우들이 나를 찾아와 나의 생일 80돌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진뢰와 그의 안해 이민 그리고 이재덕… 그들은 다 귀빈들이였습니다.

진뢰는 원래 동북항일연군 6군 군부선전과장도 하고 3연대 정치주임도 한 사람이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는 소대장을 하였고 해방 후에는 중공 흑룡강성위 서기, 흑룡강성장 등을 하였습니다. 그가 흑룡강성친선대표단을 이끌고 우리 나라에 온 것은 흑룡강성당고문위원회 주임을 할 때입니다.

진뢰는 생일 80돌을 맞는 나에게 ≪천추세 축 **김일성**동지 팔추대수≫라고 쓴 족자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내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 삼천리강산에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웠다고 하면서 내가 고려국과 더불어 천만년 장수하기를 축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뢰는 서예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였습니다.

이민은 항일전쟁때 부르던 가요 100곡을 묶은 혁명가요집을 선물하였습니다. 국

제연합군 시절에 그는 방송원을 하였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친근한 인방으로 살아온 조중 두 나라 인민들과 혁명가들은 항일대전의 그날부터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한 전호에서 피와 살과 뼈를 나누며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 고귀한 투쟁전통과 형제적 우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화원으로 활짝 꽃펴나게 될 것입니다.

주체 83(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갑자기 서거하시었다는 보도가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퍼져갔다. 이 청천벽력같은 부음앞에서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온 세계가 눈물을 뿌리며 그이의 서거를 슬퍼하였다.

진뢰와 리민은 우리수령님과 영결하기 위해 승용차로 하얼빈을 떠났다.

심양에 있는 우리 나라 총영사관으로부터 진뢰부부가 육로로 우리 나라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압록강교두에서 그들을 맞아 평양으로 안내하기 위한 대책을 친히 세워주시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마련한 승용차가 압록강을 건너온 진뢰부부를 태우고 신안주까지 왔을 때 거기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승용차가 그들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국제연합군시절의 지휘관 진뢰

하얼빈을 떠나 장장 2,500리를 밤낮으로 이틀 동안이나 달려오면서도 진뢰부부를 잠들지 못하게 한 것은 항일전쟁의 그날부터 그들의 뇌리에 깊이 찍혀진 우리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었다. 그들 부부가 위대한 수령님의 영전에 당도했을 때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랜 여로에서 구겨진 옷의 주름살을 펼 사이도 없이 우리수령님의 곁으로 달려온 그들 부부는 경애하는 주석동지, 당신의 전우 진뢰와 이민이 왔습니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뿌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추도대회 주석단 단상에서 진뢰부부를 만나주시었다.

주보중의 딸 주위는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지 못한 것을 일생의 한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주체84(1995)년 10월에 그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편지와 함께 자기가 손수 편집한 화첩을 올리었다. 그 화첩에는 주보중의 한 생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자료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영상을 수록한 사진문헌들도 여러 장 있었다.

주위가 조선방문의 소망을 이룬 것은 주체85(1996)년 여름이었다. 어린시절 원동의 훈련기지에서부터 고이 간직해온 우리수령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안고 숨가쁘게 평양으로 달려온 주위는 여장을 풀기 바쁘게 금수산기념궁전부터 찾았다.

≪**김일성**주석님!… 주위가 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뜨고 이 주위를 봐주실 수 없습니까. 주석님…≫

그는 입속말로 이렇게 뇌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었다. 주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조중친선을 빛내이는 한 떨기 꽃으로 더욱 싱싱하게 피어날 맹세가 불타올랐다.

8. 북만에서 온 투사들


최용건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한 후 하룬가 이틀인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길이 나에게 말하기를 멀지 않은 곳에 최용건이 와있는데 나를 몹시 만나보고 싶어하더라고 하면서 내가 도착한 것을 모르니 그렇지 않았으면 한 달음에 달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역시 최용건을 무척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김책, 강건, 허형식, 박길송이네들과 함께 이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전우들 중 한 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 간도지방에서 활동할 때 조직한 제2차 북만원정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김책과 최용건을 비롯한 북만일대의 조선인 전우들을 만나 그들의 투쟁을 도와주자는데 있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서 그때 그 목적은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용건도 우리한테 연락원을 네 번이나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연락원 중 한 사람은 돈화까지 왔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남만과 북만의 여러 지역에 널려서 활동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합작하고 협동하고 연대하려는 것은 우리모두의 공통된 염원이고 지향이였습니다.

최용건은 북만의 항일연군 건설에서 주동적 역할을 한 공로자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항일연군 4군과 7군은 그가 주역이 되어 건설한 부대였습니다. 최용건은 원동으로 들어오기 전에 군참모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나에게 최용건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해준 사람은 황포군관학교 졸업생인 박훈이였습니다.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훈련을 다그치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제일 큰 애로가 군사교관의 부족이였습니다. 유격대를 조직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대를 훈련시킬만한 군사전문가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차광수와 박훈은 마주앉기만 하면 어디서 군사전문가를 데려올 수 없을가 하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최용건도 화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박훈은 나에게 손중산이 서거한 후 국공합작이 깨지면서 황포군관학교에 있던 조선청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인물은 최추해이다, 그는 황포군관학교에 있을 때 훈련 교관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최추해란 최용건의 다른 이름이였습니다. 최용건은 최추해 외에

김지강과 최석천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용건이 하바로프스크에 와있다는 말에 그렇다면 기다릴 것 없이 우리가 먼저 찾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안길이를 앞세우고 숙소에 도착하자 최용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참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깨가 쩍 버그러진 무관형의 사나이였습니다.

≪만주에서 만나지 못한 **김**사령을 아라사에 와서야 만나는구만!≫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인사삼아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용건은 그런 말을 하고나서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는 **김**사령이 인차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와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맞게되어 미안하다고 거듭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평생 **김**사령과 함께 싸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이젠 헤어지지 맙시다.≫

최용건은 혁명의 길에 나선후 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최용건이 중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서는 미국인교장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이 일어났습니다. 최용건은 이 동맹휴학의 주모자였습니다. 미국인교장이 겁을 먹고 빽소니를 쳤지만 일본관헌들의 간섭으로 최용건을 비롯하여 투쟁을 조직지도한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퇴학당하였습니다.

최용건은 그 후 3.1인민봉기에도 참가하고 반일출판물발간사업에도 관여하였는데 그 때문에 형무소맛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서울에 가서 얼마간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상해임정의 공작원과 친교를 맺게 되어 그와 행동을 같이하기로 하였고 결국은 그가 잡아끄는대로 상해임시정부를 찾아 조국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상해까지 가기는 했지만 최용건은 임시정부의 실태를 보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 후 공산주의운동에 발을 들려놓은 그는 투쟁속에서 일정한 군사적 경험도 얻게 되었으나 조국을 떠날 때 품었던 국권수복의 뜻과는 달리 중국혁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청년들은 중국혁명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회상할 때마다 딴 나라 혁명을 하면서도 보람은 느꼈지만 어쩐지 변두리로 자꾸 밀려나는 것 같은 서글픈 심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때로는 중국혁명이자 조선혁명이고 조선혁명이자 중국혁명이라는 등식까지 세우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했지만 고국의 현실을 등지고 멀리로 달아나버리는 것만 같아 늘 죄스러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손중산이 연쏘, 연공, 부조공농을 제창하며 국공합작에 의거하여 북경정부를 전복하고 국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하였을 때 최용건은 그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북벌의 성공으로 국민혁명세력이 중국동북지방까지 장악하게 되면 조선독립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그가 바라는 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손중산이 서거하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괴하였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데서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살의 시기에 관내에서 장개석의 손에 희생된 조선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용건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의 선풍을 피해서 관내를 탈출하였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북만이었다고 합니다. 최용

건은 그때 자기가 간도로 가지 않고 북만으로 직행한 것은 항로미실과 같은 실책이었다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때 간도로 갔더라면 **김**사령도 더 일찍이 만나고 조선혁명을 위해서도 보탬이 될 수 있었겠는데 참 아쉽게 됐소. 일생일대의 회한입니다.≫

나는 그에게 나도 최용건과 같은 군사전문가와 일찍부터 손을 잡지 못한 것이 여간 아쉽지 않다, 김책이나 최용건과 같은 사람들이 동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선혁명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당신과 같은 골간들이 북만에 가서 항일의 불을 지폈기에 그 고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혁명화하고 항일연군운동도 발전시키지 않았는가, 군중을 혁명화해 놓으면 그것이 다 조선혁명을 위한 준비로 되고 밑천으로 된다, 그리고 중국혁명에도 이로운 일로 된다,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을 서로 분리시켜 고찰하지 말자, 중국 땅에서 혁명하는 이상 중국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 중국항일역량과의 공동전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북만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중국의 해방을 위한 일인 동시에 조선의 해방을 위한 일로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용건은 지난날의 생활에서 자기를 제일 괴롭힌 것이 고독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고독했는가고 하는 내 질문에 그는 적이 너무 강대하고 혁명의 전도가 너무 요원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다가 중국사람들속에서 살다나니 자연히 고독스러워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독감이 심하게 치밀 때면 백두산에서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보니 그가 나한테 연락원을 네 번이나 파견한 심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최용건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달받았을 때의 충격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그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받아 읽은 다음부터 조선혁명에 더 잘 이바지하려면 백두산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 부대와의 연계라도 강화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기에 나도 북만의 조선인전우들을 만나기 위해 1935년에 2차 북만원정을 조직하던 사연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나와 최용건은 동만과 북만에서 무장대오를 꾸리느라고 바삐 뛰어다니던 1930년대 초의 일들에 대해서도 화제에 올리였습니다.

최용건은 북만의 농민들속에 훈련소를 내오고 무장대오를 조직했지만 역량을 늘이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김**사령이 전민항쟁을 주장한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전민을 어떤 방법으로 항쟁에 동원시킬 생각인지 그 구상을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선민족의 대다수가 극한상태에서 민족의 재생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그들을 무장시키면 수십 만대군이 생기게 된다, 어떤 식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가, 일하면서 무장활동을 하는 반군사조직들을 도처에 내오자는 것이다, 공장지구에서는 노동자부대들이 나올 것이고 농촌에서는 농민부대가 나올 것이며 도시에서는 학생부대가 나올 것이다, 1930년대 후반기부터 북부조선일대에서는 벌써 생산유격대와 노동자돌격대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앞으로 그런 조직들을 전국각지에 다 내오자는 것이다, 누가 조직하는가,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골간들이 각 지방에 파견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최용건에게 이것은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니다, 세계대세는 지금 일본제국주의가 망하는 방향에로 번져지고 있다, 일본이 지금 중국과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조

만간에 더 큰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중일전선의 형편도 막막한데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곧 일본이 망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될 것이다, 몇 해 안으로 최후결전의 시각은 반드시 온다, 그런 시각이 오면 우리는 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작전에 배합하여 온 나라의 항쟁조직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전민항쟁의 방법으로 최후결전을 해야 한다, 이것이 조국해방작전에 대한 나의 구상이며 자력독립노선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최용건은 그 말을 듣고나서 자기의 민중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조국의 인민들을 구원의 대상으로만 보았지 해방작전의 담당자로는 보지 않았다, 혁명이란 선각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이 혁명의 동력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야 혁명을 하겠는가, 선각자들이 피를 흘려서 인민들에게 해방된 조국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 민중을 보는 나의 관점이었다, 그래서 대중혁명화를 위한 정치사업보다 군사일면에 치중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화제가 오가는 사이에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보이던 최용건이 이따금씩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최용건은 자기는 하바로프스크에 오면서도 쏘련과의 군사적 협조에 대해서만 관심했지 조선국내에서의 전민무장이나 조국해방작전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는 **김**사령을 만났으니 앞길이 환히 트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령, 솔직한 심정인데 나는 백두산에 가서 싸우고 싶었소, 백두산에 가야 나도 조선사람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소. 평대원을 해도 좋고 아무 것을 해도 좋으니 백두산에 가서 **김**사령의 부하로 싸우다가 백두산에 묻히고 싶은 것이 내 소원입니다.!≫

최용건은 눈물을 머금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남만, 동만, 북만에 흩어져 싸우던 조선의 혁명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으니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손을 더 굳게 잡고 조선을 위해 싸웁시다.≫

이것은 최용건의 숙소를 떠날 때 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최용건과의 상봉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한 말속에는 여러 해를 두고 품어온 숙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는 경우에도 제나라 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강렬한 염원이었으며 하나의 중심을 내세우고 그 두리에 집결하여 주체적으로 혁명을 해나가려는 확고한 지향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용건 한 사람만의 염원이나 지향이 아니였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만에 있건 동만에 있건 북만에 있건 모두가 다 그런 염원과 지향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용건이 백두산에 가서 싸우겠다고 그처럼 절절하게 말한 것은 우리에 대한 신임과 기대의 표시였으며 혁명을 해도 조선혁명을 하고 죽어도 조선을 위해 죽겠다는 애국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최용건이 품었던 소원가운데서 많은 몫은 그 후 국제연합군의 조직으로 하여 스스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나와 첫 상봉을 한 때로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백두산에 가서 함께 싸우고 싶다던 그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동에서 내가 만난 북만의 전우들 가운데는 강건도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되기 전에 나는 북야영에 갔다가 강건을 만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얼마나 반가와했던지 거기에 있던 2로군과 3로군의 군정간부

들이 다들 놀라와 하였습니다.

북만의 군정간부들 가운데서 나와 강건의 연고관계를 아는 사람은 주보중을 비롯해서 5군 출신의 몇몇 지휘관들뿐이였습니다.

나와 강건은 구면이였습니다. 나는 만주에 있을 때 몇 번 강건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번은 1차 북만원정 때였고 다른 한번은 2차 북만원정 때였습니다.

강건은 1938년부터 5군 제3사 9연대 정치위원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입대 후 얼마 안되어 연대급정치일군이 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건

우리가 소할바령회의에서 소부대활동방침을 채택한 후 5군에서도 부대개편을 하였습니다. 강건은 그때 제2로군 총지휘부 직속 경위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되였습니다. 그 경위대의 대장은 박락권이였습니다.

나는 북만으로 가고오는 통신원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강건의 소식을 묻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가 잘 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건은 5군에서 발전이 빠르고 전도가 촉망되는 군사적 재능을 소유한 지휘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대 후 2-3년 안팎에 인차 쟁쟁한 인물로 될 수 있은 것은 싸움을 잘한 데도 있었지만 인민을 지극히 사랑한 데도 있습니다.

인민들이 강건을 고지식하고 소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몹시 따랐다고 합니다. 그가 대오를 이끌고 주민부락들에 들어서면 인민들은 강정위가 왔다고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을 다투어 자식들을 부대에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만큼 강건이네 부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강건이 부대의 기강을 단단히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조직성과 규율성도 강했다고 합니다.

강건은 싸움도 본때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재능과 수완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은 소부대활동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강건은 매복습격과 열차전복전투를 특별히 잘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장교들만 실은 열차를 요정냈습니다. 그는 소부대활동시기 여러 차례의 열차전복전투와 철교, 도로, 군수창고에 대한 파괴전을 능숙하게 지휘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강건을 다시 만난 그날 우리는 아무르 강반에서 장시간 회포를 풀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조직된 때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나랑 강건이랑 살던 집을 그때는 도리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리집에서 국제연합군의 주요지휘관들이 살았습니다.

도리집이란 당시 시베리아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원통식으로 된 주택입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방들이 빙 둘러가며 배열된 집이였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여러 번 강건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고와 실천에서 틈이 없는 그는 말도 재미나게 하였습니다. 그를 메마르고 딱딱한 군사지휘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 강건을 잘 모르게 하는 말이였습니다. 강건은 냉철하고 고지식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인정미가 풍부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자기주장이나 견해에 치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였습니다. 그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아무 분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숨김없이 터놓군 하였습니다.

강건은 고향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라는 곳이였습니다. 그가 상주를 떠난 것은 10살 때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지

만 고향에 대한 표상이 아주 구체적이였고 그리움도 대단히 절절하였습니다.

그때 강건이한테서 상주가 술과 명주로 이름난 고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강건의 말에 의하면 상주에서는 감도 많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상주의 술과 감과 명주에 대해서, 낙동강과 속리산에 대해서 말할 때면 강건의 눈에서는 매번 물기가 번들거리였습니다. 겉보기에 메마르고 냉철해보이는 사람이 고향에 대한 화제를 꺼내기만 하면 시인들처럼 감정을 걷잡지 못하였고 평상시보다 말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고향에 남의 집 민며느리로 두고온 누이에 대해서도 아프게 회상하였습니다.


강상호

강건이처럼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혁명을 해도 열렬하게 합니다. 향토애가 강한 사람은 조국애도 강하고 조국애가 강한 사람은 혁명열도 높습니다.

나와 강건과의 교우는 국제연합군시절에 열렬한 동지적 사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내가 강건의 인간상에서 특별히 탄복한 것은 그의 남다른 군사적 안목과 높은 책임성이였습니다. 그는 해박한 군사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면 열을 내여 자기견해를 발표하군 했는데 그 주장이 독특하고 심도도 깊었습니다.

강건은 중국말도 잘했고 러어도 잘했습니다. 그가 러어공부를 시작한 것은 북야영에 들어온 다음부터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쏘련군관들과 간단한 회화도 하고 노문으로 된 쏘련군사규범책도 제힘으로 읽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에 대해서는 쏘련사람들도 중국사람들도 다 탄복하였습니다. 그는 한문약자도 자기식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강건의 발전을 두고 제일 기뻐한 사람은 김책이였습니다. 김책과 강건은 사제간이였습니다. 김책이 영안에서 활동할 때 사립학교에서 얼마동안 교편을 잡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건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신태는 사립학교시절에도 수재로 소문났지요. 그 시절에 벌써 ≪삼국연의≫를 뜬금으로 외우더라니까요.≫

김책이 늘 자랑삼아 하는 말이였습니다. 신태란 강건의 본명입니다.

김책과 강건은 사제간이지만 품성을 보면 쌍둥이 같은 사람들이였습니다. 김책은 생전에 대바르고 고지식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강건도 그만 못지않게 대바르고 고지식했습니다. 원칙성이나 전개력을 보아도 두 사람은 한 형타에서 찍어낸 것처럼 어슷비슷했습니다.

강건이 해방 후 총참모장을 할 때 그의 수하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혁명연조가 오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다 강건을 어렵게 대하였습니다. 그가 혁명적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건은 원칙앞에서는 상대가 누구이건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 상대가 가까운 혈육이라고 해도 원칙을 저버리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동무가 일군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강건의 충실성과 혁명적 원칙성을 따라배우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옳은 요구입니다. 강건은 후대들이 따라배울만한 재능있는 일군이며 매력있는 군사지휘관입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전사했으니

그렇지 살아있었더라면 무력건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강건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혁명에 깡그리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한평생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는 중국혁명을 돕느라고 조국에도 나오지 못하고 길동분구사령관으로 동북해방작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전봉서

강건은 동북해방작전을 할 때 조선사람들로 많은 부대를 꾸렸습니다. 동북해방작전에 참가한 조선사람의 수가 무려 2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일하는 과정에 그는 위탈까지 만났습니다. 조국에 돌아와 보안간부훈련소 2소 소장으로 사업할 때에도 강건은 위궤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식사를 제시간에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궤양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연회 때 강건이 술은 물론, 사이다도 못 마시게 하였습니다.

인민무력건설분야에서 강건이 쌓은 업적이 큽니다.

서울해방 전투와 대전해방 전투의 승리를 비롯하여 전쟁1계단 때 우리 인민부대가 거둔 전과속에는 강건의 공로도 크게 깃들어 있습니다.

인민군대가 낙동강계선에 진출한 후 강건은 나에게 전선형편을 보고하다가 며칠 후에는 고향 상주에 가서 누이와도 상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건의 그 말은 유언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1950년 9월 그는 고향이 멀지 않은 곳에서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강건은 재능있는 일군이였습니다. 그는 정치에도 군사에도 다 능하였습니다. 강건이 전사했을 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였습니다. 우리가 젊은 총참모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쏘련사람들도 부러워하였습니다. 강건이 그처럼 젊은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강건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그의 공로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제1중앙군관학교를 강건군관학교로 명명하였습니다. 공화국창건 20돐 때에는 사리원시에 강건의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강건을 잃은 것이 정말 아깝습니다. 나는 지금도 자주 강건을 생각하군 합니다.


김지명

동만출신 항일투사들이 원동의 훈련기지로 들어갈 때 한결같이 바란 것은 북만에서 투쟁하던 조선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였습니다. 북만사람들도 원동에 들어갈 때 같은 심정이였다고 합니다.

내가 북야영에 처음 갔을 때 북만에서 들어온 조선인대원들은 모두 병실 밖에 뛰쳐나와 나를 환영해주었습니다. 절대다수가 나와는 초면이였습니다. 북야영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북만출신의 조선인투사들은 동만사람들을 고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북만이나 동만이나 다같이 만주땅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북만보다야 동만이 조선과는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조선사람들이 개척한 동만땅이고 조선사람들이 개척한 동만혁명이니 다들 그 고장을 고국의 한 부분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였습니다.

내가 북야영에 처음으로 갔을 때 제일 유표하게 보인 사람은 콧수염을 기른 김룡화였습니다. 그 콧수염이 아주 인상적이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스개대장인 최용진이였습니다. 그도 역시 콧수염을 길렀습니다. 그가 한발앞에 나서서 동료들을 한 사람한 사람 소개해주었는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어찌나 덜렁거리는지 초면이라는 느낌을 조금도 가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강상호는 기억력이 비상하다, 김룡화와 김대홍은 명사수이다, 장상룡, 김지명, 전봉서는 엉치가 가볍고 달구지바퀴처럼 부지런하다, 김증동은 눈썰미가 빠르다, 유응삼은 실농군이다라는 식으로 개개의 특징을 단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군 하였습니다. 훗날 지내보니 그때의 그 소개가 다 정확하였습니다.


최용진

강상호는 머리가 명석했고 김룡화와 김대홍은 한다하는 명사수들이었으며 장상룡이나 김지명이나 전봉서, 박우섭, 김양춘과 같은 사람들은 다 무슨 일거리를 맡기면 묵여두지 않고 가분가분 해치우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가들이었습니다. 장상룡은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나와 김책 사이에서 심부름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유응삼은 농사물계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북만에 있을 때도 유격구농사를 주관했지만 북야영에서도 부업지의 일이라면 이것저것 다 참견하였습니다. 한때 그는 인민무력부에서 부업부장으로 사업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최민철이와 이종산이도 만나보았습니다. 이종산은 북만사람들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어린 대원이었습니다. 그가 비상소집을 알리는 총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던 일을 최용진이 상기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습니다.

북만에서 온 여대원들은 대체로 성격이 개방적이었습니다. 북만에서는 무연한 평원이 많습니다. 사람이 넓은 고장에서 살면 성미도 호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도 잘 탔습니다.

북만의 여대원들 가운데서 무전을 제일 잘 친 동무는 박경숙과 박경옥이고 기마술이 제일 높은 동무는 왕옥환이었습니다. 이정숙도 말을 잘 탄다고 하였습니다. 허창숙, 전순희, 항지숙은 한다하는 재봉대출신들이었습니다. 이계향은 사격명수였습니다.

최용진은 동료들을 소개할 때마다 한 마디씩 특특 희떠운 소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얼굴에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군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최용진이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서간도 시절에도 더러 들은 바가 있지만 정작 만나고보니 그는 소문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용진이 유명한 싸움군이고 배짱군이라는 것은 주력부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싸움군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은 발동선을 타고 시찰하는 일본군토벌대고위장교와 그 수원들을 몰살시키는 싸움에서 용맹을 발휘한 때부터입니다.

최용진은 혁명적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북만에서 연대장인가 중대장을 할 때 부대의 식량을 해결하려고 자위단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최용진의 아버지는 원래 무장을 들고 독립군에서 싸우던 반일독립운동자였습니다. 독립군운동이 흐지부지된 후 그가 총을 놓고 은퇴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자 적들은 조선사람들을 분열이간시키는데 써먹으려고 그를 자위단에 강제적으로 밀

어 넣었습니다.

최용진이 지금 부대가 식량고생을 하고 있는데 쌀을 좀 달라고 하자 그의 아버지는 너에게 줄 쌀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딱 잡아떼였습니다.


박경옥

사실 최용진이네 집에는 땅마지기도 좀 있었고 쌀도 넉넉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 조반석죽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최용진 쌀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다른 자위단원들앞에서 유격대와 내통 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최용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개하였습니다. 그는 독립군을 했다 신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아버지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하지 않겠는가, 항일유격대원들은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긴 나 해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풍찬노숙하면 다, 조국광복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유격대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르고 민족도 모르는 역적이다, 쌀을 주지 않으면 가만놔두지 않겠다고 하 다.

아들의 말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튼 최용진의 아버지는 그에게 쌀을 열다섯 달구지나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식량과 무기를 구입하여 유격대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자위단의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을 들고 독립군을 따라다니던 왕년의 그 애국심과 절개를 버리지 않고 원군운동을 꾸준하게 벌려나갔습니다.

그 후 일본놈들은 그를 학살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에 최용진은 우리 지대에서 중대장을 하였습니다. 최용진중대라면 쏘련사람들도 탄복하였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1중대가 모든 면에서 앞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구성이 높고 승벽이 강하고 일욕심이 많은 지휘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허창숙

최용진은 해방 후 평양을 보위하는 책임적인 위치에서 간첩암해분자들과의 투쟁도 잘하였고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정규무력의 골간을 키워내는 사업도 성실히 하였습니다. 그가 수산상을 할 때에는 고기도 많이 잡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부수상도 하였습니다.

나는 훈련기지에서 우리가 북만에 파견했던 투사들과도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최광, 김경석, 전창철, 박락권, 김옥순, 안정숙과 같은 투사들은 다 우리가 동만에서 활동할 때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최광은 나를 만나자 이게 몇 해만인가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 울고나서는 ≪장군님, 나는 북만에 있으면서도 늘 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쪽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등을 떠밀며 쫓아내도 다른 부대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그는 소대장을 하였습니다.

내가 최광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그가 아동국장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동단연예대를 데리고 나한테 와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1차 북만원정을 떠날 무렵에는 아동국장사업을 그만두고 청년의용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광은 총을 쏘면 총알이 깍지채로 나가는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입대하자마자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조묘태에서 전투가 붙었을 때 그가 나를 호위한다고 하면서 소대를 데리고 요영

구 서쪽산에 와서 밤을 새우던 생각이 납니다. 그 후 최광은 노흑산전투에도 참가했습니다. 원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보중이네 5군 지휘부에서 경위대 소대장을 하였습니다. 주보중이 최광을 몹시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보중은 동북에서의 대일작전에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할 때 우리에게 선참으로 강건, 최광, 박락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계향

강건은 동북에 가서 분구사령관을 하고 최광, 박락권, 남창수는 각각 연대장을 하였습니다.

최광이네 연대의 활동구역은 왕청현일대였습니다. 그들은 만주국시절에 일본사람이 저축해둔 고량미를 먹으면서 부대도 꾸리고 전투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최광이네가 조직하는 군대가 너무 많다고 자꾸 시비하였습니다. 현에는 군대를 200명밖에 둘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광은 현소재지가 아닌 농촌들에 나가 군대초모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동무들이 조직한 무장대오가 그 후 동북해방작전은 물론, 우리 나라 군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최광이네 부대는 돈화쪽에 가서도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조직도 내오고 군중조직들도 꾸리였습니다.

우리가 최광을 조국으로 소환한 것은 1946년 초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조국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최광은 부대를 인계한 다음 200명 가량의 선발된 인원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평양에 도착하던 날은 김책과 무정이 역에 나가 마중하였습니다. 그날 **김정숙**은 최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성의를 다하여 밥상을 차리였습니다.

최광은 조국에 돌아온 후 보안간부훈련소 1소 참모장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조선인민군 1사 사단장으로 조국해방 전쟁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나라 군건설을 위해 세운 공적이 컸습니다.


최광

최광은 인간으로서도 성실했고 군사가로서도 성실하였습니다. ≪푸에블로≫호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세가 긴장하다고 하면서 1년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침식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사람입니다. 혁명을 하는 과정에 곡절도 겪고 고민도 하였지만 절대로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광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무관들 중 한 사람입니다.

김정일동무도 그를 몹시 신임하고 사랑하고 내세워 주고 있습니다. 그가 최광을 얼마나 신임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후 70고령의 그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임명한 사실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원동의 훈련기지로 들어갈 때 박길송과 허형식이도 꼭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그들과의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북만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허형식은 주하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입니다.

김책이 허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북만출신의 투사들치고 허형식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책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허형식이 강남으로 동기행군을 할 때 스스로 책벌근무를 섰다는 사연이였습니다. 그 행군이 보통 행군이 아니였다고 합니다.

허형식은 대원들의 피로를 덜어주려고 지휘관들도 보초를 서게 하고 자기자신도 보초를 섰습니다. 시계가 없는 때여서 향대에 불을 붙여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향대 한 가치가 다타면 교대시간이 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허형식

어느날 밤 허형식은 문전보초를 서다가 실수하여 교대시간을 어기였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대원들앞에서 자기비판을 하고 밤이 되자 스스로 책벌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참모장이 책벌근무까지 서는 것을 본 한 대원이 너무나 민망스러워 향대를 절반가량 꺾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형식은 그 대원에게 자기 지휘관을 생각하는 동무의 심정에 대해서는 나도 고맙게 여긴다, 그러나 동무는 중요한 것을 놓치였다, 혁명대오내에는 두 가지 규율이 있을 수 없다, 한번 정한 질서는 누구나 꼭같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대오안에 규율이 서는 것이다, 동무도 나도 오늘밤 다시 책벌근무를 서면서 제가끔 자기를 돌이켜보자 하고는 그날밤 또다시 책벌근무를 섰다고 합니다.

허형식은 훈련기지에 빨리 들어오라고 김책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도 계획했던 작전을 마무리하려고 하루하루 날자를 미루다가 그만 훈련기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투에서 희생되였습니다.

그 어떤 군사작전의 성공도 허형식과 같은 큰 지휘관 한 사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없였습니다.

허형식의 희생은 조국해방작전을 설계하고 있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까운 손실로 되였습니다.

박길송은 왕청에서 활동하다가 북만에 가서 지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오중화의 영향으로 어린나이에 추수, 춘황 투쟁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박길송의 아버지 박덕심은 소작농사를 하면서 배사공노릇도 하였습니다. 내가 그 노인을 잘 압니다. 인민들이 우리 부대에 보내는 원군물자를 그 노인이 배로 여러 번 실어다주었습니다.

박길송은 아동국장을 할 때 내 방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차 친숙해졌습니다. 그는 일욕심이 대단한 청년이였습니다. 아동국장사업만으로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늘 참군할 기회만을 노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차 북만원정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나는 입대청원을 부결하고 그를 나자구에 공작원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나자구에는 왕청, 훈춘 일대의 유격구들에서 살던 혁명군중이 집결되어있었습니다. 그 군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임자가 박길송이였습니다. 그는 군중공작의 능수였습니다.

그 후 통신원들을 통해 박길송의 소식을 몇 번 들었습니다.

박길송이 북만으로 들어간 것은 나자구일대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다가 병보석으로 놓여나온 다음 우리 부대를 찾아간다고 하면서 나자구를 탈출하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옥중투쟁을 잘하였습니다.

박길송은 노야령을 넘을 때부터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숱한 고생을 하였습니

다. 그러다가 영안현 소래지팡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던 부대에 입대하였다고 합니다.

박길송은 20대에 벌써 지대장의 중책을 지니였습니다. 그는 공청생활에서도 모범이였습니다. 박길송이 지대장을 하던 시절에 이종산이 그의 연락병을 하였습니다.

박길송지대는 싸움을 잘하는 부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박길송이네 지대에는 기마대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 기마대를 몹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박길송은 계획했던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원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아쉽게도 희생되었습니다.


박길송

이종산이 무전으로 그 소식을 잡아가지고 나한테로 뛰어왔습니다. 박길송은 행군도중 적들과 격전을 벌이다가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를 적들이 끌고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동으로 들어오라고 연락하였을 때 제때에 들어왔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자구에서 살던 박길송의 아버지를 평양에 데려다가 살게 했을 때 최광과 김옥순은 자기네 집에 박덕심노인을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속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이 이 사실을 알고 소부대활동 시기의 연고를 보더라도 박덕심아바이는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습니다.

두쪽 다 자기네가 맡아 부양해야 한다고 하다보니 그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김일은 나에게 결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혁명의 1세들이 지닌 고상한 인간성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김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길송의 아버지가 어찌 김일이나 최광이나 김옥순이만의 아버지이겠는가, 그 노인은 우리모두의 아버지이고 우리모두는 그 노인의 아들딸들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박길송이 되어 노인을 모시자.

우리는 박덕심노인이 그 당시 상, 부상들이 살던 보통강기슭의 좋은 주택에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북만의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국제연합군의 별동대로 쏘련군대와의 공동정찰에 동원된 북만출신 투사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사격명수이고 정찰공작도 잘하였습니다. 조국해방작전때에는 제1선에서 싸웠습니다.

국제연합군에 망라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전에 남만이나 동만, 북만에서 각각 싸웠지만 서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하여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힘있게 추진시켜나갔습니다. 노야령이 동남만과 북만을 가르는 경계선으로는 되고 있지만 그 노야령이라는 산고개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심장에까지 금을 그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백두산에 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옥순

백두산에 가서 싸우겠다는 한결같은 염원은 그대로 우리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되었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9. 혁명의 뿌리를 가꾸며



백두산해돋이

혁명이란 투쟁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에는 투쟁도 있고 생활도 있습니다. 투쟁과 생활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투쟁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여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혁명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난신고속에서도 공산주의자들만이 설계할 수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도덕의리의 이상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들은 투쟁속에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투사들의 생활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더욱 풍만한 발전의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바야흐로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줄달음치던 1940년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것은 혁명의 2세들이 태어난 사실이였습니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은 우리 일가로 볼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열한 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래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주었습니다.

나는 **김정일**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장손, 장손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끔찍이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두벌 자식이 더 곱다고도 하는데 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김정일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고향에 계시다나니 증손자의 출생을 알리는 소식마저 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린시절에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대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한 사람처럼 나를 가문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극진하게 돌보아주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의 사랑도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는 집안 자손이니 더 살뜰하게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백두밀영과 원동의 훈련기지에는 인가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소도 없고 번지도 없는 귀틀집과 천막에서, 때로는 빙설로 덮인 노천에서 청춘시절을 보냈습니다.

김정일의 유년시절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집안어른들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나의 전우들한테서 받았습니다. **김정일**은 내 사랑보다도 빨치산대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나의 동무들은 백두산에서 또 한 사람의 장군감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김책은 유년시절의 **김정일**을 늘 어린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세대가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나 백두산의 이깔처럼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되였으며 천백 배의 힘과 용기와 투지를 가다듬고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 억세게 싸워나가게 되였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을 공동의 경사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심없이 보살펴주는 전우들의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 나는 우리 일가를 위해 바치는 그들의 사랑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전에도 말한 것이지만 나는 한평생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올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동지들과 인민들의 덕분입니다.

나는 열다섯 살 때 어머니의 슬하를 떠난 이후로는 줄곧 인민들과 동지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항일 혁명의 나날이나, 새 조국 건설의 나날이나, 조국해방 전쟁의 나날이나 동지들은 나를 시종일관 성실하게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방패가 되어 총알도 막아주고 눈비도 막아주고 병마도 막아주었습니다. 내가 마음고생을 할 때도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도 힘이 진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먼저 동지들과 인민들로부터 찾군 했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캄캄하던 앞길도 트이였으며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심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제 동무들한테 원동의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제연합군을 조직하고 우리가 북야영에 집결했던 그 해 겨울 만주와 원동 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어찌나 많이 내렸던지 산짐승들까지 먹을 것을 찾아 민가에 내려오는 판이였습니다. 무릎을 치는 눈 때문에 거리로는 얼마동안 자동차도 다니지 못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귀틀집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김일이 무거운 쌀자루를 메고 기지에 돌아와 **김정숙**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빵이 주식으로 되어있는 그곳 형편을 생각해서 쌀을 좀 구해왔는데 다른데 쓰지 말고 사령관에게 꼭 밥을 대접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김일이 나를 위해 쌀자루를 메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는 만날 통강냉이만 먹으면서도 나한테만은 어떻게 하나 쌀밥을 마련해 주려고 항상 마음을 썼습니다.



김일

유경수도 후방부에서 쌀을 조금씩 공급해주면 **김정숙**이한테 맡기고 가면서 소문을 내지 말고 나한테 밥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나와 전우들사이에 오고간 혁명적 동지애와 공산주의적 도덕의리는 **김정일**이 태어난 후부터 **김정숙**과 **김정일**에 대한 도덕의리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김정일이 갓 태어나자 **김정숙**은 그에게 나와 자기 군복을 줄여서 지은 옷을 입히었습니다.

훈련기지에 있을 때도 형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쏘련사람들도 전쟁을 치르느라고 배불리 먹지 못하였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수수하게 입고 다니자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여대원들이 자투리 천들을 모아다가 그에게 쪽무이포단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김정일은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그 쪽무이포단을 덮고 지냈습니다.

나의 전우들은 자기 사령관의 아들이 쪽무이포단을 덮고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을 몹시 가슴아프게 여기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던지 해방 후 임춘추는 중국 동북지방에 가서 사업하다가 휴가차로 조국에 나올 때 모포 500장을 사다가 나와 **김정숙**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모포를 모두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생활형편이 몹시 어려운 때였지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온갖 지성을 다하여 **김정숙**과 **김정일**을 돌보아주었습니다.

김정일은 어려서부터 군대를 몹시 따르고 군인들의 세계를 동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우들은 **김정일**이만 만나면 그의 머리에 군모부터 씌워주군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김정일**에게 선물하려고 적구공작을 하면서도 나무권총을 깎았습니다.

백두밀영과 달리 원동에 있을 때는 우리 집과 부대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여가나 휴식일이 되면 많은 대원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김정일**을 안고돌면서 걸음마도 떼주고 목마도 태워주고 노래도 배워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르강변에 데리고나가 발동선이 지나가는 광경도 구경시키고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빨치산의 아들로 태어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가 남다른 것이였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 수 있은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한 것도 빨치산의 물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빨치산들이 지니고 있던 고결한 감정정서는 풍만한 자양이

되어 그의 넋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뫼부리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습니다.

김정숙과 **김정일**을 돕는데서는 남대원들도 짝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대원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김정숙**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습니다.

백두밀영도 그렇지만 원동의 훈련기지라고 해야 영양제가 될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사람이 다 허리띠를 조이며 어렵게 사는 때여서 돕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사실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임춘추랑 많은 동무들이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빵을 조금씩 아껴두었다가 **김정숙**이한테 가져다 주군 했습니다. 쏘독전선을 지원하느라고 누구나 다 배를 곯던 때였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빵을 모아주었습니다.



임춘추

김정숙은 전우들이 가져온 빵중에서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간수해두었다가 그들에게 도로 돌려주군 하였습니다.

언제인가 임춘추가 무전기를 메고 만주에 소부대공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령부와 무전연계를 가지면서 몇 달 동안 정치공작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였는데 기지로 들어올 때에는 적구에서 닭알까지 수십 알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소부대공작지에서 우리 훈련기지라는데가 거리가 먼데다가 거기로 오가는 길이 평탄한 대통로도 아니고 총검이 숲을 이룬 사지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한 몸 건사도 하기 어려운 사지판으로 등에 무전기를 짊어진 사람이 닭알짐까지 들고오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임춘추가 그 닭알보따리를 들고 우리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김정숙**과 **김정일**을 위하는 그의 고결한 진정에 감복하였습니다.

사실 임춘추와 **김정숙**은 서로 오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부암동에서 야학에 다닐 때 임춘추는 곽지산과 함께 강사로 출연하였습니다.

임춘추는 병고로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많이주었습니다. **김정숙**의 가족도 임춘추한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언제인가 **김정숙**이 병에 걸렸을 때 그를 구완해준 사람도 임춘추였다고 합니다.

임춘추는 국제연합군시절만이 아니라 한 생을 나와 **김정숙**과 **김정일**을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임춘추는 **김정숙**의 일가친척들을 찾아주기 위해서도 여러 모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후대들에게 **김정숙**, 김철주, 김기송의 생애와 투쟁업적을 소개선전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 여러 해 동안 자료작업을 한데 기초하여 그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썼습니다.

임춘추는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우면서 지식으로써 우리 사업을 보좌한 대표적인 인텔리입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역사기록과 저술활동을 하였습니다.

임춘추가 역사가로서의 첫걸음을 뗀 것은 연길현 조양천에서 당 및 공청간부들과 내가 한 담화를 기록으로 남긴 때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종군역사가로서 남호두회의와 남패자회의, 소할바령회의를 비롯한 주요회의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충실하게 회의기록을 하였습니다.

임춘추는 국제당이 관계하는 출판물들에도 여러 건의 글을 써보냈습니다.

어느 해 였던지 잡지 ≪태평양≫이 그 잡지 특파원과 임춘추의 회견기를 실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회견기를 보고 임춘추가 특파원에게 우리 부대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전투전에 잘 세운 계획과 오묘한 전술과 신속정확성, 용감성으로 하여 실패를 모른다고 하였으며 우리 대오가 독자성이 강하고 문화적이며 낙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잡지특파원은 그 회견기에서 임춘추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과에 대한 글과 아동단원 김금순의 영웅적 최후에 대한 글을 써보낸 사실까지도 다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임춘추는 늘 전우들에게 대내출판물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제당에 보내는 보고서나 문건을 작성하는 것도 좋고 혁명군의 전과자료를 종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김**사령의 투쟁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다, 내 비록 필치가 무디고 지성도 천박하지만 **김일성**동지의 전기를 써서 후세에 길이 전하겠다고 말하군 했습니다.

우리 빨치산대원들 중에 무장을 가지고 혁명위업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임춘추와 같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빨치산의 역사를 자발적으로 수록해서 후세에 남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임춘추는 당사업을 많이 한 노숙한 정치일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일군으로서의 임춘추보다 문필가, 역사가로서의 임춘추를 더 내세우게 되는 것은 그가 우리의 혁명역사를 정립하는데서 해놓은 일이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는 커다란 공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임춘추는 풍부한 사료를 가지고 우리의 혁명역사를 종합체계화하고 깊이 있게 고증한 사람입니다.

그가 항일무장투쟁에 대하여 이렇게 고증하게 된 것은 그때 일기를 계속 썼기 때문입니다.

임춘추와 같은 문필가, 역사가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료들을 정리해두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활동역사 중에서 많은 것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파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임춘추는 우리의 혁명역사를 정립하는데서 뿐 아니라 그것을 소개선전하는데서도 많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해방 직후에 평남도당에서 당사업을 하던 그는 조기천, 정관철을 비롯한 여러 문화인들에게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우리의 항일빨치산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임춘추는 혁명전통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도서들과 수많은 회상실기들을 집필완성하여 우리 당 역사문헌고를 풍부히 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역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빛내이는 일이라면 그 어떤 장애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임춘추는 내가 발표한 논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가지고 국제련합군 시절에 정치강의에 출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일부 지휘관들이 우리의 논문을 강의안에 포함시키겠는가고 하면서 좀 고려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춘추는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김일성**사령관을 조선민족의 지도자로, 수령으로 모셔오고 있다, 자기 수령의 노작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은가고 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임춘추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왼심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는 연대당서기를 할 때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라고 하면서 나에게 통지해준 일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내가 배낭을 절대로 메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임춘추를 불러 동무는 혁명연조가 오랜 사람인데 어떻게 회의에서 그런 문제까지 다 토의하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사령관이 배낭을 지고 다니는걸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대중의 의사이니 받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춘추는 어떻게 되어 임춘추가 그처럼 자기 수령과 영도자를 열렬히 경모하고 그 영도에 충실한 혁명가로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김혁, 차광수나 김책과 마찬가지로 종파의 해독성을 잘 알고 실지체험을 통하여 수령이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에 사무치게 통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동무는 임춘추를 혁명의 1세로 내세우고 존대하였습니다. 임춘추에 대한 그의 사랑과 배려는 참으로 극진하였습니다.

임춘추가 외국에서 대사로 있다가 원칙을 지켜 그 나라 당국자들과 되게 다투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당안에 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외교관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면서 조직문제까지 보아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동무만은 임춘추가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잘 싸워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에게 우리 집 정원에서 딴 막물복숭아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는 임춘추가 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함께 싸운 수많은 혁명열사들의 투쟁을 고증하여 우리 당의 역사적 재보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외교대표로 사업하는 동안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도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를 완성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우리의 투쟁역사,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역사로 정식화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 수고를 치하해 주었습니다.

임춘추가 저술활동을 하면서 **김정일**동무의 지도와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그의 인간적 매력에 탄복하였으며 그를 스승으로, 영도자로 따르고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춘추는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김정일**동무에게 보고하고 그의 결론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그의 위대성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강연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임춘추가 저술활동에 전념하던 1960년대 후반기 국제공산주의운동무대에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 특히 후계자문제가 논의의 초점으로,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후계자를 올바로 선정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 나라와 인민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입니다. 후계자를 잘못 내세운 탓으로 혁명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실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월 혁명 후 쏘련인민이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본요인은 레닌이 후계자를 잘 골랐기 때문입니다. 레닌의 충실한 전우이며 제자인 스탈린은 한 평생 자기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였습니다.

레닌이 서거한 다음 스탈린은 그의 영구앞에서 6개 조항의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과정에 그 결의들을 다 실천에 옮기였습니다.

스탈린은 독일군대가 모스크바 코앞에까지 들어왔을 때에도 다른 정치국위원들과 간부들은 소개지로 보내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냥 크레믈린에 틀고앉아 전선지휘를 하였습니다.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는 쏘련에서 만사가 다 잘돼나갔습니다. 그런데 흐루시쵸프가 집권한 다음부터 일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쏘련당안에서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고 쏘련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흐루시쵸프는 자기를 길러준 수령의 은덕도 다 잊어버리고 개인미신에다 걸면서 스탈린을 헐뜯었으며 스탈린에게 충실한 노혁명가들도 모조리 정치국에서 쫓아내

고 당대열에서까지 추방해버리였습니다.

그 후 언제인가 임춘추는 모스크바붉은광장에서 레닌묘를 참관하다가 우연히 심각한 몰로토프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몰로토프는 그때 임춘추에게 당신들은 쏘련당의 전례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수정주의를 하지 말고 자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충실하게 계승해 나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임춘추는 그때 후계자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도 망치고 혁명도 망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역사의 쓰라린 교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후계자의 표정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수령과 수령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이며 도덕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도덕의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 이것은 후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첫째가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질과 영도풍모를 지닌 실력가만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빛내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령의 사상체계와 영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김정일**동무가 발휘한 비범한 수완과 혁명적 원칙성, 수령의 노선과 구상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정력, 고결한 충성심과 효성에 경탄하였으며 **김정일**동무야말로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향도하고 완성해나갈 수 있는 영도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그를 존경하고 받들어왔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받드는데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앞장에서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그가 당과 국가, 군대를 영도해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했다는 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령수로 내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 최현, 오진우와 함께 임춘추는 **김정일**동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추대하는데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나의 후계자로 한사코 추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이 늘 **김정일**동무처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 임춘추는 **김정일**동무처럼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혁명전통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은 없고 **김정일**동무와 같은 위대한 사상의 대가, 영도의 대가가 없다고 하였으며 오진우는 **김정일**동무처럼 무비의 담력과 뛰어난 지략을 소유한 영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현과 이종산은 종종 **김정일**동무처럼 인정미가 풍부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김정숙**, **김정일**을 돕는 데서는 이을설이도 역사가 깊은 사람입니다.

해방 후 그가 부관으로 일할 때 아침일찍 일어나서는 경비상태를 돌아보고 우리 집 부엌에서 **김정일**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을설은 어린 **김정일**과 친밀한 사이었습니다.

내가 현지지도를 나갈 때마다 이을설은 **김정일**을 곁에 앉히고 다니였습니다. 그는 **김정일**을 언제나 잘 이해해주고 보살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전쟁 때 신의주에서 **김정일**을 만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소개지에 가있다가 오래간만에 내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부관장으로 나를 따라간 이을설에게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군님을 잘 돌봐달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합니다.

김정일동무가 왜 지금도 이을설을 믿고 고맙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이을설이 부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따뜻이 돌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부모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겪다나니 그는 어린 동생과 함께 얼마동안 나와도 헤어져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경제를 복구하느라고 내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나니 그들 남매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린시절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을 때 부모와 친척들을 대신하여 그를 육친의 정으로 세심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이을설과 같은 나의 전우들이였습니다.


이을설

이을설이 어린시절의 **김정일**을 얼마나 위해주고 보살펴주었는가 하는 한 가지 실례를 말해주겠습니다.

1953년 여름에 내가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쏘련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방문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를 떠날 때 쏘련측에서는 환송연회를 차리였는데 그 연회상에 오른 수박맛이 특이하였습니다.

연회가 끝난 다음 숙소에 가니 지함을 포함하고 있던 이을설이 나를 보자 몹시 당황해하였습니다. 무슨 지함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좀 주저하는 눈치를 보이다가 자제분들 생각이 나서 수박 한 개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지함안의 수박은 물동이만큼이나 큰 것이였습니다.

김정일은 그때 그 수박을 받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인민들에게도 이런 수박을 맛보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씨를 받아 수박농사를 지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김정일**과 함께 받은 수박씨로 이을설은 이듬해부터 우리 집 정원에서 수박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박이 새끼를 쳐서 많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이을설은 어려서 부모의 슬하를 떠난 한 생을 내곁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동안 경위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도 싸우고 대국주의자들과도 싸우고 반동들과도 싸우고 종파들과도 싸우다나니 쓴맛, 단맛도 다 보고 산전수전도 다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무서운 배짱군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바로프스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인차 박영순과 이을설을 워로쉴로브에 있는 무전강습소에 보내면서 강습을 마치고 곧추 부대에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부대를 데리고 백두산동북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을설은 무전강습을 마치고 부대를 돌아올 차비를 하였습니다.

이을설이 무전강습총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날 쏘련군대의 한 고위간부가 국제당의 요구라고 하면서 그더러 조선으로 나갈 차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을설은 조선으로 나가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쏘련의 군사일군은 당신이 믿음직해서 그런다, 우리가 전략상으로 중시하는 성진이 당신의 고향이니 거기에 가 배겨있으면서 적들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우리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을설은 고향에 가서 공작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사령관동지한테서 강습이 끝난 다음 부대에 돌아와 무전교관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 이해해달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쏘련사람은 다음날에도 이을설을 설복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허락은 차후에 자기네가 받을터이니 조선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국제당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좀 터세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을설은 그때 나는 사령관이 준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어데도 갈 수 없는 몸이다, 지난날 무전기술을 소유한 통신병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마 당신은 모를 것이다,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부대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들이댔습니다.

그때는 원동에 임시로 들어가 있었고 또 아직은 국제연합군이 조직되지 않은 때여서 통합된 지휘체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지휘체계와 질서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쏘련군사일군이 우리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국제당을 걸고 무전강습소를 졸업하고 부대에 돌아가게 되어있는 이을설을 다른 일에 빼돌리려고 한 것은 무리한 일이였습니다.

이을설이 사령관이 준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그 어떤 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의 표현이였습니다.

이을설은 소년중대시절부터 현재까지 나를 위한 호위사업에 한 생을 바치면서도 나의 뜻을 어기거나 임무수행에 태공한 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자기 수령만을 생각하고 수령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내가 1939년에 올기강에서 낚시질을 할 때에도 내뒤에서 기관총을 걸어놓고 호위사업을 한 사람은 경위대원 이을설이였습니다.

이을설은 해방 후에도 나를 잘 호위하였습니다.

전쟁때 최고사령부주변에 반혁명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운명과 직결된 극비자료들이 박헌영과 이승엽을 통해 계속 미국사람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1952년 여름에 이승엽은 졸개들을 시켜 무전연락으로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던 건지리골안에 미국비행기들을 수십 대나 불러들였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최고사령부주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고사령부건물 곁에는 큰 시한탄까지 떨구고 달아났습니다. 내가 있던 집에서 그 시한탄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을설이 비상회의를 열고 부관들과 호위성원들에게 결사전을 호소한 다음 당원증을 바치고 목도로 그 시한탄을 메다가 골짜기에 내던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을설은 최고사령부 주변에 잠복해있던 암해분자들과 반동분자들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이을설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도 아주 잘하였습니다.

내가 1956년에 쏘련을 비롯한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부관장으로 사업하던 이을설이 하루는 지금 뒤에서 최창익이랑, 박창옥이랑 노는 꼴이 심상치 않은데 각별히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까밝혀놓는 것이였습니다.

남일이도 나에게 전화로 최창익과 박창옥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것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을설은 김창봉의 군벌관료주의와도 정면으로 맞서 잘 싸웠습니다.

이을설은 나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것처럼 **김정일**동무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을설과 박영순은 남야영에 돌아와 많은 무전수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을설은 그 후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이 벌어지게 된 중요한 작전지점들과 일본군대의 기본역량이 배치되어있는 전략적 요충지들에서 소부대공작을 여러 차



정일봉

례 하였습니다.

그는 소부대에 망라되어 무전기를 메고 왕청현 노흑산일대에 나가 정찰활동을 한 적이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적들이 노흑산일대에 큰 비행장을 건설하고 수백 대의 비행기들과 수백 문의 대포, 수백 대의 자동차들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 작전준비에서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쏘련사람들도 그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부대를 노흑산에 보냈습니다. 소부대성원들은 비행장안에까지 대담하게 뚫고 들어가 거기에 있는 새 비행기와 새 자동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형포들이 전부 나무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을설은 정찰을 끝내자마자 나에게 무전으로 소부대활동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도의 계승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고 하는데 나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어린시절의 **김정일**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걸음마를 떼주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김정일**의 마음속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싹텄고 항일혁명투사들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믿음과 친애의 감정이 싹텄습니다. **김정일**동무의 사상정신적 성장과 감정정서발전에서 가장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입니다.

김정일동무가 지니고 있는 필승의 신념과 철의 의지, 혁명적 낙관주의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가까이 지내는 과정에 더욱 풍부하게 터득하고 굳건히 연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동무와의 접촉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은 그가 지니고 있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과 도덕의리,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선열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완성해가려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배우게 되었으며 **김정일**동무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적으로 훌륭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한결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일**동무를 우리 위업의 계승자로 추대하는데서 뿐 아니라 그의 영도체계를 세우는데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계자를 추대한다고 해서 만사가 저절로 다 잘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면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서 **김정일**동무를 잘 도와주자고 호소하군 합니다.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후계자의 영도를 충실히 받들어갈 수 있는 핵심의 육성, 후비대의 육성입니다. 핵심을 잘 꾸리지 않거나 후비대를 잘 육성하지 않으면 후계자의 영도체계도 올바로 세울 수 없고 후계자로 노선과 방침도 관철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백두산에서 싸워온 핵심들을 가지고 혁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원들과 군인들과 청년들로 이루어진 수십수백 만명의 핵심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자가 있고 핵심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김정일**동무가 영도하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저 푸른 하늘처럼 밝고 창창합니다.

김정일동무의 생가가 있는 골짜기를 소백수골이라고 부릅니다. 소백수골안은 우리 나라의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뛰어난 절경입니다. 1980년대에 우리가 이 밀영을 발굴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백수골안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천고의 밀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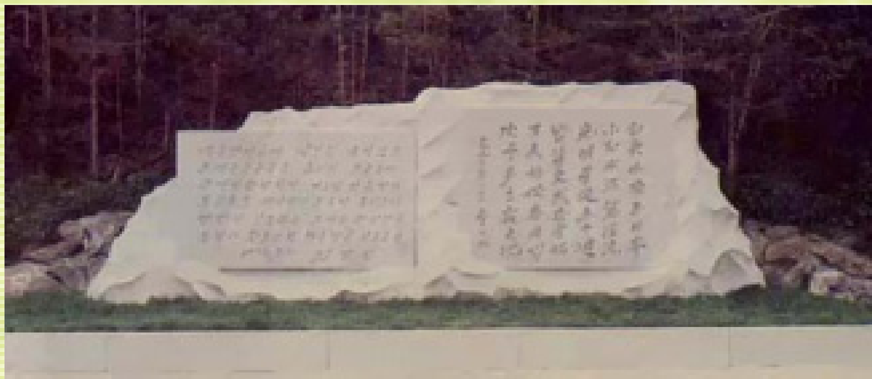
군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천험의 요새나 금성탕지라고 할만한 곳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소재지로서는 명당자리였습니다.

정일봉의 이전 이름은 장수봉입니다. **김정일**동무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 장수봉을 **정일**봉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온 세상에 **정일**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민족의 영도자로 키운 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투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 주었으며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기개로 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 것은 **김정일**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나서자란 민족의 영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영도자입니다.

빨치산의 아들로 태어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속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영도자가 될 **김정일**동무의 위업은앞으로도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쓰신 송시 ≪광명성찬가≫를 새긴 비



유년시기
부모님들인 김일성주석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계시는 유년시기의 김정일총비서.
총비서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었다.



대학시절
민청초급간부를 격려하시는 대학시절의 김정일총비서(사진 가운데)=1963.10
총비서께서는 대학시절의 1962년 1월 15일 론문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력적본성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개시작가, 예술인들을 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1972.9
총비서께서는 1964년 4월 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지도원, 과장을 거쳐 70년부터 73년까지 부부장, 부장으로 사업을 보시고 73년 9월에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되시었다.



주체위업의 계승자
김정일총비서(당시 비서)께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추대되신것을 환영하는 함흥시군중대회=1974년
1974년 2월 13일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추대되시였다



주체위업의 전면적계승 및 발전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김정일총비서=1974.2
총비서께서는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위업의 전면적계승 및 발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차전원회의에 참석하신 김정일총비서=1980.10
총비서께서는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되시였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사업을 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당시 비서)=1991.12.25
대회전날인 24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었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창건 60돐기념 열병식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전체 열병부대들에게 축하를 보내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1992.4.25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언하시었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제214군부대를 방문하신 김정일총비서=1995.1.1
총비서께서는 《다박솔중대》라고 불리우는 이 군부대방문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시작을 결심하시었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인민군 제564공군대련합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신 김정일총비서=1997.10.10
총비서로 추대되신후 첫 군부대방문.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김정일총비서=1999.1.1
공화국에서는 과학중시정책을 내놓고 있다.



조선혁명과 자주위업의 령도자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가자들을 축하하시는 김정일총비서=2000.10.10
총비서께서는 금달 16일에 탄생 60돐을 맞이하신다.



위대한 영장 김정일동지



어머님의 총소리




《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김정일
"Mt. Paekdu is my native place."
Kim Jong Il
80 전 조선우표
DPR KORKA
조선화 《백두의 눈보라》 Korean painting "Snowstorm in Mt. Paekdu"

김정일장군의 노래

장중하고 폭 넓게 (♩= 102)　　　　작사 신운호, 작곡 설명순

1. 백 두 산 줄 기 내려 금 수 강 산 삼 천 리
장 군 님 높 이 모신 환 호 성울 려가 네 태 양
의 위엄 빛내 신 인－ 민 의 령 도 자 만
세 만 세 김 － 정 일 장 군

2.대지의 천만 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3.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제24장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해방의 날을 그리며
전민항쟁의 불길은 온 강토에
대일작전의 돌파구
민족의 얼
반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위하여
현해탄너머에서도
최후결전의 날
개선

■ 시기 : 1942. 8 ~ 1945. 8

1. 해방의 날을 그리며



항일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만고의 영웅 김일성장군

해방 후 적지않은 항일혁명투사들은 이력서를 쓰면서 학력란에 ≪88군관학교≫ 또는 ≪88야영학교≫라고 명기하였다.

그 당시 간부사업을 맡아보던 일군들은 간고한 유격투쟁을 해온 항일혁명투사들이 모두 군관학교졸업생들이라는 사실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혁명의 1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기 이력서의 학력란에 당당하게 써넣은 ≪88군관학교≫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군들은 그 후 국제연합군시절의 군정훈련과 관련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접하고서야 그 실상을 알게 되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우리는 소부대작전과 정찰활동을 맹렬하게 벌이는 한편 군정 학습과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사용한 교육제강은 정규적인 군사교육기관들에서 취급한 교육내용보다 폭도 더 넓고 심도도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더 다방면적이였습니다. 훈련강도도 정규군사학교들보다 몇 배나 더 셌습니다.

훈련강령자체가 지휘관양성을 목표로 한 것만큼 군관학교를 마쳤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이력서의 학력란에 국제연합군시절을 염두에 두고 ≪88군관학교≫나 ≪88야영학교≫라고 써넣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간판을 내건 일도 없고 졸업증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동안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다들 현대적인 군정대학을 하나 마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군사이론도 배우고 현대정규전의 전술과 전법들도 배웠습니다.

국제연합군시절의 교육은 군사일면의 교육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군사를 겸한 종합적인 교육과 훈련이였고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준비인 동시에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무력 건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교육과 군사교육을 똑같이 중시하였습니다. 정치경제학, 철학 같은 것도 학습하였고 당건설이론도 연구하였으며 경제운영과 관련된 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였습니다.

1942년 말 1943년 초에 이르러 제2차 세계대전의 형세는 반파쑈역량의 편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쏘련군대의 대승리는 파쑈독일의 기를 꺾어놓았고 쏘독전쟁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국을 역전시켰습니다.

고대하던 조국해방의 날이 다가올수록 나에게는 일이 더미로 쌓였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고심한 문제의 하나는 해방된 조국에 나가 새 조국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도 창건하고 국가도 건립하고 무력건설, 경제건설, 문화건설도 하여야 하겠는데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핵심역량인 간부가 부족한 것이 제일 난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한 것은 간고한 무장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항일투사들을 군사에서 뿐 아니라 당사업과 국가관리, 경제나 교육, 문화 그 어느 부문을 맡겨주어도 척척 해낼 수 있는 만능의 간부로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국제연합군에서의 군정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훈련강령을 보면 군사훈련에 비해 정치학습비율이 낮았습니다.

나는 정치이론학습의 비중을 군사훈련보다 낮추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나셴코대장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파나셴코는 국제연합군의 첫째가는 임무는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혁명군사간부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과 만주가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붉은 군대와 연합하여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다그쳐 현대전의 전략전술과 기술기재, 무기에 정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훈련이나 군사간부양성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 조선이 해방된 후에 새 조국을 건설하자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둥이 될 여러 분야의 간부들을 다 양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훈련강령에서 정치상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고 군사훈련에서 시간을 떼내어 정치상학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훈련은 훈연대로 다하면서 그만큼 정치학습을 하자는 것이라고 모를박아 말했습니다.

아파나셴코는 옳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내 주장을 긍정하였습니다.

그 후 국제연합군의 군정훈련강령에서 정치학습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정훈련에 들어가면서 대원들에 대한 사상동원과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였습니다. 당소조들과 공청조직에서 회의도 하고 신문과 벽보에 결의도 내고 구내방송으로 불기도 하였습니다.

각 지대들에서는 유능한 군정간부들로 정치상학을 담당할 강사들과 교원들을 꾸렸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원동군사령부는 정치학습담당 교원들을 위한 단기강습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중국말을 겨우 번지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어찌나 서투른지 알아들을 수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청강생들의 반영을 고려하여 쏘련인 강사한테 중어 통역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동무들한테는 그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련 방법도 불편했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절반시간을 소비하다나니 강의효율도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어로 된 교재를 조선말로 번역한 다음 우리 실정에 맞게 강의안을 다시 짜서 정치학습을 담당한 교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김경석

초기에 정치상학에 이용한 교재들을 보면 철학이나 정치경제학 같은 일반이론과목과 함께 쏘연공산당역사와 쏘중 두 나라의 역사, 지리와 관련된 것들이였습니다. ≪공산당선언≫이나 ≪레닌주의제문제≫같은 것을 해설한 교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교재들은 우리 대원들의 정치적 안목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쏘련과 중국의 역사는 배워주면서 조선의 역사를 배워주지 않는다든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학습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실정에 맞게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하여 지난날 필독문헌으로 삼아오던 몇몇 저작도 교재에 포함시키고 조선역사와 조선지리도 배워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정치상학지도교원들이 강의안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훈련은 훈연대로 하면서 제강을 만들고 강의까지 하다나니 늘 다른 대원들보다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원들의 강의술이 괜찮았습니다.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사들의 강의이니 감칠맛도 있었습니다.

안길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 아주 구수했습니다. 오랜 정치일군인 그는 정치과목강의도 독특한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그의 강의는 해학과 비유로 일관되어있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웃음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터득하였습니다.

안길은 강의할 때 필요한 대목에서 시도 읊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어떤 강의시간에는 옹근 1페이지나 되는 레닌의 명제도 뜬금으로 줄줄 인용하였습니다.

행군중에 있는 대원들이 기진맥진해서 걸음을 잘 옮기지 못할 때면 인차 휴식구령을 내리고 북을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며 대원들을 춤판에 끌어들이고 노래판에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안길의 독특한 자질입니다. 이런 자질이 강의에서도 그대로 발양되었습니다.

임춘추는 강의도 잘했지만 학습에 대한 개별지도를 더 잘하였습니다. 그는 토론이나 논쟁을 붙여놓고 매개 청강생들의 준비정도와 배운 지식에 대한 소화정형을 다 요해하고는 필요한 개별수업을 과외시간에 조직하였습니다. 그래도 강의내용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대원이 있으면 잠자는 시간에 그 대원의 곁에 잠자리를 옮겨가면서 개별지도를 해주었습니다.


군정학습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김경석도 인기있는 강사였습니다. 말주변은 없는 사람이였지만 강의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청강생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는 강의안을 쓸 때마다 밤을 패군했습니다. 강의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꼭꼭 내 의견을 들어보군 하였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직심스러운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강의안을 짤 때에 첫마디부터 마지막마디까지 몽땅 성문화하였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몸에 밴 김경석은 해방 후에도 무

슨 연설문이든지 꼭 제손으로 써가지고 대중앞에 출연하군 하였습니다. 보고문도 다 자기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교원들이 이렇게 이악하다보니 대원들의 실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영과 전창철, 이봉수의 강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프룬제군사대학 졸업생인 류아루도 강의를 잘했습니다. 류아루가 쏘련의 신형무기인 까츄샤포에 대한 강의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나도 자주 정치강의에 출연하였습니다.

군정학습총화때에는 조선지대 대원들의 성적이 부대적으로 제일 높다는 평가를 받군 하였습니다.

부대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던 풍중운도 조선지대 대원들의 성적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나보고 조선동지들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비결이랄게 있는가,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얼굴에 찬물찜질을 해가며 열심히 공부한 덕이라고 농삼아 말했더니 풍중운은 ≪이악한데서야 조선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지.≫하면서 손을 내젓는 것이였습니다.


이봉수

그때 우리 동무들이 이악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선지대 대원들이 군정 훈련과 학습에서 늘 부대의 모범으로 된 것은 혁명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습니다.

지대의 대원들 가운데는 마당거우시절의 박창순이처럼 학습을 두통거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박락권을 들 수 있습니다.

박락권은 동만에서 청년의용군에 있다가 우리가 북만동무들의 요구로 우수한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넘겨줄 때 5군에 가서 주보중의 경위대장을 한 사람입니다.

박락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감무쌍한 싸움군이였습니다. 그는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기지도 있고 날파람도 있었습니다.

박락권은 왕청유격대에 있을 때 일본토벌대와 불의에 조우하여 총격전을 벌이다가 복부에 중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밸을 손으로 밀어넣으면서 기여서 유격구까지 돌아왔습니다.

박락권은 북만부대에 가서 경위대장을 할 때 호위사업을 잘해서 주보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보중자신도 박락권의 덕으로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여러 번 구원되었다고 합니다.

박락권의 특기가 무엇인가 하면 무기를 귀신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무기든지 한두 번만 다루어보고는 눈을 감고서도 척척 분해결합을 하였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손쉽게 다루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동무가 지금은 소대를 지휘하고 있지만 앞으로 큰 규모의 현대전을 할 때에는 연대나 사단도 지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현대군사지식을 직심히 배우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연대나 사단을 지휘하겠는가, 동무가 경험만 가지고 부대를 지휘하면 숱한 대원들이 목숨을 잃겠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박락권은 모진 마음을 먹고 이론학습에 열중하였습니다. 보병전술이론을 학습하느라고 하루종일 아무르강가에 나가있는 박락권을 본 일이 있는데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해방 후 그를 동북지방에 파견하였습니다.

박락권은 연대를 이끌고 장춘해방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가 장춘해방전투같

은 큰 시가전에서 연대를 훌륭히 지휘하여 승리를 거둔 것은 원동기지에서 이를 악물고 전술공부를 한 덕이라고 봅니다. 앞장에서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박격포탄파편을 여러 군데 맞고 전사했다는데 최후를 박락권이답게 마쳤습니다. 그는 조중인민이 다같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학습도 전투라는 말은 우리가 실지생활에서 찾아낸 진리입니다. 혁명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학습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사상에 녹이 쓸고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박락권

김정일동무가 학습을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의 첫공정으로 보고 언제나 학습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한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대에 꾸려진 과외교양시설들과 선전선동수단들을 통해서도 대원들을 교양하였고 그들의 정치적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훈련기지에는 영사실과 도서실, 방송실에 가진 구락부가 있었습니다. 부대장병들은 이 구락부에서 집회도 하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부대방송시간에는 학습과 군정훈련, 일상생활에서 모범으로 내세울만한 군인들과 소대, 중대, 대대들을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국제정세와 관련된 보도도 많이 하였는데 쏘독전선소식을 매일같이 알려주었습니다.

국제연합군에서는 신문도 발간하였습니다. 지대와 중대마다에는 벽보가 있었고 소대들에는 전투속보가 있었습니다. 신문과 벽보, 전투속보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 도덕교양과 군정훈련준비나 총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우리는 붉은군대창건기념일과 10월혁명기념일, 5.1절을 비롯한 명절행사들을 통해서도 대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부대에서는 쏘독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쏘련영웅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군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희생된 혁명전우들을 추모하는 추도식도 의의있게 하여 군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영찬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훈련기지에서 추도식을 하였습니다. 유영찬은 **김정숙**이 도천리에 가서 지하공작을 할 때 혁명조직에 흡수하여 키우다가 유격대에 데리고 온 사람인데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는 아무르강에서 병영건설에 쓸 모래를 싣고오다가 배가 뒤집혀지는 바람에 익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전선사령관들인 아파나센코와 와투진, 체르냐호프스키의 추도식도 하였습니다.

추도식을 할 때에는 악대가 추도곡을 연주하였습니다. 부대에는 악대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에서는 강연도 하고 쏘독전쟁참가자들과의 상봉모임도 종종 조직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동기지에서 군사이론학습과 군사실동훈련도 맹렬하게 하였습니다. 전술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스키훈련, 낙하산훈련, 무선통신훈련을 비롯하여 현대전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다하였습니다.

현대전훈련에서는 전술훈련에 기본을 두고 공격과 방어 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동시에 병기학, 지형학, 위생학, 공병학에 대한 학습도 하고 반화학전과 관련된 지식도 주었습니다.

유격전훈련은 습격전과 매복전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만 하면 성수가 나서 뛰어들었습니다.

군사훈련을 할 때에는 무연한 들판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 들판에 대한 인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방향을 주면 중대장, 소대장들이 제강을 짜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전쟁경험과 쏘독전쟁경험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우리 식의 훈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은 교육강령에 따르는 한 제목의 학습이 끝나면 실동훈련을 보고 그 소화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지휘관들에 대한 전술훈련은 내가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의 목적은 매개 군인들로 하여금 몇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중대장들은 대대나 연대를 맡아 지휘하며 소대장들은 중대나 대대를 지휘하고 전사들은 소대나 중대를 능숙하게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것이였습니다.


손종준

전술훈련은 소대나 중대 단위로 하였습니다. 지휘관으로 임명된 동무에게 정황을 주고 임무를 주면 그는 정황을 판단하고 결심을 채택한 후 전투를 조직하고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을 갓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나는 중대가 내려가 전술훈련정형을 검열하였습니다. 그날은 손종준이 소대장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손종준은 자신만만하게 소대를 지휘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앞에는 여러 가지 차단물이 설치되어있고 고지우에는 증강된 적 중대역량이 있다는 정황을 새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종준은 일선형정면돌격을 시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계발시켜가지고 우회돌파전술을 쓰게 했습니다. 그 다음 공격을 다시 시켰습니다.

손종준이 정황에 맞지도 않는 일선형 공격을 시도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기계화부대를 앞세우고 부대를 일선형으로 산개시켜 공격하게 되어있는 당시의 전투규정대로 훈련을 기계적으로 시킨 데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방법은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술훈련제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쌓은 유격투쟁경험에 기초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강을 새로 만들어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오진우에게 보병소대의 공격전술을 취급한 시범훈련제강을 빼게 하였습니다. 오진우는 그 당시 하사관이였지만 내 도움을 받아가며 손색없는 시범훈련제강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제강으로 지대가 다 모여 전부대적인 시범훈련을 했는데 반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진우는 지대전체를 망라하는 기동훈연계획도 작성하였습니다.

사격훈련은 각이한 거리의 부동목표에 대한 사격과 이동목표, 출현목표에 대한 사격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사격훈련장은 부대에서 20-30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선지대는 사격성적에서도 연합군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히었습니다. 총은 이두익이 잘 쏘았습니다.

우리는 명사수들을 따로 뽑아 저격수훈련도 하였는데 지형학훈련과 겸해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정된 목표물을 명중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정된 목표물을 명중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어찌나 총을 많이 쏘았던지 저격수들은 병실에 돌아온 다음에도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훈련을 한 후 매개 저격수들에게 행군노정이 표시된 지도와 지남침을 주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새를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몇 시 몇 분까지 돌아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몇 각도로 방향을 꺾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표시대로 하자면 옹근 하루가 걸리는데 거기다가 새까지 쏘아잡아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기본은 사격술을 익히면서 동시에 지도보는 법을 숙달시키자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스키훈련, 수영훈련도 많이 하였습니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도래할 때 낭림산줄기나 함경산줄기 같은 것을 타고 앉아 유격전을 벌이자고 해도 그래,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조국해방작전을 하자고 해도 그래 스키와 수영을 배워두어야 하였습니다.

수영훈련은 여름철에 아무르강에서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해양국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훈련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지대의 대원들은 대다수가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이였습니다. 헤염을 칠줄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나니 다수가 강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는 수영훈련을 낙하훈련 다음가는 힘든 훈련이라고들 하였습니다.

처음에 땅우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시키고는 강으로 데리고 나가서 헤염을 칠 줄 아는 몇몇 동무들이 시범동작을 해 보이며 배워주었습니다.

물맛을 좀 보인 다음에는 강건너편까지 바줄을 늘이고 그것을 쥐고 헤염쳐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풍중운과 같은 몇몇 사람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보람이 없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돌덩이처럼 가라앉군 하였습니다. 풍중운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경까지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석이도 혼자서 수영연습을 하다가 하마트면 사고를 칠 뻔하였습니다. 그는 물에 가라앉게 되자 강바닥을 짚으면서 벌렁벌렁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수영을 제일 잘한 대원은 전순희였습니다. 그가 수영을 잘 하게 된 것은 강반에서 산 덕이었습니다. 전순희는 헤염을 칠줄 몰라서 강을 건늘 때에는 어른들한테 업혀 다니군 했는데 철이 들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헤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7군에서 간호원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훈련기지에 와서도 부대군의소 간호원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전순희한테서 수영을 배운 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영훈련을 한 다음에는 연이어 도하훈련을 하였습니다. 도하훈련은 일종의 종합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무장을 한 다음 25킬로미터가량 강행군을 하고나서 장구류를 휴대한채 소대별로 떼목을 하나씩 만들어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낙오자가 1명만 있어도 점수를 깎았습니다. 최광이네 소대는 도하훈련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공정수 때문에 늘 다른 소대들에 앞자리를 떼웠습니다.


전투훈련을 벌이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공정수는 머슴살이를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사람이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나 천성이 늘어져서 군인다운 면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해 겨울에도 모자를 몇 개씩 태웠습니다. 우등불에 바지가 타도 바빠하지 않는 느린 성미를 가진 사람이였습니다.

공정수는 5군에서 복무할 때에도 최광이네 소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최광이 그 사람 때문에 속을 태우던 나머지 가고싶은 데로 가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수는 절룩거리며 그냥 부대를 따라왔습니다.

최광은 거기에 감동되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광에게 가라고 쫓아도 가지 않고 혁명을 하겠다고 따라온 동무인데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가, 좀 힘이 들더라도 공력을 들여서 도와주자고 하였습니다. 최광은 우리가 한 말을 명심하고 그에게 개별훈련을 주었습니다. 7미터나 되는 조약대에서 물에 뛰어드는 훈련을 할 때에도 공정수만은 따로 붙잡고 지도하였습니다.


공정수

나도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정수는 물에 곧추 떨어지지 못하고 평자로 떨어져서는 배가 터진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훈련을 건뜻하였습니다. 어쨌든 특색이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그가 우리의 부관도하고 최용건의 호위군관도 하였으며 대대도 지휘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르강에서 보트도 탔습니다. 1인용 보트인데 ≪아무로치까≫라고 하였습니다. 나나이인들이 그 보트를 잘 탔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그 배로 하바로프스크까지 갔다오는 경쟁을 하였습니다. 노는 한 개만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르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영훈련, 도하훈련과 함께 상륙전훈련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강하천이 많은 조건에서 강하천도하와 해상상륙전은 박두한 대일작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였습니다.

한번은 나진항을 목표로 한 상륙전훈련도 하였습니다.

수영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낙하산훈련이였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오히려 남대원들보다 여대원들이 더 담찼습니다. 남대원들 중에는 그 훈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여대원들속에는 그런 떼보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낙하산훈련의 첫 공정은 모의훈련이였습니다. 조약대에서 톱밥을 깔아놓은 땅우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회전대 같은데서 빙글빙글 도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훈련 때 여대원들이 멀미를 많이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낙하산훈련은 워로쉴로브근방의 큰 벌판에서 했는데 거기에 군용비행장이 있였습니다.

먼저 낙하산을 접는 법부터 익히었습니다.


김증동

이 공정이 끝나면 50미터쯤 되는 낙하탑에 올라가 펼쳐진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50미터구간을 내리면서 바람방향에 따라 몸을 한번 돌리는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익숙되면 비행기를 타고 낙하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10-20명 정도로 1개 승조를 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미터 높이에서 훈련하였고 나중에는 600미터 높이로 낮추었습니다. 보통 800미터 상공에서 낙하명령을 내리군 하였습니다.

비행장 주변은 무연한 사탕무우밭이였습니다. 우리가 낙하를 끝내면 밭일을 하던 여성꼴호즈원들이 뛰어와서 낙하산도 끌어다주고 사탕무우도 깎아주군 하였습니다.

많이 뛰어내린 대원들에게는 새파란 기념마크를 주었는데 우리 지대에서는 최용진이 최고기록을 내여 기념마크를 받았습니다.

나도 여러 번 낙하산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낙하산훈련을 할 때에는 모자를 잃어버리는 사람, 장화를 잃는 사람, 발을 풀치는 사람, 낙하산이 나무가지에 걸려 공중에 데룽데룽 매달리는 사람 등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체중이 80킬로그램이상 되거나 40킬로그램이하인 대원들은 안전상 이유로 낙하산훈련에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강하속도가 빨라서 부상당할 수 있고 너무 가벼우면 오히려 공중으로 자꾸 올라가 왕청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순희는 체중이 가볍다나니 비행기보다 더 높이 떠올랐다가 가까스로 낙하하였습니다. 김증동도 외딴곳으로만 자꾸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 체통이 몹시 작았습니다. 허튼 곳으로 날아가다가 나무에 데룽데룽 매달려있는 그를 내가 안아 내렸는데 몸이 아이들처럼 가벼웠습니다.


전순희

김증동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기 서울과 대전 해방 전투에서 위훈을 세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낙하산훈련을 강하훈련, 항공육전대훈련과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1944년 이후 시기에 많이 하였습니다.

항공육전대훈련에서는 저항하는 적을 낙하하면서 소멸하는 동작, 낙하하여 신속히 전개하는 동작, 적의 배후를 타격하는 동작 등을 연마하였습니다.

낙하산훈련을 하고 나면 체중이 줄어들고 배가 몹시 출출해나군 했습니다. 훈련강도가 센데다가 쏘독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부대에서는 전선을 지원하느라고 식량공급량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땅을 일구어 부업농사를 지었습니다.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남새도 심어 자급자족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부업농사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대에서는 산나물을 뜯어다가 식량보탬을 하였습니다. 훈련기지주변에는 고사리, 닥지싹, 두릅을 비롯하여 산나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산나물로 국을 끓여먹자 부대군의소의 쏘련의사들은 파악도 없는 풀을 뜯어먹는다고 식사를 중단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먹어보고는 맛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산나물이 약재라고 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산나물만 찾았습니다.

한번은 우리 동무들과 부대의 후방부장인 유태계 쏘련군소좌가 부업밭에서 감자씨붙임을 하다가 언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 소좌는 우리 동무들이 감자눈을 따서 심는 것을 보고 농사를 망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잘되고 못되는 것은 가을에 가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해에 감자농사가 잘되었습니다. 통감자를 심은 데서는 잔자갈 같은 것들이 달렸지만 우리 동무들이 눈을 따서 심은 데서는 주먹같은 알들이 달렸습니다. 그때에야 소좌는 우리 식의 농사법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해 봄에 우리 지대에서는 눈을 따내고 남은 감자를 다 삶아먹으면서도 수확은 곱으로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안정숙

우리 동무들은 수렵대를 조직하여 짐승잡이도 하고 쉬는 날에는 아무르강에서 물고기잡이도 하였습니다. 그 강에 맹어가 많았습니다. 한 마리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큰 놈도 있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아무르강에 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어는 그물을 쳐서 잡아 소금에 절구었습니다. 연어알은 따로 뽑아서 절구었다가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짐승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아 서부전선에 보내준 일도 있습니다.

훈련기지에서는 무선통신훈련도 하였습니다.

북만에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 쏘련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무전기술을 배운 동무들이 있었지만 우리 지대에서는 박영순, 이을설이 임시기지에 들어와서 처음 무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워로쉴로브에 가서 석 달동안 무전강습을 받고와서 다른 동무들에게 배워주었습니다. 무선통신훈련에는 남대원들인 이종산, 이오송 등과 **김정숙**, 박경숙, 박경옥, 김옥순, 이영숙, 왕옥환, 이재덕, 이민을 비롯하여 여대원들이 거의 다 참가하였습니다.

지난날 동남만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부대들에서는 무선통신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전수들을 양성하자면 국제당이나 쏘련사람들의 신세를 져야 하는데 그게 헐치 않았습니다. 무전수가 없다 보니 무전기를 여러 번 노획했지만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정인

우리는 사령부와 각 부대들에 통신원을 주고 도보로 통신연락을 보장하였습니다. 우리 통신원들이 정말 걸음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사선이었습니다. 통신연락을 하다가 희생된 동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치호는 입대 후 여러 해 동안 우리 사령부 통신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사령부통신을 보장하느라고 식량고생도 하였고 적들에게 체포되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공로도 적지 않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인력으로 통신을 보장하자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통신의 기동성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무선통신훈련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정규무력건설은 물론, 나라의 시경인 통신기관을 설립하고 문화선전활동을 하자고 해도 통신의 골간이 될 동무들을 키워야 하였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무선통신과 낙하산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훈련에 참가하면서도 국내의 여러 지역에 나가 소부대활동을 적극 벌였습니다.

무선통신훈련에서는 여대원들이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선훈련에도 직심스러웠지만 스키훈련, 수영훈련, 낙하산훈련, 도하훈련에도 남자들과 꼭같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때의 훈련강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쏘련군관들도 자기들이 군관학교를 다닐 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대원들은 타발 한 마디 없이 모두가 훈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낙하산훈련을 시작 할 때 우리는 모성들과 일부 허약한 여대원들을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대원들이 다 섭섭해하였습니다. 안정숙은 나를 찾아와 울면서 항변까지 하였습니다.

≪훈련도 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 여대원들이 무엇 때문에 아이들까지 떼두고 러시아땅에 왔겠습니까.≫

안정숙은 원동으로 들어올 때 남의 집 삽싹문앞에 어린 자식을 두고온 동무였습니다. 이정인도 남의 처마막에 딸애를 떨궈두고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기는 것이 사랑하는 자식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훈련에 참가시켜 달라고 강경히 요구하였습니다.

박경숙은 군인식당의 음식을 입에 전혀 대지 못하면서도 무전대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도 맹훈련을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학습과 훈련에 정력적으로 참가했던지 무선소대의 교관은 조선여자들이 정말 근면하고 이악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박경숙은 무전기를 메고 김책을 따라 적구에 나가 몇 달 동안 소부대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무전을 아주 잘 쳤습니다.

김정숙도 이악하게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한번은 그가 발목을 폴친 일이 있었는데 퉁퉁 부어오른 발을 가지고도 스키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내가 걱정하자 그

는 종이에 싼 각사탕 하나를 꺼내주며 이걸 입에 물고 훈련을 하면 한결 숨이 덜 찹니다 하고 오히려 나를 염려해주는 것이였습니다.

낙하산훈련을 할 때 내가 제일 걱정한 것은 몸무게가 가벼운 여동무들이 제대로 락하하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때에 산을 펴고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착지하군 하였습니다. 몸무게를 불구느라고 배낭속에 벽돌을 넣고 낙하훈련에 참가하는 여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왕옥환

이것이 바로 우리 투사들의 청춘시절이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웃으며 뚫고나간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삶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훈련강도가 센 데다가 잠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랐지만 우리는 해방된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웃으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 투사들은 지금도 그 시절을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 생에는 누구에게나 청춘시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가서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회상할 수 있도록 그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헐치 않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한길에 일신을 깡그리 바쳐가며 피끓는 열정과 불타는 투지로 만난을 헤쳐가는 그 걸음걸음이야말로 얼마나 값높고 긍지높은 생활이겠습니까!

나는 우리의 청년들도 항일혁명에 몸바친 투사들의 그 정신을 이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리라는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서산낙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눈앞에 두고 있던 우리는 조선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국에 대한 학습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전략전술, 조국의 역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도덕과 풍습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력독립도, 새 조국 건설도 할 수 없고 혁명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과 독자적인 주견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들은 대체로 조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많은 동무들이 만주태생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철이 경상북도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지만 10살 때인가 고향을 떠난 후로는 줄곧 만주에서 살았고 이을설도 성진태생이기는 하나 어려서 두만강을 건넌 다음부터는 계속 장백에서 살다가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이치호

그래서 나는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노선과 자기 조국에 대한 학습을 단단히 시켜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훈련기지에 조선관계서적이 부족한 것이였습니다.

조선에서 출판한 책은 국내에 소부대공작을 나가는 동무들한테 과업을 주어 해결하기도 하였고 쏘련동무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인가는 ≪조선지리통감≫이라는 책도 얻어다 보았습니다. 그 책이 조국의 지리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임춘추에게 조선지도를 큼직하게 그려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도를 그리되 이름있는 산과 강, 벌, 호수, 지하자원과 각 지방의 특산물들, 명승지들과 문화유적까지도 다 그려넣으라고 하였습니다.

임춘추는 품을 들여 지도를 그렸습니다. 흰종이 몇 장을 이어붙이고 큼직하게 지

도를 그려왔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치상학시간에 이 지도를 걸어놓고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들과 정치교원들앞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의 연설에서 나는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국제연합군안의 모든 조선인대원들은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조국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였습니다.


박경숙

그때가 아마 추석무렵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밤 우리는 밀림우에 떠오른 밝은 달을 바라보며 조국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밤가는 줄 몰랐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원천이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학습과 훈련을 다그쳤습니다.

그때 항일투사들은 옹근 하나의 정규대학에서 배워야 할 과정안을 부단한 전투와 힘에 부치는 훈련을 하는 긴장한 가운데서도 훌륭히 소화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흘린 땀과 노력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큰 은을 냈습니다.

해방 후 우리와 같이 일한 사람들 가운데는 한다하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쏘련에서 동방근로자공산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니 당건설이나 국가건설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일투사들은 무슨 일을 맡기건 막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김책에게 산업부문을 맡아보라고 하였더니 엉망이 된 나라의 산업경제를 빠른 시일안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길에게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사간부를 키우는 학교를 꾸리고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도 그 임무를 어렵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군중공작이나 정치사업 같은 것은 유격대출신들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전기간 언제나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내다보면서 해방된 조국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적극적으로 다그쳐왔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을 때 우리가 평양시 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라고 하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복구건설설계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고 하면서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해 후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 설계에 기초하여 지체없이 평양시 복구건설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오늘 뿐 아니라 내일까지도 멀리 내다보며 사업을 설계하고 내밀줄 알아야 합니다.

난관앞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곤란을 디디고 일어서서 내일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생활을 앞당겨 창조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간을 앞당기고 미래를 앞당기는 것은 공격정신입니다.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내다보던 바로 그 시절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혁명적 낙관과 신심에 넘쳐 군정훈련을 다그치며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겨 나갔습니다.

오늘의 난관을 웃음으로 헤치며 내일의 조국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가며 후대들의 미래를 설계해가는 사람들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로 될 수 있습니다.

2. 전민항쟁의 불길은 온 강토에



조국해방 3대노선과 총공격명령을 반영한 구호문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전인민적 봉기와 배후연합작전을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속에 결합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것을 조국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선으로 제시하시었다. 혁명무력과 전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복대업을 이룩하시려는 통이 큰 이 구상에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성장해온 우리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몇몇 선각자나 투사들의 힘만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혁명운동사의 총화인 동시에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사의 교훈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을 시작한 첫날부터 시종일관 전민항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한 전민항쟁이란 전민을 혁명화하여 항일혁명에 총동원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말하여 온 나라, 온 민족을 망라하는 거족적이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반일항전으로 나라의 해방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전민을 혁명화하자면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해야 하며 전민항쟁으로 일제를 타도하자면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인민을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민항쟁과 관련된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전민항쟁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백두산에 틀고앉아 무장투쟁을 압록강연안과 국내에로 확대하면서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당건설과 통일전선운동, 대중조직건설을 활발히 벌이던 때부터였습니다.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 것을 호소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사실상 전민항쟁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민항쟁방침을 독자적인 노선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였다고 봅니다. 전인민적 반일항전문제를 가지고 백두산밀영에서도 회의를 했고 초수탄과 신흥에서도 회의를 하였습니다. 9월 호소문은 전민항쟁호소문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는 백두산에 나와 있을 때 북선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할 데 대한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간백산에 꾸려진 강습소를 통하여 지방조직들에서 단련된 사람들을 뽑아다가 전민항쟁에 필요한 지도핵심들을 많이 길러내는 한편 북부지대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곳에 반군사조직들을 더 많이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국내에 파견된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도처에서 노동자돌격대와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조선지대의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최후결전준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조선지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전체 인민을 반일항전에 동원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우리 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하자는 나의 제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국내에서의 당조직건설과 대중단체건설 정형 그리고 비밀무장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요해한데 기초하여 조국해방의 3대노선을 내놓았습니다. 조국해방의 3대노선이라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 봉기, 배후연합작전으로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할 데 대한 노선입니다.

그것은 실현할 가망이 충분히 있는 노선이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가망이 있다고 했는가. 민심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민심이라는 것은 몽땅 우리한테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백두산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격대에 찾아가서 **김일성**의 부하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징용, 징병을 기피한 사람들도 산속에 들어가 야장간을 꾸리고 왜놈들과 결판을 낸다고 하면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놈치하에서는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살겠다, **김일성**빨치산부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올 때에는 우리도 들고일어나서 왜놈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자는 것이 그때의 민심이였습니다.

부산과 시모노세끼를 오가는 관부연락선 ≪고안마루≫3등선실 천장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나타나고 서울남대문에 ≪근일 **김일성**대장 조국개선≫이라는 ≪불온낙서≫가 발견되어 일본관헌들이 와짝 떠들던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민족의 운명을 의탁하고 우리가 조국을 광복시켜줄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민심에는 인민들의 지향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심만 준비되면 그 어떤 대사든지 다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가능성이였습니다. 조국해방 3대노선이라는 것은 이런 점들을 참작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노선입니다.

최후결전을 위한 작전계획의 골자는 우리 주력부대가 신속히 국내에 진출하여 모든 도들을 차지하고 거기서 전투행동을 벌이는 한편 전국에 호소문을 내여 산에 숨어있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집결시켜 무장대오를 조직하도록 하며 여기에 배합하여 전인민적 무장봉기를 일으켜 일거에 적들을 요정내고 나라를 해방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은 승산이 있는 작전이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단련된 혁명군대원들을 골간으로 하고 국내의 애국적인 청장년들도 무장대오를 확대한 다음 여기저기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인다면 우리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를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정적 시기에 인민을 항쟁마당에 불러내는 것인데 그것도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3.1인민봉기 때는 독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여
고안마루 천장에 씌여진 글

만세를 부르느라고 200여만이 떨쳐나섰는데 최후결전을 한다고 해보시오, 얼마나 많은 인민이 항쟁마당에 달려나오겠는가.

물론 이 방침을 아무런 논란도 없이 모두가 다 척척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전민항쟁노선을 제기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거리는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승산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지지하였습니다.

우리의 전민무장방침에 대해서는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들도 탄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네 나라는 완전식민지인데다가 무장투쟁도 주로 국외에서 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조선동포들에게 격함≫ - 선전화

나는 그들에게 전민무장, 전민봉기는 우리의 주관이 아니다, 인민이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인민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것을 구호로 들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는 국내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통치체계가 점차적으로 마비되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배가 확정적인 것으로 되어감에 따라 관리들속에서까지 직무를 태공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조명선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그가 산에서 순사를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 조명선은 그 순사에게 이 비상시국에 왜 건달군처럼 산속에서 어정거리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사는 일본이 오래지 않아 망할걸 생각하니 만사가 귀찮아지는데다가 속이 하도 답답해서 사냥이나 하러 나왔다고 실토하였습니다.

당시 일본관헌들의 정신상태라는 것이 이런 형편이였습니다.

적들의 정신상태가 이 지경이였으니 통치체계가 흔들흔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적의 통치체계에 생긴 이와 같은 취약성은 국내항쟁조직들이 통이 크게 전민항쟁준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과 항쟁조직성원들은 적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밑으로는 면의 관리들과 경찰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로는 도지사들과 총독, 지어는 총리대신이나 천황에 이르기까지 고하를 가림이 없이 선언문도 보내고 경고장도 보내여 적들을 벌벌 떨게 하였습니다.

주체32(1943)년 2월 국내항쟁조직들은 징병제실시와 관련하여 일본 수상 도죠에게 여러 통의 경고장을 보냈다.

벽성군 청년일동의 이름으로 된 경고장을 아래에 소개한다.

≪수신인 ; 도꾜시 도죠수상관저 도죠총리대신 각하

…

조선은 독립한다.

… 적국 일본이여 각성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반도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대를



조선인민들이 인민혁명군의 조국광복작전에
전 인민적항쟁으로 호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

양성하려 하지만 나는 조속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총검을 돌려달라. 우리의 적은 일본인이다.…

우리들은 조국 조선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로서 적국 일본에는 어디까지나 반항한다. 죽을 때까지 반항한다. 죽어서도 역시 반항한다. 우리들은 … 징병에 선참으로 나가련다.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은 숙원을 풀기 위하여, 적국 일본에 반항하기 위하여, 아니 멸망시키기 위하여.≫≪≪특고월보≫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화 18년(1943년) 2월분 72페지≫

우리는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였습니다. 하나는 국내에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 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새로운 임시 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국내에 더 많은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민항쟁역량을 조국해방작전에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였으며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국내의 전민항쟁역량에 대한 통일적 영도를 실현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전민항쟁이란 무장봉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활동거점이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이 전민항쟁과 관련된 노선을 제시하면서 낭림산 줄기를 비롯한 큰 산줄기들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활동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 전민항쟁역량의 무력적 지탱점으로 될 수 있는 비밀 근거지들을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백두산줄기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부지역, 압록강연안과 낭림산줄기, 부전령산줄기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내륙지역을 비롯하여 서부지역과 중비역 등 전국 도처에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와서는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이러한 비밀근거지외에 조국해방작전수행에서 전략전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국의 주요요충지들에 여러 가지 형태와 규모로 임시 비밀근거지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근거지건설을 선행시키면서 국내에 수많은 소부대와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나도 소부대를 데리고 여러 번 국내 깊이에 진출하였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은 두만강, 압록강 연안의 국경지대 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조선일대와 부산, 진해를 비롯한 남부조선일대 그리고 멀리로는 일본에까지 침투하여 정치, 군사 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광범한 반일군중을 전인민적 항전에로 준비시키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의 한 관헌자료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부하 사상반장의 검거

재만불령조선인의 수령 **김일성**은 종래부터 항일불령책동에 광분중인데 첨예분자인 그의 부하 사상반장 김모가 최근 불령목적으로 간도성도문에 잠입하여 지하공작을 종사하던 중 그곳 경비기관에 검거되어 목하 엄중취조중인 바 현재까지 판명된 잠입목적과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잠입목적 일쏘개전시 만주와 조선에서의 후방교란 및 조선계 제5렬부대조직과 일본은행권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2) 활동상황 **김일성**의 사상반장으로서앞에서와 같은 사명을 띠고 하바로프스크로부터 비밀리에 만주에 들어와 도문에서 조선계 불령분자 약 20명을 획득…

3) 배후관계 경성(서울)에 제5열 본거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명료하여 목하 상세한 취조중이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화 18년(1943년) 2월분 82페지≫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국내항쟁운동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는 영도기관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국내당공작위원회가 결성된 후 우리 나라에서는 각지에 당소조들이 조직되어 대중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보장하였습니다. 1930년대 말부터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꾸려진 당소조들과 반일대중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지구당위원회들이 태어나 지역적 영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례로 **김정숙**이 조직한 연사지구당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는 평안남도 일대에서 공산주의선각자들을 망라한 지구당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평안남도 지구당위원회는 자기 산하에 평양, 개천, 남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당소조를 두고 있었으며 이 당소조들을 통하여 도내 각지의 조국광복회조직들과 전민항쟁조직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함경북도에 조직된 청진지구 당위원회는 일철을 중심으로 청진지구의 공장들에 수많은 당세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정치



≪김일성대≫활동에 대해 쓴 일제의 비밀분건

군사활동에 의하여 1940년대 전반기 국내에서는 전민항쟁세력이 급격히 장성하였습니다. 1942년 일제가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 개가 되고 조직적 역량이 50만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조직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국내외에서 활동한 반일단체들의 활동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된 것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정치적 성격과 함께 군사적 성격을 띤 조직들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과 전민봉기와 무력항쟁을 중요한 투쟁 목적과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이였습니다. 이 시기 많은 투쟁단체들은 자기의 투쟁목적이 전민항쟁, 일제봉기, 무장폭동,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합세하는데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었으며 조직명칭자체를 ≪**김일성**대≫라든가 백두산회라는 식으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달기까지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조직되어 제주도 모슬포와 국내각지 그리고 일본에까지 그 세력을 확대한 ≪**김일성**대≫는 목적이나 활동방식으로 보아도 항일혁명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한 주목할만한 전민항쟁조직이였습니다.

≪**김일성**대≫라는 항쟁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1945년 6월경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니이가다현 경찰부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 있던 조선사람들속에서 ≪**김일성**대≫라는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여 그것을 들춰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였습니다.


김원주

≪**김일성**대≫는 광범한 반일대중을 묶어세워 항쟁태세를 단단히 갖추고 있다가 우리 혁명군이 국내진공을 개시할 때 거기에 합세하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성전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주요 군수공장과 기업소, 항만과 군사건설장을 비롯한 노동현장들에 뿌리박은 조직이였습니다.

구일본의 비밀문건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대≫는 대동아전쟁은 인차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며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조선은 독립한다는 것, 패전 후 조선의 정치형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는 정치형태로 된다는 것 그리고 ≪독립후의 조선의 최고지도자는 **김일성**≫이라는 것 등을 선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1942년도 3월에 제주도의 한 비행장에서 있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을 ≪**김일성**대≫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미국 ≪뉴욕타임스≫ 주체31(1942)년 7월 18일 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한다.

≪조선인들이 큰 일본기지를 파괴

노동자들이 조선서해로 가는 입구에 있는 큐얼파트(제주도를 말함)에 대한 공격에서 공국무력 142명을 사살

애국자폭동 계속

…

워싱톤발 7월 17일 … 지난 3월 조선에서 계속되는 적극적인 반일폭동은 큐얼파트섬 혹은 사이슈에 있는 일본공군기지의 심한 파괴를 초래하였다.…

큐얼파트섬은 조선반도의 남쪽끝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며 조선해협과 조선서해 입구의 주요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노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선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 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99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두 개의 휘발유저장탕크와 69대의 비행기도 파괴되었다. 일본은 그 후에 습격 후 살아남은 400명의 조선사람들을 모두 죽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3월 1일 북부조선에서도 조선사람들이 폭약으로 세 개의 발전소를 폭파하였다고 한다.≫

백두산회는 1942년 여름에 함북도 성진(김책)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일본경찰들이 남긴 자료를 보면 백두산회는 와세다대학에 적을 둔 사람의 지도밑에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여 싸우고 있다는데로부터 그것을 조직의 이름으로 삼고 활동중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백두산회가 조선독립을 위해 인민혁명군 참군투쟁과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평양일대에는 조국해방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항쟁조직이 있었습니다. 나의 4촌동생 김원주가 들어있던 조직입니다.

조국해방단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킬 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삼고 있던 적극적인 항쟁조직이였습니다.

그들은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중서부의 공장지대들과 농촌들에 들어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들속에서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조직망은 경찰기관과 적의 관공서에까지 뿌리를 내리였습니다.

조직의 운동방침도 굵직굵직하고 진취적이였습니다. 실례로 조국해방단은 조선청년들을 징병, 징용으로 강제연행해가는 제1선기관들을 파괴할 것을 계획하고 우리 부대에 줄을 놓아서 무장을 해결한 다음 조직성원들 중 우수분자들을 선발하여 무장투쟁에 직접 참가시킬 것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면사무소도 습격하겠다, 공출미도 도로 빼앗겠다, 징병, 징용 문서도 탈취하겠다, 교통기관도 파괴하겠다, 구월산에 야장간을 꾸리고 도창무기도 만들어내겠다… 보다싶이 하겠다고 설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조국해방단 지도부는 일본군대나 군수공장에 조직을 박아넣을 궁리까지 하였습니다.

원주의 말에 의하면 조국해방단은 두단리에서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원주가 체포된 것은 왜정말기에 권총을 탈취해낸 사건 때문입니다.

원주가 체포된 다음 경찰놈들은 매일같이 집에 달려들어 감춘 총을 찾느라고 수색을 해댔습니다.

경찰들이 원주를 붙잡은 다음 **김일성**의 4촌 동생을 잡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떠들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항쟁조직들 가운데서 그 중 규모가 큰 조직으로는 일철비밀결사와 경성제국대학출신들로 조직되었던 무장봉기준비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일철비밀결사는 우리의 한 소부대에서 파견한 정치공작원의 지도밑에 일철의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무어진 조직입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서 일철에 공산당재건조직이 나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

다. 이 조직을 주도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운동경력으로 볼 때 기성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로조나 농조운동에 관여하다가 감옥밥을 몇 번씩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일철비밀결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공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 준비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결사는 부윤지구에 비밀근거지를 꾸리고 무기와 식량, 의약품들을 저장하고 삐라와 소책자도 찍어냈습니다. 주요공장들에 행동대를 조직하고 무장폭동의 개시 신호와 날자, 무기탈취대상과 그 순차와 방법을 밝힌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짜놓았습니다.

일철비밀결사는 조직이 탄로되기 전까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시생산에 제동을 걸기 위한 파괴공작도 잘하였습니다.

이 항쟁조직에서는 공장주변에 있는 일본군대의 고사기관총을 탈취할 대담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일철반일회조직은 철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생산된 선철을 일본으로 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상선거부투쟁도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숱한 짐배들이 철을 싣지 못하고 청진항에 여러 날 동안이나 머물러 있은 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직된 무장봉기준비결사도 규모가 크고 잡도리가 만만치 않은 조직이였습니다.

경성(서울)지구 무장봉기준비결사에는 기성세대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인텔리들이 많이 참가하였는데 국내의 비밀결사들가운데서 지식인들이 그만큼 많이 참가한 조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성대비밀결사라고도 하는 조직입니다. 해방전 항간에서 ≪성대사건≫이라고 떠든 것이 바로 이 결사로 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약칭해서 성대라고도 합니다. 이 결사를 배후에서 움직인 것은 우리가 준비시켜 파견한 공작원이였습니다.

경성지구 무장봉기준비결사의 조직자들인 김일수나 서중석은 내가 길림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오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김일수는 쏘련 원동지방에 들어가 이준의 아들 이용과 함께 쏘련적위군 조선인대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한 적도 있습니다. 백파를 격멸하는 전투들에도 여러 번 참가하여 많은 군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1920년대 초에는 고려공산당의 이동휘네를 따라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김일수는 한때 조선공산당 재건활동에도 참가한 적이 있는데 후에 말하기를 당을 재건하되 감자도장을 가지고 국제당에 찾아다니는 놀음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당건설을 중앙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선포하는 하향식방법이 아니라 대중속에 들어가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면서 상향식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도 허심하게 받아들이였습니다.

훗날 만주로 망명해간 김일수는 동만특위에서 일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여러 해나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형을 마친 다음 우리 부대를 찾으려고 동북 지방에 들어와 여기저기로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조선에 나와 노동계급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노동계급을 중시한 것으로 보아 때벗이를 잘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민립대학 창립총회

서중석, 서완석 형제도 내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중석은 원래 서울파에 속해 있다고 후에 엠엘파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길림에 있을 때 황귀헌의 아버지 황백화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나는 서중석이 길림에서 청년사업을 할 때부터 그와 알게되었습니다. 내가 하숙을 정하고 있던 장철호네 이웃에서 서중석이 살고 있다나니 그와도 얼굴을 익히게 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와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서중석은 파벌놀음을 걷어치운다고 했습니다. 1국1당제에 따라 남들이 다 중국당으로 적을 옮길 때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당재건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여러 해나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주견도 있고 지조도 강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들 형제는 해방 후에도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무장봉기준비결사를 내온 국내항쟁투사들은 흥남질소비료공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공장, 광산들과 학교들에 조직을 확대해나갔습니다.

경성지구 무장봉기준비결사는 비밀활동거점을 꾸리고 무기구입과 출판물인쇄로부터 군사정보수집에 이르는 폭넓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었습니다. 지어는 조직성원들에게 무기사용법도 배워주고 군사훈련도 시키였습니다.

일세시기 조선에 하나밖에 없던 경성제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노라는 수재들이고 그 대부분은 유산층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을 계몽시키자고 그런 대학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조선사람들이 자체의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벌이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제국대학이란 이름을 붙여 식민지통치의 하수인들을 길러내는 대학을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무장봉기준비결사가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안형준도 서울에서 전민항쟁조직들을 꾸리고 잘 싸웠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북부국경일대에서 형권삼촌의 지도를 받으며 반일청년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선전화 ≪조선민족의 단결로 일제를 쓸어버리자≫

안형준은 서울의 종로네거리에 무슨 주식회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산하기업소들을 내온 다음 조직공작을 추진시키는 한편 혁명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을 통이 크게 벌였습니다. 그는 산하기업소들의 목재소노동자들과 유벌노동자들속에 전민항쟁조직들을 꾸려나갔습니다.

안형준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있던 일본사람의 피혁공장을 눅거리로 사서 무장봉기준비결사의 후방기지, 연락기지로 전환시키고 그 공장에서 뽑은 수만 원의 돈을 허리에 띠고 다니면서 무기같은 것을 사들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 안형준은 서울시인민위원회 초대선전부장을 하였습니다.

나는 1946년 봄에 김책과 함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이극로를 비롯한 조선어학회에 망라된 학자들도 조직을 뭇고 투쟁을 벌였습니다.

함경북도 동무들이 회령 까치봉인민무장대, 곰산로농무장대, 나진인민무장대 하면서 자기네 고장 무장대 자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런 자랑을 할

만도 합니다. 그 무장대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산광산의 청년노동자들로 무어진 백의사라는 조직에서는 계통적으로 쏘련으로 내보내는 조선말방송을 들으면서 선전공작도 하고 투쟁도 조직하였습니다.

철산의 애국단, 순안철공소 반일무장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무장대들이 온 나라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 중에서 적지 않은 것이 우리와 함께 일했거나 직접 파견한 사람들에 의하여 꾸려진 것들이였습니다.

우리의 영향밑에서 활동하던 흥남지구의 항쟁조직들은 일제가 극비밀리에 개발해오던 대량살륙무기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패망할 때까지 끝내 그 개발에 성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조동욱

박인진, 이창선 등과 함께 일찌부터 풍산일대에서 반일대중단체건설에 참가하였던 이귀현이 파견되여 활동한 함경남도 허천일대에서도 수전공사장 노동자들과 많은 애국자들이 조직을 뭇고 잘 싸웠습니다.

전민항쟁조직은 일본침략군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1944년에 진해해병단에 끌려간 조선청년들이 전쟁이 일제의 패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패전국의 군대에 끌려다니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사전에 **김일성**부대에 달려가 그 산하에서 조선독립에 기여하자고 하면서 집단탈출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동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중국에 갔을 때 주은래와 팽덕회가 항일전쟁 때 중국전선에서 많은 조선청년들이 무장을 갖추고 자기들한테 찾아와 **김일성**부대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형편이 허락치 않아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못하고 화북에 있던 의용군에 넘겨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30사단에서도 조선청년들이 반일학도병무장대를 조직하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집단적으로 합류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무장대는 산하에 2개의 지대를 두고 그 지대아래에 4-5개의 분지대를 둔 잘 째인 조직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투쟁방향을 몰라서 암중모색하다가 우리의 선이 가닿은 다음 옳은 진로를 찾고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갔다고 합니다.

반일학도병무장대는 행동계획을 아주 통이 크게 세웠습니다. 그들은 추석날을 계기로 일제히 병영을 탈출해서 일단 양덕군 북대봉기슭에 집결했다가 경찰서나 헌병대 같은 것을 치는 방법으로 무기, 탄약, 식량을 보충해가면서 산줄기를 타고 보천보근방의 산중에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산속에 숨어있는 징용, 징병 기피자들로 대오를 보충하고는 활동거점을 꾸리고 유격투쟁을 벌이다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합세하여 조국해방작전에 참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지막작전회의에서 목표 백두산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할 준비를 면밀하게 갖추었댔는데 한 조직성원의 부주의로 거사가 유산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군부는 이 사건을 건군이래의 큰 반란음모의 하나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날 국내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조직에 관계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도 전민항쟁노선을 받들고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최후결전의 시기에 우리의

투쟁에 합류해나섰습니다.

이현상도 콩그룹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할 때 우리가 내놓은 전민항쟁방침을 알게 되였다고 합니다. 그 형무소에 박달도 있었고 권영벽이랑 이제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현상이한테 조국해방작전과 관련한 우리의 구상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구상을 알게 된 때로부터 그는 단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서 항쟁대오를 묶고 왜놈들과 결판을 내자는 것이였습니다.

20여일간의 단식 끝에 생긴 병으로 하여 가석방된 이현상은 얼마동안 몸조리를 하다가 지리산에 들어가 징병, 징용을 피해서 숨어있는 청장년들과 학생들로 무장소부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현상이 타고 앉은 지리산은 해방구 형태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는 우리와의 연합작전을 위해 백두산에 연락원도 파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조동욱도 서울에 가서 전민항쟁준비를 잘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6.6동맹이라는 조직은 그 산하에 등산대와 축구단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합법조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바닥의 반일조직과도 연계가 깊었다고 합니다. 조동욱은 해방 후에도 서울에 틀고 앉아서 남조선청년운동을 우리의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평양에 들어오자 바람으로 나를 찾아와 10년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현상

옥중에서 비밀조직을 묶고 우리의 전민항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가운데는 김삼룡이도 있습니다. 김삼룡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살이를 할 때 옥중에서 공산주의자 써클을 조직하고 일제의 전향강요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였습니다.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콩그룹사건 때문이였습니다. 김삼룡은 콩그룹을 내온 다음 조직부책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콩그룹은 서울공산주의자그룹라는 뜻입니다. 당을 재건해보자고 만들어낸 조직이였습니다.

그 조직에 망라되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내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우리의 영도를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전민항쟁에 합세하였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들이 서울 한복판에까지 침투하여 콩그룹성원들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도 배포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과도 통보해주었습니다.

서울콩그룹은 서울일대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직종별 산하노조까지 두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도 벌였다고 합니다.

이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던 김삼룡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박달이 서울에서 들어와 김삼룡을 의리가 있고 절개가 강한 혁명가라고 자주 말하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일본놈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몇몇 안되는 사람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이현상과 마찬가지로 김삼룡도 서대문형무소에서 박달이네를 만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의 친교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박달을 서울병원에 입원시키고 온갖 성의를 다해 보살펴준 사람이 김삼룡이였습니다. 박달이 우리의 부름을 받고 평양으로 들어올 때에도 그가 뒤에서 조직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박달을 통해 나에게 문안편지도 보내왔습니다.

김삼룡은 강의한 신념과 능숙한 조직력을 가진 당활동가였으며 나라와 민족과 공산주의위업을 위해 한 생을 바친 애국자였습니다.

남로당활동이 비법화되였을 때 우리는 김삼룡의 신변이 걱정되어 정세가 험해지면 주저하지 말고 북반부로 넘어와서 사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초소를 떠나지 않고 지하에서 남조선의 당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변절자들의 밀고로 남조선경찰당국에 붙잡혀 총살당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은 1940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두고 전민을 빈틈없이 준비시켰습니다. 1945년 8월에 우리 나라에서 적의 통치체계가 왜 그렇게 빨리 허물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일본사람들이 틀고 앉아있던 통치기관들을 철저히 짓부셔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용

1940년대 전반기 전국도처에 조직된 전민항쟁역량의 반일투쟁이 적극화된 데 대하여 이전 쏘련의 출판물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의 반일운동이 더욱 크게 강화됨으로써 일본의 형편은 나빠졌다.

조선에서는 일본군사대상들에서의 태업과 파괴공작에 대한 사실들이 수많이 기록되었다. 례컨대 1942년 2월 신의주에서 7개의 군수물자를 실은 차량이 폭파되었으며 제지공장이 소각되었다. 웅기에서는 6개의 연유창이 폭발하고 창고가 불타버렸다. 제주도에서는 일본항공기지에 고용된 조선노동자들이 69대의 일본비행기를 파괴하였다.…≫≪베. 야로보이≪조선≫43－44페이지, 쏘련해군출판사 1945년 9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을 준비할 때 우리 민족내부의 힘이 다 발동되었습니다.

민족내부의 애국역량이 최대한으로 단결되고 발동된 거족적인 반일항전, 이것이야말로 1940년대 전반기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모습인 동시에 특출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로 대치되어있던 두 세력이 이 시기에 와서는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다시 합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원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벌이나 되는 노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은 우리와 걸음을 같이하였습니다. 진실로 애국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산주의냐, 민족주의냐 하는 것이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김구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완고한 반공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군자금을 보내자고 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호소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와의 군사적 연합을 위해 연락원까지 파견하였습니다.


김구

일본유학생들이 공산주의신봉자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부하가 되겠다고 절규한 것이 아닙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이 애국의 길이고 독립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주장과 이념을 따질내기를 해가지고서는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1940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을 때처럼 제나름의 주의는 묻어두고 공통성을 찾아 그것을 절대화하여야 합니다. 항일혁명의 경험과 교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3. 대일작전의 돌파구

대일작전전야에 조국해방의 기치,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를 들고 소부대정찰활동을 벌이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된 조선인민혁명군 용사들은 수없이 많다.

소부대정찰활동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써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아래에 수록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상교시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적구정찰활동에서 세운 영웅적 위훈을 새겨보게 된다.

조국해방을 위한 대일최종작전을 준비하던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은 선봉에 서서 그 돌파구를 열어나갔습니다.

대일작전수행과 그것을 준비하던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은 국제연합군에 망라되어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직접적인 선을 통해서도 진행되었으며 국제연합군 별동대의 선을 통해서도 진행되었습니다.

대일작전을 예견하는 군사정찰활동, 특히 국제연합군의 공동정찰작전을 적극화하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볼 때 매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적 기도를 제때에 알아내자면 일본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쏘련과의 접경지역인 만주나 조선에서 군사정찰활동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둔 우리에게는 종전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방대한 정찰과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제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니 정찰대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개 또는 3-4개 대상에 대한 습격전, 파괴전, 매복전을 위주로 하던 지난날의 싸움에서는 승산이 있는 대상들만 골라 쳤기 때문에 정찰대상도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적주둔지와 요새구역, 비행장, 포화력 진지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요소들을 다 정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지어는 반동단체소재지와 그 구조적 특성, 민심동향까지도 다 정찰대상이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군사정찰활동을 중시하였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일본군대의 기동이 빈번해지고 지휘기구가 자주 교체된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이 쏘련을 침공하자 일본군부는 만주의 관동군을 수십만 명이나 더 늘였습니다. 히틀러군대가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쏘련이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면 즉시로 북공을 개시하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만주에 군대를 대대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히틀러 군대가 모스크바를 먹지 못하고 우물거리기 시작하자 약삭바른 일본군부

는 북공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리고 ≪북수남공≫에로 넘어가 진주만공격이다, 싱가포르함락이다 하면서 만주방면에 집중되였던 병력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남방으로 빼돌리게 되였는데 그 자리를 메꾸자고 하니 새로운 인원과 전투기재들을 이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만주와 국내의 넓은 판도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면서 조국해방작전에 필요한 정찰자료들을 수많이 수집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수집한 정찰자료가운데서 첫 자리에 놓아야 할 것이 조쏘, 조만, 쏘만 국경일대에 구축된 요새들과 요새구역에 대한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이 없었더라면 그처럼 훌륭하게 대일작전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적의 속내를 죄다 탐지했기 때문에 ≪범의 아들≫이라고 우쭐렁거리던 관동군의 정예무력이 변변히 저항도 못해보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이 요새구역들을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할 만도 하였습니다. 세상사람들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이나 독일의 지그프리트선이 굉장한 줄만 알았지 일본의 요새들과 요새구역들이 얼마나 요란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이 구축한 요새구역들을 한데 연결시키면 총 연장길이가 1,000킬로미터이상이나 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막대한 물자를 들이밀어 이 요새선을 구축해놓았는데 보통 1개 요새구역에 영구화점과 토목화점만 해도 평균 500개나 되는데다가 지휘소와 감시소, 화력진지, 각종 엄개와 전호, 교통호, 반탱크, 반보병 차단물들까지 셈에 넣으면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할 수 없을 지경이였습니다. 관동군의 기본주력이 이 구역들에 배비되여 있은 것만 보아도 일본군부가 이 요새구역들을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구역정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내가 소부대를 데리고 만주와 국내로 들락날락할 때 동흥진요새구역의 북쪽 익측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에서 적의 화점들과 잘 위장된 엄개에 맞다들군 하였습니다. 밤중에 숙영했다가 새벽 일찍 잠을 깨고보면 적들이 설치한 지하구조물의 지붕이 아니면 영구화점 옆이였습니다.

한번은 적초소가 있는 산밑에 숙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대원들을 조심조심 깨워가지고 적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침식사를 하면서 동무들이 지난밤 어떤데서 잤는지 아는가, 적의 초소가 있는 산비탈밑에서 숙영했다고 하니 다들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요새구역정찰을 위해서는 몇 개의 정찰조를 고정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실례로 함경북도의 경흥(은덕)요새구역은 10여개의 정찰조가 전담하였습니다. 훈춘, 동흥진, 동녕 요새구역에도 그만 못지 않은 역량이 투입되였습니다.

우리 정찰병들은 그때 적의 요새구역에 뚫고들어가 영구화점의 콘크리트쪼각까지 떼가지고 왔습니다.

영구화점의 크기나 포의 구경 같은 것은 노끈이나 자로 재면 되지만 적의 보초 옆에서 소리도 내지 않고 콘크리트쪼각을 감쪽같이 떼온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들은 이 어려운 과제도 훌륭히 해냈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국경일대에 구축된 요새구역 뿐 아니라 나진, 청진, 원산 일대와 멀리 조국남단에 있는 진해요새, 여수요새까지 정찰하였습니다.

정찰병들은 넓은 지역에 전개되어있는 요새들과 거기에 배치된 병력과 포무력, 비행장과 비행기의 대수까지 알아냈고 항구시설, 적함의 종류와 톤수, 항구출입질서, 통신결속소위치, 군수물자창고를 비롯하여 알아낼 것을 다 알아냈습니다.

요새구역과 요새를 정찰하는데서는 오백룡을 조장으로 하고 김철만, 한천추, 김

혁철 등을 망라한 정찰조가 특출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오백룡이네 조는 국내정찰 임무를 수십 차례나 수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무전기가 없어서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이용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비둘기 발목에 달린 늄통속에 도착보고를 써넣어 기지에 알리군 했습니다. 1942년경부터는 국내와 만주에 침투된 대부분의 소부대들과 정찰소조들이 무전기를 이용하였습니다.


한천추

국내에 나올 때는 대체로 일본사람들이 국민복이라고 부르던 옷차림을 하고 지하족을 신었으며 마른 음식으로 끼니를 에웠습니다. 일단 국내에 나오면 기차나 자동차나 마소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목적지까지 가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찰성원들에게 대상지역의 지리와 풍습, 말씨에 대하여서도 섬세하게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적들은 두만강연안과 북부국경지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를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부대나 소조들이 침투할만한 야산들에는 가는 실오리 같은 것을 늘이고 상시적으로 살펴보다가 줄이 끊어지기만 하면 무작정 군경들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수색을 들이대군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땅에 찍힌 신발자리를 보고 우리 정찰병들의 침투여부를 가늠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백룡정찰조 성원들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번은 이 정찰조의 성원들이 웅기(선봉)에서 경흥(은덕)쪽으로 넘어가는 저슬령이라는 고개에서 악질경방단원과 맞다든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적의 군경들은 그 경방단원의 시체를 보고 저슬령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소동을 벌였습니다. 적들은 이 수색에 수백 명의 주민들까지 동원시켰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가둑나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수색에 동원된 주민들은 우리 동무들을 보고도 못본 척 하였습니다.

김철만은 그날 가둑나무가지에 우리는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는 혁명군이라는 글쪽지를 써서 걸어놓았습니다.

수색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 글쪽지를 보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다가 여기는 없다고 하면서 다음골짜기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오백룡이네 정찰조는 국내공작과정에 임시비밀근거지들을 많이 개척해놓았습니다. 보로지산임시비밀근거지, 작은가매원임시비밀근거지, 청학산임시비밀근거지 등은 그 조가 개척한 것들이였습니다.

우리 정찰조성원들은 이런 임시비밀근거지들에 의거하여 군중과의 사업도 주동적으로 전개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보로지산림시
비밀근거지

우리 동무들은 숯구이를 하는 한 노인을 교양하여 정보공작도 하게 하고 신문, 잡지도 사들이게 하였는데 그가 어느 정도 정보공작에 숙달되자 청진항과 원산항을 정찰할데 대한 과업을 주어 현지에 파견하였습니다. 그 노인은 원산에 있는 친척집을 발판으로 삼고 오래동안 원산요새에 대한 정찰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입수한 중요한 정보자료들을 오백룡이네 정찰조에 보고하였습니

다.

오백룡은 보로지의 깊은 산중에서 농사도 짓고 숯구이도 하면서 일본말도 괜찮게 하는 사람을 정찰활동에 인입하여 얼마동안 단련시켰다가 일본으로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일본군은 그 지방에 있는 군마보충부들에서 길들인 말들을 매해 가을 일본에 실어가군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선사람들 중에서 말몰이군을 뽑아 일본에 데리고 갔는데 오백룡은 그 말몰이군대열에 자기가 장악한 그 사람을 슬쩍 끼워넣었습니다. 오백룡에게서 특수임무를 받은 그 사람은 일본에 건너간 후 나진-니이가다, 청진-쯔루가 항로를 통하여 조선-일본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김혁철

오백룡이네 정찰조의 활동에서 특징으로 되는 것은 활동범위가 크고 자료가 매우 과학적인 것이였습니다.

조선남단의 요시지들인 진해, 마산, 부산 일대의 정보들도 오백룡이네가 파견한 정보원들이 걷어들였습니다. 부산에 파견된 한 정보원은 잡화상을 하면서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여수요새에서도 우리가 파견한 공작원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찰활동을 통이 크게 벌이면서도 능숙하고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대일전쟁전야에 쏘련군대가 작정한 나진, 웅기, 청진 등 동해안지대의 주요항구들에 대한 상륙작전계획은 전적으로 오백룡이네 정찰조가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였습니다. 그 조가 항구들에 대한 정찰을 아주 대담무쌍하게 하였습니다.

김혁철은 이 정찰조가 배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영웅전사입니다. 그는 열 번째로 조국에 정찰공작을 나왔다고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 국내에 나왔는데 그 중에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했지만 그 대원이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소조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혁철이 그 대원을 업고 걸었습니다. 눈이 무데기로 내리는 날이여서 한걸음한걸음 힘들게 옮겼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눈구뎅이속에서 뭉개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어 강건너 접선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안내원들은 철수해버렸습니다.

소조책임자는 며칠째 밥 한술 먹지 못한 전우들이 아사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먹을 것을 구해보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마을로 내려간 다음 김혁철이 지성을 다했으나 관절염 때문에 신고하던 대원은 숨이 지고 말았습니다.

김혁철 자신도 사실은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는 형편이였습니다. 김혁철은 눈속을 기여가다가 기운이 진해서 눈무지속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기간에 김혁철이처럼 굶어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듬해 봄에 마을 농민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하고 두만강기슭에 묻어주었습니다. 관절염을 앓던 대원의 시신도 그의 옆에 나란히 안장하였습니다. 김혁철은 죽는 순간까지도 손에 권총을 틀어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그 권총을 보고 그들이 빨치산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김혁철은 **김정숙**이 도천리에 가서 지하공작을 할 때 우리 부대에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주 용감하고 충실하였습니다. 도천리출신들이 모두 잘 싸웠습니다.

경흥요새구역 정찰은 손태춘이네 정찰조가 담당하였습니다. 그 정찰조도 일을 잘 하였습니다.

손태춘네 정찰조는 웅기뒤산에 임시 비밀근거지를 꾸리고 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손태춘은 1942년 여름에 적들의 포위에 들자 달려드는 적들을 맨주

먹으로 때려눕히며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전사하였습니다.

손태춘은 화룡유격대에 있다가 우리 주력부대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우리 부대에 넘어와서는 분대장도 하고 소대장도 하였습니다. 같은 화룡출신들인 박영순과 김주현이 그를 몹시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은 손태춘을 두고 똑똑하고 대가 세며 신념이 강하고 절개가 굳은 열정가라고 하였습니다.

손태춘에 대한 평가는 조금도 과정된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는 전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사람이였습니다. 유격대경력으로 말하면 김주현과 입대연도가 같은 노병급이였습니다. 그는 고수머리에 미남이였습니다.


손태춘

손태춘에게는 그의 사람됨을 말해주는 소설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화룡에서 살 때 부모들끼리의 약속으로 한 처녀와 짝을 뭇게 되어있었습니다.

부모들끼리의 혼약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서로 상대를 열렬히 사랑하였습니다. 두 사람사이에 곡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혁명가인 처녀의 오빠가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된데다가 빚 때문에 지주에게 오막살이를 차압당하고 온 식구가 도가집살이를 하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손태춘은 장인강이라는 곳에서 공청사업을 하였습니다. 약혼녀의 일가가 겪는 참상을 보게 된 그는 심장이 당장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태춘이한테는 처녀네집을 도와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모로 궁리하던 끝에 멀지 않은 마을에서 공청생활을 하는 김 아무개란 청년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좋은 며느리감을 소개해주겠는데 그 대신 소1마리를 줄 수 없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그 청년의 아버지는 몇 해후에 소값을 갚아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손태춘이 약속한 좋은 며느리감이란 자기의 약혼녀를 염두에 둔것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소1마리를 얻게 된 손태춘은 그 소를 팔아 지주에게 진 빚을 물어주고 차압당한 오막살이를 찾아 약혼녀의 일가를 도가집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처녀를 만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처녀는 처음에 다른 집에는 절대로 시집을 안간다고 울며불며 야단이였습니다. 그러나 손태춘이 난들 왜 동무를 남의 집에 보내고 싶겠는가, 우리들이 지주의 학대속에 울고 있은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 언니, 동생들을 위해 사랑이야 희생시키지 못하겠는가, 그러니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설복하는 바람에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슬프게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잔치를 하는 날 토벌대가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은 수라장이 되고 신랑, 신부는 첫날옷차림으로 황황히 집을 떠났습니다. 온 일가가 흩어지다나니 신랑은 유격대로 들어가고 신부는 다시 적구에 남아 공청사업을 하게 되였다는 것입니다.

손태춘도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김아무개 청년은 그 후 왕청유격대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이래저래 불행한 그 여인은 손태춘을 잊지 못하여 한생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손태춘을 늘 어려운 모퉁이에 파견하군 하였습니다. 그는 간삼봉전투와 무산지구전투, 홍기하전투를 비롯하여 우리가 조직하고 지휘한 중요한 전투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였으며 그때마다 남다른 기개와 영웅성을 발휘하였습니다. 홍기하전투 때에는 전방척후로서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손태춘이네 집안은 왕청의 오태희네 가문처럼 온 일가가 항일전에 몸을 바친 혁명가의 가문입니다. 손태이, 손태운, 손태룡 등 그의 많은 형제들도 유격대와 혁명조직에서 싸우다가 희생되였습니다.

김학송은 경흥요새구역정찰을 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도 손태춘이처럼 적의 포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수집한 정찰자료를 김봉석에게 넘겨주고 적을 자기에게로 유인하다가 희생되였습니다.

청진, 나남 요새정찰에는 한태룡이네 조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일본헌병으로, 때로는 구두쟁이로, 때로는 인력거군으로 신분을 위장해가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장을 잘하고 임기응변해도 산에 있는 고사포진지에 대해서는 경계가 너무 심해 정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지가까이에 가보아야 포의 구경과 문수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날 한태룡이네는 고사포진지쪽으로 뻗은 올리막길로 손달구지를 힘겹게 끌고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하도 힘들게 오르기에 그 손달구지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때 한태룡은 ≪유랑걸식≫하는 자기네 신세를 개탄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를 동정하면서 왜놈들이 망해야 조선사람 살길이 열리겠는데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한태룡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고사포진지를 가리켜보이며 일본사람들이 대포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망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저 산의 대포는 대부분 가짜이다, 진짜대포는 몇 문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나무로 만든 가짜포이다, 여기서 나무를 찍어서는 껍질을 벗기고 뼁끼칠을 해서 진지로 날라가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청진일대의 무력배치와 청진항에서의 배들의 입출항, 물자수송 정형까지 다 꿰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대조한 결과 신통히도 딱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온성, 경원, 경흥을 비롯한 북부국경지대의 요새구역과 요새 정찰에서는 박광선이네 정찰조와 홍춘수네 정찰조가 큰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박광선이네 정찰조는 군사정찰과 대중공작을 잘 결합시켰습니다. 그들은 군사정찰에 주력을 돌리면서도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다나니 군사정찰에서도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성, 웅기, 경원, 경흥, 나진 일대에는 1930년대 초부터 우리가 꾸려놓은 조직들이 많았습니다. 박광선이네 정찰조가 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은 것은 이 조직들을 잘 발동시킨데 있었습니다.

해방 후 박광선은 소부대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네 정찰조가 함경북도 북부일대에 나와서 활동할 때 온성사람들의 신세를 제일 많이 졌는데 알고보니 그들은 1930년대 전반기부터 ≪길림바람≫과 ≪간도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원군운동을 꾸준히 해온 조직성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네가 온성에 가서 우연히 손을 잡은 구장도 지하조직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장은 우리 정찰조 성원들을 만나서는 오늘밤은 두만강나루터에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으니 강을 건느지 말라든지 전화도청을 하려면 어디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에 귀띔해주군 하였습니다.

박광선이네 정찰조를 도와준 사람들 가운데는 남양헌병본대에서 헌병오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사람이 헌병오장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간혹 홍종우처럼 헌병보조원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헌병오장을 하는 조선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박광선이네는 이 오장을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오장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가 1940년대 초기부터 손장춘과 연계를 맺어온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였습니다. 손장춘이 경원군에서 소부대활동을 하다가 전사한 후 그는 인민혁명군의 줄이 와닿기를 기다리면서 깊숙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헌병오장은 헌병대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자료들을 정찰조에 빠짐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의 신변도 잘 보호해주었습니다.


윤태홍

한번은 소부대의 1개 소조가 두만강유역의 요소구역들에 대한 정찰을 하다가 적들에게 단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병오장은 우리 동무들을 붙잡아놓고 경비를 서고 있는 경방단원들과 밀정들에게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단속된 사람들이 헌병대소속의 밀정들인데 제편사람들을 잡았다고 한 바탕 욕설을 퍼붓고나서 우리 소조원들을 놓아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양은 국경일대 요새구역들과 일본본토와의 연계를 보장하는 중계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에서 중국동북지방과 연결된 중요 도로와 철도, 통신망이 주로 남양을 통하게 되어있었고 대륙침략을 위한 보급물자들도 남양을 거쳐 동북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찰조가 남양의 헌병오장을 정보공작에 인입한 것은 적후공작에서 하나의 큰 소득이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군사정찰에 적기관복무자들도 대담하게 인입하였습니다. 서수라경찰서에서 급사로 일하던 사람은 경흥요새구역과 나진요새의 정찰에 참가한 우리소조성원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열성을 내여 서장의 신임을 얻은 다음 여러 가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나중에는 중요군사기밀문건까지 빼내였습니다. 한창봉과 조명선이 북부국경지대에서 활동할 때 자주 드나들던 청학의 일본경찰들 중에는 그들의 영향하에서 우리의 정보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정찰활동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작전기도와 병력이동정형을 수시로 살피면서 우리가 최후 공격작전을 수립하는데서 참고로 삼아야 할 가치있는 자료들을 무수히 수집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속임수를 잘 썼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반복정찰을 많이 하였습니다. 적들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썼지만 우리 정찰조성원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윤태홍도 관동군 제1방면군의 조직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연합군지휘부의 대일작전계획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적통치구역에 많은 공작원들을 장기적으로 침투시키는데도 큰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우리 공작원들은 적구의 여러 주요개소에 깊숙이 박혀있었는데 지어 위만군과 위만경찰은 물론, 일본군부대들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하공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하공작원은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를 파견한 사람이 소환명을 내리지 않는 한 공작지를 함부로 떠나도 안되고 공작비밀을 누설해도 안됩니다. 이 원칙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동무들은 이 원칙을 생명으로 지켰습니다.

지경수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 사령부는 최후공격작전을 앞두고 그에게 적구에 들어가 장기적으로 잠복하여 지하공작을 진행할 데 대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공작지는 쏘만국경연선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지경수는 공작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지주행세를 하면서 능란한 방법으로 일본국경들을 끌어당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뽑아낸 극비자료들을 수시로 사령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보낸 자료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서 은을 냈습니다.

우리는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그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복해 있는 곳이 미구에 장개석군대와의 결전이 벌어지게 될 고장이라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경수

지경수는 공작지가 해방되자 소작인들이 달려들기 전에 미리 토지와 집을 내놓고 수걱수걱 농사차비를 하였습니다. 토지와 집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덕에 그는 타도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지대가 국민당군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경수는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었던 땅을 도로 찾은 다음 이 전날처럼 또다시 지주행세를 하면서 국민당군대 상층과 친교를 맺고 그들에게서 귀중한 정보자료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말없이 공로를 세운 지경수 자신은 동북이 국민당군대의 치하에서 해방되자 반동파로 몰려 심판대에 끌려나가 농민들의 손에 맞아죽을 번하였습니다. 그때 지경수는 심판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판장에 갔던 우리 동무들이 지경수를 항일유격대원이라고 보증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지경수를 인차 조국으로 소환하였습니다.

훈춘현 밀강부근에는 쑥새골이라는 고장이 있습니다. 이 고장에는 염노인이라는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염노인은 짐승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일반주민들에게 짐승사냥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냥허가를 주는 경우에는 꼭 자기네 정보활동을 도와달라는 조건부를 붙이군 했습니다. 염노인도 이런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고 짐승사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문정찰을 맡은 임철이네가 이 노인에게 접근해서 협조를 호소하였습니다. 염노인은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놈들의 지령과 유격대의 주문을 동시에 집행하는 2중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노인은 적들에게는 가짜정보를 제공하고 유격대원들에게는 진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철이네 소조가 도문정찰에 성공한 것은 이 노인을 잘 이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도문지구에 파견된 정찰조들은 적의 반탐에 걸려 실패했는데 이 조만은 성공하였습니다. 도문은 일제의 비밀정탐기관들과 군경들의 집결지였습니다.

해방 후 사람들은 일본놈의 밀정질을 한 반동이라고 하면서 염노인네 가산을 다 몰수하였습니다. 그도 지경수처럼 심판장에 끌려나가 욕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1946년초에 임철이 염노인을 보증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염노인은 애국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군사정치활동은 대일작전이 박두해옴에 따라 더욱 적극화되었습니다.

패망전야에 일본 정계와 군부에서는 ≪조선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는데 그들은 조선이 자활자전체제에서 대륙전쟁의 병참기지, 최종전쟁거점으로

될 뿐 아니라 일본 최후의 운명수혈로로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내놓지 않겠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조선사수론≫은 조선을 마지막지탱점으로 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잔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조선사수론≫이 실천에 옮겨진다는 것은 곧 조선땅이 일제를 격멸하는 최후결전장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우리는 국내정찰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적들의 중요한 군사비밀을 새롭게 밝혀내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적군용비행장에 대한 정찰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김대홍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조선과 만주에 많은 비행장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동해안 일대에 비행장들을 건설하였는데 청진이요, 길주요 하는 곳들에 있는 비행장들이 모두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 건설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길주에 새로 건설한 비행장에서는 비행기가 뜨는 족족 모두 곤두박질을 하군 했습니다. 시험비행을 여러 번 해본 다음에야 길주지구대의 기류가 비행기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인차 이 비행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비행장을 건설하는 통에 숱한 농민들이 농토를 잃고 한지에 나앉았습니다. 동해안지구에 파견된 우리 동무들은 이런 자료까지도 다 수집해왔습니다.

회령비행장을 정찰한 소조성원들은 이 비행장에는 진짜비행기가 몇 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해안으로 해서 평양까지 간 김자린조는 모란봉에 올라가서 비행장을 촬영하였습니다.

비행장에는 비행기수리와 자동차수리를 동시에 맡아보는 수리공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속품창고, 운수직장, 병원, 식당을 비롯한 여러 개의 부속건물들도 있었습니다. 비행장내부에는 일본헌병으로 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북만에 파견된 김대홍이도 비행장정찰을 잘했습니다. 그는 품팔이군으로 가장하고 4개월 동안이나 쏘만국경지대에 있는 비행장에 대한 정찰을 하였습니다. 그 비행장에도 진짜비행기는 20대 미만이였습니다. 나머지는 가짜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찰병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떤 정찰병들은 적의 이동정형을 정찰하기 위해 철길가까이에 있는 구조물의 어지러운 물속에 며칠씩 잠복해 있으면서 군용렬차 통과시간과 편성을 조사했으며 어떤 정찰병들은 무더운 여름날 적들의 전술훈련상태를 정찰하기 위해 하루종일 숨막히는 오소리굴같은데 들어가 비지땀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훈련기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찰활동을 하다가 모두가 장렬하게 전사한 한 정찰소조의 활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정찰조는 지정된 날이 되면 사령부에 무전으로 정찰결과를 꼭꼭 보고하군 하였습니다. 정찰자료들이 풍부하고 정확한데다가 제때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쏘련동무들도 대단히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정찰조가 무전으로 비상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정찰조가 적들의 포위에 들었다는 것, 무전기는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보자료를 보내니 빨리 받아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적들이 무전기가 있는 산을 포위하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 젊은 대원이 먼저 나가 결사전을 벌이다가 전사했고 뒤이어 아바이대원도 전사했다는 것, 지금은 무전수인 자기가 자료송신을 끝내고 수류탄묶음을 폭파시켜 달려드는 적들을 한 놈이라도 잡고 죽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남만출신인 그 처녀무전수는 이런 내용의 전파를 날리고 영웅적으로 전사하였습니다.

김흥수도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는 1943년에 정찰임무를 받고 훈춘쪽에 나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놈들은 그에게 갖은 악형을 다하면서 비밀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흥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그를 감자를 가는 기계에 집어넣어 갈아죽였습니다.

그의 최후에 대한 기사가 국제연합군 신문에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나서면 말없이 맡아나서군 하여 내가 몹시 아끼던 전사였는데 그렇게 처절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지봉손도 같은 해 봄에 정찰을 나갔다가 훈춘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정찰활동과 그 과정에 발현된 그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던 적후정찰활동의 나날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인민들의 지지를 떼여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려운 적후정찰을 준비하면서 인민들의 방조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파견되는 소부대, 소조 성원들에게 적후에서 반드시 인민에 의거하여 인민의 도움을 받을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적후정찰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투쟁이 그전에 우리가 동북땅이나 국내에서 꽝꽝 소리치며 대부대유격전을 벌이던 때처럼 인민들과 친숙하고 혈연적인 유대로 얽히며 그들의 이해와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저으기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일작전의 혈로를 헤치는 이 간고한 투쟁에서 우리는 걸음걸음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변함없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한 것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날에 우리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한 것처럼 인민들도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을 믿고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더욱 뜨겁게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인민을 믿고 인민이 우리를 믿고 온 민족이 우리를 지지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이 진리, 이 확신은 우리에게 천백 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일제격멸의 최후결전에로 우리를 세차게 떠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수백수천 건에 달하는 정찰자료들은 대일작전의 준비와 최후승리에 큰 도움으로 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이러한 대담하고 폭넓은 정찰활동이 없었더라면 100만 관동군을 격파하는 대일작전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결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40년대 전반기 조선인민혁명군이 적극적인 소부대, 소조 활동과 꾸준하고 과감한 군사정찰활동으로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피로써 개척하여 일본제국주의를 격멸소탕하는데서 선봉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4. 민족의 얼

1940년대 전반기 조선민족은 민족으로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못하는가, 유린당한 민족성을 부활시키는가 부활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창씨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신사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며 조선말대신 일본말을 상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민에게 강요된 운명이었다.

우리 나라의 애국적 인민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항일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을 우러러보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회상교시들은 다음과 같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랄하게 황민화를 강요하였습니다. 황민화란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을 몇 십년 사이에 일본화하려고 했으니 그들의 식민지화정책이 얼마나 악랄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입학생들에게 제일 선참으로 배워준 노래가 일장기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민학교시절부터 ≪충군애국≫을 강요하였습니다. 자결로써 충의를 다했다는 광신적인 천황주의자 노기에 대한 이야기가 공연히 아이들의 교재에 포함된게 아닙니다. 충군애국사상을 주입시키자니 노기와 같은 군국주의두목을 충군충효의 표본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황국신민의 서사≫나 ≪황국신민체조≫ 역시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내리먹인 것이였습니다.

자원을 강탈당하는 것도 물론 살점을 떼우는 것만치나 원통한 일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연부원을 약탈하다 못해 놋바리와 놋수저, 지어는 제상의 놋초대와 놋술잔까지 걷어갔고 여자들의 머리에서 비녀까지 다 뽑아갔습니다.

옛날에는 금강산에 수백 년 묵은 거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부터는 금강산사찰주변에 있던 거목들까지 다 뽑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막대한 재부를 약탈해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조선사람들이 그걸 왜 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분한 것은 일본인들이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 별의별 고약한 짓을 다하는 것이였습니다. 색옷을 입어라, 창씨개명을 해라, ≪국어상용≫을 해라, ≪신사참배≫를 해라, ≪정오묵도≫를 해라 하고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제의 신사참배강요

내가 그때 일본사람들의 행실 가운데서 제일 고약하게 여긴 것은 조선사람더러 조선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우리 말을 떠나서는 조선민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선말대신 일본말을 쓰라고 한 것은 조선민족을 이 세상에서 영영 없애자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어를 잃으면 민족이라는 것도 사멸하고 맙니다.

그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는 국어상용으로부터≫라는 구호를 내걸고 관청이요, 회사요, 학교요, 공장이요 하는데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 지어는 목욕탕안에서까지 일본말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황민일보≫라는 신문은 ≪국어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신문이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어상용≫을 부르짖다 못해 조선작가들에게 일본말로 작품을 쓸 것을 강요하였으며 일본말로 된 ≪국민문학≫잡지까지 발간하였습니다.

왜정말기에 연극을 만들어도 1막 이상은 꼭 일본말로 공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방 후 황철, 문예봉, 조영출이랑 만나서 담화를 해보니 조선영화배우들에게 일본어발성을 강요하였고 조선가요를 레코드에 취입할 때에도 가수들에게 한 절 이상은 꼭 일본말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국민개창운동≫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파쑈군가까지 부르게 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말과 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한 포스터

학교에서 일본말을 쓰지 않는 학생들은 비국민취급을 당했습니다. 조선말을 쓰면 관청이 상대도 하지 않았으며 배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차표도 팔아주지 않는 세상이였습니다.

≪가미다나≫라는 것은 일본의 개국신이라는 ≪천조대신≫의 명찰을 넣은 일본식귀신상자입니다. 그런 귀신상자를 집집마다 걸게 하고 ≪동조동근≫을 떠들었습니다. 해방 후 조국에 와보니 ≪신사≫곁에서 뒤를 보았다는 죄로 감옥밥을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에 어떤 농민이 성을 일본식으로 갈지 않으면 자식을 퇴학시키겠다는 공갈을 받고 마음에 없는 창씨개명을 하고 나서 조상에게 진 죄를 벗을 길이 없어 한탄하던 나머지 돌을 안고 우물에 빠져죽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시국이 이쯤되고 보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남의 나라를 강점한 침략자들이 식민지들에서 민족동화정책을 쓰는 것은 물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터어키는 불가리아에서 그렇게 했고 영국은 아일랜드에서, 제정러시아는 폴란드에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각각 자기 식의 동화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국민에게서 말과 글을 빼앗고 자기네 식으로 성과 이름까지 갈게 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 궁성에 쳐들어가서 왕비를 난도질하는 것도 서슴지 않던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일제는 1940년대에 들어와 조선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지난 세기말의 왕가유린과 같은 악행을 뻐젓이 감행했습니다. 조선사람은 그야말로 사멸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조선의 지성인들앞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는가 아니면 복종하는가 하는 두 갈래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저항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 중에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민족을 외면해버린 사람도 있었고 굴복하여 일신의 영달을 얻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을 쌍수를 들어 지지하고 협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원동의 기지에 있을 때에도 국내에서 발행되는 출판물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애국을 하고 누가 매국을 하는가, 누가 벼슬길에 오르고 누가 감옥행을 했는가, 누가 전향을 했고 누가 교수대에 올랐는가 하는 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중에 창씨와 관련한 이광수의 글을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신보≫라는 신문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식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성을 가야마라고 고치는 것이 좀더 천황의 신민답다고 생각하기에 창씨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이광수는 일본의 신무천황이 왕위에 오른 고장의 산이름을 따서 가야마라고 성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조선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광수란 사람이 변해도 아주 너절하게 변했습니다. ≪민족개조론≫이라는데서는 두루마기와 저고리만 벗었다면 이 글에서는 아예 바지와 속옷까지도 다 벗어내치고 공공연히 친일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잡지에 지원병제를 찬양한 글까지 발표하였습니다.

해방 후 이광수는 자신의 친일을 ≪민족보존≫을 위한 애국적인 소행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민족을 보존하자니 부득불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리인데 그가 진실로 민족보존을 염원하고 있었다면 지원병제는 왜 찬양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원병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몇 이나 됩니까.


한용운

불교인들가운데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3.1인민봉기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교승이었는데 조선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행동파였습니다.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는 변호사도, 사식도, 보석도 다 거절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대표들이 겁에 질려 동요하는 기미를 보이자 감방의 변기통을 들어 내동댕이치면서 이 더러운 것들아, 너희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다는 놈들이냐하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훗날 일본사람들은 그를 매수하려고 국유지를 떼주겠다고 구슬렸습니다. 그러나 한용운은 그것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동료들과 친지들이 돈을 모아 서울 성북동에 자기 집을 지어줄 때에는 총독부 돌집이 보기 싫다고 하면서 기어이 그와 반대 방향으로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종로네거리에서 이광수를 만났습니다. 이광수가 조선청년들에게 학도병출전을 권유하며 돌아다니던 때라고 합니다. 이광수와 한용운은 가까운 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용운이 이광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이광수는 한용운을 붙잡고 내가 춘원이다, 나를 모르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용운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자기가 알고 있은 춘원 이광수는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승이 민족혼을 저버린 이광수한테 내린 사형선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남선도 애국으로부터 친일로 방향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은 일본문화화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라는 소리까지 내놓고 하였습니다. 이광수와 최남선은 지

식으로 말하면 제노라는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신념이 없는 지식이나 글재주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최린도 일본사람들의 동화정책에 굴복하였습니다.

어떤 문인은 친일시를 써서 총독부에서 주는 상이라는 것을 타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성인들이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조상을 갈고 일본옷을 입고 궁성요배를 하고 지어는 ≪천황을 위해 보람있게 죽자≫는 얼빠진 소리까지 해가면서 민족을 반역하고 있을 때 애국적인 학자들과 교육자들, 문예인들, 언론인들을 비롯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그런 자들에게 침을 뱉으면서 완강하게 조선사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이기영

이기영의 실례를 들어봅시다.

이기영은 ≪카프≫사건으로 2차례나 감옥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임화와 같은 사람은 감옥밥을 먹고나서 인차 변절했지만 그는 감옥문을 나선 다음에도 애국적인 문인으로서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무소 문턱을 넘어선 다음 실업자가 되어 서울장안을 방황하던 그 당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사상범으로 몰던 애국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을 사상범보호관찰소 지붕밑에 마구다지로 밀어넣을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친일사상에 의한 ≪보국≫을 강요하였습니다. ≪보국≫이란 곧 전향을 의미합니다.

이기영도 사흘이 멀다하게 경찰기관에 끌려가 전향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적들은 그에게도 일본말로 작품을 쓸것과 일본말로 친일강연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미가 참대쪽같은 그한테는 그 어떤 강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국민문학≫을 강요할 때 그는 오히려 조선글로 소설을 써내어 그들의 황민화정책에 대답하였습니다. ≪요시찰인≫으로 등록된 후의 그의 살림살이가 몹시 궁색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돈에 쪼들렸던지 둘째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장례비가 없어 그 애의 시신을 옆에 두고 ≪돈≫이라는 단편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유관순

이기영은 경찰들의 성화를 받다 못해 가족들을 데리고 금강산 밑에 있는 산골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시의 눈초리는 산골에서도 계속 그의 뒤를 따라다니였습니다. 친일분자들의 돌팔매질에 그의 집 문짝이 여러 번 박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애국적 지성인으로서의 대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삼에서 피신생활을 하는 징병, 징용 기피자들이 그의 조언을 들으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소나 말처럼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왜놈들에게 저항하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때 이기영한테서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해방이 되자 그가 살던 고장의 간부들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광수는 창씨를 했지만 이기영은 왜놈들이 망할 때까지 창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씨개명을 하면 개아들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자신은 물론 친척들까지도 성과 이름을 갈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방 후 평양에서 이기영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선생은 몸도 약한 분인데 어떻게 그처럼 견결하게 옥중고초도 견디어내고 창씨선풍도 이겨냈는지 참으로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이 유관순과 같은 17살내기 처녀도 꽃다운 목숨을 바쳐 지조를 지키는데 나같은 문인이 절개를 굽히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간또대진재가 일어났을 때 도꾜바닥에서 왜놈들이 죽창과 일본도와 쇠갈구리로 조선사람들을 마구 학살하는 것을 보고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그놈들과는 꼭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족의 얼을 빼기 위한 일제의 동화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애국자들가운데는 신채호도 있었습니다.


여순감옥의 신채호

신채호는 권위있는 역사학자인 동시에 이름난 작가, 정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길림시절에 손정도목사한테서 신채호가 쓴 성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을 미국의 위임통치령으로 해달라고 한 이승만을 때린 긴 글이였는데 어찌나 박력있고 예리한지 몇 번이고 곱씹어 읽었습니다. 손목사도 그래서 그 성토문을 그냥 간수한다고 했습니다.

신채호는 상해나 베이징 등에서 여러 신문, 잡지들을 발행하면서 타협주의자들을 때리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글이 신문에 실릴 때면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신문을 샀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들을 읽느라면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생명체를 보는 것 같은 감을 받게 됩니다. 구절마다 조선사람의 넋이 꿈틀거리는 글이였습니다.

신채호는 1920년대 말에 일제에게 체포되어 여순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면서도 일본놈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신채호는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민족의 얼이 고동치는 글들을 중단하지 않고 썼습니다.

신채호가 여순감옥에서 ≪조선상고사≫와 ≪조선상고문화사≫를 계속 쓴 사실 하나만 놓고도 그가 얼마나 민족의 정통성과 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채호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짜내여 집필을 계속하다가 이국의 쓸쓸한 감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감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한 몸을 불태워 민족의 혼을 지키고 민족정신을 깨우쳐주려는 애국지사들과 지성인들의 불굴의 저항정신을 깨우쳐주려는 애국지사들과 지성인들의 불굴의 저항정신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얼을 지켜주고 그 개개의 넋을 하나로 묶어세워 전민항쟁역량의 중요한 일익으로 내세워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더욱 절박하게 느끼였습니다.

민족의 얼을 고수하는 문제와 전민항쟁준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있었습니다. 민족의 얼을 지키는 문제는 전민항쟁준비의 정신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중요한 일환이였습니다. 민족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없이는 전민항쟁대오에 광범한 애국역량을 묶어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순감옥

우리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지켜야 할 지식인들의 사명을 중시하고 국내외의 지식계층속에 공작원들을 부단히 파견하였습니다.

나는 국내로 떠나가는 정치공작원들에게 어머니가 있어서 자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민족의 품에서 태어나며 죽어서도 민족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민족이라는 한집안에서 하나의 피줄로 이어져있다, 그러므로 민

족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혁명도 민족을 위해 하는 것이며 무장투쟁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되찾자고 하는 것은 조국의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민족 그자체이다, 때문에 동무들은 전민이 무장을 잡는 것과 전민이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전민항쟁준비를 잘하며 학자들, 교육자들, 언론인들, 문예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지식계층속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여 그들 모두가 민족의 얼을 지키는 불꽃이 되고 총탄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군 하였습니다.

1938년 말에 ≪동아일보≫는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적색연구회라는 비밀결사가 있었다는 혐의로 그 연루자들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실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공화국의 초대교육상이었던 백남운도 적색연구회의 조직성원이였습니다.


백남운

굴복하면 사람대접을 받고 저항하면 짐승취급을 당하던 험악한 세월에 백남운은 지식인으로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견지하는 저항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백남운은 일본에 가서 고학으로 상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연희전문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조선사회경제사≫는 그의 대표적인 역작입니다. 그는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저술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일제가 민족경제를 압살하고 조선민족이라는 말자체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백남운이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사를 쓴 것은 대단히 애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서울 연희전문학교에는 경제연구회라는 합법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를 혁명적인 색채가 짙은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주동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백남운이었습니다.

백남운은 동료교수들과 함께 단순한 학술연구단체였던 경제연구회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적색연구회라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조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파견한 정치공작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적색연구회의 모든 활동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실현하는데로 움직이었습니다. 방학 때에는 이 단체의 성원들이 모두 대중속에 들어가 계몽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최근에 있어서의 조선치안 상황≫이라는 관헌자료에는 적색연구회가 공산혁명달성의 목적밑에 연구토론회, 강습회, 독서회 등을 열어 회원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주입과 선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씌여있습니다.

백남운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무직으로 은거생활을 하면서 ≪이조실록≫을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조선사회경제사≫라는 글을 쓴 것이라든가, 경제연구회를 적색연구회로 발전시킨 것이라든가, ≪이조실록≫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도전이였습니다.

보천보전투소식을 들은 그 해 겨울부터 난로에 불을 때지 않고 냉방에서 강짜로 지냈다는 사람이 백남운입니다. 왜 난로에 불을 때지 않고 지냈는가. **김일성**이하 빨치산의 모든 장병들이 춘하추동 사계절 가랑잎을 덮고 한지에서 자고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각을 조직할 때 백남운을 첫 교육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한때 과학원 원장도 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였는데 일을 아주 양심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낳은 세계적 유전학자이며 육종학자인 계응상선생도 민족적 자존심

이 남달리 강하고 과학적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직심스레 했습니다. 생활이 하도 어렵다보니 종이가 없어서 가랑잎에다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양말같은게 생기면 신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남의 집에 갈 때에만 신었고 신발도 해질가봐 노상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푼전을 아껴가면서 지독스레 공부한 덕으로 선생은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나중에는 대학연구원까지 졸업하였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

계응상이 학창시절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그가 연구원을 졸업하자 일본각지에서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시절의 지도교원도 계응상을 탐냈습니다. 그는 만주에 멋있는 농사시험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함께 일해보자고 구슬렀습니다.

그러나 계응상은 그 모든 요청을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일본군대의 꼴을 보지 않고 살수 있는 고장에 가서 누에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가서 과학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았지만 그것도 단념했습니다.

계응상은 오랜 고민 끝에 중국관내에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남방지대에는 일본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일본군대가 관내에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7.7사변 이후부터입니다.

일본군이 광동을 점령한 그때에야 그는 비로소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왜놈세상으로 된 바에는 조상의 묘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중국에서 돌아올 때에도 이국땅에서 천신만고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의 누에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의 행실이 역겨워서 트렁크에 누에종자를 넣어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응상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조선사람의 얼을 가지고서는 미군정의 치하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더라고 토설하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가 민족적 자존심이 매우 강한 학자라는 생각을 더욱 깊이하게 되였습니다.

계응상은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후 생산성이 높고 병에도 잘 견디는 훌륭한 누에종자들을 수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민족의 얼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에게 참답게 이바지하려면 열렬한 애국심과 드놀지 않는 과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정말기 국내에서 민족의 넋을 고수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인 조직가운데는 조선어학회도 있습니다.

이극로의 말에 의하면 조선어학회는 1930년대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어연구회라는 것은 그 전신입니다.

조선어학회가 소문도 없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어학회가 조직된 후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나라에 온전한 조선말 사전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전을 만들어보려고 애쓴 학자들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때여서 온전한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어학회 성원들이 그 중임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섰습니다.

언어를 떠난 문화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의 발전은 그 기초에 놓여있는 언어와 문자의 합리적인 정리와 통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언어와 문자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통일하는데서 가장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 것이 바로 민족의 언어자원을 종합하고 집대성한 사전입니다.

민족어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품이 무한정 드는 일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뒤골목에서 가만가만 하는 일이어서 인민들의 후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말과 문자의 표기에서 통일적인 표준으로 삼을 만한 것도 변변하지 못한 형편에서 방대한 사전편찬 작업을 하자니 얼마나 간고했겠습니까.



한글보급운동 관련서적

그들은 만일의 경우를 예견해서 원고도 2부씩 만들어 따로따로 감추어두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도 수십 년이고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은 입이 있어도 벙어리 이상으로 천시를 당해야 하는 때에 막돌처럼 버림받던 조선어낱말들을 보물처럼 하나하나 모아 사전에 올렸으니 얼마나 장하고 외로운 애국자들입니까.

조선어학회는 비밀리에 대외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1935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음성학회와 이듬해에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언어학대회에도 참가하여 일제가 조선어를 어떻게 말살하고 있는가를 온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선글을 다듬고 연구한 첫 기관은 세종왕이 세운 정음청이었습니다. 세종이 최만리와 같은 사대주의학자들의 필사적인 반대를 물리치고 훈민정음을 권장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는 ≪용비어천가≫도 조선글로 짓게 하고 공문서도 조선글로 쓰게 했으며 유고, 불교의 경전도 조선글자로 출판하게 하였습니다.

정음청이 폐지되고 조선글이 버림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연산군 때입니다. 조선글은 수백 년동안 잡초처럼 천대를 받다가 1894년 갑오경장 때에야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말부터 겨우 빛을 보기 시작한 조선글을 이번에는 일본사람들이 ≪국어상용≫이요, 뭐요 하면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일어난 것이 다름아닌 조선어학회였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독립과 조선어의 정리보급을 위해 투쟁해오던 이 단체가 1942년 가을부터 적들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어학회에 망라되었던 수십 명의 학자들과 관계자들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동무들이 국내에 갔다가 돌아와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듣고보니 분한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쏘련군대가 독일군을 수십 만이나 녹여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야영이 술렁술렁 끓던 때였지만 우리 학자들이 수십 명이나 붙잡혀 줄경을 치른다는 말을 듣고나니 밥맛조차 없었습니다.

그 학자들이 함흥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문이 어찌나 지독했던지 몇 사람은 예심과정에서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강제폐간당한 간행물들

일본경찰은 조선어학회를 반일독립단체로 지목하면서

도 그 단체가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수감된 학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면서 비밀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어학회 내부에는 우리의 조직선과 직접적으로 련결된 이극로를 비롯한 선각자들을 망라한 비밀지하조직이 틀고앉아 있었습니다. 최일천이 서울에서 살고 있은 이극로를 찾아간 것이 1936년 가을과 1937년 여름이였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조직에서 그에게 국내지식인들속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 과업을 주어 파견하였습니다.


이극로

최일천은 장춘에 있는 ≪동아일보≫지국장으로 서울에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이극로도 감옥에서 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고문을 많이 받은 것은 동지들이 한 일까지 자기가 다했다고 스스로 죄를 걸머지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울에 돌아가서도 만신창이 된 몸을 돌보지 않고 조선어학회를 거점으로 하여 민족역량의 단결과 자주적인 독립국가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 이극로가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려고 평양에 들어왔길래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어학회사건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왜놈경찰들이 매일같이 고문을 들이대고 매를 너무 맞아 죽어가는 사람까지 생긴다니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조선어학회 성원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굴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견결한 반일의지와 집단적인 애국심에 탄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극로는 내 말을 다 듣고나서 그건 달래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뻗친 겁니다, 우리 배짱이라는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두산에서밖에 나올 데가 있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천보전투 후에 어학회 성원들이 주머니를 털어 소주 한 병을 사다가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극로가 민족의 얼을 지키는데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고 또 공산주의자들한테서도 사랑을 받고 민족주의자들한테서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4월남북연석회의 때 그를 주석단에도 앉히고 회의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이라는 문건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4월남북연석회의가 끝난 다음 이극로는 평양에 남아서 나와 함께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왔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내각에서 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상하를 불문하고 반말을 모르는 겸허하고 예절바른 사람이였습니다.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병

언제인가 이극로가 쓴 이력문건을 보고 놀란 일이 있는데 안가본 데가 없고 못만나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중국, 일본, 쏘련,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유명하다는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 그는 레닌도 만나본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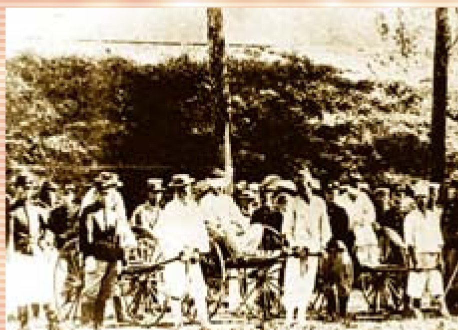
레닌을 만난 것은 모스크바에서 극동인민대표대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그 무렵 상해에 있던 이극로는 이동휘, 박진순 등과 함께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크레믈린 궁전에서 레닌을 2번이나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이극로는 민족운동자들 가운데서도 한다하는 사

람은 거의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최일천, 변대우, 황백하를 비롯하여 동북지방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극로에게 독일유학을 부추긴 것은 모스크바에 체류중이던 윌헬름 피크였다고 합니다. 피크의 주선으로 베를린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언제인가 나는 이극로에게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되어 조선어연구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는가, 선생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 실업계에 나서라고 권고한 사람도 있고 벼슬길에 나서서 두각을 나타내라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무슨 연고로 언어학자가 되었는가고 물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애국자들

그랬더니 이극로는 아일랜드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모국어대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 간판과 도로표식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영어로 표기된 것을 보고 조선 말과 글도 저런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조국에 돌아가면 모국어를 지키는 운동에 한 생을 바치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어학회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이 대단히 컸습니다. 총칼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로써 민족의 얼을 지켜낸 지성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조국, 살아서 싸우는 내 나라를 보았습니다.

경성제국대학학생들도 조직을 뭇고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이 조직에 망라된 애국적 지식인들은 처음부터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에 반기를 들고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이었습니다.

성대조직의 애국적 지식인들은 친일문인들과 어용학자들의 잠꼬대같은 주장에 반격을 가하는 한편 합법적인 연단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민족은 나태한 민족도 아니고 파쟁을 즐기는 민족도 아니다, 조선사람이 잘살지 못하는 것은 나태해서가 아니라 왜놈들 때문이다, 그놈들이 우리 민족의 재부를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 누가 감히 우리 민족을 낙후한 민족이라고 하는가, 조선민족은 지혜와 문명도에 있어서 세계에 대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뛰어난 민족이다, 왜놈들이 제아무리 탄압을 해도 그리고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민족은 자체의 민족성을 고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만으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지식인들이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산줄기들에 근거지를 잡고 탄광, 광산 노동자들과 산중에 숨어있는 징병, 징용 기피자들로 무장대오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쳤습니다.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학자들, 종교인들, 교육자들, 문예인들, 언론인들이 전민항쟁조직들에 망라되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을 반대하여 끝가지 과감하게 싸웠습니다. 조직에 망라되지 않은 지식인들도 신념을 가지고 적들의 동화정책에 항거해 나섰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억압과 철쇄도 각성된 지식인들의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성공한 지식인들은 예외없이 다 자기 조국과 민족앞에 충실하고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지식인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신념을 간직할 데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5. 반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위하여

온 민족의 단합과 반일애국역량의 총집결로 조국광복을 이룩하려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오신 노선이였고 전략적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해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반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모색하여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였다.

모든 반일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활동은 1940년대 전반기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나는 한평생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중요한 노선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때 민족주의 운동은 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서 2대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민족주의는 여전히 하나의 사조로 남아있었고 민족주의 운동세력도 미약하나마 하나의 반일 애국역량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개량주의세력을 제외한 다수의 민족운동자들은 의연히 반일의 기치를 들고 국내와 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운동세력은 국내 인민들과 해외교포들속에서 일정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세봉과의 합작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반일민족운동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반일민족운동자들도 우리와의 연대를 이룩하려고 여러 모로 시도하였습니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배척하고 경원시하던 사람들도 점차 우리한테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와의 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반일독립운동자들의 움직임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어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이루게 된 것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였습니다. 1936년 5월에 우리가 조국 광복회를 창립하고 민족의 총동원을 호소하면서 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자 민족주의자들은 그에 적극적인 자세로 호응해 나섰습니다.



상해임시정부 요인들

남만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의 참모장 윤일파가 우리에게 지지서한을 보낸 것이라든가, 상해의 조선인거류민단에 있던 박씨성을 가진 독립운동자가 남만에까지 와서 조국광복회 남만대표였던 이동광을 만난 것이라든가, 김활석의 휘하에 있던 독립군의 잔존세력이 최윤구를 선두로 조선인민혁명군에 스스로 편입한 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된 데 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민족해방운동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반일민족해방 전선의 주력군이었고 민족의 독립의지와 신념의 최고대표자였으며 항일혁명의 조직자, 영솔자였습니다.

민족해방운동선상에 여러 갈래의 반일세력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적들에게 제일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존재도 조선인민혁명군이었고 우리 인민이 제일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무장력도 조선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김구

우리 인민은 일제를 조국강토에서 몰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력은 조선인민혁명군 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구를 보좌하고 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보천보전투에서 일제가 녹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환성을 울리며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남경에 있던 조선민족혁명당의 기관지도 ≪조선혁명무장운동의 희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보천보전투를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편집집단은 그 신문자료를 함흥에 있는 ≪조선일보≫지국에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의주장을 초월하는 범민족적인 지지와 격려,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보천보를 답새겼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관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도 대단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김구는 일찍부터 무력항쟁을 모색한 사람이였습니다.

1920년대 초에 그가 조직한 노병회라는 단체도 사실은 무력항쟁을 지향한 단체였습니다. 그는 무저항주의적인 실력배양이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선독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은 군대를 큼직하게 꾸려가지고 무장투쟁을 본때있게 벌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나니 우리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로스앤젤스에서 발간되던 ≪조선독립≫이라는 교포신문이 김구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김구의 호소에 호응해서 **김일성**부대와 조선의용군을 위해 거액의 군자금을 마련해 보냈는데 헌금을 호소한 김구자신은 중도에서 다 써버렸다는 것이였습니다.

김구가 군자금을 보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돈을 전달하자면 조직선을 타야 하는데 우리의 조직선을 찾기가 그때로서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김구가 우리를 위해 헌금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무장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모로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간삼봉전투도 관내의 독립운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외의 민족운동단체들에서 우리의 투쟁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연공의 움직임이 전에없이 활발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고 만인이 다 접수할 수 있는 민족공동의 투쟁강령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관내에 있던 반일애국역량은 주의주장과 투쟁방식의 차이로 하여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분열되어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파라고 하는 김구파였고 다른 하나는 인민전선파라고 불리운 김원봉파였습니다. 김원봉파는 공산주의 계열에 가까운 독립운동좌파였습니다.

두 파는 장개석국민당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중국공산당과 저마다 독자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우선 관내의 반일민족단체들 자체가 하나의 역량으로 단합되어야 하였습니다. 다시말하여 각이한 주의주장과 활동방식을 가진 단체들이 상호간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항일애국의 기치밑에 단일전선을 형성해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단일전선에 망라된 모든 반일역량과 우리와의 합작을 새로운 기초우에서 실현해야 하였습니다.



미국교포들의 독립요구시위

우리는 조국광복회를 창립한 이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종일관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부터는 관내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중국혁명에서는 2차 국공합작이 실현되어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공합작의 실현은 중국인민의 구국항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중국혁명발전을 크게 추동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타고 작은 당으로 서로 분립되어있던 김구계열과 김원봉계열이 1940년 9월에 지난날의 대치상태에 일단 종지부를 찍고 단일전선결성에 성공하여 공동선언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동선언에는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10대강령에서 제시한 사항들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그 후 김원봉계열을 인입하여 좌우합작을 이루었습니다.

민족운동내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우리는 국내와 일본에 있는 반일애국역량의 결속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만주와 관내에 있는 반일애국역량을 끌어당기기 위한 활동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태평양전쟁과 중일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본은 멸망의 함정속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일본의 패망을 예고하는 사변들이 도처에서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격변하는 정세는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반일역량이 하나로 결속되어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반일투쟁역사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의와 당파를 초월한 민족역량의 굳건한 단합만이 조국광복의 날을 앞당기는 지름길로 된다는 하나의 인식에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국내외의 광범한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강력한 전민항쟁역량을 꾸려나가는 것은 시대가 우리앞에 부과한 역사적 과제였고 각계각층의 애국인사들과 인민대중의 공통된 염원이었습니다.

1940년대 조선독립운동자들의 활동방식과 민심동향의 변화에 대하여 일제경찰은 아래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내외로부터 감행되는 조선민족의 책모목적은 민족주의계라든가 공산주의계라든가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조선독립에 있으며 현재 표면적으로 조선독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경밑에 있는 자와 미국밑에 있는 자…쏘련과 중공하에 있는 자들은

종국의 목적을 조선독립에 두고 있다.≫≪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소화19년(1944년) 5월에 각 도 경찰부장앞으로 보낸 경찰문건≫

≪사상사건에서의 특이한 점

종래와 같이 주의주장의 이론구성에 구애되지 않고 중심목표인 조선민족의 독립에 중점을 지향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종래의 대립관계에 있었던 공산주의운동과의 관계에서도 심히 접근하고 있으며 민족주의분자와 좌익분자와의 혼재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과 같은 것도 드물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동외사월보≫ 제51호 5페지,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소화 19년(1944년) 3, 4월분≫

우리가 중국관내 반일애국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하는데서 주목을 돌린 단체의 하나는 상해임시정부였습니다.



광복군 훈련모습

일본군대가 중국본토를 침공한 후부터 임정은 거처를 빈번하게 옮기었습니다. 국민당정부를 따라 소재지를 자꾸 바꾸다보니 사실은 간판이나 겨우 유지할 정도로 고달픈 처지에 있었습니다. 임정관계자들의 회상에 의하면 이사짐을 늘 지고다닐 정도로 줄곧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때에는 짐보따리를 풀어보지도 못한 채 여관구석에 앉아 있다가 전쟁의 참화를 피해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파쟁과 헌법개정, 개각으로 진통을 겪는 임시정부는 초보적인 생존조건과 신변의 위험 때문에도 고충을 겪고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구가 경제적 곤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막연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꾼 월급이 20원 미만이였으나 이것도 낼 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하기도 하였다, 나는 임정청사마루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다고 하였겠습니까.

1940년에 임시정부는 방랑생활을 끝내고 장개석정부의 소개지인 중경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과 같은 무장력을 내온 것은 그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전진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광복군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주관한 한 출판물에서 **김일성**과 양정우, 조상지 등의 이름을 찍어가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역사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무장장비로 보나 청소한 무장력이였습니다. 임정관계자들 자신도 자기네 무장력의 발전은 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청천이 해외 반일역량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임정세력의 주도권 확립이 어렵다고 한 것이라든가 임정은 대처할 아무런 준비도 없이 8.15해방을 맞이했다고 솔직히 술회한 것은 이런 실정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일제경찰이 광복군에 대하여 남긴 기록의 한 토막을 소개한다.

≪광복군의 진용은 임시정부의 과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약하며 각 지대원은 불과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제5지대만이 총계 50명이 되나 그 중 20명은 라월한 직속의 무정부주의자, 기타는 모두 조선인포로들로서 문맹에 가깝

고 아편을 밀매하는 불령업에 종사하던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우 빈약한 것으로서 거의 볼만한 활동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황해도경찰부 고등경찰과, 소화 18년(1943년) 2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도 손을 잡아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김구계열과의 합작이 성사되면 조국해방을 위한 최종작전이 벌어질 때 그들의 무장력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였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광복군

김책은 처음에 우리가 임시정부의 김구네 계열과 합작하려는 것을 내키지 않아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반공분자인 김구와의 합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었고 설사 합작이 성사되는 경우 그것이 얼마나 큰 은을 내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설명을 듣고는 자기가 김구의 애국심을 중시할 대신 그의 반공적 측면만을 너무 일면적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나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관내반일역량과의 관계는 허정숙을 통하여 추진시켰으면 좋겠다는 안까지 주동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최용건도 초기에는 김구와의 제휴를 그닥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그가 김책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파벌에 이골이 난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무엇하겠는가, 손을 잡았대야 덕을 보지 못한다, 합작을 하는 바치고는 차라리 김원봉이네 계열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최용건도 나중에는 김책처럼 나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였습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관내와 동북지방은 물론, 국내를 무대로 암살과 습격파괴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후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조직했는데 제1구 대장이 해방 직후 중앙보안간부학교 교장을 잠간 한 바있는 박효삼이였습니다. 박효삼은 휘하에 40명 정도의 대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김원봉이 하는 말을 들으니 조선의용대는 규모도 작고 갖춤새도 빈약해서 독자적인 활동은 별로 하지 못하고 중국부대들에 섞여 돌아가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반전선전과 적군와해공작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규모와 갖춤새는 그닥 변변치 않지만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려는 그들의 지향을 중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화북에 있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무정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중국의 홍군건설과 중국인민의 해방투쟁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에 돌아와서 민족보위성 부상도 하고 포병사령관도 하였습니다.

무정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 집 가까이에 그의 집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정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도 무력건설에 참가하여 공로도 세웠지만 원채 군벌관료기가 심한 사람이어서 조국해방 전쟁 때에 비판을 받고 군직을 다 내놓았습니다.

무정이 현직에서 해임되었지만 우리는 그가 중병으로 신고할 때 최선을 다하여 치료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중국 장춘에 루마니아의료집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

었습니다. 무정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무정이 우리 곁에서 눈을 감고싶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조국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공로를 평가하여 장례식을 잘해주었습니다.

무정은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김**장군소문을 많이 들었다, 그 때마다 힘이 났다, 왜놈오랑캐들을 벌벌 떨게 하는 장수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몸은 비록 8로군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 쪽에 가있었다, 조선의용군이 **김**장군부대와 합류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조선의용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공동으로 일제를 격멸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일성**장군과 손을 잡아보려고 여러 모로 애썼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의용군 화북지대가 조직된 다음 이 지대가 위대한 수령님과 연계를 맺기 위해 활동한 정형에 대하여 일제의 관헌자료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의 동정

…1941년 5월, 6월경에 새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를 편성하였다.…

그 후 경한선일대의 우리가 점령한 지역을 목표로 하여 동지획득, 각종 모략선전에 광분하는 거소가 함께 재만불령선인 **김일성**과의 제휴, 선내동지와의 연락 등 공작중인 바…≪우리들은 내부의 단결을 굳게 하고 화북조선동포 20만, 동북(만주), 국내(조선)의 혁명인사 및 혁명단체, 무장대오를 연합하여 조선민족해방을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반일투쟁을 견지한다≫운운의 선언 발표…≫≪황해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소화 18년(1948년) 2월≫

해방 후 내각에서 초대문화선전상을 한 허정숙도 1940년대에는 연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연안에서 활동한 조선인운동자들가운데 한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 우리 부대를 그리워했다는 것이였습니다. 우리 부대에 대한 동경심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도 주은래와 주덕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만주로 가게 해달라고 청원까지 했다고 중국사람들한테서 민족주의를 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중국관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을 때 관내의 조선인운동자들과 애국인사들도 우리와의 합작을 열렬히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도 8로군을 따라다니면서 적군와해공작을 많이 했는데 주되는 사업대상은 일본군대에서 복무하는 조선청년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청년들을 상대로 왜놈들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고 과감무쌍하게 탈출하여 북중국방면에 있는 자는 조선의용군이나 8로군에, 중부중국과 남중국방면에 있는 자는 조선의용대나 신4로군에, 만주방면에 있는 자는 **김일성**부대를 찾아가라는 식으로 함화를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의거해오는 조선인 징병자들에 대한 대우규정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중기관총을 가지고 오면 돈 얼마를 주고 3년간의 일용품우대특전을 준다든지, 경기관총이나 척탄통, 소총을 가지고 오면 얼마, 또 투항하는 자는 각자의 희망에 따라 공부할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적군와해공작을 벌이군 했는데 그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애국자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주장에는 관계없이 모두가 우리와의 연대와 합작

을 지향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의주장에 따라 사람들을 이편저편으로 갈라놓고 차별하는 놀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건 장개석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이건 그런 것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애국을 지향하는 인사들은 다 합작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중국관내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쏘련의 군사당국이나 국제당선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동북항일연군 측에서 관내에 파견하는 연락선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자신이 연락원을 필요한 방면에 직접 파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동북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관내와 연계를 취하면서 이용한 선 가운데는 요하, 동강 방면의 동북항일연군 제7로군 교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강성 이리와 감숙성의 란주, 연안으로 통하는 국제통로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선은 만주의 동변도로부터 만주와 중국의 국경선을 연결하는 유격로였습니다.

원동의 훈련기지에는 그 당시 중국관내에서 홍군사단장을 하다가 쏘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연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제연합군에 와서 강의에도 출연한 유아루와 노동생, 중궁당연락원 왕붕이 와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관내로 돌아가게 되면 연안과 중경에서 활동하는 조선사람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연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유아루는 동북해방작전당시 동북야전군 참모장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사령원이 되었습니다.

노동생도 동북땅에 남아서 송강군구 사령원을 하였습니다. 그를 아마 송명이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945년 말에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북지방에 소부대공작을 나가는 편을 통해서도 관내와의 연계를 시도했고 국내에 있는 지하조직선을 통해서도 관내인사들과 접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김책의 말대로 허정숙을 중시하였습니다. 허정숙이한테 우리의 선이 닿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연안과 중경 일대의 반일역량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출로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정숙을 특별히 점찍은 것은 그의 애국적인 투쟁경력을 좋게 본데도 있었지만 그가 김책과의 연고가 깊은 허헌의 딸이라는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ㅌ · ㄷ≫성원인 강병선이 주관했던 신의주의 지하조직에 관내와의 연계를 확보할 데 대한 지령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지령에 따라 신의주의 지하조직은 천진에 있는 한 공작원에게 중경과 연안 쪽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연락통로를 개척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중경, 연안과의 합작을 위한 중간연락지점을 만들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연합군시절에 중국관내 반일애국역량과의 민족통일전선,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항일세력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위해 각방으로 활약한 사실과 관련하여 일제의 경찰기관들은 여러 건의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김일성**의 활동상황

김일성은 …현재 쏘련원동 블라디보스토크부근의 오께안스까야 야영학교에 있으면서 만주에 있는 불령선인들의 획득영도에 암약 중인바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미쏘합작의 비밀협정에 기초하여 중국에 있는 미공군의 만선지방공습에 호응하여

만선지대에서 만선연락의 철도파괴에 의한 군수수송을 방해하는 것과 함께 민심교란공작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까운 만선주요지구에 공작원을 밀파하려고 목하 준비중이라고 한다.

즉 **김일성**은 지난 6월 중순경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모스크바에 다녀 온외에 중경, 연안에 건너가 주중 쏘미대사관들과 중공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후 장래에 대처하는 … 공작밀파요원을 그전에 압록강연안지대에서 활동하였던 당시의 선만인항연비로써 철도파괴모략단 및 사상모략공작반을 재편성하고 쏘련 하바로프스크부근에서 이 모략공작의 교육훈련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화19년(1 944년) 11월분 76페지≫

우리가 관내에 있는 반일애국역량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을 때 중경에 있던 반일애국역량도 우리와의 합작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모로 활동하였습니다.

김구의 비서로 있던 안중근의 조카 안우생의 회상에 의하면 김구도 우리에게 연락원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연락원은 만주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1942년 12월에는 임시정부파견원의 자격으로 김가성을 가진 사람이 목단강까지 왔다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중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제는 우리와 관내에 있는 중공당소속의 조선인공산당계가 중강진, 임강, 혜산진, 통화 부근을 중심선으로 해서 서로 연락하고 있다는 정보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연합군시절에 소부대공작을 하면서 종교세력에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1942년 말에 영안현 동경성에 있던 대종교본부의 3세교주 윤세복을 비롯하여 많은 교인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종교의 교인들은 자기네 교의 사명이 일본과 만주국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민족에 의한 배달국의 재건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일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대종교의 한 간부는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은 불가피한 운명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조국광복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하면서 버마에 바모가 있다면 조선에는 **김일성**이 있다, 조선민족의 행복은 독립에 의하여 이룩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동무들을 통하여 목단강성 경무청이 대종교간부들을 마구 체포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영안현에 총본부를 두고 있던 제2방면군소속의 반일회에 적들의 탄압책동을 분쇄하고 애국적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해서와 화전, 돈화, 안도 일대의 반일역량을 조직의 주위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대일작전을 준비하던 나날에 우리가 주목한 국내의 반일민족단체는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건국동맹이였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에 나온 반일지하단체입니다. 이 동맹은 여운형의 고향인 경기도 양평일대의 농민들을 기본으로 하여 무은 농민동맹이라는 산하조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이면 민족주의단체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극도에 달하던 때입니다. 패망에 직면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국가총동원법이요, 뭐요 하는 파쑈방망이들을 마구 휘두르며 반일요소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대상이면 그가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문초하고 처형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서울에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반일단체를 내온 것은 과시 여운형다운

배짱이였습니다.

건국동맹이 비밀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던지 서울에 있은 우리 공작원들도 얼마동안은 자기네 코앞에서 그런 조직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가서야 겨우 건국동맹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내온 다음 인차 나에게도 사람을 보내고 조선독립동맹에도 연락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가 보낸 연락원은 우리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여운형이 보낸 사절들이 연안쪽에 있는 조선독립동맹 인사들과는 만났다고 합니다.


여운형

여운형의 연락원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쏘련의 훈련기지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여운형이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우리를 만나려고 각방으로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여운형과의 합작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운형과의 사업은 서울에 가있는 정치공작원에게 맡겼습니다. 품을 들여서라도 여운형과 접촉해보라는 임무를 주었으나 후에 들은데 의하면 상대가 도무지 곁을 주지 않아 그와 한번도 속깊은 말을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운형은 건국동맹 안에 군사위원회를 내오고 무장투쟁으로 일제의 배후를 교란시키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전민항쟁노선에도 부합되는 것이였습니다.

관내의 모든 반일애국역량과의 합작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이 너무나도 빨리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국내의 항쟁조직들이 내응외합하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종작전을 벌일 때 관내의 무장력은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구는 이것을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왜적의 항복이 자기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고 통탄하였으며 자기네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발언권이 약할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조소앙

그러나 합작을 위한 쌍방의 노력이 그렇게 허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때에 가서든지 꼭 은을 내기 마련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는 말도 있지만 민족해방을 위해 바치는 노력에 대해서는 역사가 꼭 보상을 하는 법입니다.

반일애국역량과의 단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역사의 밑거름으로 되어 해방된 조국땅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의 결성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항일혁명 초기부터 통일전선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노선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온 것이 백 번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때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마찰과 대립도 없지 않았습니다. 고이허나 현묵관과 같은 국민부상층이 우리 동무들을 여러 명이나 살해한 왕청문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우리는 얼마동안 민족주의자들과 거래를 끊고 그들을 통렬히 규탄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일부 동무들

은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자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청문에서의 희생이 아무리 참혹하고 가슴아픈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부의 반동적인 상층이 범한 죄행을 민족주의진영전체의 잘못으로 증폭시켜 전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동지들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분노를 묵새겨가며 통일전선의 기발을 시종일관하게 추켜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백지화하고 국민부의 잔존세력으로 남만에서 활동하던 양세봉이네 부대에도 찾아갔고 반공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로 되어있던 김구와의 합작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심리적 곡절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혀 처신을 극단적으로 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만 나갔더라면 통일전선은 지상공론으로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과 성의 앞에서는 김구와 같은 완고한 반공인사도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가 하루아침사이에 우리한테로 돌아섰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가 임정을 인정하지 않은 미군정의 처사가 고깝고 또 단순히 이승만과 의가 맞지 않아서 반공대신 연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항일의 나날로부터 뜨겁게 간직해오던 애국의 열정이 우리와 김구를 하나로 융합시킨 것입니다.


김월송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찍부터 점을 찍어두었던 대상들은 해방 후 모두 통일전선의 기발아래 모여들었습니다.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의에 어떤 정객들이 참가했는가를 보시오.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동오, 엄항섭, 조완구, 김월송… 이름있는 민족주의자들은 다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보면 김구네 임시정부인사들은 다 우리에게로 온 셈입니다.

조선건국동맹의 주인공인 여운형도 평양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갔고 조선독립동맹의 지도자들도 동료들과 함께 평양으로 찾아왔으며 김원봉도 평양에 와서 조대국가검열상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벌써 1946년에 각당, 각파, 각계의 애국역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대일작전을 준비하던 나날에 더 연마되고 공고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그런 의지의 연마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해방 후 애국과 매국,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동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던 복잡한 상황속에서 각이한 주의주장과 투쟁경력을 가지고 있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그처럼 인내성있게 통일전선의 광장으로 불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세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좌우명은 무엇보다도 민족대단결로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흥망성쇠여부는 우리 민족 모두가 이 좌우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이념, 정견과 제도에 앞서 민족을 우선시하는 시종일관하고 공명정대한 정책의 깊은 역사적 뿌리와 크나큰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내놓고 온 민족을 통일위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6. 현해탄 너머에서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던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는 국내에 강력한 전민항쟁역량을 꾸리는 한편 일본본토 안에서 우리의 혁명조직이 전민항쟁운동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렸습니다.

일본땅에서의 우리의 활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에 이미 조직되여 있는 조국광복회조직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조직들을 조선인민혁명군이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할 때 그에 합세할 수 있도록 정비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계속 늘여나가는 것이였고 다른 편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특수공작원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아성에 깊이 침투하여 적들의 군사정보를 정찰함으로써 대일군사작전의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일본본토에 정치공작원들을 본격적으로 박아넣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백두산과 서간도 지구에 진출하여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꾸리기 시작한 다음부터입니다. 적의 심장부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 초기부터 들고나온 구호입니다.

정치공작원들이 일본으로 침투하자면 물론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잘되면 감옥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수대에 올라야 하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로의 출입구라는 것이 뱃길 하나뿐이였습니다. 그 뱃길에는 정사복경관들과 형사들, 밀정들이 어느 때나 쫙 깔려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통로를 거쳐 공작원들이 일본으로 침투한다는게 용이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을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내무성 경보국이 작성한 다음의 자료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일본본토에 대한 군사정찰활동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의 선내(조선과 일본)양지에의 특수밀정파견에 관한 건

재만불령선인… **김일성**일파의 책동은 의연 극히 치열한 모양인바 최근 본성 조선특파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어 정세에 맞게 엄중수배할 것이다.

특히 해항경비, 열차이동경찰 실시 등 부, 현에서는 크게 유의할 것이다.

1. 파견목적

쏘련으로부터 특별히 파견된 공비로 이루어진 특수밀정을 사용하여 조선 및 일본에서 첩보근무에 종사시키자는데 있다.

2. 파견지침

도가선, 봉길선의 각 중요군사지점

조선안의 주요항(청진, 나진, 부산, 목포, 원산, 군산, 신의주)
일본의 시모노세끼 및 쯔루가

3. 파견원의 년령, 복장, 휴대품
년령 ; 10-25살의 조선 만주계 남자
복장 ; 국방색 제낀형양복에 편상화
휴대품 ; 트렁크에 정치, 경제, 문예 등 여러 가지 잡지, 세면도구 등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는 자세치 않으나 이 밀정은 일본어에 능하며 본래 교원, 경찰관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같은데 언어, 태도 등에서 일본사람과 다른 바 없다고 한다.≫
≪내무성 경보국, 소화 16년 (1941년) 11월 8일≫

우리가 일본본토를 중시한 것은 그곳이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본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본바닥을 뒤흔들어 놓으면 적의 심장부에 강타를 안길 수 있고 식민지통치를 붕괴시키는데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있는 조선사람들, 특히 강제연행된 많은 조선청년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은 대일작전이 눈앞에 박두한 조건에서 군사정치정보수집을 위해서도 필요했으며 전쟁의 대포밥이 될 운명을 지닌 그들을 일본파시즘의 마수에서 떼내여 혁명의 편으로 집단적으로 돌려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일본본토의 반일역량은 국내와 해외에 있는 반일애국역량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최종적으로 격멸하기 위한 대일작전의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에 화합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었습니다.

일본의 역대천황의 연호들을 보면 그네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생살이라도 떼여줄 것은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명치≫요, ≪대정≫이요, ≪소화≫요 하는 것들이 뜻은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소화시대는 일본이 이웃나라들을 인간도살장으로 만들고 국제적인 백정으로 등장하여 수억만 인류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강요하던 시대였고 이마에 밝은 정치를 하겠다고 써붙이고 나선 명치천황은 조선을 먹어라, 동양을 먹어라, 세계를 먹어라, 무엇무엇을 먹어라 하고 사무라이들을 부추기었습니다. 청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도 전쟁을 해서 숱한 이권을 강탈한 게 바로 명치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나라를 총칼을 가지고 접어들어 대낮에 삼켜버렸습니다. 대정시대에도 일본은 못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의 등껍질을 벗기고 피땀을 빨아내면서 하고 싶은 짓을 다하였습니다.

조선사람들은 일본으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짐승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을 개, 돼지나 마소처럼 다루는데서는 일본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일본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군대와 경찰이 자동차를 끌고와서는 길가는 사람들을 짐작처럼 사정없이 처싣고 달아나군 하였습니다. 밤중에 속옷바람으로 연행되어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한 다음에는 군대식으로 대오를 뭇고 그들에게 사소한 자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나 기차를 탈 때에는 변소에까지 당번을 세워 감시를 하였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서 ≪일시동인≫이라는 말을 곧잘 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을 일본사람과 꼭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건 입에 꿀을 바르고 하는 소리였

습니다. ≪일시동인≫이 일본사람들의 진정이라면 왜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을 마소처럼 학대했겠습니까.

구일본을 형상한 문학작품들 가운데 ≪다꼬베야≫란 말이 더러 나오는데 ≪문어집≫, ≪문어방≫이라는 뜻입니다. 문어는 돌짬에서 삽니다. 북해도의 토목노동자들은 콩나물시루같은 자기네 합숙을 ≪다꼬베야≫라고 불렀습니다. ≪감옥방≫이라고 한 것입니다.

조선노동자들이 드는 막사는 ≪반도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도땅에서 온 사람들이 거처하는 방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꼬베야≫보다 더 한심했다고 합니다. 밤에는 밖으로 쇠를 잠그고 여러 마리의 개까지 붙여놓아 도주는커녕 바깥출입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조선말을 한마디만 해도 참대칼이나 곡괭이자루 같은 것으로 노동자들을 마구 찌르고 때렸습니다. 도주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끈으로 코를 꿰가지고 사방으로 끌고다녔습니다. 일본의 청부업자들과 고용주들은 심지어 조선노동자들의 등을 칼로 째고 그안에 불을 달군 연뎅어리를 넣는 고문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수틀리면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때려죽여 물속에 던지거나 콘크리트 혼합물속에 처넣었습니다.

그런즉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조선사람들이 이런 학대와 모욕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사람들이 어질고 순박해도 배짱은 셉니다.

일본에 징용,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백수십 만이 된다는데 그들이 다 속으로는 딴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는가. 일본을 망하게 할 꿈이었습니다. 항일유격대가 조선으로 밀고 나오면 자기네도 와 하고 들고일어나 일본놈들을 답새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은 노동자들만 꾼 게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하던 청년학생들도 다 그런 속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조선유학생들의 수가 만 여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유학생이 만 여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나는 조선사람들이 일본땅에서 겪고 있는 참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만주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의 보호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더 동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정이나 해가지고 서야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주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대중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마련할 수 있는 선물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조직입니다. 조직만이 인민들을 파멸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 조선사람들이 꾸려놓은 조직들이 많았습니다. 공산주의조직, 민족운동조직, 계몽조직, 학생조직을 비롯해서 별의별 조직이 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반일운동에서도 청년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재경동경조선인유학생학우회라는 간판을 가진 조직을 뭇고 3.1인민봉기전야에는 독립선언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선언서의 사본이 국내에도 들어와 독립운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병탄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도꾜와 교또에 가있던 숱한 조선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귀국해버렸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조선청년학생들의 저항정신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운동의 형태를 띠고 전개된 그곳 청년학생운동은 청원과 시위, 실력양성이라는 소극적인 투쟁형태로 적들과 맞서고 있었지만 우리 동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름난 무정부주의자인 박렬도 일본에 가있던 유학생출신입니다. 그는 일본천황에 대한 살해음모를 하였다는 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0여년 간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야 석방되었습니다.

1925년도 조선공산당을 창건한 사람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일본유학생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땅에 맑스주의가 전파되자 그들은 여러 사상단체와 조직들을 내오고 새 사조를 연구보급하는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벌써 일본땅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공산주의 단체는 30여 개에 달했고 거기에 망라되어 있는 인원은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조직은 일본공산당의 1개 지부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새 사조의 영향밑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속에서는 노동운동도 발전하였습니다. 오사까에는 동아합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기업단체도 있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종교조직도 많이 무었습니다. 일본 땅에는 신간회지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속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들이 조밀하게 꾸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직들은 주의주장도 각이하고 활동방식도 서로 제나름이었습니다. 계몽, 호상친목, 상호부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민항쟁의 견지에서 볼 때 그 하나하나가 다 큰 밑천으로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순수한 계몽단체들에 입김을 불어넣어 혁명적인 실천투쟁의 마당으로 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다 반일을 지향하는 것만큼 그런 개조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끌려가 있는 우리 동포들속에 존재하던 이러저러한 조직들은 모두가 일제의 심장부에 박혀있는 시한탄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폭탄에 불을 달아줄 사명이 우리한테 지워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사람들로 이루어진 수십만의 노동력과 반일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일본본토를 특별한 시선으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공작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반일조선인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을 한 맥락에서 이어주고 일본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산만무질서하게 진행되는 조선사람들의 대중운동에 대한 통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 운동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공작원들을 침투시키는 통로로는 주로 부산-시모노세끼 항로와 청진-쯔루가항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깊숙이 박아넣어야 할 중요한 정치공작원들은 제3국의 항구들을 이용하여 멀리로 에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일본에 제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계층은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트렁크나 고리짝을 메고 일본유학을 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였습니다.

나는 박달과 **김정숙**에게 우리의 공작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망한 유학생들을 물색해보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후 **김정숙**은 풍산지방에서 일본에 건너가 고학을 하는 청년들이 도꾜에 유학생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적의 수도에 있는 유학생조직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면 일본본토의 심장부에서부터 조선사람들을 혁명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도꾜-요꼬하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빈지구는 일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공업지대였습니다. 조선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곳도 경빈지구였습니다.

나는 **김정숙**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주면서 풍산출신의 유학생들과 손을 잡고 도꾜에 있다는 그들의 조직을 우리의 영향밑에 있는 산하조직으로 전환시킬 방도를 세워보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숙은 주병포에게 우리의 의향을 전달해준 다음 그와 함께 도꾜의 유학생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방도를 의논하였습니다.


이인모

주병포가 일본에 파견할 적임자로 고른 대상이 바로 이인모였다고 합니다.

도꾜에서 풍산출신 유학생들이 무은 조직이란 풍우동경고학생친목회를 말합니다. 풍우라는 것은 풍산에서 간 벗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친목회는 이따금씩 모여앉아 시국담도 나누고 신세타령도 하고 독후감도 발표하고 때로는 무직업회원들에게 일자리도 알선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친목단체였습니다.

좀 정치적 색깔을 띤 것이 있었다면 ≪내선일체≫도 가짜다, ≪동조동근≫도 헛나발이다, ≪일시동인≫도 개수작이다 하고 일본 놈들을 욕질하는 것뿐이였습니다.

이인모는 도꾜에 가자바람으로 이 조직에 백두산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풍우동경고학생친목회 성원들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목표도 방향각도 없이 울분속에 모대기기만 하던 친목회는 반일애국단체로 개편되였습니다.

그때 일본대학들에 가서 공부하고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백두산에서 싸우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합세하기 위하여 여러 모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철수

반일지하조직은 고등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들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1944년 상반년에 일제경찰에 발각되였던 가나자와조선인학생민족주의그룹도 우리 주력부대의 정치공작원들이 꾸려놓은 항쟁조직이였습니다.

가나자와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조선유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인 이철수가 우리에게 다 보고하였습니다.

이철수는 특수임무를 받고 청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정치공작임무를 수행할 때 일본 가나자와 중학교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속에 공작원을 박아넣었습니다.

가나자와에 건너간 공작원은 조선각지에서 간 학생들을 흡수하여 학교 안에 무명조직을 내왔습니다. 조직에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적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조직도 역시 최종목적은 결정적 시기에 무장봉기로 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 호응하자는 것이였습니다.

일제경찰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 무명조직에 망라된 성원들은 북조선출신의 독립운동자 **김일성**이 백두산을 근거지로 해서 빨치산을 조직하여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고 또 우수한 조선동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자기들도 그 밑으로 달려

가 독립운동에 협력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 여러 갈래의 반일 항쟁조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백두산 쪽에 와서 우리와의 투쟁에 합세할 것을 공공연히 자기의 투쟁목표로 내세운 조직은 몇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항쟁조직들이 우리의 투쟁소식에 힘을 얻고 우리가 최후공격작전을 벌일 때 그에 호응할 기세밑에 싸웠지만 일제경찰의 탄압을 고려하여 그러한 투쟁목적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사까에는 고학생들로 된 충성회라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에 제주도와 경상도에서 간 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민덕원

제주도 사람들이 저항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총련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오사까의 빈민구역에 모여살면서 대학 야간학부에 다니던 제주도 청년들은 모두 민족의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민족의식이 강한 곳에서는 조직도 생기고 혁명가들도 많이 배출되는 법입니다.

제주도 출신 유학생들이 오사까에서, 제주도에서 온 청년들로 동인야학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육성된 사람들로 반일친목단체를 무었다가 우리의 공작원들로부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입수한 다음 반일친목단체성원들과 일본대학 야간중학부 학생들로 충성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무었습니다.

이 조직이 내세운 강령과 투쟁임무가 괜찮았습니다.

충성회가 어떤 조직인가를 알려면 쏘련, 일본이 개전하면 즉시 조선으로 돌아가 동포청년들을 지도하여 일본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반기를 휘날릴 때는 이에 호응하여 과감히 일떠설 것이라고 한 이 회의 취지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충성회가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그 관계자들은 서울에 돌아와 우리가 파견한 국내공작원들과 손을 잡고 혁명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조선과 일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주도 빨치산과도 연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유학생들의 반일지하조직은 지어 일본의 신학교들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베에 있는 중앙신학교 조선인학생민족주의 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백두산에서 싸우는 우리를 장래가 크게 기대되는 독립운동자라고 찬양하면서 민족의식과 독립정신, 애국심을 키워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까야마 6고등학교에 조직되었던 조선인학생친목회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오까야마 6고등학교의 조선인학생친목회를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으로 개편한 사람은 그 당시 도꾜에서 대학에 다니던 민덕원입니다.

민덕원이 조선의 광복은 조선동포들앞에 나선 지상의 과업이다, 조국광복회는 민족의 모든 애국역량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묶어세울 것을 호소하였다, 유학생들도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일제에게 끌려온 불행한 조선동포들을 계몽하고 의식화하여 반일조직에 묶어세웠다가 일본내부에서 혼란기가 닥쳐올 때 일제히 들고일어나 독립을 성취하자고 했다는데 그때 공작원들이 대체로 그런 내용의 선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민덕원은 여운창, 김재호 등 조직성원들에게 방학기간의 투쟁과제도 주었다고

합니다. 조직성원들은 방학철마다 고향에 돌아가 가족, 친척들과 친지들, 동창생들속에서 계몽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의 계몽사업에서 중심은 항일유격대의 전과를 소개선전하는 것이였습니다. 전과를 소개하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까지 해설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진정으로 원하거든 당신들도 광복성전에 나설, 그럴 의향이 없는가고 직방 들이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뜻이 통하는 가까운 친척, 친우들로부터 동아리를 지어서 슬슬 조직에 묶어세웠습니다.

6고사건에는 흥미있는 점이 많습니다. 6고의 조직성원들이 자기네 동생들과 동생의 친구들이 일본사람들의 선전에 속아서 소년항공대에 입대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김일성**부대에 찾아가라고 권고했다는데 그것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때 조직성원들의 선전에 공감한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만주로 떠났다가 우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조국광복회 오까야마분회 성원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해방 후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몸을 바쳤고 어떤 사람들은 지리산에 들어가 이현상과 함께 빨치산 투쟁을 하였습니다.

반일항쟁조직은 노동자들속에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주요공업지대인 경빈지구, 호나신지구 그리고 북해도나 니이가다 등 조선사람들이 많이 가 있던 곳에 노동자들로 조직된 항쟁조직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빈지구의 조직들 중에서 이채를 띠는 것은 도꾜에서 조직된 동맹회입니다. 동맹회는 노동자들을 골간으로 하고 거기에 고학생들을 망라하여 꾸린 반일조직이였습니다. 이 조직은 일본천황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파벌을 반대배격하였으며 조선애국자들의 활동,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을 찬양하였습니다.

동맹회는 노동자들과 고학생들속에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제관헌자료는 동맹회성원들이 진행한 선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북만에 있는 … **김일성**은 우리 동포인데 그 세력이야말로 위대한 것으로서 일본군대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때때로 조선내를 습격하여서도 조선동포의 집은 절대로 치지 않고 일본인가옥과 일본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러러 볼만한 행위이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소화17년(1942년) 3월분 202페지≫

동맹회의 전략은 적의 지원병제도를 역이용하여 일단 군사훈련을 받아두었다가 유사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리자는 것이였습니다. 동맹회는 조선독립이 공산주의운동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빈지구 조선노동자들의 흠모와 반일기세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은 도꾜의 한 노동자조직성원이 다진 다음과 같은 결의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 **김일성**은 만주국에서 조선독립단을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다. 장래 조선의 대통령은 **김일성**이다. 우리들은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징병에 합격하여 일본을 위해 전사하는 것은 개죽음이다. **김일성**의 슬하로 달려가 조선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소화19년(1944년)3월분 75페지≫

원래 경빈지구는 1920년대에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발족하여 활동하던 곳입니다. 이 로총은 오래전에 해산되었으나 그 그루터기를 타고 노동운동이 미미하게나마 이어졌는데 여기에 백두산바람이 불어들자 기성조직들이 혁명조직으로 개편되고 없던 조직들이 새로 태어나는 회오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공작원을 많이 보낸 곳은 북해도 지방이였습니다.

북해도에 침투한 우리 공작원들 중에 김태현이라는 가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해도가 목적지였지만 그는 거기로 직행하지 않고 쿠릴렬도에 있는 군용기지건설장에 먼저 들어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대한 선전을 하면서 살금살금 조직을 무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형무소로 끌려가던 도중 벼락같이 탈출하여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동안 종적을 감추고 있다가 북해도로 가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여러 탄광, 광산, 비행장, 수력발전소 건설장에 징용된 조선인노동자들을 반일조직에 묶어세웠습니다. 그가 정치공작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조국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들은 조국을 잃었기 때문에 바다건너 이 북해도 땅에 끌려와 고생이란 고생을 다한다, 조국에서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피투성이 싸움을 하고 있다, 저 백두산 밀림속에는 손에 총을 잡고 목숨을 걸고 일본군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조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다, 우리들은 **김일성**부대와 함께 싸워서 하루빨리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 우리들은 **김일성**부대와 함께 싸워서 하루빨리 조국을 광복해야 한다, 조국을 광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을 꾸리고 사람들을 우리의 주위에 단결시켜야 한다고 선전하고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한조항한조항 해설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강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조직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쟁취한 노동자들이 북해도 여러 고역장들에게 파업투쟁의 앞장에 선 주인공들로 되였습니다. 유바리탄광노동자들의 폭동은 바로 그 공작원이 조직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출판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기록≫이라는 책을 보면 북해도와 남부사할린, 쿠릴렬도 등지에서 진행된 조직건설정형과 반일, 반전 투쟁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편찬한 것입니다. 이 조사단의 부단장 후지시마 우다이는 저명한 평론가인데 우리 나라를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혁명적 적지들을 제일먼저 답사한 인물입니다.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편찬한 책에는 북해도의 한 토목공사장에 침투한 우리 공작원이 조선인노동자들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에 대해 소개선전하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킨 자료들도 서술되여 있었습니다. 그 공작원은 공사장에서 태업을 자주 조직하고 도주자를 많이 내여 군수생산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도주자들은 다른 공사장에 가서 불씨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패망의 날이 다가오자 ≪만들라, 보내라, 이겨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군수생산을 필사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일본의 공산주의자들과 반전주의자들은 ≪못 만들겠다, 못 보내겠다, 못 이긴다.≫는 반대구호를 들고 싸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공작원들이 반일역량을 동원하여 군수생산에 제동을 건 것은 일본의 패망을 위해서나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나 매우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북해도에 삿포르에 들어간 우리 공작원은 군사기지건설장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노동자들속에서 지하조직을 꾸리고 그 대열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무장봉기를

위한 준비까지 진척시켰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작원들은 북해도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도 활발히 움직이였습니다. 그들의 영향밑에 일본인 노동자들과 진보적인 청년학생들도 반제, 반전 투쟁에 합세하였습니다.

일본의 주요공업지대인 판신지구는 우리 공작원들의 영향이 많이 미친 곳입니다.

이 지구의 조직들 가운데서 이채로운 것은 효고현에 있는 한 공장에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노동자들이 꾸린 협화훈련대특별청년회라는 조직이였습니다. 여기에 침투한 공작원은 우리가 파견한 정치공작원한테서 교양훈련된 사람이였습니다.

구일본의 비밀문건에는 국내공작원의 이름이 고영석으로 되어있는데 내 기억에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본명이 아니고 가명인 것 같습니다.

협화훈연대 특별청년회사건과 관련된 일제관헌자료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아마가사끼에 있는 조선인민족주의그룹 협화훈련내 특별청년회 사건 검거취조상황

… 주모인물…(27살)은 … 점차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우연히 재만조선독립운동의… **김일성**휘하의 고영석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머지않아 일쏘개전이 있게 되는데 이에 호응하여 조선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소화20년(1945년) 8월경에 만주의 **김일성**은 조선에 침공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그 준비공작으로 나는 조선청년들의 통일과 식량확보 … 사명을 띠고 이번에 **김일성**으로부터 비밀리에 파견된 것이다. 조선청년들은 바야흐로 조선독립의 시기를 맞이한 것만큼 크게 활약해주기 바란다. …≫고 하는 선동을 받고 … 당면하여 동지획득에는 조선안보다 오히려 조선청년의 다수가 일하고 있는 일본땅에 이입노동자로 잠입하여 그 집단생활을 통하여 일대조직을 결집하고 **김일성**일파의 조선침공에 내선호응하여 일제히 봉기를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하며 소화19년(1944년) 3월 하순 오오다니 중공업 아마가사끼공작에 건너와서 동료인 이입조선인로무자를 목표로 민족의식을 각성앙양시켜 결집단결을 도모하는 등 책동을 추진전개하고 있는 바다.≫

≪≪내선관계월보≫, 소화20년(1945년) 6월≫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우리는 국내와 만주, 일본에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였는데 그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에 합세할 수 있도록 전민항쟁역량을 잘 꾸렸습니다.

그때 일본에는 김창국과 같이 우리가 직접 선발해서 파견한 정치공작원도 있고 우리의 지도밑에 있는 국내조직이 우리가 보낸 지령을 받고 파견한 정치공작원도 있었으며 국제연합군 별동대의 선과 연결된 특수정찰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정치공작원들은 우리가 제시한 전민항쟁계획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의 모든 반일역량을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김일성**대≫만 하여도 니이가다철공소에 강력한 반일역량을 꾸리고 주요군수품생산을 저애함으로써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켰으며 새로 들어온 수십 명의 징용노동자들을 집단도주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교또의 조선인노동청년들은 장차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독립계획을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여러 공장들에 반일조직들을 내왔습니다.

실로 북으로는 북해도로부터 남으로는 구주에 이르기까지 일본땅 어디에나 그리

고 대학생으로부터 신학교의 학생, 탄광노동자로부터 징용노무자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조직이 박혀있었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일제경찰당국이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특수정찰원들이 일본에 파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얼마나 전전긍긍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자료는 조선북부의 항로에 취항중인 선박이 보충서원을 모집하였는데 평소에는 응모자가 전혀 없는 형편이었으나 이번에는 상당히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매 항구마다 각각 47-48명이 지망해온 사실을 놓고 그들의 속심을 알 수 없어 오히려 채용을 중지하였다고 쓰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정보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농후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인바 내지도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비교적 쉽게 내지에 도항할 수 있는 선원을 지망하여 내지항만으로 기항하게 되는 때 배에서 빠져나와 도꾜, 오사까 그 밖의 대도시들에 잠입하며 그곳 조선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민족의식을 높이고 내외에 호응하여 불온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므로 만주방면에서 도항하는 조선인과 용의조선인선원들의 동향에 대하여서는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고월보≫ 내무성 정보국, 소화 16년(1941년) 8월분 77페지≫

일본땅은 전국에 조밀하게 꾸려진 조선인들의 항쟁조직들에 의하여 분출직전의 활화산우에 놓여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공작원들과 소조성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였습니다.

똑똑한 정신을 가진 조선사람들 중에는 강대국들의 협상탁에서 민족의 전도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얼간이들이 없었습니다.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확신한 우리 인민의 일치한 입장과 관점은 조선의 모든 애국역량을 인민혁명군의 두리에 묶어세울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달리 백두산을 쳐다본 게 아닙니다. 거기에 혁명군이 있었기 때문에 백두산, 백두산하고 말끝마다 외운 겁니다. 옛날에는 백두산이 조종의 산으로서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에서 항일대전을 벌인 다음부터는 혁명의 성산으로서 민족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투쟁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것을 주축으로 하여 주체적 혁명역량을 튼튼히 꾸려온 것은 참으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항일혁명의 전 노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민지민족해방 투쟁에서는 기본의 기본이 무장투쟁입니다. 무장투쟁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켜야 인민들도 그만큼 빨리 각성하게 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전에로 쉽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망국으로 하여 심하게 상처를 입었던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존심은 우리가 백두산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다음부터 백 배, 천 배로 증대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민족적 자존심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높은 형태의 혁명적 자부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민의 참된 민족적 자부심과 조국애는 백두산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일본땅에 꾸려진 전민항쟁조직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일제의 패망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총련운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합니다. 총련이 흥하는 것은 그 터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7. 최후결전의 날



일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선봉항에 상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에 쏘련을 방문하시었을 때였다. 크레믈린궁전에서 우리 수령님을 영접한 쏘련공산당의 책임일군은 그이께 자기 나라 간부들을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었다.

그 간부들속에는 당시의 쏘련국방상이었던 말리노프스키원수도 있었다. 말리노프스키는 자기 차례가 되자 웃는 얼굴로 ≪우리는 이미 구면이니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원동에 계시던 시절에 우리는 벌써 하바로프스크에서 첫 상봉을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옳습니다. 우리는 오랜 전우입니다.≫라고 하시며 그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시었다.

두 나라의 지도간부들은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동지와 말리노프스키의 인연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바로프스크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일본제국주의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의 준비는 히틀러독일이 패망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는 소, 미, 영 3개국 수뇌자들이 모여 비밀회합을 하였습니다. 1945년 2월이면 쏘련군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해방했을 때이며 베를린에 대한 총공격전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독일의 패망은 시간문제로 되고 있었습니다.

쏘, 미, 영 수뇌자들이 얄타에서 논의한 중심의제의 하나는 독일패망 후 쏘련의 대일참전문제였습니다. 회의에서 쏘련은 독일 패망이후 2-3개월이 지나 대일전쟁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얄타회담에서 쏘련의 대일참전문제가 확정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던 동방피압박민족들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 나갔습니다.

쏘련군이 베를린해방작전을 시작한 대로부터 얼마쯤 지나서 원동전선군사령부는 우리에게 독일의 패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국제연합군에 망라되어있던 쏘련군장병들은 그날 온밤 자지 않고 축하연을 벌이었습니다. 후방창고에 있던 술이란 술은 아마 그때 다 마셔버렸던 것 같습니다. 군의소의 알콜도 하루밤사이에 결딴났습니다. 쏘련사람들이 원래 술을 많이 마시었습니다. 쏘련사람, 조선사람, 중국사람의 구별이 따로 없이 모두가 전승의 기쁨에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쏘련의 승리를 우리 모두의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패망이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졌고 독일의 패망이 조만간에 일본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패전은 일본의 패전을 알리는 전주곡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파쑈세력은 동서방을 무대로 하여 무덤에로 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주봉을 일본이 받아쥘 참이였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패망을 앞당기고 조국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독전승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은 후 연합군에 망라된 조선인 지휘성원들은 한데 모여 조국해방과 관련된 작전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소집한 회의는 아니였지만 분위기가 아주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모두가 격정에 넘쳐 일제격멸과 조국광복을 부르짖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두만강을 건너 국내에로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자력독립과 전민항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한다는 확고한 주체적 입장을 튼튼히 견지해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자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



얄타회담(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고 국내의 항쟁조직들을 잘 준비시켜 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작전을 벌일 때 그에 합세해서 전인민적 항전을 벌려야 한다, 쏘련, 중국의 무장력과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쏘련의 전반적 대일작전과의 깊은 연관속에서 협동작전준비를 잘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날 우리가 논의한 요점이였습니다.

그 후 나는 쏘련과의 군사정치적 협동문제를 두고 쏘련원동전선군 지휘부와 여러 차례에 걸치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보중이나 장수전과 함께 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김책이나 최용건을 데리고 따로 가서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침공에 대처하여 쏘련은 그 동안 대일작전을 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준비는 독일패망 이전에도 했고 이후에도 하였습니다.

쏘련지도부는 독일과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던 주체32(1943)년경에 총참모부의 원동담당부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원동의 무력을 전시작전수행에 알맞게 개편하였다. 스탈린은 원동전선사령관과 집단군사령관들을 대독전쟁을 통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은 장령들로 교체하였다.

원동전선사령관 아파나셴코가 모스크바남방의 워로네쥬전선 부사령관으로 파견되어가고 그 자리에 칼리니전선사령관이였던 푸르카예프가 소환되어온 것도 그런 조치의 일환이였다.

스탈린은 주체33(1944)년에 들어와 쏘련군이 쏘련경외의 동구라파 땅에서 군사작전을 적극화하고 있던 때에도 원동지역에 병력을 급속히 증파하여 그 군력을 최대한으로 늘여나갈 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쏘련은 독일이 괴멸된 후에 대일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방향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쏘련군대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였습니다.

쏘련의 고위지휘성원들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모든 부대들은 박두한 대일작전을 앞두고 종전보다 훈련강도를 몇 배나 높이었습니다. 그때에 벌인 군사훈련은 국제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민족부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 모든 민족부대들이 다가올 대일연합작전에서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었습니다.

연합작전이 은을 내자면 국제연합군에서 민족부대별로 되는 작전분담은 어떻게 하고 각 군종, 병종 간의 전투적 협동과 보조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훈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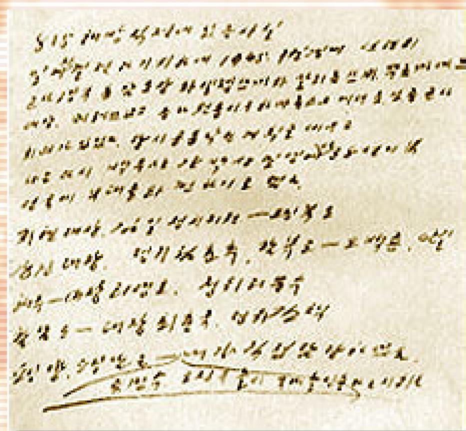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가가 부대들은 이와 함께 다년간의 항일전쟁에서 창조하고 연마해온 유격전법들을 완성하고 그것을 대규모정규작전에서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서도 꾸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훈련을 다같이 내밀면서도 조국해방작전에 절실히 필요한 정찰훈련, 공병훈련, 무전훈련과 항공육전대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쏘련군대가 대독전쟁기간에 창조한 최신전쟁경험도 충분히 연구하고 익히었는데 그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갓 조직되었을 때 훈련기지에 파견되어온 쏘련교관들은 대부분 지난날의 공민전쟁참가자들이였습니다. 그러나 대일작전을 최종적으로 준비하던 그 무렵에는 쏘독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관으로 와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현대전에서 단련된 사람들이니 교육내용도 매우 참신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내항쟁조직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조국에 공작원들을 수많이 파견하였습니다. 백두산밀영과 간백산에도 우리 공작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기에 틀고앉아 항쟁조직들을 지도하고 있던 정치공작원들과 함께 최후결전준비를 다그쳐나갔습니다.

나도 그 무렵 국내에 나와서 당면한 대일작전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부대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쏘련의 전반적 대일작전준비와 우리의 작전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바치였습니다.

쏘련은 1945년 여름에 와실레프스키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원동쏘련군총사령부를 조직하고 거기에 3개의 큰 전선군을 배속시켰습니다. 자바이깔 전선군은 말리노프스키가 담당했고 제1원동전선군은 메레츠코프가 담당했으며 제2원동군전선군은 본래 원동전선사령관이였던 뿌르까예브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 작전계획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

제1원동전선군의 기본작전지역은 하얼빈이남의 중국동북 일부지역과 조선이였고 제2원동전선군의 작전지역은 하바로프스크 서쪽에 있는 동북지역이였습니다.

원래 국제연합군은 제2원동군전선군에 배속되어 군사작전을 하게 되어있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주로 제1원동전선군과 연계를 가지였습니다. 원동쏘련군총사령부가 조직된 다음부터 나는 제1원동전선 사령관 메레츠코프, 군사위원이였던 스티코프와 거래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25집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나 집단군지휘성원인 레베제프와도 친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대일작전의 개시와 함께 부대를 이끌고 조선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원동쏘련군총사령부의 소재지는 하바로프스크였습니다. 나는 하바로프스크에 드나들면서 와실레프스키와도 낯을 익히고 말리노프스키와도 친교를 맺었습니다.

1945년 여름에 이르러 원동쏘련군총사령부는 연합작전을 위한 회의를 자주 소집하였습니다.

와실레프스키는 쏘련군총사령부의 작전적구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는 관동군주력을 포위하고 그것을 몇 개로 고립분단하여 일거에 소멸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해방과 관련해서는 종래의 작전적 방침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백산일대에 집결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예정된 통로로 진출하여 각 도를 해방하며 원동의 훈련기지에 집결되어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평양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항공편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이미 꾸려놓은 비밀근거지들을 차지하고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은 항쟁조직을 대대적으로 늘여 인민들을 전민항쟁에 불러일으킴으로써 온 민족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작전계획이 그 당시 우리 나라가 처한 군사정치정세하에서 조국의 해방을 단시일내에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모든 도들에 낙하산을 타고내린 빨치산부대들이 와와 쓸어나와 전민항쟁부대들과 함께 사방에서 적들을 답새길판인데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해안선에 구축된 적의 요새지구로는 쏘련군이 폭격과 함포사격을 들이대면서 쓸어들고 국경쪽으로는 보병부대들이 기갑부대들을 앞세우고 해일처럼 밀려들 판이였습니다. 쏘련사람들과 그렇게 약속이 다되어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결전을 앞두고 국내에 소부대들과 소조들을 많이 들여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빨치산부대들과 인민무장대들, 항쟁조직들앞에 적들을 완전격멸한 후 식민지 통치기관들을 청산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당과 인민정권기관들을 내올 데 대한 임무도 설정하였습니다.


환성을 올리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대

원동쏘련군 지휘성원들가운데서 내가 제일 많이 상종한 사람은 메레츠코프였습니다.

메레츠코프는 이마가 약간 벗어질사한 40대 말기의 장령이였습니다.

메레츠코프의 경력을 보면 스탈린이 그를 연해주방면의 전선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우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원동의 한 부대에서 지휘성원으로 있은 메레츠코프는 레닌그라드군관구사령관으로 있다가 쏘련-핀란드전쟁에서 주력을 담당했던 제7집단군도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쏘련군총참모장도 하였고 원동으로 오기 전에는 모스크바서북부의 가렐리야전선사령관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메레츠코프는 구면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내 손을 꽉 잡아흔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리를 권하고 나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쟁에서는 조선동지들이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대일작전에 조선동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메레츠코프는 국제연합군에서의 조선지대의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요해한 다음 나에게 조선국내의 군사정치정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도료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일본의 군사역량배치와 통치방법,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과 혁명조직들의 분포정형, 비밀근거지들과 연결되어있는 무장대들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일작전을 앞둔 어느날 나는 연합군 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향하였습니다. 쏘련군 총참모부가 소집한 회의에 가보니 메레츠코프와 스티코프를 비롯해서 대일작전과 관련되어있는 각 전선사령부의 책임일군들도 벌써 다 와있었습니다. 와실레프스키총사령관도 거기에서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항공륙전대전법에 기초한 조국해방작전계획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지하였습니다. 그때 동북항일연군 부대들앞에는 만주지방의 주요도시들에 먼저 날아들어가 진격하는 쏘련지상부대들의 통로를 열어줄데 대한 임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쥬꼬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독일주둔 쏘련점령군 총사령관과 독일관리감독리사회 쏘연대표로 있을 때입니다. 쥬꼬브가 무슨 일로 거기에 왔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로서는 매우 인상깊은 상봉이였습니다. 이름난 백전로장인 쥬고브는 대단히 서글서글하고 소탈한 사람이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있는 성의를 다하여 우리를 접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친교적 관례를 벗어난 특별한 환대였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동안 레닌묘도 참관하고 역사박물관에도 가보았습니다. 모스크바 방위와 관련되어있는 이름있는 전적지들도 구경하였으며 영화 ≪챠

파예프≫도 다시 보았습니다.

대일작전과 관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쏘련사람들은 어째서인지 우리를 원동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배포유하게 계속 시내구경만 시키였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우리를 쥬다노브에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당시 쥬다노브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비서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쥬다노브에게 가보니 스티코프가 이미 와있었습니다.

쥬다노브는 스탈린의 위임에 따라 동방에서 온 사절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온 항일무장투쟁을 격찬하였습니다. 그는 스탈린과 스티코프를 통해 조선의 빨치산 **김일성**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듣던 바보다는 훨씬 더 젊어보이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스탈린도 우리의 활동에 유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나와 쥬다노브와의 담화는 당면한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나는 그날 쥬다노브와 담화하면서 그가 해방된 조선을 민주주의독립국가로 발전시키자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하겠는가 하는데 나의 견해를 몹시 듣고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담화도중에 쥬다노브는 불쑥 나에게 조선사람들이 나라가 해방된 후 몇 해 동안이면 독립국가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늦어도 2-3년간이면 해낼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쥬다노브는 그 대답을 듣자 두 손을 마주 비비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쥬다노브가 어째서 해방 후 우리의 자주독립국가건설문제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3년이라는 나의 대답을 듣고 반신반의의 모순된 표정을 짓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짐작하였습니다.

그 까닭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얄타회담에서 전후 조선문제처리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때 루즈벨트가 신탁통치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세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밑에 ≪민주적 제도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종일관한 주장이였습니다.

루즈벨트는 1943년 봄에 워싱톤에서 미국무장관, 영국외상 등과 회담할 때부터 조선과 인도지나는 강대국들의 신탁통치하에 놓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사람에게는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이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되고 단련되였다는 것과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국가건설을 해나갈 수 있는 견실한 지도핵심과 광범한 애국역량이 준비되였고 풍부한 투쟁경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능숙한 조직력과 강력한 동원력을 가지게 되였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쥬다노브는 내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나서 해방 후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쏘련이 독일과 4년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앞으로 또 일본과도 큰 전쟁을 치르어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준다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역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망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폐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쏘련의 정치적 지지이다, 쏘련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조

선문제가 조선인민의 이익과 의사에 맞게 해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쥬다노브는 내 대답을 듣고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동구라파의 어떤 나라 사람이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낙후한 데다가 전쟁피해가 막심해서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쏘련이 큰집이 된 셈치고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동방과 서방의 차이, 해뜨는 나라와 해지는 나라의 차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쥬다노브의 마지막말은 물론 농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해뜨는 나라와 해지는 나라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동구파라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보다 쏘련을 더 믿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거의 다 쏘련군대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나라들은 쏘련에 의존하여 쏘련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이 ≪아≫하면 그들도 ≪아≫했고 지어는 모스크바에 비가 오면 그들도 우산을 들고다닌다고 할 정도로 사대주의가 심했습니다. 동구라파사회주의가 망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 사대주의에 있습니다.

쥬다노브는 나와의 상봉결과를 스탈린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쥬다노브와 여러 차례 만나 깊은 친교를 맺었습니다.

메레츠코프도 스탈린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순에서 있은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방 직후 내가 여순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메레츠코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곧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부탁할 것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쏘련군사령부가 발행한 군표를 없애고 우리 화폐를 발행할 데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문제, 조선인민혁명군의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개편하는데서 쏘련이 필요한 방조를 주는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안을 제기하였습니다.

메레츠코프는 그 후에도 우리의 사업을 각방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연해변강군관구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평양에도 이따금씩 오군 했는데 그때마다 쏘련군사령부에 가지 않고 먼저 우리 집부터 찾았습니다.

한번은 메레츠코프가 말리노프스키와 함께 평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조선주둔쏘련군사령관은 그들을 외국인전용호텔로 안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령관의 호의를 물리치고 우리는 **김일성**동지네 집을 찾아온 사람이니 거기에 가서 부인한테 만두나 해달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들린 일이 있습니다.

말리노프스키와 메레츠코프는 내가 집에 있건없건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주 대범하고 텁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예고도 받지 못하고 손님들을 맞아들인 **김정숙**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리노프스키는 자기네가 평양으로 떠나올 때 나에게 미리 연락을 했는데 그런 연락을 받고서도 비행장에 못나오고 또 이렇게 집에도 없는 것을 보면 여간 바쁘지 않은 모양이니 바쁜사람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끼리 먼저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선국수도 가져오고 ≪조선흘레브≫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쥬다노브와의 회견을 마친 나는 스티코프와 함께 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동에서 맺어졌던 스티코프와의 친교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스티코프는

조선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으로 소집되었던 쏘미공동위원회의 쏘련측 대표단 단장으로 조선의 통일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외교활동을 정열적으로 벌이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 동안의 활동정형을 통보하였습니다.

1945년 8월 9일 쏘련은 동맹국들과의 협약에 따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대와 교전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최후공격작전에 앞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로 하여금 웅기군 토리와 훈춘현 남별리, 동흥진을 비롯한 적의 국경요새구역의 여러 군사요충지들을 불의에 습격하여 적들의 방어체계에 혼란을 조성하고 요새구역안에 배치된 적 유생역량과 화력기재들에 타격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와의 연합작전을 하면서 제1원동전선군사령부가 제일 신경을 쓴 것은 가장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장소의 선택이였습니다. 요새화된 국경지대에서 어느 고리에 답새겨야 일본군의 방어체계전반을 뒤흔들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이 고충을 우리가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1945년까지 만주와 쏘련, 몽골 국경지대에 수많은 영구화점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조선에 건설된 4개의 요새지대는 모두 쏘련을 공격하기 위한 발진기지들이였습니다.

일제가 10여년에 걸쳐 건설한 조쏘, 조만, 쏘만 국경일대의 요시구역들에는 관동군과 조선주둔관관하 부대들을 비롯한 육해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집결되어있었습니다. 적들은 이 요새구역들을 가리켜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적들이 구축한 요새들은 모두가 비밀지하요새였습니다. 일제는 요새건설에 동원된 인부들을 비밀담보의 명목으로 학살해버리였습니다. 이런 요새들은 대일작전수행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되고 있었습니다. 쏘련지휘관들은 그 요새선뒤에 있는 관동군을 크게 보았지만 나는 요새선과 돌파를 난문제로 보았습니다. 내가 요새구역의 몇 군데를 찔러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때문이였습니다.

내가 개전에 앞서 국부적인 싸움을 해야겠다고 하자 제1원동전선군의 고위지휘관들은 다들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나는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자면 군사요충지를 몇 군데 답새겨서 적들이 은밀히 증강해온 방어체계와 은폐해놓은 유생역량과 화력기재들을 단번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의 한 부대가 개전전야에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두만강일대에 구축한 요새의 한 모퉁이를 담당한 토리에 대한 습격전투를 단행하였습니다. 토리는 경흥요새구역과 웅가-나진요새구역을 끼고 있은 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토리가 점령되면 적들이 그 일대의 넓은 지역을 내놓아야 하고 경흥요새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투원들은 토리의 경찰관주재소를 불사르고 마을을 해방하였습니다.

토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최후결전에서 우리 혁명군부대에 의해 첫 번째로 해방된 망르이었습니다.

적들은 증원부대를 급파했지만 그 증원대는 겁을 집어먹고 웅상령에서 경찰관주재소가 불타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토리습격에 대하여 일본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전

하고 있다.

≪8월8일 오후 11시 50분 조선인의 일단 약 80명이 쏘련군과 함께 쾌속정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 토리에 내습하였다. 여기에 쏘련영토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곳이다. 우선 토리경찰관주재소가 습격당하였다.

…

… 9일 오전 3시경 … 트럭을 토리에 보냈으나 때는 이미 늦어… 트럭은 웅상령에서 되돌아왔다.≫≪≪조선종전의 기록≫ 29페지≫


한창봉

쏘련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별동대, 선견대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해 마련된 돌파구는 대일전쟁을 전격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우리의 작전적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결정적 고리의 하나로 되였습니다.

간백산밀영을 최후공격작전의 출발진지로 차지하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대오를 늘이면서 작전계획에 예견된대로 진격하였으며 두만강연안에 집결한 부대들은 일시에 적의 국경요새들을 돌파하고 경원, 경흥 일대를 해방하였으며 웅기방향으로 계속 전과를 확대하면서 국내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상륙부대의 선견대로 활동하던 일부 부대들은 지방부대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웅기에 상륙하였으며 전투성과를 확대하면서 청진일대에로 진격하였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금창, 동녕, 목릉, 목단강을 해방하고 적들을 격멸하기 위한 추격전을 벌이면서 관동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두만강 대안에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을 무장폭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전국가지에서 일제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소탕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였으며 진격해오는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경흥요새를 격파하는 전투에서는 도천리출신인 한창봉이 잘 싸웠습니다. 한창봉은 그때 국제연합군의 선견대에서 맨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도하한 선견대원들은 지방혁명조직성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적의 포대들과 영구화점들을 단숨에 까부시고 원정일대를 해방하였습니다.

두만강일대의 요시돌파작전에서는 훈융 마유산전투도 유명했습니다. 마유산과 월명산 일대는 적들이 난공불락이라고 떠들던 곳이였습니다.

적들은 훈융교를 폭파하고 영구화점들이 구축되어있는 고지에 들이배겨 결사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박광선은 일본군으로 변장한 조선인민혁명군 정찰조원들과 함께 야밤에 두만강을 건너 마유산뒤면에 불쑥 나타나 적정을 샅샅이 알아냈습니다. 마유산을 지키고 있는 적의 역량은 2개 대대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찰조는 부대에 무전으로 적정을 알리고 두만강을 강행도하한 부대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마유산일대의 인민무장대는 전투전에 적의 화약고와 포탄, 탄약 야적장을 폭파함으로써 전반적 전투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토리습격전투에 참가하였던 오백룡이네 선견대는 만향고개전투에서도 위훈을 세웠습니다.

만향고개는 적들이 웅기-나진요새를 육로에서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였

습니다.

만향고개에서 부대의 전진이 좌절되자 오백룡은 자기네 선견대가 고지의 적화점과 포진지를 까부시겠다고 자청해나섰습니다. 그는 대원들을 데리고 고지에 기여올라 아군의 전진을 막고 있는 화점들을 모조리 까부시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쏘련군장병들은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조선빨치산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 중에는 조국해방을 하루 앞두고 희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봉석이였습니다. 김봉석은 내가 제일 사랑하던 전령병이였습니다. 그가 내 연락임무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김봉석

그가 전령병이였지만 정치공작을 능숙하게 수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1930년대 말에 김봉석이 윤병도와 같이 우리의 임무를 받고 적들의 토벌거점인 용정에 들어가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생모를 쓰고 청년학생들속에서 공작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 놀랄 것입니다.

박인진을 호위하여 서울에까지 가서 천도교인들의 무슨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그 상층인물들에게 혁명의 물을 먹인 유격대원이 바로 김봉석입니다.

김봉석은 조국해방작전에 참가하고 있던 오백룡이한테 나의 명령을 전달하고 돌아다니다가 전사하였습니다. 나는 오백룡에게 쏘련군대와의 연합작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를 주려고 김봉석을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준 임무를 수행하고 인차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어떤 집에 들려 식사를 했는데 그 집주인이 나쁜 놈이다보니 김봉석이를 경찰에 밀고하였습니다. 김봉석은 추격하던 놈들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였습니다. 그때가 1945년 8월 14일이였습니다. 혁명열사릉 참관자들이 해방을 하루 앞두고 전사한 그의 반신상앞에서 너무 아쉬워 모두 발길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진을 해방시킨 것은 나진인민무장대입니다.

나진상륙작전을 담당한 쏘련 태평양함대의 해군부대는 나진상륙전투가 어려운 전투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나진은 적들이 많은 품을 들여 건설한 큰 요새지였기 때문입니다. 항에는 적의 군함들이 노상 머물러 있었고 시변두리의 고지에는 고사포부대도 있었습니다.

쏘련군대가 나진에 진출했을 때 도시는 이미 해방된 뒤였습니다.

나진에 웅거한 일본군은 처음에 쏘련군이 시내를 폭격하고 함포사격을 하게 되자 그것을 장고봉사건과 같은 충돌사건으로 알고 결사적으로 방어할 잡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인민무장대의 한 소부대가 밤중에 시내에 은밀히 돌입하여 요새사령부와 헌병대, 경찰서에 총격을 가하고 육군군수창고에 불을 질러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기하고 있던 인민무장대의 기본대오가 시내에 쳐들어가서 적들을 안팎으로 답새겼습니다.


까치봉무장대가 활동한
회령군 원산리 까치봉지구

나진해방 전투에 참가하였던 쏘련의 한 군관은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우리들이 도시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관총의 따르륵소리와 포사격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변두리로 나온 조선농민들이 손을 휘저으면서 ≪만세≫소리를 웨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시내에서는 벌써 이틀째 **김일성**빨치산부대와 일본군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진시의 조그마한 광장들과 좁다란 길거리들은 적군의 자동차들과 짐수레들로 미여질 듯 꽉 차있었다.

조선빨치산들이 일본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과 빨치산들사이에 갇히게 된 일본사무라이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포로로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도시변두리로부터 우리를 향해 급히 달려오는 100여명의 무장인원을 보았다. ≪우리들은 **김일성**빨치산 대원들입니다.≫라고 급히 부대지휘관이 탱크병대좌에게 말했다.≫

≪이. 우르쥬멜라슈윌리 ≪조선에서의 수기≫중에서≫


최일

인민무장대는 전국도처에서 각이한 명칭을 가지고 일제를 격멸하는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각 도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인민무장대가 활동하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경흥, 웅기 지구들에 조직된 인민무장대가 개전초기부터 조쏘연합군과 합세하여 잘 싸웠습니다.

청진, 길주, 성진 지구의 무장부대들은 적패잔병들을 소탕하고 8.15해방 전에 벌써 무장으로 공장들을 장악하였으며 경찰기관들을 기습소탕하였습니다.

최일이 조직한 까치봉무장대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일은 1941년 여름에 회령지구에 파견되었습니다. 오백룡소조가 그때 그의 길안내도 해주고 활동지대도 선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최일이 숯구이노동자들과 징용, 징병 기피자, 선진청년들로 무장대로 꾸리고 대장이 되어 활동한 곳이 회령까치봉일대였습니다.

무장대를 내올 때에는 맹세문을 낭독하고 선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무장대는 임시규정과 행동준칙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일은 경흥군 녹야리 곰산지구에서 활동하던 박창범과도 연계를 가지였습니다. 박창범은 곰산임시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삼고 활동한 우리의 정치공작원이였습니다.

까치봉무장대는 최후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투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북부국경지대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는 원정, 청학, 마유산 계선에서 퇴각해오는 패잔병들을 소탕하였고 화약고와 연유창도 폭파하였습니다. 이 무장대는 쏘련군의 진출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회령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들이 까치봉지구에서 소멸한 적유생역량만 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행기도 노획하고 고사포와 수많은 피복류와 중구류도 노획하였습니다.


일제의 무조건항복

양강도와 함경남도 일대의 항쟁조직들은 쏘련군이 진격해오기 전에 수많은 경찰서와 적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철원, 법동 지구와 평안북도의 염주, 삭구 지구항쟁조직들을 잘 싸웠습니다.

신의주지구의 항쟁조직들은 총공격명령이 내린 다음날부터 경찰관파출소와 국경경비초소들을 들

부시고 도경찰부와 도청을 점거하였으며 비행장에 박혀있는 패잔병들을 무장해제하여 8월 하순에 진주해온 쏘련군사령부에 넘겨주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양지구에서는 조국해방단을 중심으로 무어진 큰 항쟁대오가 병기창을 습격하고 도청과 부청을 점거하였으며 적패잔무력을 제압하였습니다.

황해도의 항쟁조직들도 일제가 항복하기 전에 여러 지역의 적들을 습격제압하였습니다.

최후결전의 시기를 회상할 때마다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쏘련의 훈련기지에서 여러 해 동안이나 조국해방작전준비를 해온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역량이 본래의 계획대로 전투작전을 전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해방의 날
온 나라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었다

아군부대들이 북부국경지대에서 일본군과의 교전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전선부대들의 작전을 지휘하는 한편 항공육전대를 인솔하고 조선으로 출격할 준비를 최종적으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전선정황에 맞게 육전대오를 부분적으로 재편성하기도 하고 무기와 탄약, 장구류 일식을 신품으로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전대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장에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번져진 것은 일본놈들이 너무 급작스레 항복한데 있었습니다. 일본놈들이 항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처음 얼마동안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오만하고 포악하고 검질긴 일본이라는 강적이 개전 1주일만에 손을 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선대들이 눈을 감으면서도 바라던 염원이였고 우리 인민이 수십 년동안 무서운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도 피를 물고 줄기차게 톺아온 항쟁의 종착점이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는 휘황찬란한 재생의 길,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때이른 항복을 일미간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막은 어떻든지간에 일본이 몇 달만 더 저항해도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의 전 영토를 다 해방하였을 것입니다.

일제의 급작스러운 항복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황에 대하여 쓰고 있는 자료를 소개한다.

≪일본이 점차 패전의 길에 빠져 쏘련이 정의의 무기를 가지고 일본에로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일성**장군은 다시금 부하의 정예들을 만주에 파견하여 관동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만주의 모든 요충에 군대를 배치하고 비행기 20여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 징병, 학병 등 일본군대내의 조선인장병들과 연락하여 들고일어날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세기적 계획을 바야흐로 실현시키려고 하던 그 직전에 일본의 항복을 보게 되어 유감스러우나 이 계획은 무효로 시키고 중지되었던 것이다. 만일 이 계획을 조금만 빨리 세웠거나 혹은 일본이 좀 늦게 항복했어도 **김일성**장군은 그 절륜한 전략전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요란한 비행기프로펠러소리와 함께 또한 장렬한 군대의 포성과 함께 함성높이 보무당당히 입국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장군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천추의 한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 도꾜에서 발간된 잡

지 ≪문화조선≫에 실린 글 ≪**김일성**론≫에서, 소화 22년(1947년) 5월≫

일본의 패망소식을 들은 날은 온 나라가 다 울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연광정과 을밀대앞에서는 하루종일 춤판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국권을 강탈당한 때로부터 40년, 국토를 병탄당한 때로부터 36년, 기나긴 암흑의 밤과 지루한 노예살이를 끝장낸 민족의 환호가 삼천리를 진감하였습니다.

일본천황이 항복선언을 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일본군은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전후 조선의 공산주의화를 막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방해하기 위해 미일 두 제국주의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음모의 산물이였습니다.

놈들은 조선군은 엄연히 건재해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무조건항복선언을 기화로 그 어떤 독립운동을 벌인다면 단호하게 무력을 행사하겠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까지 감히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후에도 조선에서 전투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이 그 선언을 무시하는 조건에서 국내의 항쟁세력은 저항을 계속하는 일본군패잔병들과 적통치기구들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소탕하였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에서는 항쟁조직들과 무장조직들이 쏘련군이 입성하기 전에 일본군의 패잔무력을 소멸하고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당조직도 내오고 지방자치기관들도 창설하였습니다. 인민적인 자치기관들이 말단에까지 조직되어 도내의 행정을 틀어쥐고 민정문제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함경남북도를 내놓고도 국내의 항쟁조직들과 무장대들은 8월 중순의 1주일 동안에만도 근 1천개소의 적통치기관들을 습격소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해방은 15성상이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안겨 그것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조선인민혁명군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민항쟁역량의 총동원으로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장기간에 걸치는 항전이 선행되였기에 쏘련의 대일작전은 그처럼 짧은 기간에 결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해방은 쏘련군이 일본관동군을 격멸하는 유리한 환경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혁명군 자체의 역량에 의해 마련된 위대한 결실입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조직한 국내의 항쟁조직들과 무장대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계획에 따라 국내도처에 웅거하고 있는 일제의 침략무력과 식민지통치기구들을 제압소탕하고 나라를 해방하였습니다.





폭격으로 초토화되는 일본본토의 도시와
무장해제를 당하는 일제침략군

조선인민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하여 조국해방이 이룩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자료들을 소개한다.

미국사람들은 벌써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한 외교문서에서 ≪조선공산군김일성부대이 적절한 시기에 조선반도를 휩쓸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한 대학교수는 ≪구만주(중국동북부)야말로 태평양전쟁의 핵심부이며 김일성장군에 의한 레지스탕스가 그 후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좌절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되었다.≫고 썼다.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을 광복하는데서 조선인민혁명


조국광복을 앞둔 2월의 명절

군이 논 역할에 대하여 쏘련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은 40년간 (1905년 이래)…압제자들에 대한 투쟁을 독자적 힘으로 계속하였다. 1945년 8월까지 조선에서는 빨치산부대가 활약하였으며… 쏘련군의 일본격멸전을 적극적으로 원조해주었다.≫ ≪엘. 말리노프스키 ≪관동군 격멸되다≫ 번역판 311페지≫

패전후 쏘련군 제25집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상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평양수비대장 다께나또장령은 조선에 2개의 군단과 9개의 사단 그리고 많은 수의 헌병과 경찰을 가지고 있은 것은 대쏘전쟁의 준비와 함께 조선의 빨치산투쟁을 물리치기 위한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실토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백 년동안의 반일투쟁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말에 벌써 우리 나라는 수십만의 일본침략군과 맞서 7년동안이나 임진조국전쟁을 하였습니다.

근대로부터 계산해도 조선민족의 반일투쟁역사는 70년이 훨씬 넘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75년 운양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 인민은 무력으로 일본침략군에 대항해나섰습니다. 통치배들은 일본군의 위세에 눌리워 벌벌 떨었지만 군대와 인민은 단호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후에는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 계몽운동, 독립군 운동을 비롯하여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을 비롯한 각이한 방법으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수십 년동안이나 꾸준하게 투쟁해왔습니다.

백두산이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만산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백두밀림에서 개척되고 발전해온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민족적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해내외의 광범한 반일애국역량이 수십 년동안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을 무릅쓰고 거족적으로 벌려온 영웅적인 항전의 결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8. 개선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8월의 조선은 해방의 열파로 진동하였다.

삼천리를 뒤흔드는 감격의 열풍속에서 인민은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 있었다.

민족의 영수를 낳은 고도 평양은 **김일성**장군님의 입성을 기다리느라고 밤에도 잠들줄 몰랐다. 주체14(1925)년에 설한풍을 헤치며 고향을 떠나신 **김일성**장군, 내일이면 오실가, 모레면 오실가. 그이를 기다리는 40만 평양시민의 간절한 마음 한결같았다.

서울에서는 여운형, 허헌, 홍명희를 비롯한 명망높은 인사들이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서울역전은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떨쳐나온 수천수만 명의 시민들로 하여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천만의 심장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개선하실 그 순간을 향해 숨가쁘게 고동치고 있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전했다는 소식이 훈련기지에 날아온 그 순간부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모두 흥분된 기분으로 조국에 돌아갈 차비를 하였습니다. 스무 해 동안이나 타향의 이슬비를 맞으며 살아온 나도 고향으로 한시바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귀국의 날도 얼마간 미루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개선을 학수고대하는 국내인민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출발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국에 돌아가더라도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가자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였습니다. 무슨 준비였는가. 새 조국 건설과 관련된 준비였습니다. 조국해방의 전략적 과제가 완수된 조건에서 우리는 새 조국

건설과 관련된 시간표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1945년 9월 2일 도꾜만에 정박하고 있던 미군전함 ≪미쑤리≫호 함상에서는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국제적인 의식이 거행되였습니다. 그날 일본정부와 군부를 대표하여 외상 시게미쯔와 참모총장 우메즈가 항복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시게미쯔는 중국주재 일본공사로 있을 때 윤봉길렬사의 폭탄공격을 받고 외다리쟁이가 된 사람입니다. 우메즈도 일본군부의 명물이였습니다. 그는 1939년 가을부터 1944년 여름까지 관동군사령관을 하였습니다. 일본관동군이 존재한 전기간에 사령관을 여라문사람이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령관이였습니다. 적들이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어마어마한 간판을 내걸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토벌소동을 벌인 것이 바로 우메즈가 관동군 사령관을 할 때입니다.

여러 해 동안이나 인류를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 넣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반파쑈역량의 승리로 종결되였습니다.

우리는 숙적이었던 바로 그 우메즈가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패전의 슬픈 고배를 마실 때 우리는 항일혁명에서 승리하고 민족해방혁명의 새 역사를 창조한 주인공들이 되어 조국에 돌아올 차비를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공산주의사상의 발원지인 구라파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최전방이었던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이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국내의 형편도 좋았습니다.

조국이 해방되기 바쁘게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였습니다. 국내당조직에 망라되였던 혁명가들과 항쟁조직성원들이 핵심이 되어 도처에서 당단체와 군중단체 조직들도 내왔습니다.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도시들에는 해내외의 문예인들이 민족문화건설의 새로운 꿈을 안고 집결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무장자위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 항만, 철도 등을 스스로 보위하였습니다. 전민항쟁을 통하여 발양되였던 우리 인민의 구국열은 해방과 함께 건국열로 전환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당면과업의 견지에서 보나, 종국적인 목적달성의 견지에서 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매우 낙관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패망하였지만 반혁명은 혁명에 대한 공세를 단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본천황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후에도 일본군패잔병들은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착취계급의 대표자들은 지하에서 새 조국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과 불순이색분자들, 정치적 야심가들이 정체를 숨기고 당단체들과 인민정권기관들에 기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원동에 있을 때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미국군대의 진주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에는 두 대국의 군대가 동시에 진주하는 것으로 됩니다. 전패국도 아닌 우리 나라 땅에 다른 나라 군대가 둘씩이나 와서 주둔하는 것은 그 구실이나 명분여하에 관계없이 재미없는 일이였습니다.

갑오농민전쟁 때 일본과 청나라가 각각 우리 나라에 군대를 출병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민은 그들의 덕을 조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양군의 출병은 결국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고 이 나라 강산은 전란에 부대껴 황폐화되였습니다.

쏘미 양군의 주둔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장으로 될 수 있었으며 그 배경밑에서 우리의 민족 역량은 좌익과 우익으로, 애국과 매국으로

분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쟁이 성행하고 당파와 외세가 결탁하면 그 종착점은 망국으로 되는 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새 조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했습니다.

우리 혁명의 주체란 우리 인민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항일혁명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을 교양하고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에 참가한 수십수백 만에 달하는 항쟁대오는 즉흥적으로 전장에 뛰쳐나온 자연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해를 두고 가꾸어온 조직군중의 대오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혁명동지로 만들기 위해 100리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불속에도 뛰어들어갔습니다.

항일혁명의 전 노정은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광복성전의 1선에 내세워준 사랑과 믿음의 역사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자기의 피와 땀으로써 당당한 역사의 주체임을 과시해온 위대한 투쟁의 창조적 역사입니다. 이 인민과 인민혁명군의 투사들이야말로 새 조국 건설을 담당하게 될 우리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찾아낸 귀중한 진리입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국을 찾는 일이 어렵지 일단 찾은 다음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건국이야말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항일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처럼 우리는 새 조국 건설도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해내야 하였습니다. 건당, 건국, 건군은 물론, 민족경제와 민족교육,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를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이였습니다. 인민을 새 조국 건설에 불러일으키자면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혁명의 참모부가 있어야 하고 정권이 있어야 하고 새 사회 건설을 무력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견해에 기초하여 1945년 8월 20일 훈련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과업으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3대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도 토의하고 필요한 조직사업도 하였습니다.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제수행을 위한 소조들도 조직하고 파견지도 확정하였습니다. 강건, 박락권, 최광, 임철, 김만익, 공정수 등은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으로 떠나기 전에 소조성원들을 위한 강습을 여러 날에 걸쳐 조직하였습니다. 강습에서는 파견지에 가서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과 사업방법으로부터 각 지방 풍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취급하였습니다. 강의는 나와 김책, 안길 등이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강습이 끝나자 조국으로 빨리 떠나자고 졸랐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조국에 돌아갈 날을 그리며 동심과 같은 심경에 잠겨있었습니다.


선봉항

우리는 귀국할 때 아이가 달린 여대원들은 후에 귀국시키기로 하고 훈련기지에 떨궈두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쏘련군대와의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부대별로 제가끔 지정된 계선을 차지하고 전투행동에 진입하다가 불시에 일제가 무조건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헌

국내 각지에 낙하산으로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기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는 하바로프스크, 목단강, 왕청, 도문을 거쳐 육로로 조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하여 도중에 그 계획을 포기하고 노정을 변경시켜 배를 타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때 관동군패잔병들은 목단강 남쪽에 있는 차굴을 폭파하였습니다. 적들이 우회도로와 잇닿은 교량들과 목단강비행장의 활주로까지 파괴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다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단강까지 갔다가 원동으로 되돌아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군함을 타고 귀국의 길에 올랐습니다.

쏘련 제1원동전선군사령부의 한 대좌가 나를 호위하여 동행하였습니다.

함장은 나를 보고 중속으로 달려도 하루밤 하루낮 정도면 원산항에 배를 댈 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날은 파도가 심했습니다. 배의 양켠에 집채같은 파도가 솟아올라 갑판을 후려갈기군 하였는데 그 광경이 참으로 장관이였습니다.


홍명희

대부분이 바다에서 배를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어서 멀미 때문에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배에서 하루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에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배전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망망대해를 바라볼 때 이상스럽게 가슴이 뛰던 일을 좀처럼 잊을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열네 살 때 건느던 압록강과 조국의 일만강들이 해방열에 모조리 녹아 이 바다를 펼쳐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혈육들과 친지들, 동지들을 이국의 고혼으로 남겨두고 스무 해 만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희일비의 심정이였습니다.

우리가 원산항에 상륙한 것은 1945년 9월 19일이였습니다.

그때 부두에서 우리를 마중해 준 것은 원산시에 주둔하고 있던 쏘련군사령부성원들이였습니다.


여운형

그날 부두에 나온 조선사람들 가운데서 기억나는 인물은 그 당시 쏘련군대에서 군관으로 복무하고 있던 한일무입니다. 그가 강원도당위원장을 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쏘련군측이 우리의 움직임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부두에는 환영군중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훗날 허헌, 홍명희, 여운형을 비롯하여 우리의 개선을 전열에서 기다리고 있던 국내의 명망 높은 인사들은 우리가 원산항에 상륙했을 때 부두에 환영군중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리 선통이라도 할 것이지 행차를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하면 백성들 체면이 어떻게 되는가고 하면서 섭섭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원산시당의 이주하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허헌의 말이 우리 귀국일정이 사전에 공개되였더라면 서울역에 나와서 매일같이 우리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물론, 서울시민의 과반수가 도보와 기차로 원산땅에 쓸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야단스러운 환영을 조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투사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수천수만 날 전장과 교수대에서 바친 피와 노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조국땅에 들어서자마자 조선인민혁명군이 개선했다는 소문을 내지 않고 인민들속에 조용히 들어가 건강,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기초작업이나 해놓고 조국의 인민들에게 인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원산에 도착한 후 지방당일군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들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통감하였습니다.

나는 원산에 상륙한 날 적지 않은 사람들과 담화를 하였습니다. 원산시당에 가서 당일군들과도 담화하고 동렬여관에서 노동조합대표를 비롯한 지방유지들과도 담화하였습니다. 그 중 많은 품을 들인 것은 이주하와의 담화였습니다.

원산사람들과 담화를 하고나서 내가 받은 총적인 인상은 국내의 어느 당파나 어느 조직도 인민들에게 똑똑한 건국노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원산시당의 어떤 일군들은 쏘비에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진로에 대한 문제가 화제로 되자 사회주의 혁명을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은 원산시당청사 벽에 걸려있는 ≪공산주의기치아래 프롤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구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었습니다.

나는 그 구호를 보고나서 시당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노동계급의 힘만으로 새 조국 건설을 하려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야 공산혁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데 노동계급밖에 믿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1920년대 후기 우리가 종종 만나보군 하던 초기공산주의자들과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이였습니다. 스무 해가 지나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런 목소리를 다시금 듣게 되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견이나 주의주장에서는 특별한 진보도 없었고 새로운 시국의 흐름에 발을 맞추려는 진지한 모대김도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원산시당일군들에게 ≪공산주의기치아래 프롤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고 한 시당청사의 구호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당면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만큼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로 바꾸어야 한다,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면 노동계급 뿐 아니라 그 동맹자인 농민은 물론, 새 사회건설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애국적인 군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워 거족적인 힘으로 우리 나라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원산시당사람들과의 담화는 저녁식사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말을 시키는 바람에 나는 자리에서 좀처럼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수행해서 서철이와 함께 시당에 따라갔던 김익현은 나에게 다가와서 자정이 다됐다면서 산에서도 노상 밤을 밝혔는데 해방된 조국에 와서까지 밤을 패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익현에게 나라는 해방됐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진지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원산시당일군들과의 담화는 귀국 후 내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내인사들에게 건국노선의 틀곽을 그려보인 조국에서의 첫 대화였습니다. 나는 그날 우리 나라에 세워질 정권형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하였습니다.

이주하를 비롯한 원산시당일군들, 원산의 유지들을 만나보고나서 나는 우리가 8.15해방 후 즉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내용으로 하는 새 조선 건설의 이정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마련한 기초우에서 조국행을 한 것과 조국에 발을 들여놓는 그 길로 지정된 파견지로 떠나갈 결심을 한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원산에 도착한 다음 지체하지 않고 함경남북도에 가서 사업할 소조들 중에서 그 일부를 북행열차에 태워 현지로 떠나보냈습니다. 같은 날 철원방면을 담당한 동무들도 남행열차를 따고 파견지로 떠나갔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초와 역경을 다 겪으며 혁명을 위해 청춘을 깡그리 바치면서도 한뉘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루의 휴식도 주지 않고 파견지로 떠나가라고 재촉하자니 사실은 나도 마음이 가

만경대갈림길

볍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원산항에 상륙한 그날은 추석전날이였습니다. 원산에서 추석이나 쇠고 피곤이나 푼 다음 전우들을 파견지로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절박한 국내형편을 보고는 그 미련마저도 털어버렸습니다. 원산을 떠난 함남북방향의 소조들은 열차안에서 추석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열차는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가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파견원들속에는 김책도 있고 안길도 있고 최춘국, 유경수, 조정철이도 있였습니다. 그들은 나와의 작별을 몹시 서운하게 여기였습니다.


조정철

나도 역시 허전하였습니다. 항일전쟁 때 중상을 당한 최춘국과 조정철이 어깨를 겯고 다리를 절름거리며 열차승강대에 올라 나를 향해 손을 저어줄 때는 마음이 순편치 않았습니다. 마취제주사도 놓지 못하고 강짜로 수술한 그 다리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전장과 가시덤불길을 누벼왔습니까.

최춘국과 조정철은 해방된 조국에서 몇 해 동안 전상자대접을 받으며 항일전장에서 쌓인 피곤을 풀어도 될 사람들이였습니다.

하건만 그들은 그 피곤을 풀 몇 시간의 여유도 없이 웃으면서 북방의 파견지로 떠나갔습니다.

앞에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생소한 봉우리들과 고개들이 놓여있었습니다. 그 봉우리들과 고개들을 넘자면 피와 땀을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항일대전도 전인미답이였지만 새 조국 건설도 초행길이였습니다. 그 길이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앞에 둔 어려운 길이 아니라면 그처럼 서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는 김책에게 짬이 생기거들랑 고향에 꼭 찾아가보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최춘국과 유경수, 조정철, 이을설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모두 함경남북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파견지에 갔다가 평양으로 소환되어올 때까지 그들은 모두 고향에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무들은 내가 강선제강소로 갈 때 고향집에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경대갈림길에 대한 노래를 지어부르고 있지만 사실 항일혁명투사들은 개선후 누구도 고향에 가보지 않고 건당, 건국, 건군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고향에 갈 권리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투사들의 사고방식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국땅을 밟은 첫날부터 인민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투사들은 백두산에서 메고온 신들메를 풀 사이도 없이 새 전구로 속속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네가 차지할 파견지를 하나의 작전지역처럼 여기였습니다. 우리의 조국개선은 개선이라보다 혁명의 새 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적 이동과 같은 것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 9월 20일 나는 서해지구에서 사업하게 될 동무들과 함께 평양행 열차를 타고 원산을 떠났습니다.

북조선주둔 쏘련군사령부대표가 우리를 마중하느라고 평양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부래산역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국개선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9월 22일 오전에야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훈련기지에 떨어졌던 여대원들은 그 해 11월 말경에 함경북도 선봉쪽으로 해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김정숙**은 청진에 오자마자 전화로 나에게 도착보고를 하였습니다. 일행은 안길, 최춘국, 박영순을 비롯한 청진파견조 성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위한 대중공작을 정열적으로 벌려나갔습니다.

청진에 머물고 있던 **김정숙**은 청진제철소와 고무산시멘트공장, 부령야금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문화기관들도 살펴보고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정치사업도 하였습니다. 그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가정부인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뿐 아니라 나어린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청진시민들이 그때 **김정숙**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새길신문≫은 1면에 ≪**김**여사의 반생≫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혁명활동을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북방의 도시들에서 겪은 체험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그는 평양에 돌아와서도 얼마동안은 청진에 대한 말만 하였습니다. 그는 중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던 이야기와 자기네 일행을 위해 오찬을 마련한 나진면옥사람들의 후한 인심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린 **김정일**도 여대원들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개선에 대하여 보도한 새길신문

나도 평양에 입성한 다음날부터 전우들과 함께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내가 8.15해방 후 제일 바쁘게 보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개선 후의 사업에서도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 인민대중과의 사업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장과 농촌, 가두에 내려가 인민들을 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실과 숙소에서 백두산시절처럼 전우들과 침식을 같이해가며 국내외에서 나를 찾아오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국사를 의논하였습니다.

전우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고향에 가서 먼저 조부모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설복을 해도 내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임춘추는 나 모르게 슬그머니 만경대에 가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나그네처럼 행세하면서 가족들의 안부를 다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덕으로 나는 고향집소식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9월 말경부터는 무슨 경로를 타고 비밀이 새나갔는지 내가 평양에 와있다는 소문이 시내에 쫙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형록삼촌이 평남도당에 찾아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임춘추는 형록삼촌에게 조카의 특징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죄다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록삼촌은 ≪우리 조카는 본명을 김성주라고 합니다. 만경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낼 때에는 증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웃을 때마다 볼우물이 패이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날저녁 임춘추는 내가 거처하고 있는 집으로 형록삼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삼촌은 나를 만나자 ≪얼마나 고생했나!≫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역의 하늘밑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혈육들 생각에 스무해 동안 오는 바람 가는 바람을 다맞으며 마음을 썩이던 지난날까지 되살아올라 목이 메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삼촌으로서야 사실 기막힌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조카가 나라를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집을 지키느라고 형님과 형수



≪민족의 환호≫

님 영전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구만. 우리 가문사람들은 왜 그렇게 명이 짧을가.…≫

삼촌은 이런 말을 하고나서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말쑥하던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거칠해졌나, 백두산바람이 모질긴 모진 모양이야 하고 애달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거칠거칠해진 것으로 말하면 나보다 형록삼촌이 더 심했습니다. 스무해전보다 곱절이나 더 늙어보이는 삼촌의 모습을 보니 사실은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주름살이 그리고 많던지, 저 무수한 주름살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인생고초가 어려있을 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두산이 지척이라면 신이라도 삼아 조카네 군대들 뒤시중을 할 수 있었겠는데 스무해가 지나도록 이 삼촌은 아무 보탬도 주지 못했어.≫

형록삼촌이 이런 말을 하기에 나는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야 집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날 나는 형록삼촌과 온밤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야 삼촌을 만경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를 만나보았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삼촌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경대에 돌아가서는 할아버지에게 성주가 평양에 와있다고 가만히 귀띔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겠지, 백두산이 변하면 변했지 우리 성주야 변할 리가 있나. 지금 항간에서 ≪전라도 **김일성**≫이요, ≪함경도 **김일성**≫이요 하는 말들이 돌아가는데 아무려면 조선땅에 무슨 **김일성**이 그렇게 많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10월 9일 강선제강소를 돌아보고 그 후 당을 창건한 다음 10월 14일에야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조국인민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란스러운 환영군중대회형식을 통해 인민들과 상봉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인사들과 나의 전우들이 한사코 그런 큰 규모의 행사

를 주장하고 고집하였습니다.

내가 한 모임에서 김영환이라는 가명대신 본명을 처음으로 공개하던 날 누구인가 연단에 나서서 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거족적인 민중대회를 가지자고 제의하였습니다. 모두들 그 제의에 열광적으로 호응해나섰습니다.

그때 벌써 뒤에서는 평안남도당과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나를 환영하기 위한 행사준비가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행사전날에는 모란봉기슭의 공설운동장에 경축솔문과 가설무대까지 다 설치해놓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김용범더러 요란스러운 행사놀음을 벌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안남도당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마다에 우리가 평양에 입성했다, 14일 공설운동장에서 조선인민과 상봉한다는 글발들을 내붙이었습니다.



조국개선에 대하여 보도한 평양민보

1945년 10월 14일 정오가 가까워오는 때 행사장으로 내정된 평양공설운동장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거리에 나선 나는 광장과 대통로들에 차고넘치는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회장은 벌써 사람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밖의 나무꼭대기들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있었고 최승대와 을밀대 쪽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대회장 안팎을 휩쓰는 그 환영의 열파를 타고 나는 군중이 환호를 울릴 때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답례하였습니다.

그날의 군중대회에는 쏘련 제25집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상장과 레베제프소장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날 여러 사람들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조만식이도 연탁에 나섰습니다. 그의 연설가운데서 청중을 웃기던 한 토막이 생각납니다. 그는 아주 건드러진 목소리로 조선이 해방되었다기에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내팔을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보았더니 아팠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팔을 꼬집는 시늉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연단에 나설 때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의 함성과 환호성은 고조에 달하였습니다.

그 환호성을 듣는 순간 나의 심신에서는 스무 해 동안 쌓이고 쌓인 피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었습니다. 민중의 환호성은 열풍이 되어 내 몸과 마음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10여만 군중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를 한 몸에 받으며 단상에 서 있을 때 나를 지배한 것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도 그려낼 수 없는 행복감이였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순간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민중의 아들로서 민중을 위해 싸웠다는 행복감, 민중이 나를 사랑하고 신임한다는 것을 느끼는데서 오는 행복감, 그 민중의 품에 안긴 행복감이었을 것입니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폭발한 민중의 환호성은 조국과 겨레를 위해 우리가 겪어온 반생의 간난신고에 대한 표창이고 답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답례를 나에 대한 인민의 사랑과 신뢰로 받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락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민의 사랑, 인민의 지지,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혁명가의 존재가치와 혁명가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떼놓으면 혁명가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르조아정책들은 돈으로 인민들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피와 땀을 바쳐 인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나는 인민이 나에게 주는 이 신임앞에서 감격하였으며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내가 한 연설의 골자는 민족대단결이였습니다. 나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애국성업에 이바지하자고,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이 땅우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 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군중은 하늘땅을 진감하는 박수와 환호로써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시의 신문 ≪평양민보≫는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 펼쳐졌던 정경을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평양의 역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찍이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 특히 대회를 역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 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 것이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늠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 환호로 숨막힐 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이니 장내는 열광적 환호로 숨막힐 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 때문에 소리없이 울음을 울었다. …군중에게 준 감동은 강철과 같은 것이어서 산야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가운데 ≪이 사람과 같이 싸우고 같이 죽으리라≫는 사람들의 결의는 눈에 보일듯이 고조되었다.≫

그날의 군중대회는 우리 인민이 새 조국 건설의 장도를 개척하는 행군의 첫 시작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 대회장에서 현양신삼촌어머니와 강룡석외삼촌도 만나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 주석단에서 내려와 삼촌어머니를 만나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군합니다.

한 몸의 건사조차 힘든 그 인파속으로 어떻게 비집고 들어왔는지 삼촌어머니는 내가 타고 온 승용차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석단쪽을 향해 막무가내로 나오는 삼촌어머니를 주도일이 차에까지 안내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삼촌어머니는 내 손을 부둥켜잡고 ≪조카, 이게 몇 해만이요!≫하면서 감격해하



개선역벽화

였습니다.

≪삼촌어머니, 큰 가문의 살림살이를 혼자서 맡아안고 얼마나 고생이 막심했겠습니까!≫

나도 삼촌어머니에게 짤막한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이야 산에서 싸움을 하며 지낸 조카가 더 했지, 춘하추동 뜨뜻한 구들에서야 무슨 고생이었겠소. 나는 이 운동장으로 오면서도 은근히 걱정했다우, 영감이 조카가 왔다고는 했지만 혹시 우리 조카가 아니고 ≪전라도 **김일성**≫이면 어쩌나. 그런데 연단을 쳐다보니 틀림없는 우리 조카가 아니겠소. 얼마나 기쁘던지…≫

삼촌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고나서 또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전우들도 다같이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삼촌어머니, 온 평양이 웃고 떠들고 춤을 추는데 이 기쁜 날 왜 자꾸 울기만 하십니까.≫

≪조카를 보니 형님생각, 아주버님생각이 나서 그런다우. 이런 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살아서 조카의 연설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들 하겠나.≫

≪삼촌어머니, 오늘은 삼촌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대신입니다.≫



고향 만경대에서 할머님과 상봉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그 말을 듣자 삼촌어머니는 내 가슴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삼촌어머니의 눈물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삼촌어머니는 친자매간보다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삼촌어머니가 우리 가문에 시집을 온 것이 15살 때였다고 합니다. 시집살림살이가 하도 가난해서 삼촌어머니는 처음에 우리 가문에 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시집에 정을 붙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삼촌어머니를 몹시 사랑해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삼촌어머니는 밭일을 해도 늘 같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밭김을 매다가도 쉴참이 되면 늘 잠이 모자라서 고달파하는 삼촌어머니에게 무릎베개를 베여주고 잠간이나마 눈을 붙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잠에 든 삼촌어머니의 머리를 조용히 빗어주군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삼촌어머니이니 우리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안도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영전에 절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 무척 애달파하였습니다.

삼촌어머니는 이 못난 게 백이 된들 어찌 형님 한 분을 대신할 수 있겠소, 그렇지만 조카, 오늘은 형님도 혼이 되어 날아와 이 운동장에 계시는 것 같구만이라고 하면서 저고리소매로 눈물을 꾹꾹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다가는 웃고 웃다가는 울고 하면서 형록삼촌과 대판 다투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우뭉스런 영감이 글쎄 나도 몰래 혼자서 성안에 들어와 조카를 가만히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겠소, 여태 입을 가만히 봉하고 있다가 어제야 토설합디다, 그래서 내 한 바탕 야단을 쳤다우, 영감, **김일성**이 뭐 영감 혼자의 조카고 내 조카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들이댔더니 똥딴지같이 팔은 안쪽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 않는다나 하면서 한 바탕 왁작 떠들었습니다.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20년만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날 오후에야 나는 삼촌내외와 함께 만경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는 길로 해서 가지 않고 순화강 나루터에 승용차를 댄 다음 배를 타고 고향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감탕판에는 그전처럼 나룻배를 탈 때 발을 옮겨디딜 수 있게 징검돌들이 듬성듬성 박혀있었습니다. 내가 어린시절에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참게를 잡던 곳이였습니다.

그날 고향마을로 들어설 때 나를 맞아주던 다듬이방치소리와 만경봉의 다박솔향기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다듬이 방치소리가 왜 그리도 구성지고 그 다박솔향기가 왜 그리도 싱그럽던지 모르겠습니다. 갈매지벌쪽에서 소가 길게 영각을 울릴 때면 오래간만에 맛보게 되는 고향의 향취에 그만 목이 꺽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아버지 생각에 쪽잠마저 어설프던 유년시절이 어제같은 데 내 나이 어느덧 서른세 살이 되었으니 옛 사람들이 어찌 세월의 무정한 흐름을 일촌광음에 비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망국 40년만에 조국을 찾고 이향 20년만에 고향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조국과 고향을 위해 너무도 많은 세월을 바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 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노정을 걸으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였습니다. 잃기는 헐해도 찾기는 힘든 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 년, 지어는 수백 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이치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200여 년만에 독립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300여 년, 알제리는 130여 년, 스리랑카는 150여 년, 베트남은 근 100년 만에야 각각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으니 망국의 대가란 실로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잃은 설음으로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돌 한 개라도 더 주어다가 성새를 높이 쌓으라고 말해주군 합니다.

고향집을 찾던 그날의 풍경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자개바지를 입은 두세 살쯤 되는 사내애가 길가에서 우리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던 모습입니다. 그 별치않은 광경이 왜 그런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담한 향촌, 그 평화로운 세계의 한복판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태평스럽게 손을 저어주는 그 어린 것의 모습은 분명 새 조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삼촌어머니를 앞세우고 고향집 뜨락에 들어설 때는 가슴이 막 설레이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큰 광장처럼 넓어보이던 뜨락이 그때는 손바닥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무 해를 걸치는 간고무쌍한 행군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니 일만장강을 건느다가 뭍에 오른 심정이였습니다.

눈에 익은 고향집 추녀를 바라보는 순간 어린시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입김으로 언 손을 녹여주던 아버지와 어머니, 봄날의 낙화와도 같이 땅속에 묻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옛 모습 그대로 소생하여 ≪성주야!≫하고 소리쳐 부르며 달려나와 두 팔

을 크게 벌이고 나를 부둥켜 안은 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걸음을 선뜻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버선발바람으로 마당에 달려나온 할아버지는 나를 얼싸안고 ≪우리 장손이 돌아오는구나. …어디보자! 어디…≫하고 눈물속에 뇌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나를 만나자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앞에 평양에서 가지고온 술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서른 살이 넘도록 효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네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조선독립을 네가 해냈으면 그게 효도지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느냐.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면 그게 효도니라.≫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면서 가볍게 잔을 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웃음을 지으며 오늘은 술맛이 참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만은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도 어렵지 않게 잔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한 송구스러운 심경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너무도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생각이 잠시도 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 효도라고 한 할아버지의 말을 생각할수록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리사람들은 다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내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단리와 추자섬에서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찾아왔습니다. 소꿉시절의 나의 동무들도 음식을 해가지고 줄레줄레 모여들었습니다.

소박한 가족연회가 수십 명을 망라하는 군중연회로 번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여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김응우증조할아버지대부터 우리 집 신세를 많이지고 산 최노인도 ≪꽁니리타령≫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삼촌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꽁니리

자 장 가

약간 느리게 /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A F#m
1. 아 가야 자장 자장 어서 자거 라 아 가야—
D A B7 E A C#m
자 장자장 잘 두자누— 나 친 척에 는화목 동 부모님 센
C#m E7 F#m A B7 E
효자 동 사 랑있다 장 중보옥 능 할하 자 장

2. 아가야 자장 자장 열흔 소학교
아가야 자장 자장 벌써 중대학
박사동이 되어라 영웅동이 되어라
우리 나라 광복사업 능할하 자장

그날밤 나는 20년만에 고향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향집은 구들을 뜯어놓고 문도 채 달지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였습니다. 채 마르지 않은 구들에는 밀짚과 벼짚을 깔고 그 우에 멍석을 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집 사랑방에 잠자리를 정해놓았으니 오늘밤은 궁색한 대로 거기 가서 자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우리는 산에서 호강을 하다가 온게 아닙니다. 풍찬노숙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늘을 지붕삼고 초목을 이불삼아 덮고 살았습니다, 좋은 제 집에 와서야 왜 구차스럽게 남의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더니 희색이 만면해서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 집 사랑방은 물리겠다, 하기야 스무 해만에 찾아온 고향집인데 남의 집 사랑방신세를 진다는 것도 멋적긴 멋적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멍석우에 대를 두고 물려오는 무명이불을 펴주었습니다. 그 이불거죽은 우리 할머니가 무명낳이를 하여 만든 것이였습니다.

깊은 밤중에 할머니는 내 베개 밑으로 팔을 밀어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산에서 장가를 갔대지? 색시도 산에 있었나?≫

≪예, 나하고 같이 빨치산투쟁을 한 여자입니다.≫

≪아들애는 너를 닮았느냐?≫

≪닮았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됐다.≫



평양의 새봄

할머니는 그밖에도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팔이 아파할 것 같아 할머니, 내 머리가 무겁지 않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겁기야 뭘 하면서 내 목밑으로 팔을 더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서른이 넘은 손자를 위해 유년시절에 그래주었던 것처럼 팔베개로 내 목을 고여주는 할머니의 사랑이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습니다.

≪해방이 됐으니 이제는 만주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산소도 옮겨야겠다.≫

그것은 그날밤 할머니가 맨 마지막으로 꺼낸 화제였습니다. 할머니로서는 응당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타향의 진토속에 묻힌 자식들의 유해를 고향에 옮겨다 묻고싶어하는 그 심정이야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할머니, 천묘도 천묘지만 나한테는 그보다 먼저 찾아야 할 은인들이 있습니다. 연포리주막집에서 아버지를 빼돌린 황씨와 가둑령의 전주 김씨노인, 촉한에 걸린 나를 사경에서 구원해준 조씨노인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낸 다음에야 천묘도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러면 양지촌의 아버지도 좋아할게다.≫

나는 할머니에게 길림시절과 간도시절, 백두산시절에 나를 도와준 은인들과 전우들, 친지들에 대하여 밤새도록 말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이국의 산야와 타향의 이름모를 언덕받이에서 고혼이 되어 잠들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형권삼촌, 철주동생에 대해서도 추억하며 소리없이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도 소리를 죽여가며 간간히 흐느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열을 멈추고 내 팔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갔지만 그 대신 **정숙**이가 가문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리구 **정일**이가 태어나서 집안의 대를 잇게 되지 않았니.≫

나는 백두의 산상과 만주설원에서 겪어온 행적을 조용히 더듬어보며 나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얼굴도 그려보고 은인들도 생각하고 어린시절도 추억하고 우리가 건설하게 될 새 조국의 미래도 설계해보았습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스무 해만에 맛보게 되는 만경대의 밤, 그 밤은 참으로 평화로운 밤이였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국이 광복된지도 만 두 달, 그러나 3천만 조선민족은 그때까지도 해방의 열광속에 그냥 깊이 잠겨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천만 가운데 조국해방이 곧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낳고 그 분단과 분열이 근 반세기의 대국난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선문

김일성장군의 노래

보통속도로

작사 리찬, 작곡 김원균

1. 장 백 – 산 줄 기 줄기 피 어 린 자 욱
압 – 록 강 굽 이 굽이 피 어린 자 – 욱
오 늘 도자 유 조 선 꽃 다 발 우 에 력 력 히비 쳐주는
거 룩 한 자욱 아 ——— (후렴) 그 이 름 도 그 리운 우
리 의 장 군 아 —— 그 이 름
도 빛 나 는 김 일 성 장 군

2.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후렴)

3.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20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후렴)



만수대 동상




김일성
1994. 7. 7.



비오는 밤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만수대 언덕의 피눈물



비보를 받은 남녘의 인민들



비보를 받은 재일동포들


캄보자 앙코르 왓트 사원앞에서


아메리카의 노동자들


크리믈리의광장앞에서


파리의 거리에서


가슴을 치는 쿠바의 병사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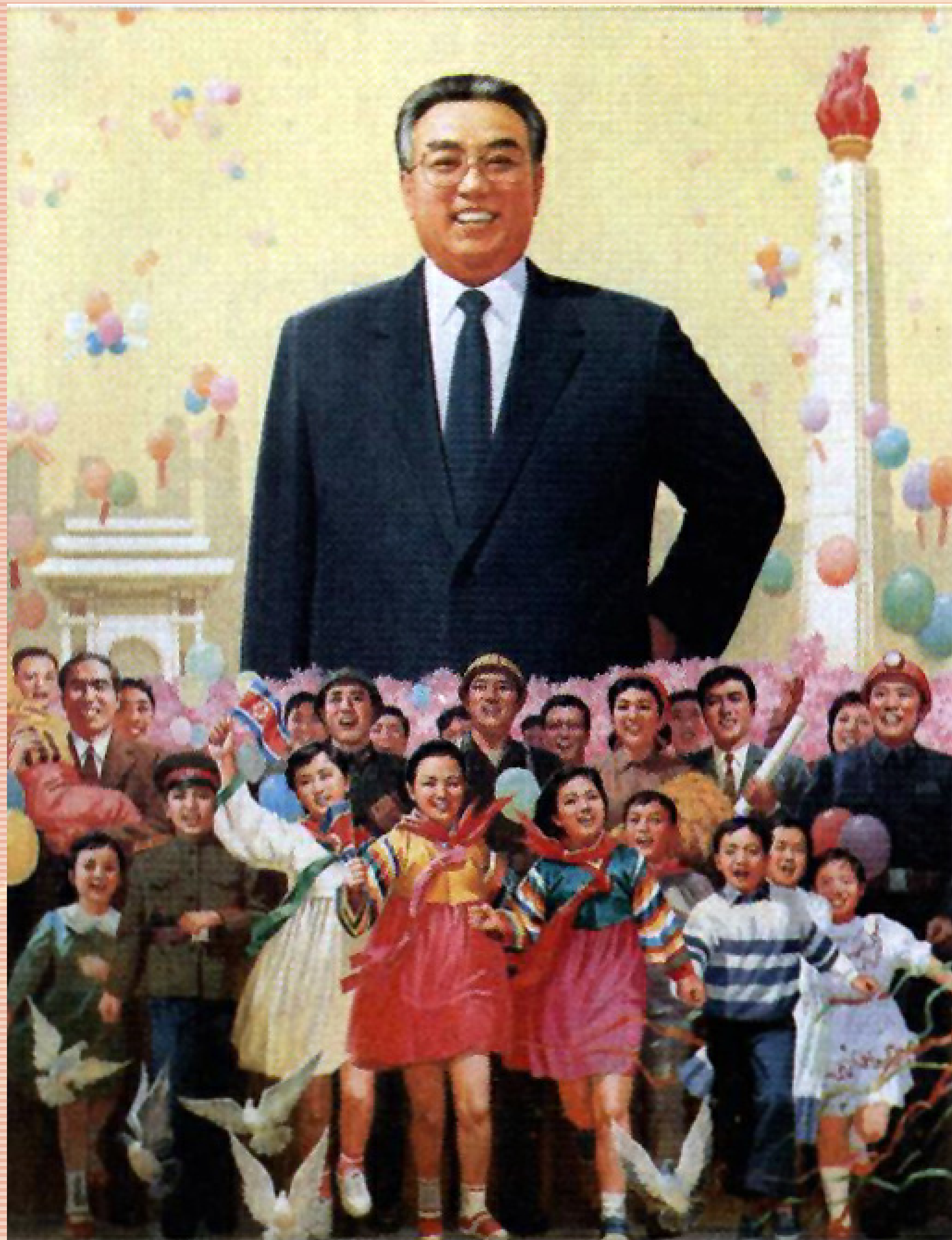

천안문광장의 조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금수산 기념궁전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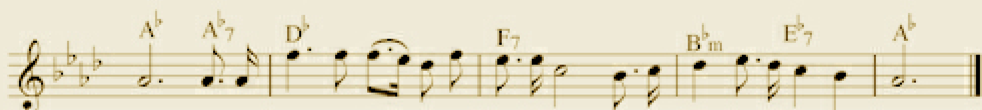
숭엄하고 장중하게 (♩=76) 작사 집체, 작곡 전정근



1. 한 — 평 생 인민위해 바 친 수 령 님 의 위대한사



랑 꿈결 에 도안고사는 마 음 오 늘 도 그품을 찾



네 위대 하 신수—령님 영 원히 우리 와 함께계 시 네

2. 한평생 조국 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2절반복)

3. 한평생 조국 위해 바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
이 조선 무궁하여라
위대하신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